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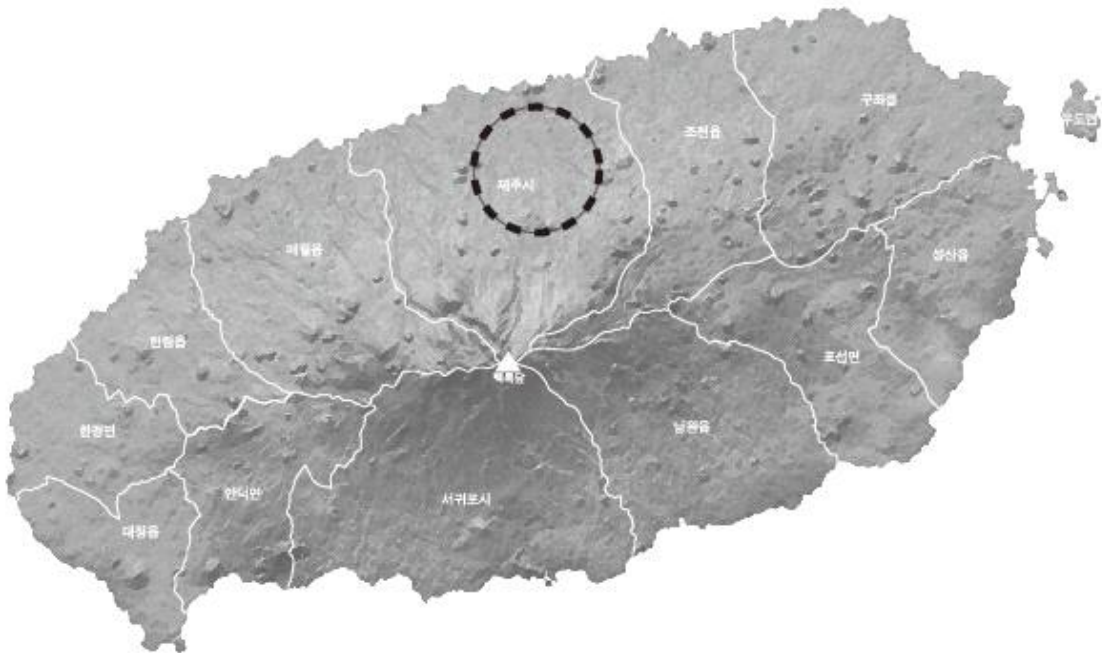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85-01

#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순자  
조사지점 제주시도련1동

# 1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

##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7
1.2. 사업 기간 .....	7
1.3. 조사 참여자 .....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9
1.5. 기대 효과 .....	9
제2장 제주시 도련1동 조사 내용	
2.1. 제보자 .....	10
2.2. 조사 기간 .....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	10
2.4. 전사 .....	12
2.5. 장비 .....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14
3. 밭일 .....	35
5. 바다일 .....	116
7. 식생활 .....	178
9. 신앙 .....	320
2. 제보자 일생 .....	24
4. 들일 .....	76
6. 의생활 .....	136
8. 주생활 .....	278
제2절 어휘	
1. 인체 .....	323
3. 친족 .....	336
5. 음식 .....	345
7. 생업 .....	359
9. 민속 .....	374
11. 자연 .....	378
13. 식물 .....	395
2. 육아 .....	330
4. 의복 .....	340
6. 가옥 .....	354
8. 수와 단위 .....	371
10. 신앙 .....	377
12. 동물 .....	385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제주시 도련1동 조사 내용

### 2.1. 제보자

양상수 (남, 1936년생)  
 이술생 (여, 1934년생)  
 이영숙 (남, 1925년생)  
 김옥순 (여, 1929년생)  
 이성칠 (남, 1937년생)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2. 제보자 일생 3. 밭일-보리 농사, 조 농사, 콩 농사, 밭벼 농사	양상수	02:02:20	○
2. 제보자 일생				
3. 밭일	구술 3. 밭일-밭벼 농사, 고구마농사, 기타 농사	양상수	00:26:12	○
4. 들일 1	구술 4. 들일	양상수	00:56:05	○
4. 들일 2	구술 4. 들일-말 기르기, 소 기르기	이영숙 양상수	00:35:41 (전사 22:00)	부분 전사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양상수 이슬생	00:33:33	○
6. 의생활 1	구술 6. 의생활	김옥순 양상수	01:20:00	○
7. 식생활 1	구술 7. 식생활 1-밥과 국	양상수 이슬생	00:35:29	○
7. 식생활 2	구술 7. 식생활 2 -죽류, 범벅과 수제비, 김치	양상수 이슬생	00:38:06	○
7. 식생활 3	구술 7. 식생활 3 -젓갈, 장아찌와 회, 장 담그기	양상수 이슬생	00:46:28	○
7. 식생활 4	구술 7. 식생활 4 -떡류, 소와 고물, 별식, 기타	양상수 이슬생	01:24:39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구조, 초가 지 붕 이기, 연장 9. 신앙	이성칠 양상수	01:23:35	○
9. 신앙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양상수 이슬생	01:31:00	×
11. 놀이 1	구술 11. 놀이 1-연~숨바꼭질	양상수 이슬생	00:44:10	×
11. 놀이 2	구술 11. 놀이 2 -실뜨기~한다리 인다리	양상수 이슬생	00:53:27	×
12. 통과례 1	구술 12. 통과례 1 출생 1	양상수 이슬생	00:15:25	×
12. 통과례 2	구술 12. 통과례 2 출생 2~상례	양상수 이슬생	01:30:50	×
12. 통과례 3	구술 12. 통과례 3 제례	양상수 이슬생	00:31:39	×
13. 민간요법 (음성)	구술 13 민간요법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양상수 이슬생	01:35:10	×
14. 경험담, 속 담, 금기어 듣기(음성)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양상수	00:09:53	○
	어휘 1. 인체 2	양상수	00:31:38	○
	어휘 1. 인체 2 2. 육아 발달, 재롱과 놀이	양상수	01:12:47 (녹음)	○
2. 육아	2. 육아 1 발달, 재롱과 놀이	양상수		○
	어휘 2. 육아 2 생리와 질병	양상수	00:26:30	○

3. 친족	어휘 3. 친족	양상수	00:41:45	○
4. 의복	어휘 4. 의복	김옥순 양상수	00:53:26	○
5. 음식	어휘 5. 음식 1 주식 부식 별식	양상수	00:53:14	○
	어휘 5. 음식 2 부엌과 그릇 1	양상수 이슬생	01:03:26	○
	어휘 5. 음식 3 부엌과 그릇 2	양상수 이슬생	00:14:00	○
6. 가옥	어휘 6. 가옥	이성칠 양상수	01:06:17	○
7. 생업	어휘 7. 생업 1 농업 1	양상수 이영숙	01:14:28	○
	어휘 7. 생업 2 농업 2	양상수	01:55:43	○
	어휘 7. 생업 3 어업, 기타	양상수	00:38:58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어휘 9. 민속 1 통과의례 1	양상수	00:36:14	○
9. 민속	어휘 9. 민속 2, 통과의례 2, 세시풍속	양상수	00:27:46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양상수	00:12:15	○
11. 자연	어휘 11. 자연 1 들, 바다	양상수	00:22:30	○
	어휘 11. 자연 2 시후, 방향, 날씨	양상수	00:43:25	○
12. 동물	어휘 12. 동물 1 가축	양상수	00:45:24	○
	어휘 12. 동물 2 벌레와 곤충	양상수	00:16:43	○
	어휘 12. 동물 3 들짐승 날짐승 바다 동물	양상수	01:03:05	○
13. 식물	어휘 13. 식물 1 풀, 꽃	양상수	01:30:31	○
	어휘 13. 식물 2 나무, 열매, 바다식물	양상수	01:49:40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

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 제1절 구술

(@: 김순자 #1: 양상수 #2: 이술생 #3: 이영숙 #4: 김옥순, #5 이성철)

#### 1. 조사 마을

101001 @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련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라 예? 이 마을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던 현 말 알아지는데로 알아줍서.

101001 #1 예, 그건 한 칠백년 전에 이제 그 설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01001 @ 예, 제주도말로예, 삼춘?

101001 #1 예. 칠백년 전에 설촌이 됐었는데 이제 그루후에 이제 성씨들이 여러 성씨들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흔 팔십여 성씨. 경 돼서마씀.

101002 @ 예. 그러면은 칠백년부터 허는데 설촌할 때 어떤 성씨들이 헛덴 말도 이신가마씨?

101002 #1 잠깐. 이제 유씨.

101002 @ 예.

101002 #1 김씨.

101002 @ 예.

101002 #1 또 강씨.

101002 @ 예.

101002 #1 그 다음 양씨. 고씨. 마 대략적으로 요런 순서가 됩서양.

101002 @ 예. 계문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느 성씨가 쥔 하우파? 요즘 은, 요즘 도련?

101002 #1 요즘은 역시 김씨, 고씨 이제 그렇게덜 있어난디 이제 그 사방으로 이 젊은 사람이 전부 떠나부러놓니까 모든 성씨가 골고로 그자 많토 아녀고 족도 아녀고 그자 경 잇어 돼서마씀

101002 @1 이젠 성씨가 아까 뭐 몇 가지지?

101002 #1 흔 팔십.

101002 @ 팔십여 성예. 그.

101002 #1 그것도 그 성씨가 내가 그전에 반장을 헤봤는데.

101002 @ 예.

101002 #1 반장을 여기서 여기 도련에 일반인디 여기가.

101002 @ 예.

101002 #1 우리반 귀역만 조사해 보니까 한 이십여 성씨가 되니까, 아 이젠 그것에 추미가 부편. 또 뜯 반에는 어떤 성씨가 잇나 해서 영 그 저 수소문헨 보니까

흔 팔십 여 성씨가 돼연애.

101002 @ 그런.

101002 #1 상당히 많은 성씨 가졌는데 기씨같은 분들은 에 대개 그 여자어른덜이 왔다가 이제 가버리니깐 지금 현재 남자로서는 없는 거 같고.

101002 @ 그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가 도련일동 아니우까예. 여기가 옛날 이름 뭐라마씨?

101002 #1 도련드르.

101002 @ 지금 도련드르는 계면 몇 명 정도 살고 있고 아까 일반이라고 했는데 몇 개 반으로 형성되었는지.

101002 #1 지금 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몇 명이 산다는 건 건 확실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 도련드르에만 사는 그 분들은 한 백삼십여 호.

101002 @ 아아.

101002 #1 예. 흔 백설남은 호가 이제 살고 있고.

101002 @ 옛날 어른덜예?

101002 #1 옛 어른덜. 인제 그 외에 현재는 이 아파트나 또 이 저 빌라들이나 이렇게덜 많이 와 놓니깐 거기에 그 온 어른덜은 우리가 얼마가 사는 지 걸 모르커라마씨.

101002 @ 옛날 전통적으로 쪽 내려온 분들이 한 백삼십 여호고예. 아까 받은 몇 개로 구성된마씨? 옛날 요즘 사름덜 말고.

101002 #1 옛날은 여덟 개 반양.

101002 @ 여덟 개예. 으.

101002 #1 여덟 개반.

101002 @ 또 자연마을덜도 이신가마씨? 웃동네니 알동네니 허는 식으로?

101002 #1 여긴 동카름 중동네 셋동네.

101002 @ 예.

101002 #1 동부락 중부락 서부락.

101002 @ 음.

101002 #1 예.

101004 @ 그러면 세 개 부락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라예. 예, 알아수다.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도련드르 주변에 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내창이라든가 아니면 바위 굴헤갓고 유명한 거 요런 것들 좀[쫘] 글아줍서.

101004 #1 이제 그런 것은 이 서쪽에 삼수셋내는 이제 항몽시대에도 거기서 이제 싸움을 했다는 그런 그 구전이 있고.

101004 @ 예.

101004 #1 입으로 전해.

101004 @ 삼수새?

101004 #1 으, 삼수샛내에서. 그 향몽 그 당시 예, 김, 김수 장군. 아, 김.  
101004 @ 김수.  
101004 #1 김수 장군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저 밀엿 동네 밀에에서 으 삼양삼동 가까운 디서 싸움했다는 그런 그 구전이 잇는가 하면은  
101004 @ 예.  
101004 #1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입으로 전하는 말이니까.  
101004 @ 예예.  
101004 #1 지금 그렇게 되고. 다시 잠깐이.(쪼끔 거세기 해근에 중단 쪼끔)  
101004 #1 지금 벤밭이라고 하면은.  
101004 @ 예.  
101004 #1 동쪽으로 나가민 거기서는 옛날 그 옆에 망내미동산이 잇는데.  
101004 @ 예.  
101004 #1 망내미는 그 저 옛날 사형수, 사형허던 사람.  
101004 @ 예.  
101004 #1 경헌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허고, 벤밭은 이제 사람 그 목을 잘라난 곳이 아닌가.  
101004 @ 음.  
101004 #1 그리고 그 숲에 마 아까 고 동장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 묘 조사도 해봤는데, 무덤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숲에 무덤덜이 켈장히 많아. 지금은 과수원해서 전부 그 무덤이 없어져부러지마는.  
101004 @ 으, 전에예?  
101004 #1 예전에 이제 즉 말하면 한 칠십년대초  
101004 @ 예.  
101004 #1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조사해 보니까 거기 무덤도 많고 허니까, 그 다시 새나물이라고 해서  
101004 @ 음.  
101004 #1 그 도련을 이렇게 다스리는 밖에,  
101004 @ 예.  
101004 #1 물인 거 같아. 새나물헌 게. 벤방 벤방 새자[짜] 놔가지고. 생수니 뭐니 지금 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변방 새짜로 변두리에 잇는 물이라고 해서 이제 새나물이 아닌가.  
101004 @ 예.  
101004 #1 이제 그렇게 들고. 예 요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똑허게 이 저 마을, 마을로 들어오면은 이제 웃수영이라고 허는 곳이 잇는데.  
101004 @ 예.  
101004 #1 웃수영은 옛어른덜이 경기장.



101004 @ 음.

101004 #1 경기장을 이제 사전엘 훑아보면은 수영이 경기장입니다.

101004 @ 예.

101004 #1 경기장을 허면서 그 경기장을 수영을 받침해주는 것이 관동산[관동산].

101004 @ 예.

101004 #1 다시 저 앞동산.

101004 @ 예.

101004 #1 그 양쪽으로 이제 관람할 수 잇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잇고, 다시 그 앞에 저대왓이 잇고 베지왓이 잇고.

101004 @ 음.

101004 #1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저대왓은 그때 그 경기할 때에 그 경기하는 사름덜을 즐겁게 허기 위해서. (휴식 생략 )

101004 @ 계속 곱읍서.

101004 #1 음. 그 계난 저대라는 그 자체가 지금은 그런 그 저대가 뭐인고 요즘 사름덜은 헐 건데, 옛날 기생덜. 그 그날 놀이허는 사름덜을 상당히 즐겁게 허기 위해서 술자리 베풀어주고 이제 그 뭐 허던 것이고, 대지왓이라고 그러면은 그 뭐인가 그날 그 기록을 작성해서 이제 상부에 이제 보내던 그 밧으로 이제 생각이 돼는데. 이제 그 그리고 또 서쪽으로 또 오면은 에 원단이므루라고 헤가지고 이 새해 이 정월이 돼면은 그 마을이 편안함을 빌기 위해서 제를 모셨, 모셨던 곳이 잇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밑으로 와서 불미왓.

101004 @ 예.

101004 #1 이제 그 불무 모든 그 병기를 만들고, 다시 그 옆밧이 목, 목고왓[목고왓]. 목고왓은 무슨 밧인고 하면은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넣었든 그.

101004 @ 예.

101004 #1 무고. 무기고 이제 이런 밧이 잇는가 하면은 그 옆에 활대왓이라고 이제 그 활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던 대밧이 잇는데, 현재는 없지마는 그 대가. 다시 그 옆에 포수터라고 헤가지고.

101004 @ 음.

101004 #1 건 포수가 옛날에는 우리가 알 때는 포수 허면 꿩바치로 생각을 헛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총을 다루던 분들을 보고 이제 포수라고 옛날은 헛던 거. 거기에 살던 분이 수진무 벼슬까지 헤였고.

101004 @ 음.

101004 #1 수진무 벼슬까지 헤였고. 이제 다시 또 거기에 다시 안병대[안병대]. 지금으로 말허면 소연병장, 작은 병뒤 훈련 가르치던 곳. 또 그 밑으로 오면은 베리왓이 잇는데.

101004 @ 예

101004 #1 베리왓은 뭐이고 허면 지금 에 줄다리기 하던 밧. 뭐 옛 어른덜이 그 물코가 만이 라도 베릿줄 없으면 못한다.

101004 @ 예예.

101004 #1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베릿줄이라고 허는 건 우리가 즉 말허자면 그 줄달리기 허는 그 줄을 말허는 거. 그리고 예, 그 바로 율밧이 담든밧. 이 즉 말 하면 돌 들르는 거. 그런 그 저 경기덜이 순, 이 도련들 안넨 이 경기장으로 짝 차 있어.

101004 @ 음.

101004 #1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베리왓,

101004 @ 예.

101004 #1 아 저 거세기, 베리왓이 아니고 수위집터.

101004 @ 수위집터.

101004 #1 으. 게문 저 뒷동산에 이제 수위집터가 있는데 수위집터 그 경비허는 사름덜이 살면서 거기에 사방을 그 살피던.

101004 @ 예.

101004 #1 스방데레 베리던 경헌 이제 터. 다시 그 옆에 가면은 굴동산이라고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고.

101004 @ 음.

101004 #1 게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난 것도 같고. 그것도 없고. 다시 또 이 동쪽으로 돌아오면은 절왓이 잇는가 하면은 그 절왓은 에 서 목사.

101004 @ 예.

101004 #1 이 김녕 뱀을 죽인.

101004 @ 서 목사.

101004 #1 그때에 그 절을 없애는데 에 거기 절간도 같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101004 @ 음.

101004 #1 켄디 그때 절이 같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 옆에 서와기동산이라고 이제 그 어린아이덜을 이제 글 가르치던 동산. 반반허고 사방 보기 좋고 뭐 허니깐. 그런 그렇게 똬고, 다시 수용이왓이라고, 수용밧이라고 헤가지고 거기에는 노인덜을 모여서 이제 잔치허고 뭐 헛던 그런 그 밧. 또 저 우로 이제 남쪽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그 차례로 넘어오지 못허고 냉겨부러는데 미랭이왓이라고 허는데, 미랭이왓을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그 난리나 어떠한 그 부락에 그 좀 좋지 아년 그런 일이 잇을 때 노인들을 이제 그쪽으로 전부 모여서 수용헤서 어르신덜랑 여기 가만이 시민 우리가 싸움을 허쿠다 경 허던 곳.

101004 @ 음.

101004 #1 이제 그런 또 옆에 거옥대밧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옥, 거옥이란 것은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허듯이 그런 그 나무를 이렇게 세와가지고 거악대라고 해서 이 곳인 거 오는 걸 이제 막던 곳.

101004 @ 예.

101004 #1 이제 지금 더는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101004 @ 예.

101004 #1 이제 다 말을 못하겠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요 정도.

101004 @ 게든 삼춘, 아까 이제 원단이므루렌 헤지 아녜수가예? 원단이므루렌에서 제를 지낸텐 허는데 지금도 거기서 제를 지냅니까?

101004 #1 아닙니다. 아니우다. 원단이므루에는 그 묘덜토 써버리고 뒤희니깐 이젠 마을회관에서 이제 켈 지내고.

101004 @ 예.

101004 #1 그 옆에 이제 그 사삼 위령. 그 한 백 메다 이제 동쪽으로 사삼위령비가 세와 잇고 거기에 당.

101004 @ 예.

101004 #1 이 저 분향당.

101004 @ 으음.

101004 #1 분향당이 거기 잇고. 원래 분향당이 먼저 이젠 마을을 설립할 때에 분향당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 옛 어른덜이 여기에 마을을 세우니깐 여기에 이제 보살피 주십사 헤가지고 그 분향당에 이제 그런 그 지엿는데, 거기가 그 땅이 좋아서 이제 그 사삼위령비도 거기 그 옆에 공지가 잇고 허니까. 같이.

101004 @ 그 아까 말할 때 그 거옥대 잇엇던데예, 거기는 답은 엇어마씨? 옛날에 답들도.

101004 #1 답 이렇게 그 둥글렁허게.

101004 @ 예. 탑 식으로.

101004 #1 그 저 아니 답은 엇고. 둥글렁허게 영 그 저 돌 다완에 그 가운데 이제 그 큰 낭을 이제 세웠던 곳이고. 거옥대가 거기하고 저 삼수셋내 거기하고 이제 두 군데 거옥대가 잇엇고.

101004 @ 지금도 거옥대가 남아 잇는 건 잇잖으파? 탑은예.

101004 #1 엇어.

101004 @ 돌탑은 엇수가?

101004 #1 엇어. 싹 밀언에 과수원덜 다 뒤희니까.

101004 @ 지금은 어렸을 때는 봐난마씨?

101004 #1 어렸을 땐 봐난.

101005 @ 알아수다. 혹시 이 마을에는 그 기관덜예.

101005 #1 예.

101005 @ 기관들은 어떤 게 이신고예? 도련에 기관 잇텐 허면은.

101005 #1 도련에 기관 잇텐 허면은 뭐 우선 지금 마을 마을회장이 잇고, 청년회가 잇고, 부녀회가 잇고. 또 옛날은 농사구락부, 농사구락부랐는데.

101005 @ 예.

101005 #1 지금은 농, 이 저, 농촌지도자협의회.  
101005 @ 예.  
101005 #1 예, 그게 존재했다가 그, 이제 그건 많이 없어졌고.  
101005 @ 예.  
101005 #1 지도자협의회는 많이 없어지고 이제 그 나무지는 사에치도 지금은 없어져분 거 같고요. 지금 이제 독서실 남아 있고.  
101005 @ 예.  
101005 #1 이제 경로당이 있고, 이제 마을회관이 있고 이제.  
101005 @ 그 저 다른 기관들은 었어예?  
101005 #1 다른 기관덜은 었수다.  
101006 @ 혹시 예전에는 이 마을 일들 허젠허면은 접덜이 하나지 아녀우과예, 제, 제. 이 마을에는 어떤 제들이 잇어나신고예?  
101006 #1 이 마을에는 목, 예 주로 목장제[제].  
101006 @ 음.  
101006 #1 목장제가 이 우마를, 이 소 말을 키우기 위해서 목장제가 잇었고, 다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천, 이 장막이라고 허카. 천막을이.  
101006 @ 예, 예.  
101006 #1 장막제[제] 그런 게 잇고. 또 그, 그 전에는 다시 저 씨집 장계가젠 허면 이 가마.  
101006 @ 예.  
101006 #1 가마제덜이[가마제덜리] 잇었고, 이제 대개 그 정도밖에 모르겠네.  
101006 @ 음, 목장제[목짱제], 삼춘 목장제도 해봣디가?  
101006 #1 예.  
101006 @ 목장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마씨?  
101006 #1 목장제는 어느 한 부위가 회천 간 목장을 사가지고 이제 흔 만 멧 천 평 그 사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거기 가서 놔가지고 맥이고,  
101006 @ 음.  
101006 #1 우말 기르고.  
101006 @ 예, 그런 식으로 허는 거라예? 그런 제는 게믄 멧 개 정도 이 마을엔 잇어신고예?  
101006 #1 한 두 개 정도. 동 동쪽마을 서쪽마을 헨에.  
101006 @ 음.  
101006 #1 두 개 정도 잇었고.  
101006 @ 목장제는예? 아까 장막제 같은 경우는?  
101006 #1 장막제도 흔 두 개.  
101006 @ 예.  
101006 #1 동서로.

101006 @ 그렇게 막 크지는 안 허난예, 가마제 이런 것도 헤 봄디가?  
101006 #1 아니 그건, 저 우리가 어렸을 때에.  
101006 @ 예.  
101006 #1 나도 우리집사람도 가마 탄 왔주마는.  
101006 @ (웃음) 가마, 가마제가 있었고.  
101006 #1 아주 도련서 마지막으로 타서.  
101006 @ 아, 옛날 그 사진 찍은 것도 잇수과?  
101006 #1 그걸 찾지 못헐 그냥 이 방송국이나 어디서 지제 그걸 그냥 상당히 뒤했는데 여기 집수리하고 조금 이사허연 다니고 다시 뒤했단 보니까 다시 들어완 뒤했 허고 어디야 가부럿는지 그거 그냥.  
101006 @ 사진은 쳐신디.  
101006 #1 사진, 사진 싹 엇어져부런.  
101006 @ 아,  
101006 #1 어디서 떨어져부런.  
101007 @ 기구나예. 이 마을에 풍습이라고 하면 어떤 풍습들이 독특한 풍습인 고예?  
101007 #1 이 마을에 풍습은 지금 이제 경, 경로를 생각헤야주양.  
101007 @ 예.  
101007 #1 경로, 웃어른을 그 역시 도리를 이제 받아서 큰 사름이니까.  
101007 @ 예.  
101007 #1 그 웃어른을 섬기고, 이제 잘 그 거기에 이제 적응하도록히 후배에게 도 가르키고, 그러지마는 이 새 사름덜이 자꾸 들어와놓니까 으, 문 범벅덜 뒤했.  
101007 @ 예, 맞수다.  
101007 #1 무시겨 경.  
101008 @ 아까 그 저기서도 얘기헐수다마는 풍습 중에 비베는 거, 멘촌이면은 이제 구덕 줄는 거예, 이런 것도 좀 곱아줍서?  
101008 #1 얘기구덕은 예 도련이 옛날 그 목사가 와도 도련 와서 얘기구덕은 사 가낫젠 허여.  
101008 @ 아아.  
101008 #1 쨌 춤 그 제주도 안네서는 얘기구덕 만드는 것은 도련이 쨌고로 그 곱앗고, 곱게 만들엇젠 든든허고 곱게 만들엇젠. 경허고 그 다음에 빗자루는[비짜루는].  
101008 @ 예.  
101008 #1 그 아주 옛날부터도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 우리 그 뭐 그 수입을 의 존, 아 저 이 돈을 벌기 위한 그 뒫에 이제 도련 그 고씨어른이 일본에 가가지고.  
101008 @ 예.  
101008 #1 가만이 보니깐 그 빗자루가 들어와서 거기서 잘 팔리고 일본에서 허

는, 그걸 보니까 이제 상당이 그 저 동네에 가서 이걸 배포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으니까 역전을 가서 기다려서, 아, 그게 아니고, 상점에 가서 들어도 일체 말을 안 해줘 일본 사름이.

101008 @ 으음.

101008 #1 어디서 이걸 만드느냐고 해도 이제 말을 안 해주니까, 이젠 그 분이 역 그 기차역을 간 직힌 거라. 기차역을 직혜연에 보니까 거기서 이젠 빗차구 가전 완시난 어디에서 이게 나오고 어디에서 뭐 허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길 찾아간 거야. 거길 찾아간에 메칠 살면서 그 빗차루 만드는 걸 배웁고,

101008 @ 예.

101008 #1 게니까 옛날 여기 그 돛다리식으로 만든 건 그것이 더 이쁘긴 현대 거 굵게 만들민 상당이 예뻐 옛날식으로. 지금 시장으로 파는 그 비차락을 이제 일본서 전수 받은 환에 이제 그 씨를 다시 제주도 일원에

101008 @예.

101008 #1 각 면 읍에 이제 흔 가마니씩 씨를 보낸 거라.

101008 @ 음.

101008 #1 보냈는데 결국 남아난 곳은 도련밖에 안 남아나고, 사삼사건 후에 우리가 주 수입원이 빗차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많이 살았주예.

101008 @ 음. 그 비차락 저기 허는 그 대죽은 무슨 대죽해마씨? 여기서는.

101008 #1 비차룻대. 수숫대, 수수비.

101008 @ 음. 비대죽?

101008 #1 응. 비대죽.

101008 @ 비대죽예.

101008 #1 수수 비대죽.

101008 @ 나중에 한번 더 해보고예? 그러면 그게 이 마을 특산물.

101008 #1 특산물.

101008 @ 특산물이 그거 똤는 건가마씨? 이 얘기구덕허고.

101008 #1 예예.

101008 @ 아아. 그.

101008 #1 아 게난 송키구덕도 그것에 따랑은에 ㄴ치 멘들앗고 얘기구덕허고 그 구덕은 이 송키구덕은 겹혀연에덜 만들언.

101008 @ 음, 그러면 얘기구덕허고 송키구덕 그 즐앗던 거는 언제까지 헛수가?

101008 #1 큰 사삼사건 때까지 헤연. 사삼사건 때까지.

101008 @3 아니 삼년 전까지 그 할아버지가 헛는데돌아가섯어.

101008 @ 그거는 저쪽 동네? 그 사삼사건 전에는 이 동네 이제 남자어른들이 헛잖아예, 주로 남자어른덜이 한 거고. 비 메는 거는 언제까지 헤신고예?

101008 #1 비 메는 것은 지금, 지금도 흔 멧 어른이 메고 잇지마는 예 그 아주 왕성기라고 허까.

101008 @ 예.

101008 #1 그때는 한 굴나무 심어서 경허니까 육, 칠십 년대

101008 @ 예.

101008 #1 팔십 년대 그 왕성기가.

101008 @ 예. 요즘은 뭐 다 청소기도 다 나와불고 허난예.

101008 #1 청소기 나오고 역시 지금도 이 밖에 쓰는 건 빗자루고 좋고.

101008 @ 예.

101008 #1 밖에 쓰는 건.

101008 @ 아, 게난 그 빗자루허고 아까 이제 애기구덕이 우리 여기 특산품이렌.

101008 #1 송키구덕이.

101008 @ 송키구덕하고예. 특산품이고. 요즘 굴 같은 것도 특산품 아닌가마씨?

101008 #1 굴 특산품입주. 저 우리, 우리를 살리고 잇는 거니까. 굴 아니면 살 수가 없지. 웃음.

101008 @ 이 마을에 그러면은 여기 대부분에 옛날 어른들은 다 농사짓는다고 보민 돼지예? 그 분들이 전부 굴농사를 험신가마씨?

101008 #1 예, 거즘. 이제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그걸 헤줘야 될 건데, 젊은 세대들은 다 직장 따라 나가버리니깐 이제 그분들이 연, 낫술이[나쌀]이 흥뎡 들어가 사 다시 돌아올 탭주.

101008 @ 예, 맞아예. 웃음.

101008 #1 경 아녕은 돌아오질 아녀울 거우다.

101009 @ 이 마을 자랑거리엔 허믄 뵤고예? 이 도련드르 자랑거리?

101009 #1 도련에 자랑거리엔 허면은 역시 그 경로사상이 좋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도리를 가리키니까 이 선생님덜토 많고.

101009 @ 으음.

101009 #1 다시 그런대로 이 학자님들토 잇고.

101009 @ 예. 여기는 마을끼리 이렇게 어른들끼리 화합이 잘되는 편입니까? 여기 도련은?

101009 #1 겐디 그 잘 뵤다 못 된다 허는 건 내가 혼 팔십 년 살고 보니까 스물네 시간에 받은 밤이고 받은 낮 아닙니까?

101009 @ 예.

101009 #1 경허난 음양이렌 잇어양.

101009 @예.

101009 #1 게난 그것이 잇어야 조화가 되지.

101009 @ 맞수다. 큰 싸움만 아니믄. 웃음.

101009 #1 그거 없영은 조화가 될 수 엇어.

101009 @ 알아수다. 웃음.

101009 #1 게난 아무리 나가 이제 좋은 사름이 뵤라고 엘 씨도 음이라는 게 잇

어놓니까 그 자식 그, 꼭 나쁜 데만 짚, 짚엉근앵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잇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 지혜를 갖추면은 아주 그 유도리 잇게.

101009 @ 예.

101009 #1 그걸 잘 넘기면은. 겨고 내가 항시 이얘기하는 것은 마,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만은 전생과 현생과 후생을 연결하면은 아무리 이제 악헌 사람이 와도 악혈 수가 없어요.

101009 @ 예.

101009 #1 건 왜, 그걸 깨달으면 나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걸 어르 날인가 걸 생각허니까 전생에 나가 그분을 얼마나 괴롭혀시난 현생에 완 나의 그 양갓음을 험 신고. 이제 나가 이 췌가를 곱게 받아야 다음 세상에 편한 이제 세상을 살것다, 요게 삽입이 되는 거라.

101009 @ 예.

101009 #1 경허민 사람들이 이 마음이 다, 이 다음에 결혼덜 허영 살아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 싸울 거 엇어.

## 2. 제보자 일생

101009 @ 알아수다. 이제까지는 이 마을 전체에 대해서 대강 여쭙봐서양? 이제 부터는 이제 어르신 개인에 대해서 쫘 물어보쿠다.

102001 #1 아이고, 웃음.

102001 @ 그 낳고 자란 그 과정예, 어렸을 때부터 쫘 대략적으로 이제까지 살 안보난 이렇게 살아져신게 허는 이런 말씀은 헤여줍서.

102001 #1 글쎄, 그 말이 그렇게. 책으로 엮어 보젠 헤도 그게 상당히 힘들도.

102001 @ 예.

102001 #1 것은 책을 만드, 그렇게 허다보니깐 책도 만드는 사름이 만드는 거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로구나.

102001 @ 예. 웃음.

102001 #1 허연,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그때에는 이 저 웃도 강알튼웃 스나이 덜은.

102001 @ 예, 맞수다.

102001 #1 예, 저 겨고 뭐 거즘 받은 나체덜 헤영 다녔으니까.

102001 @ 예.

102001 #1 이제 뭐 선생님덜은 그것덜을 안 봤을 거니까 이제 뭐허지마는, 우리가 나서 클 때는 그렇게 이제 컷는다. 이제 어르 정도 크니까 학교, 학교 간다고 해서 학교 가니까 이제 삼양 그뎨 삼양국민학교이.

102001 @ 예.



102001 #1 삼양국민학골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사삼이란 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사삼 때문에 이 우리가 공부할 것도 못 했수다.

102001 @ 예. 경험주게.

102001 #1 계난, 이젠 춤 국민학골 ㅁ천에 중학교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나도 못 가수다.

102001 @ 음.

102001 #1 못 간에 춤 막 늦언에 이제 다녔는데 늦어도 이 송죽학교엔 헨 잇어 낫수다.

102001 @아아.

102001 #1 서부교회에.

102001 @ 아, 송죽학교예.

102001 #1 송죽학교가 잇었는데, 그 학교를 다녔고, 이젠 그 그건 나대로 버을 면서.

102001 @ 예.

102001 #1 이제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때가 한 스무 살이 거즘 돼어서 마춤.

102001 @ 으음

102001 #1 스무살이 돼어서 중학생이 스무 설이 돼어서.

102001 @ 예.

102001 #1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일고가 생긴다고 헤가지고 무조건 일고에 가서 저 원서 들고고 이제 일고에 일년 다니니까.

102001 @ 예.

102001 #1 이젠 그땐 이제 낮에는 버을고 밤에는 학교 다녀야 하니깐 그 야간이 잇엇수다. 일고도.

102001 @ 예.

102001 #1 일고도 야간 잇었는데 일년 다니니까 학교 운영상 상당이 이제 쯤 힘드니까 저 상고로 이제 넘겨버린 거라.

102001 @ 음.

102001 #1 그 야간학생들을 일체, 또 주간에 갈 사람은 주간에 가고. 상고 그 강석범 교장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일 년을 다니니까

102001 @ 네에.

102001 #1 이제 영장이 나온 거지.

102001 @ 음, 나이 때문에예?

102001 #1 예. 나이 때문에. 이제 영장이 나오고. 이제 가서 갓, 이제 가서 삼년 살고 또 와서 복학을 허니까 이제 졸업허젠 돼니까 혼 스물일곱 돼불엇주.

102001 @ 음.

102001 #1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허게 돼니까.

102001 @ 예.

102001 #1 그 새에 쫘 일찍 결혼해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스무한 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학교에 다녀도 일체 아무도 몰랐어.

102001 @ 음.

102001 #1 학생덜은. 거 막 친헌 친구도 밖엔 나오면 장난을 허는데 뭐 결혼생활 그튼 것도 이제 장난허고 뭐했지마는 학콘 가면 일체 그 보장해 주니까, 그 친구들이. 게니까 쫘 요셋말로 왕따도 안 당하고 그런대로 곱게 잘.

102001 @ 웃음.

102001 #1 우리 집의 사름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주.

102001 @ 예. 고생헌 얘기는 우리 여자 삼춘한티 들어보른 잘 알쿠다예.

102001 #1 웃음.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섯마씨?

102002 #1 아버진 사삼에 돌아가섯수다마는

102002 @ 예.

102002 #1 저 이제 목수랐고.

102002 @ 예.

102002 #1 또 일일이 지금같이 그냥 목수허민 목술 그냥 뭐 혼 이백 일이민 이백 일 허는 게 아니고 가다오다 뭐 어디 집 지을 거나 잇으면 짓고 이제 문이나 헤달라면 허고 그 나먼진 또 밧농사허고.

102002 @ 예.

102002 #1 이제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섯고.

102002 @ 사삼 때 돌아가신 거마씨?

102002 #1 아부진 사삼 때 돌아가섯고 어무니는 한 멧 년, 한 십년 넘엇구나. 이제 혼 십 년 넘고.

102002 @ 게민 어머니는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시쿠다예?

102002 #1 예.

102003 @ 어머니 고향은 어디시우과?

102003 #1 명도암 광산집침.

102004 @ 아 아까, 웃음. 명도암이고예. 아버지는 원래부터 여기고예.

102004 #1 도련이고.

102004 @ 어릴 때 놀앗던 기억은 어떤 놀이허멍 노는 거 기억남수가?

102004 #1 어린 때는 이 그게 제기차기.

102004 @ 예.

102004 #1 활쏘기.

102004 @ 음.

102004 #1 이제 그 일본 사름들이 그 훈련 가리키는 거 봐서 그 전쟁놀이.

102004 @ 예.

102004 #1 그거 대개 이런 정도.  
102004 @ 음.  
102004 #1 그리고 그자.  
102004 @ 연날리기 ㄹ튼 건 안 허고 마씨?  
102004 #1 으.  
102004 @ 연날리기?  
102004 #1 연날리기야 당연이. 건 뭐 아이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노인덜까지도 다 연을 날렸으니까.  
102004 @ 음.  
102004 #1 게고 연 만드는 분덜은 그 혼 멧 분. 잘 만들어야 돼니까. 잘 떠야 잘 뜨게 만드는 사름은 그 잘 만드는 사름이니까.  
102004 @ 예. 게문 우리 삼춘은 연 잘 만드는 사람 축에.  
102004 #1 아니, 난 아무 것도 못허는 사람.  
102005 @ 웃음. 혹시 그 일제시대 때 공출헤난 것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잇수까?  
102005 #1 아이고, 공출 그냥 그건 말도 못헤서마썸.  
102005 @ 어떤 식으로 공출헨마씨?  
102005 #1 이제 자기 그 배당량을 못 바치면 그냥 그 관청에, 우린 어려부니까 와서 그냥 막 그 야단허는 것만 알지. 뭐 별 거세긴 나가 직접 느끼진 못 헛으니까.  
102005 @ 예, 뭐 어무니네나 아부지네나 곤는 소린 안 들어받마씨? 일제 때 어떤 공출허젠 허난 우리 막 저기 고생헛저.  
102005 #1 고생은 그건 경허난 그 감저 썰영근앵에 감저 주정 원료 헐라고 그 것도 바껴야 돼고. 이제 곡식은 곡식대로 바껴야 돼고. 경행 거 우린 다시 곡식 없으면 저 정의쪽디레 강근앵게 감저덜이 아마 정의쪽이 잘 돼여난 모양이쥬. 산남, 지금으로 말허면 산남.  
102005 @예.  
102005 #1 그쪽에 가서 사다가 먹으면서 연명허고.  
102005 @ 음, 먹을 쫄들을 부족허니까 감저 먹언 산 거라예?  
102005 #1 쫄부족허연.  
102006 @ 사삼사건은 직접 겪엇잖아예?  
102006 #1 예.  
102006 @ 어떤 아버지도 돌아가섯덴 허던데 많은 고생을 헤실 거 님는데예?  
102006 #1 말도 못허여마썸. 그건. 예 사삼 때에 불부찌는 것이 저 명도암쪽을 쥬 묻저 불 부찌수다. 저 명도암 차츰차츰 메칠 잇당 이 중간 이제 봉개까지 내려 오고, 그 다음 도련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그 군인덜.  
102006 @ 네에.  
102006 #1 이제 오면서 웨하르버지 그 명도암 불부찌버리니까 내려완 우리집에 딸네 집이니까 이제 머무르니까 와서 불 딱 부찌난 이제 그 먹을 걸 좀 내칠라고

허난 그냥 빵허게 하르버지 쏘아부니까.

102006 @ 아아.

102006 #1 하르버지 그냥 뭐 허고. 다시 나허고 어머니 잇으니까 어머닐 쏘아버리니까 어머니 바로 이 젓 우이로 맞앙 총이 이 두 사이로 나간 거라. 두 사이로 나간 허난에, 춤 우리가 고생을 덜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났지. 이제 그대로 돌아가실 걸로 알안에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하루 묵언 내려갔는데

102006 @ 으음.

102006 #1 하르버진 그날 즉시 돌아가버리고, 영딩이로 맞아서. 즉시 돌아가서 부리고 어머니 돌아가질 아녀니까 그대로 춤 이제 곁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만 직힌 거지. 돌아가시지 아녀니까 삼양으로 내려간 이젠 거기서. 이제 춤 그뻐 약도 없고 뛰허니까 아버지가 그때 어디 가서 과산화수소.

102006 @ 예예.

102006 #1 예, 그걸 가전 거 흔 반 병, 지금 오백 시시 흔 이백 오십 시시 정도 웬 걸 가전완 허니까 그걸로 그냥 앞뒤만 소독허는 거라.

102006 @ 으음.

102006 #1 뭐 딱 소독 해보도 아녀고.

102006 #1 예.

102006 #1 오래 흔 멧 들 살아가니까 그대로 이제 회복웨연.

102006 @ 으음.

102006 #1 이제 춤 우리 나 동생, 여동생허고 남동생 잇는데 남동생은 견도 못 허는 거 이제 그냥 그 기어 다닐 때에 이제 업언에 그냥 춤 동생 키우고.

102006 @ 예.

102006 #1 허허. 할머니 하르버지가 같이 내려가니까 예 할머니 하르버지 의지 허곡 어머니 또 환자라 놓고 허니까 뭐 못허고 경헤연.

102006 @ 게든 할머니 할아버지 의지허멍 사신 거로구나예? 예예. 게난 그런 그 고생 사삼 때 고생을 흐뭇 더 곱아줍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당장 눈 앞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형국이긴 헛는데.

102006 #1 예, 경 허난에 그것이 예를 들영근앵에 이디서 어디 옛 어른 말이 먹기 싫은 음식은 못 먹지마는 입기 싫은 옷은 입어야 현다는 말이 거기서 느꼈습니다.

102006 @ 예.

102006 #1 어떻 헨 느껴신고 허니까 한겨울이라고 옷이 없으니까 반즈봉 입고 옛날은 살마다라고 헛는데 그거 허나 입고 이제 성안 시내.

102006 @ 예.

102006 #1 또 왓다갓다 허고, 그렇게 허면서 무신 거 춤 필요헌 거 이시민 그디 강 사오곡 여기서 또 가정가근앵게 풀 것도 제대로 엇지만은 품도 허곡.

102006 @ 음.

102006 #1 경 허멍 살아십주. 그때 그 저 말론 어떻게 형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엇어양.

102006 @ 예. 겪은 사름만 압주예?

102006 #1 겪은 마음, 그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춤 그건 디.

102007 @ 예, 맞습니다. 결혼은 연애결혼 헛수가 중매결혼 헛수가?

102007 #1 중매결혼헛수다.

102007 @ 아 어떻 누게가 중매해연에 어떻 결혼헌 거우과?

102007 #1 지금 처가에 그 저 우리 그 왕고모님 쪽 어른이 이제 그 이택에[이  
때게] 씨집을 와서 사니까 그 어른덜 허고 서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뭐니까 그때에  
는 춤 아까 그분덜토 나광 혼 해에 ㄹ튼 동갑덜이. 그때덜은 보통 이십 대 넘으면  
보통 결혼 헛으니까.

102007 @ 예예.

102007 #1 여자 어른덜도 열여덟 이상이민 결혼덜 헛고.

102007 @ 음, 우리 여자 삼춘허고 나이는 멧 살 차이마씨?

102007 #1 나이는 나보단 우에.

102007 @ 연상.

102007 #1 으. 연상, 저 두 살 우에.

102007 @ 아아, 기구나예.

102007 #1 겐디 그것이 좋은 것이. 연상이 좋은 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에  
남자분이 연령덜 많은 사름덜을 전부 추구해서 건 애기 노릇 헐랴고 허는 건데, 이  
제 반대로 누나같이 생각허고 그 동생같이 애끼니까.

102007 @ 예.

102007 #1 좋아. 게고 죽을 때도 남자가 빨리 죽잖아.

102007 @ 예.

102007 #1 게민 옷사람 허민 거의 거즘 비등비등허게 간다 이거지.

102007 @ 음. 예 그때는 그런 거 저런 걸 몰란 그자 무조건 갖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뵈도 잇드라 이겁주.

102007 @ 게난 싸울 일은 엇어시쿠다예?

102007 #1 싸지 아녕근앵게 (웃음) 그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

102007 @ 기구나예?

102007 #1 어쨌든 이 뭐인가 아웅다웅해야 가정이 형성되는 거지.

102008 @ 예, 맞수다. 사주는 봤수가? 게문, 중매결혼할 때에?

102008 #1 물론 사주 봐실 테주.

102008 @ 예. 건 어른덜이 허는 거니까. (49: 25초)

102008 #1 게난 그 사주 본 것도 예를 들영근앵에 우리 집 사름허고 난 큰 수  
화거든. 그게. 예 수화. 경헨 안 뵈덴.

102008 @ 그렇주마씨?

102008 #1 안 좋다 헐 건디. 그 사람덜이 서로가 얼마큼 참느냐, 얼마큼 배려허느냐 거기에 매달린 거고.

102008 @ 음.

102008#1 사주가 좋다 굿다 해도 건디 지금까지 살면서 딱 나가 흥나 그 뭐헌 것이 내궁합 웨궁합허는데 그 사주 보는 건 외궁합을 보는 거고,

102008 @ 음.

102008 #1 내궁합만큼은 맞아야 후손들이. 내궁합 안 맞으면 후손은 없어.

102009 @ 으음. 그게 더 중요한 겁주. 그 혼수품 할 때 그때는 너무 어려울 때 난 하긴 허지만 혼수나 결혼 예물로 헤갖고 뭐 우리 여자 삼춘한테 준 건 엇수가?

102009 #1 해준 거 엇어.

102009 @ 게도 그 결혼할 때 뭐 험디가, 게든?

102009 #1 경 옷 정도 그자 그땐 해주난.

102009 @ 예, 어떤 옷마씨?

102009 #1 이 치마저고리덜. 무슨 뜯 뭐 엇엇어.

102009 @ 멍지치마저고리?

102009 #1 멍주가 어디 잇어. 그때.

102009 @ 명주 엇어.

102009 #1 아니 무명도 어려운 땀디.

102009 @ 예. 게영 무신 저고리를 헤신고?

102009 @2 양단 뭐 이런 거.

102009 @ 여자삼춘이 알아야 뭐 호박단이여 뭐 뉴퐁이여 이런 말 헐 건디양?

102009 #1 글썸, 난 뭐가 뭇지 모르고. 지금도 몰라.

102009 @ 아아, 그 혼인은 어디서 헷수가?

102009 #1 여기서.

102009 @ 집에서? 게민 이 집은 옛날부터 쪽 살아온 집마씨? 아버지 때.

102009 #1 사삼사건 후에 지은 집.

102010 @ 아아, 사삼사건 후에. 결혼은 언제 헐 거라마씨?

102010 #1 결혼은게 사삼사건 바로 꺾나면서.

102010 @ 음, 그때 새 집의서 헐 거구나.

102010 #1 겨난 그땐 그, 그 당신 그 저 뭐, 이 지금은 예식장에서 예식을 허지 마는.

102010 @ 예.

102010 #1 그때 그 구식으로서는 치년이라고 헤여. 그대로 영 허연 서로덜 절허고 이 표주박 끈 무껴서 이제 그 표주박에 술 서로덜 이렇게 먹고.

102010 @ 음.

102010 #1 이제 그런 거.

102010 @ 그거를 아까 뭇렌 헤마씨?

102010 #1 치년, 치년.  
102010 @ 치년 어, 치년?  
102010 #1 음.  
102010 @ 그 결혼사진은 찍어수가?  
102010 #1 아이, 결혼사진 찍은디 게메 이사해연 텅기단 보난 어디덜 다 가부런  
늑시 좇질 못허연.  
102010 @ 음, 아까 우리 여자 삼춘은 가멜 탕 왓젠 허고 삼춘은?  
102010 #1 백마 타고.  
102010 @ 백마 타고.  
102010 #1 으.  
102010 @ 아 게믄 저기 사모관대하고?  
102010 #1 으, 사모관대 허고.  
102010 @ 아, 그땐 사모관대 아년 사람도 하신디예?  
102010 #1 청사초롱은 없으난 못허고.  
102010 @ 예.  
102010 #1 그 대신 그 저 마을 에, 저 하인덜엔 헛지, 그때는.  
102010 @ 예.  
102010 #1 동넛일 보는 사름 보고. 음, 그 사름덜이 이제 가마덜 메고 이제 뭉  
끌고.  
102010 @ 음.  
102010 #1 이제 막 그 중간에 이제 그렇게 못헤 봐서 치년, 치년덜 못헌 사름,  
못헤본 사름덜은 그냥 다시 장계가구정 허덴 그냥 뉘. (웃음)  
102010 @ 계난 표주박 허고 이제 술 먹는 걸 걸 이제 치년이렌 허는 거라마씨?  
102010 #1 여기 상 이렇게 놓고 상 차려뉘에 이제 그 저 지금은 주렌데 그 집  
례.  
102010 @ 예, 집례.  
102010 #1 집례가 전부 이렇게 험서 저렇게 험서 그게 그 저 구렁. 흘기.  
102010@ 예.  
102010#1 그게 흘기에 따라랑 이제 신랑신부도 움직이는 거.  
102010 @ 음, 계난 그 예식 자체를 치년이렌 허는 거구나예?  
102010 #1 음. 예식 자체를.  
102011 @ 예식 자체를예. 신혼살림은 어디서 험 거라마씨, 게믄?  
102011 #1 아 여기서.  
102011 @ 여기서 그냥예?  
102011 #1 어디 여행이엔 험 것도 엇고, 그때는 씨집오면은 신랑집에서 하루저  
녁 자고.  
102011 @ 예.

102011 #1 그 뒷날은 신붓집에 가는 가는 거라.

102011 @ 예.

102011 #1 신붓집에서 가서 인사하고 그날 신붓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이제 사돈덜이 이제 신붓집에 갈 때에 여기서 웃어른이 대표지. 대표로 이제 가서 거기 인사하고 이제 와버리면 거기서 식사하고 와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하룻저녁 자고 다시 여기도 신랑신부가 다시 올 때엔 거기서 대표로 이제 아버지나 어느 저 오빠나 행근앵게 여기 완 인사하고.

102011 @ 음.

102011 #1 계난 우시라고 헤가지고 이 상객.

102011 @ 예.

102011 #1 상객덜은 이제 결혼, 잔칫날, 잔칫날 서로 인사덜 허고 뭐 어찌고 허는데

102011 @ 예.

102011 #1 그쪽 부모님이나 이쪽 부모님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102011 @ 음.

102011 #1 이제 그 뒷날 거기 갈 때 같이 가서 인사하고, 또 그 다음날 신랑집에 올 때에 와서 같이 인사하고.

102011 @ 음.

102011 #1 그 예가 바로 그거.

102011 @ 예, 우리 여자 삼춘 올 때 뭐행 와십디가? 혼수렌 행은에.

102011 #1 혼수게 퀘 허고 이불허꼭게 보선덜 쥐근에 쥐놓고 헤근에 옛날은 그 거민 아주 잘 출련 온 거.

102011 @ 퀘 가정 오른 잘 출령 온 겁주예? 이불은 멧 채나 헨 완마씨?

102011 #1 이불 알아지커라? (웃음) 두어 채, 두 채 뵈을 거라, 아메도. 두 채 더 뵈여신가?

102012 @ 그 아이들은 어떻 뵈마씨?

102012 #1 아이들은 오남맨데 삼남 이녀.

102012 @ 삼남 이녀예?

102012 #1 아들 셋 딸 둘.

102014 @ 음, 여자 삼춘한테 물어보야 뵈 게 여기 나왔구나? 자식들 결혼은 다 시퀸마씨?

102014 #1 예.

102014 @ 아, 어떻게 헛수가?

102014 #1 어떻 어떻 허여마썸, 이제 큰딸은 연예헨 가버리고.

102014 @ 예.

102014 #1 저 육지.

102014 @ 음.



102014 #1 이제 서울 가버리고. 그 다음은 큰아덜 폴아얌 건디 큰아덜도 그 연극영화과 다니단에 거기서 안 사람허고 헨에 이제 서로 뉘허게 되고.

102014 @ 예.

102014 #1 또 둘째아덜도 이제 서울서 이제 만난에 이제 그 양녕대군 후예.

102014 @ 으으.

102014 #1 예, 만나서 이제 결혼헤였고.

102014 @ 예.

102014 #1 이 작은아덜은 또 여기서 결혼허고. 또 작은딸은 것도 연예헨에.

102014 @ 예.

102014 #1 저 어디 직장에 다니단에 저 뉘고, 그 서울 군인이 하필 제주에 그 짝이 아마 짝을 좇아서 온 게 같애. 그걸 보면.

102014 @2 인연?

102014 #1 인연 좇안. 여기 완에 그 근무허단에 서로 만난 결혼헨 가불고.

102014 @ 일 잘도 빨리 출렛수다예? (웃음)

102014 #1 그렇다고 보면, 마 그런대로 놔보단 빨리 처리헨.

102014 @ 예, 게난 여기 작은아들이 쉼 효잔게예? 옆에서 사는 아들이.(웃음)

102014 #1 어, 옆에 살고, 지금 큰아들도 내려완에.

102014 @ 아.

102014 #1 이제 셋아들은 뉘 저 지금 안양 살암주마는.

102014 @ 예.

102014 #1 안양서 근무허고.

102014 @ 여기 제주도에는 이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사는 거구나예?

102014 #1 음.

102015 @ 그 다음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헨은에 뉘 굴 말 잇으믄 굴아줍서?

102015 #1 며느리허고 사위는 글쎄, 뉘.

102015 @ 잘허지양?

102015 #1 곳인 뉘가 없으니까 서로.

102015 @ 예. 게니까 육지 사위덜 헤부니까?

102015 #1 육지사위덜 헤도 춤 잘 헤여.

102015 @ 예.

102015 #1 잘 헤여.

102015 @ 어떻 잘 험니까?

102015 #1 아, 뉘, 왕 뜯어가지 아녀고, 쫌 저 영 무시 거 가끔 보내주곡 허민 그게 제일 좋은 거주.

102015 @ 맞수다.

102015 #1 자꾸 옷이라도 혼 불씩 일년에 혼번씩 보내주면 경 말렌 헤도.(웃음)

102016 @ 그거 말앙 더 자식 자랑헨 건 엇수가? 웃음.

102016 #1 글썸, 자식 자랑은 뭐 큰아, 이제 아이덜이 별로 이제 부모덜 힘 들이지 안 허연 이제 학교덜 마치고, 뭐 장학생으로덜.

102016 @ 음.

102016 #1 현 거주. 계난 이제 내중에 결혼까지덜 헨 사니깐, 뭐 큰아덜쫘은 인척에도 말헛주마는 마 예술 계통에서 뭐 제주도에선 에 마 손꼽으민 손꼽을만헌.

102016 @2 이름 뭐?

102016 #1 양영기.

102016 @ 양영기 씨?

102016 #1 그 뭇엔 연기로 해서, 연기

102016 @ 연기로 어?

102016 #1 경허난 지금은 춤 그 몸이 안 좋아서 이젠 놀고 잊지마는.

102016 @ 예.

102016 #1 오십 대 후반이 뒤흔고 허니까.

102016 @ 예.

102016 #1 이제 전국연극제에서 개인 대상은 제주도에서 처음 일차.

102016 @ 음.

102016 #1 또 가이가 가리켜서 다시 또 혼 사름이 개인 대상 받았어.

102016 @ 음.

102016 #1 가이가 가리켜에 개인 대상 받으난 이제 제주도 안네 두 사름벧기 없어. 연기 개인 대상.

102016 @ 개인 대상예?

102016 #1 최불암네 이런 분덜이 전부 완에 육지서 심사헌에.

102016 @ 제주도 온 지는 얼마웁마씨?

102016 #1 혼 십오년 뽁실 거라. 이제.

102016 @ 이젠 십오년 되고예?

102016 #1 경허난 그 최불암 씨 그분덜이 제주도 연극 보고 깜작놀란 여기까지 갖냐고, 아주 감탄허더라고.

102016 @ 예.

102016 #1 성우, 성우도 허엿고, 아나운서도 허엿고, 가이가.

102016 @ 음.

102016 #1 연극 헤엿고, 뭐 그런 정도. 지금 여기 테레비에 나와 가민 그 거기서 서울 이신 때에 저 나신디 선생님 선생님허던 아이우다. 저.

102016 @ 예.

102016 @3 지금 무슨 일?

102016 #1 지금 놀암서.

102016 @ 몸 편찮으다고 저기 하니까.

102016 #1 지금 큰아들은 미대 다녔실 거라. 제주대학.

102016 @ 예예.

### 3. 밧일

103001 @ 예. 삼춘 밧일도 하영 헛지양?

103001 #1 아이고, 밧일도 허고 커올 때 고크허젠 허난에.

103001 @ 예.

103001 #1 세탁소에 간 양복점에 처음 간 이제 경허난 양복점에 잇어나난에 이제 옷 꿰어 입는 건 그냥 미싱 하나 놓민 그냥

103001 @1, 2 아아.

103001 #1 뭐 걸리질 안허여. 그자 하나 멘들앙 입는 것도 뭐 거세기 허곡. 세탁소로.

103001 @ 으음.

103001 #1 이제 백회.

103001 @ 예.

103001 #1 저런.

103001 @ 예예.

103001 #1 백회 알아져?

103001 @ 예.

103001 #1 백회 알 사름 이 사름도 몰를 걸.

103001 @ 예. 무사 옛날이야게 다 백회로 헤근에에 벽 바르지 아녀수과?

103001 #1 이 집을 백회레 전부 안 도빌[토빌] 해서.

103001 @ 예.

103001 #1 밖에 또 이런 축 우에덜은 전부 그 하얀 걸로 헛는데 그것도 만들엇고.

103001 @ 음.

103001 #1 그자 그거 저거 허면서 또 벽돌도 많이.

103001 @ 음.

103001 #1 저 아니 굽는데. 만들진 아녀고.

103001 @ 음.

103001 #1 만들긴 뜯 사름 그 육지분들이 완에 만들고, 그 굽는다.

103001 @ 음.

103001 #1 많이 거세기 헛고.

103001 @ 벽돌도 구엇고?

103001 #1 경허단 여기 밀감허기 시작허니깐 여기 완에 이제 밀감에 정신 서꺼 불고.

103001 @ 계도 할머니네 할아버니네 농사짓젠 허민 도움긴 헤길 거 아니라양?  
 103001 #1 아, 그 물론.  
 103001 @ 예, 계문, 보리농사부터 혼번 저기, 아, 보리농사 전에 밭일 하게 뉼면은 어떤 일들이 잇어신고예? 예전에예?  
 103001 #1 예전에는 밭 허면은 이제 노는 밭은 봄에 갈고.  
 103001 @ 예.  
 103001 #1 갈았다가 이제 이 즉 말허면 풀이 성헌 거 그거 그냥 덮으면은 거름이 뉼니까.  
 103001 @ 예.  
 103001 #1 이제, 이제 갈아, 갈아낫당 번험이라고 허는 건데.  
 103001 @ 번헌텐?  
 103001 #1 번헌텐 허는 건디, 번허엇당 이 다음 여름농사를 이제 늦은봄부터 시작행근에 허영 허는 거고. 다시 이제 뭐 칠월 일일 중심행근앵개 여름곡식 조덜 허곡. 그 사이에 이제 감저덜 이제 봄, 봄에 감저 낫당근에 감저 싱그곡.  
 103001 @ 예.  
 103001 #1 이제 경허명 그거 저거 보리허곡 조 허곡 콩 허곡 이 대개 그.  
 103001 @ 으, 감저 싱그곡.  
 103001 #1 이제 십이월달 나민 다시 보리 갈곡.

### 보리농사

103002 @ 예. 경허영 가는 거라예. 보리 혼번 갈아보쿠다예?  
 103002 #1 예.  
 103002 @ 보리농사 짓젠허면 뉼 준비헤신고예?  
 103002 #1 보리농사를 허젠 허면 걸름을 준비헤야허여. 계난 내가 조썸 그 곡식을 잘 헤떡젠 허면 보릴 걸름을 놔야 뉼곡.  
 103002 @ 예.  
 103002 #1 거름이엔 허민 퇴비.  
 103002 @ 예.  
 103002 #1 놔야고. 이제 그걸 거름이 부족허면은 이제 밭이 멧 개 이시민 둘러가멍 놔야 뉼고. 집에는 돼지 키우곡 소 키우곡 헤야 되니까.  
 103002 @ 예.  
 103002 #1 처음에는 처음 살림험 때는 소 돼지도 힘드니까.  
 103002 @ 예.  
 103002 #1 그때는 지금은 요즘 그렇게 산덴 허면 어멍, 어머니 아버지신디 그냥 뉼 사쥬서 뉼 사쥬서 허주마는 그때는 그게 경 통허들 아녜으니까.  
 103003 @ 그렇주마씨. 그 계난 그런 걸름 준비를 헤야될 거 아니라예.  
 103003 #1 예.

103003 @ 그 걸름은 어떤 식으로 마련헤마씨?  
103003 #1 걸름은 통시에서.  
103003 @ 예.  
103003 #1 이제 도새기가 만들고,  
103003 @ 으음.  
103003 #1 이제 외양간에선 췌가 만들고.  
103003 @ 예.  
103003 #1 그거 봄나민 내영근앵에 이제 마당에 쌓아두면은 거기서 터가지고.  
103003 @ 예.  
103003 #1 이제 후숙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거름하고 돼지거  
름하고 징징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허면은 나중에 이제 걸 뿌수면 이제 다 혼  
합 믹셔가 될 거니까.  
103003 @ 예.  
103003 #1 경혜영근앵에 밧디 뿌리고.  
103003 @ 마당에 강근에 뭐 듬북 ㄴ튼 거?  
103003 #1 여기선 해변사름이나 허주. 듬북 농구젠 허민 해변 사름한티 밧을 빌  
리는 거라.  
103003 @ 아아.  
103003 #1 듬북 놔도렌 해연.  
103003 @ 예에.  
103003 #1 계난 즉 말허면 염분 보충인데. 지금 와서 생각허면은. 옛날은 그 염  
분인디 뭐인디 그걸 모르니까.  
103003 @ 예.  
103003 #1 소곰. 소곰만 그때 소곰 살 돈도 없기야 없지마는 소곰만 뿌려도 돼  
긴 돼는 건디. 이제 그걸 이제 학술상으로 어떻게 이견 이거고 저견 저거고 그때  
그분덜이 걸 일러주지 아너니까.  
103003 @ 예, 맞습니다.  
103003 #1 이견 듬북 놔야 잘 돼는 거.  
103003 @ 그렇게 헐.  
103003 #1 걸름 놔사 잘 되는 거.  
103004 @ 그 보리는 언제 누가 어뎡 가는 거마씨? 보리는 언제 그 가는 과정을  
굴아줍서?  
103004 #1 가는 과정은 예 십이월달에.  
103004 @ 예.  
103004 #1 이제 파종을 허고.  
103005 @ 예. 계난 그 밧 갈앙 뭐 씨 뿌리기부터 보리부터 혼변 갈아봅서?  
103005 #1 조크르나 콩그르에

103005 @ 예.  
103005 #1 이제 밧 갈앙  
103005 @ 예.  
103005 #1 이제 씨 뿌렁.  
103005 @ 예.  
103005 #1 이제 끄쓸퀴엔 헤영근엔에 걸 이름은 크쓸퀴허니까 섬피엔도 곤고.  
103005 @ 예.  
103005 #1 이제 그 푸지게, 푸지게엔도 허고.  
103005 @ 예.  
103005 #1 그 헝나 가지고 이름이 세 가지.  
103005 @ 예예. 이 동네에서 주로 뭐렌 글아수가? 그런?  
103005 #1 끄쓸퀴.  
103005 @ 끄쓸퀴예, 예.  
103005 #1 끄쓸퀴. 꺾으면은 씨가 먼 흑허고 버무려지니까  
103005 @ 예.  
103005 #1 이제 덮어지고 그 저 짚이 간 후에 씨 뿌리곡 그걸 덮으면은 밧고지  
잇으니까 밧고지에 흑이 넘어가면서 그냥 그레 가민 그쪽에 더프고 저레 가면 저쪽  
에 더프곡 하면서 다 덮어정근에 거 놔두면 이제 빨 나곡.  
103005 @ 예.  
103005 #1 이제 새싹 나고 허면서 이제 커서.  
103005 @ 예. 검질도 메야고.  
103005 #1 검질도 메곡.  
103005 @ 예.  
103005 #1 으, 익으면은 그거 춤 비여냥.  
103005 @ 예.  
103011 #1 이제 태작헤영.  
103011 @ 음. 그때 태작은 뭇로 헤신고예?  
103011 #1 옛날 태작은 저.  
103011 @ 음.  
103011 #1 저 가상 터는 거엔 허는 게 잇엇는다.  
103011 @ 예예예.  
103011 #1 무꺼가지고 돌에 그냥 매여치는 거.  
103011 @ 예.  
103011 #1 가상 턴단계 잇고 도께, 도께질 허는 게 게 잇고. 다시 홀테.  
103011 @ 예.  
103011 #1 홀테 헤서 이제 그 보리 홀탕근엔게 메탁기 왕 그거 털고.  
103011 @ 음, 여기도 가상 턴넌 말을 헤수가?

103011 #1 헛주.

103011 @ 아, 여기서도 가상 턴다는 말도 해서예? 그 보리씨 뿌릴 땐 어떻 헤 수과?

103005 #1 보리씨 뿌릴 땐 사람 힘으로 헤영 그냥 쪽쪽 던지민 그냥, 힘있게 던 지민 끌고로.

103005 @ 아, 케민 삼춘네는 거름에 보리씨를 서경은 안 헤판마씨?

103005 #1 여기선 그건 안 허여.

103005 @ 아.

103005 #1 정원 허는데

103005 @ 여긴 빛이 좋구나예?

103005 #1 여긴 이 농촌지도소에서 이제 수확량을 따질 때에.

103005 @ 예.

103005 #1 더 수확이 많게 어떻게 허느냐고 나가 그때는 그 지도사 활동도 많 이 헛으니까.

103005 @ 아아.

103005 #1 이제 허니까 삼양 관내보단 더 나겔 어떻 헐 말이우과? 우리 더 나 게 헐 재준 엇수다.

103005 @ 아.

103005 #1 땅덜이 좋아. 겨고 여기도 이 도련도 동쪽 땅허고 서쪽 땅허고 틀려. 같은 분량을 놓면은 무게가 틀려.

103005 @ 아아, 똑같은 분량인데도예?

103005 #1 흔 돼 갓당 탁 낱 저울이면 이쪽 건 무게가 그것에 요디 거 셋동네 거 멩 그 양을 허민 이쪽이 동쪽에 건 퍼야.

103005 @ 동쪽게 더 무게가 나가예? 아아, 그럼 여기는 빛을 흔 평을 저기 멩 말지기?

103005 #1 흔 말지기면 백 오십평.

103006 @ 땅이 좋앗네예. 백오십 평이면 정말 땅이 좋은 거네. 그 다음에 보리 종류 어떤 거 이신 거 알아지쿠과?

103006 #1 보리 종류는 것보리.

103006 @ 예.

103006 #1 살보리, 줄보리허면 맥주맥.

103006 @ 예.

103006 #1 예, 대개 그거 세 개고. 중간에 떡보리가 들어와나서. 검은흑보리.

103006 @ 아, 요즘 검은보린가마씨?

103006 #1 예 요즘 검은보리지.

103006 @ 아, 거를 떡보리렌 헤예?

103006 #1 건 저 츠져, 그게.

103006 @ 아, 게문 상웨, 떡도 그걸로 헛수가?.

103006 #1 아이고, 맛좋고.

103006 @ 아, 떡보리렌 허는데 이제 요즘은 안 하고예. 그런 것덜은예?

103006 #1 안 헤.

103007 @ 보리밭 여기도 밟기 험니까?

103007 #1 보리밭 밟는 디야 그거야 뭐 당연히 그 저, 뭣고? 흐는 사람도 있고

103007 @ 예.

103007 #1 멍심허는 사름은 그걸 허고, 예 멍심 아년 사름은 그대로 내버리고.

103007 @ 음.

103007 #1 이제 산태엔 허영은에 나무 그 통나무에 적당헌 그 뭇 해서 이 밭.

103007 @ 예예, 밭 헤영근에.

103007 #1 밭 행근에 그걸로 꺾엉 다니민 그계.

103007 @ 아, 산태로 행은에 밟아서예? 여기 뭐 돌테나 낭테 이런 거는 안 하고?

103007 #1 낭테가 그거주.

103008 @ 아, 낭테가 그거라예. 그 다음에 보리밭 검질은 멧 번 뻐니까?

103008 #1 그, 무시 거 굳는 거. 식 번.

103009 @ 검질덜은 어떤 검질덜 나나수가?

103009 #1 여하간 보리를 제외하고는 벨헌 양귀비가 잇어도 건 다 뽑아야웨니까.

103009 @ 검질일름들 흑씨 알아지는 거?

103009 #1 검질 이름?

103009 @ 우리 여자 삼춘 알 거 님아.

103009 #1 뭐 대우리.

103009 @ 예.

103009 #1 콩쿨.

103009 @ 예.

103009 #1 예, 아이고, 무슨 웨대우리.

103009 @ 음.

103009 #1 예, 또 요즘 그 저 비단풀엔 허는 거 뭣고, 저 금전초. 거 이름, 검질 이름 모르겟는다.

103009 @ 검질 이름. 보리밭디 허는 거예?

103009 #1 먼 잇어부런.

103009 @ 대우리도 웨대우리 잇고 그냥 대우리도 잇수가? 건 어떻?

103009 #1 웨대우리엔 우에 올랑 들양식허는 거 틀려. 그 밑에서 조그만이 올라오는 거.

103009 @ 건 웨대우리고. 그냥 일반 대우리는 위로 올라오는 거예?



103009 #1 보리허고 똑ㄴ치 그냥 올라오는 거.

103010 @ 그 보리 수확할 때 보리 그 익으믄예, 익으믄 수확허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돌아줍서? 보리 익영 그 보리 이제 비곡.

103010 #1 익으민, 보리 익으면 비영.

103010 @ 예.

103010 #1 이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몰르민.

103010 @ 예.

103010 #1 무경.

103010 @ 예.

103010 #1 이제 집엘 오던가 그 밭데서던가 이제 처음에는 홀테로 그걸 홀타냥 메탁기로 갖는데.

103010 @ 예.

103010 #1 이제 그 내중에는 그냥 못차 집어넣근영에 고고리만 그냥 툇아아사 부런.

103010 @ 음.

103010 #1 이제 해나고.

103010 @ 보리 비젠 허면은 준비해야 텔 게 잊지 안 허우과?

103010 #1 보리 비젠허면 호미. 주로 호미 엇영은 안 돼주. 낫. 표준어로 낫.

103010 @ 예, 게난 그 호미도 그냥 가민 안 텔 거 아니우과? 밭디 가젠 허면은 그 준비를 허연.

103010 #1 곶아사주.

103010 @ 예.

103010 #1 신들에 곶안.

103010 @ 예.

103010 #1 이제 쑥돌에 허주마는.

103010 @ 여기 도련 말로?

103010 #1 신뜰.

103010 @ 예, 썸들.

103010 #1 신들에[썸뜨레] 호미 곶양 밭디 아경 강민 그걸로 보리 비곡 조 비곡 룡 꺼끄곡.

103010 @ 음, 경 혜영 허고 무끄젠 허면은 무신 거로 무껏수과? 여기는.

103010 #1 께가 잊어야 허는데, 건 주로 새.

103010 @ 예, 아, 새로예?

103011 #1 새로, 이제 그 저 보리 무끝 썸 놔두엇다가.

103011 @ 음.

103011 #1 집 일 때에.

103011 @ 예.

103011 #1 건 놔뒀당근에 그걸로 껌 데왕 건 무꺼.  
103011 @ 으음, 그 산디쪽으로 껌 데우진 안 허고마씨?  
103011 #1 산디쪽이 여기 경 많질 아녀난.  
103011 @ 아아, 산디쪽은. 산디는 하영 안 간 모양이우다예, 여긴예?  
103011 #1 예예, 그건 그 저 제사헤여 먹을 거나 조끔 저 허주.  
103011 @ 음.  
103011 #1 경 그 많이, 주로 보리덜 많이 헛어.  
103011 @ 음, 그러면 삼춘, 아까 이제 새로 껌 헛지 아녀, 데왕 헛지 아녀우과?  
보리로도 지냥으로도 무끄진 아념니까?  
103011 #1 아, 보리로도 무꺼.  
103011 @ 그런 껌은 무신 껌렌 헛니까?  
103011 #1 붙께엔 붙께.  
103011 @ 아, 붙께렌헤 그거는 예?  
103011 #1 붙백이 헛다고 헛에 붙께렌 허는 모양이라.  
103011 @ 보리 붙은 그걸로 헤서 여기는 붙께렌 허고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보리도 저기 도리께질, 도께로도 헛니까? 보리도.  
103011 #1 도께로도 허주.  
103012 @ 도께로도 허고예. 보리쌀은 어떻 장만헤신고예? 옛날예.  
103012 #1 옛날은 그 저 돌팡에에서 이제 물 적정 그 자꾸 굴렁, 영 돌려가면  
그게 이 췌 벗어지면 속에 쓸만 뽑안는데.  
103012 @ 음.  
103012 #1 우리가 크기, 크기 시작허니까 방앗간.  
103012 @ 음.  
103012 #1 방앗간에 아적 가져가민 기계에서 싹.  
103012 @ 음. 어렸을 때 돌팡에는 허는 건 봐낫구나예?  
103012 #1 아이고,  
103012 @ 물 적시명.  
103012 #1 나도 ㄹ치 강근앵에 그 연자방아 돌려사주.  
103012 @ 으음.  
103012 #1 연자방아ㄹ라 이제 돌팡에.  
103012 @ 여기는 돌팡에렌 허는 거라예. 돌팡에 헛 때 사람으로 무사 사람으로  
돌리는 것도 잇주마는? 옛날예.  
103012 #1 ㄹ쉬.  
103012 @ ㄹ쉬헤갓고.  
103012 #1 ㄹ쉬 엇이면 사름이 엇은 때 ㄹ쉬도 허고. 편허게 허기 위해서 들이  
나 췌로도 허곡.  
103012 @ 음. 그 이 동네도 으라 군데 잇어실 거라예?

103012 #1 아, 여러 군데.  
103012 @ 그런 거는예?  
103012 #1 이, 농, 농사에 주로 전력허던 동네라봐서.  
103012 @ 예.  
103012 #1 그 연자방아덜이 많이.  
103012 @ 음, 그거를 그냥 몰ㄴ레니?  
103012 #1 몰ㄴ레.  
103012 @ 몰ㄴ레렌도 허고 돌팡에엔도 허고예?  
103012 #1 으.  
103013 @ 아아, 그 다음에 이제 보리허면 보리썰로 헤먹는 건 뭐 잇어신고예?  
103013 #1 보꿈이 헤 먹고, 개역 헤먹곡. 주로 보꿈이 허곡 개역 허고 예 보리  
떡도 행 먹고.  
103013 @ 보리떡도 헤먹고.  
103013 #1 보리상웨도 헤 먹곡.  
103013 @ 보리상웨예. 예전에 여기도 밀ㄴ르덜도 갈아신가마씨?  
103013 #1 밀도 옛날 갈아낫주. 갈아낫주마는 그 저 수확이 많지 아녀놓니까.  
103013 @ 음.  
103013 #1 지금ㄴ치 비료가 잇영근영에 잘 해주면 것도 좋앗주마는 비료가 어  
렵고.  
103013 @ 음.  
103013 #1 비료 나온 지가 오래질 아녀. 우리 므음대로 쓰기 시작헌 디가. 예,  
우리 어린 때엔 비료 흔 포만 구헤지민 그게 어디 강은에 금싸라기 구헤진 거만이.  
103014 @ (기침)맞아.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이제 방에 헤나면?  
103014 #1 으.  
103014 @ 체가 나올 거 아니우과?  
103014 #1 음.  
103014 @ 건 어떤 식으로 헤신고예?  
103014 #1 체는 그 저 푸는체질을 허던가 체질을 허던가 허영 그 체가 나오멘  
그건 주로 도새기 양석.  
103014 @ 음.  
103014 #1 으, 도새기 양석.  
103014 @ 도새기 양석하고. 그도.  
103014 #1 췌도 조금 먹고.  
103014 @ 췌도 먹고예? 그, 그것도 굵은체가 이실 거고예, 그 다음 ㄴ르가 이실  
거 아니우과?  
103014 #1 아, 저 그건 이 저 별령.  
103014 @ 예.

103014 #1 ㄹ래에 그 멧돌에 ㄱ 때에, 이 ㄹ래에 ㄱ 때에 그게 이 저 ㄱ 쫓진 거  
훑은 게 나오주. 그건 주로 그건 사름덜이 먹고.

103014 @ 예.

103014 #1 으, 그 연 큰 그.

103014 @ 방엿간에 갈 때.

103014 #1 거기서 현 건 짐승덜 키우고.

103014 @ 음, 그렇게 나온 ㄹ르른 뒤렌 헤마씨? 하얀 ㄹ르덜 이름.

103014 #1 체.

103014 @ 체엔 말고도 쉼 맥일 때 출에도 버물영 주고.

103014 #1 게메, 아 그땐 체 버물영 주멘.

103014 @ 체 버물영. 혹시 등계ㄹ르 이런 말은 안 험디가?

103014 #1 등계에 뭐여 그건 저 여기서 별로 ㄱ 쫓진 아녀.

103014 @ 아아.

103014 #1 가끔 ㄱ 는 사름도 잇긴 잇엇주마는 그건 그냥 체 버물영 주민 좋아.

103015 @ 체 버물영 주민 좋아예. 예. 보리 농사허멍 잇어불지 못허는 경험, 기  
역 같은 거 엿수가? 고생을 헛든 재미 잇엇든 보리밭디 강 연도 날려 ㄱ 거고.

103015 #1 아, 거야 물론 뭐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선생이 드르에 강 놀자 행근  
앵에 강 보난 선생네 보리밭 불리레 이제 연 날리곡 거기서 그 저 뭐 다숫께엔 허  
는다 그 저.

103015 @ 오니 다스께

103015 #1 거 오니 다스께. 거 일본말이께.

103015 @ 예.

103015 #1 그거 밧디 강 허면 아이덜은 선생 그거 험 때엔 선생밧디 가지민 안  
헤부러.

103015 @ 알아부러 갖고.

103015 #1 알아부렁. 여기선 주로 흘 때에 연 종이덜을 사당 쥐.

103015 @ 예.

103015 #1 아이덜신디 주멘 그 밧디 강 연 띄우렌 허영.

103015 @ 동네에서도예. 아아.

103015 #1 경 헤야주. 경 안 허민. 그, 웃음.

103014 @ 그 보리 ㄹ시락도 쓸모가 크지 아녿수가? 보리낭도 쓸모가 하실 거  
고.

103014 #1 보리낭은, 보리낭은 퇴비 만들고.

103014 @ 예.

103014 #1 이제 흑질험 때에 주로 쓰고.

103014 @ 음.

103014 #1 ㄹ시락은 아궁이에 ㄱ 근앵에 굴뚝 ㄱ 고,

103014 @ 예.

103014 #1 이제 굴뚝 진으멘, 굴뚝 진영근앵에 도 쉼똥헤당 탁 막아주민 그냥  
흔 이틀 꼬떡엇이 뭐허곡. 알아져?

103014 @2 예.

103014 @ (웃음) 그렇게 허고. 아까 그 집 지을, 흑질헐 때 보리낭 서끄지 아념  
니까예? 그 서끄는 자체를 뭐렌 험니까. 보리낭이란 안 곤고 다른 말로 곤지 아념  
니까?

103014 #1 수세, 수세.

103014 @ 수세 논텐예? 무사 수세는 놓는 건고예?

103014 #1 무사 남신고?

103014 @ 예.

103014 #1 아, 흑과 흑이 연결이 좋고, 이제 그게 그 어쨌든 그 흑 힘이 그걸로  
저 쉽게 말허면 세멘트헐 때 철근 놓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14 @ 그런 식으로 꼭 수세를 넣은예. 그신새도 수세로 놔놔수가?

103014 #1 아, 그신새론 지들케벳기 아녀서.

103014 @지들케론 지들커허고예?

103014 #1 이 두터우면 그건 걷어내여여 텅근앵에

103014 @ 지들케허고.

103014 #1 지들커허고 그 우론 새로 더프고.

103014 @ 음, 삼춘 막 버치지예?

103014 #1 아니, 그자 이게 일어난.

103014 @ 흐뎡 더 헤도 뉘쿠가?

103014 #1 으.

## 조 농사

103016 @ 알아수다. 여기 조 하영 헛덴 허난 조도 불러봣주예.

103016 #1 조 불러는 디서 그 물 모는 소리 쉼똥는 소리 그걸 못허여.

103016 @ 무사마씨?

103016 #1 그건 안 헤봐서. 못 허여.

103016 @ 그거는 못허여마씨?(웃음)

103016 #1 게난 경허민 하르버님 이실 때에 “소리허멍 몰라” 허여도. 난 그건  
아녀봐서.

103016 @ 노래는 잘 못 불럼구나양? 다른 노래는 잘 불를 거 님은 디. 연예인  
아들 연기허는 아들 아까. 연기렌 헛 게마는 이름도. (웃음) 또 조 농사 짓젠 허면  
뉘 준비헤야 뉘는고예?

103016 #1 거기도 역시 준비는 춤, 거 저 그 보리에 대개 거름 낫주. 조 이 여  
름 농사엔 거름덜을 잘 안 놔.

103016 @ 아.

103016 #1 거름덜을 잘 안 놓고, 내중에 나온 후에 비료나.

103016 @ 그냥 씨를 뿌렁은에 허는 거라마씨?

103016 #1 그냥 씨 뿌렁.

103016 @ 게믄?

103016 #1 밧 갈아냥.

103016 @ 음.

103016 #1 씨 뿌렁 이제 그 꼬슬퀴로 끗엉.

103016 @ 예.

103016 #1 그냥 저 불렁 그 다음.

103016 @ 그 다음에 불리잖아예? 그 불릴 때는 어떤 식으로 불립니까?

103016 #1 불릴 땐게 쉼나 물이나 허영 어려려 허멍. 쉼 물 몰멍 그냥 불리는 거주.

103016 @ 게믄 땀 므리나 그 조팍디?

103016 #1 아, 그 데, 데 허는 사름은 텔 빌영 불리고.

103016 @ 예.

103016 #1 테엔 허믄 물 수정 많은 이.

103016 @ 예예.

103016 #1 잇는 사름. 그 사름을 빌영근엥에 불리곡, 경 아녀믄 그 그냥 밧간췌 집의서 허는 거엔 그자 영.

103016 @ 이, 이경 텡기멍.

103016 #1 이경 텡기멍 그자 허는 거.

103016 @ 거기에 이제 꼬실퀴 헤갓고 이제 므치 허는구나예? 게믄 아까 조 여 기는 조팍이렌 험니까? 조왓이렌 험니까? 조밧이렌 험니까?

103016 #1 그건 조팍이엔 허곡 왓이엔도 허곡 왓이 밧이난에 건 두 가지.

103016 @ 조왓이렌 허여마씨? 조왓은 아녀고 잘 조팍.

103016 #1 조팍이 구십 프로그.

103017 @ 예, 조팍이 대부분 많은 거라예. 조팍거름은 이제 안 하고. 거는 보리 거름, 보릿그르에 허는 거우과? 조팍은?

103017 #1 으.

103018 @ 아, 보릿그르에 허는 거예? 게믄 언제 가는 거우과? 조는?

103018 #1 조는 봄에. 아, 저 칠월, 칠월 일일을 기헤영근엥에 전 삼 후 삼 허는 거.

103018 @ 아, 칠월 일일. 게믄 그때 칠월 일일은 음력이우과? 양력이우과?

103018 #1 양력이주.

103018 @ 양력예? 옛날 유월절 그건가?

103018 #1 견디 난 뉘허니까 이제 그걸 허는데 그 저 유월절 전 삼 후 삼 행근

에 헌텐 헌디 칠월 혼 사오일 돼는다.

103018 @ 예.

103018 #1 이제 칠월 일일을 기허민 쪼끔 옛날보단 혼 메칠 빠른 거지.

103018 @ 옛날은 유월절 전삼 후삼 허잖아예?

103018 #1 또 모밀은 칠월절 전 삼 후 삼허곡.

103018 @ 전 삼 후 삼. 게난 옛날은 절기에 따라서 농사들을 이제 지은 거라 예?

103018 #1 건디 옛날은 절기에 따라근에 헛는데, 그것을 양력으로 기준해서 절기가 나온 걸 몰르니까, 아무도.

103018 @ 음. 그렇지. 절기는 양력 기준으로 헛지예?

103018 #1 양력 기준이니까. 이 헛 기준 헌 거기 때문에. 음력은 달을 기준헌 거니까 들엇다 낫다 허는 거고. 예 나가 이 낫슬 든 후제도 걸 막 홍보헛주.

103018 @ 네에.

103018 #1 으, 양, 절기는 양력이 박아논 날이난 그 양력을 생각해야 헛니다 허영.

103019 @ 예. 겐디 뭐 옛날 어른들이야 음력 기준헤영 허니까예. 그 좁씨는 어떻 준비허고 어떻 뿌렛수가?

103019 #1 좁씨는 아무 때도, 보리씨도 보리 좋은 보리로 헛 얼마 소요량을 준비헤뵈당 허는 거고, 좁씨도 고고리 좋은 놈으로.

103019 @ 음.

103019 #1 헤영 그 씨받이를 허고.

103019 @ 예. 경 헤영은에 허고.

103019 #1 자기가 쓸 만큼 그 양을 준비헤 낫당 뿌리는 거.

103019 @ 그 좁씨 뿌릴 땐 어떤 식으로 뿌려마씨?

103019 #1 좁씨 뿌리는 것도 보리씨 뿌리는 것하고 똑같이.

103019 @ 음.

103019 #1 그자 혼 줌 췌영 그 힘 내영 그냥 혼들르가면 골로로 가는 거.

103019 @ 게도 옛날에 이 씨 잘 뿌리는 사람들이 잇어예?

103019 #1 어, 잘 뿌리는 사름은 잇긴 잇주. 흠. (웃음)

103019 @ 삼춘네는 갈 때 누게가 조 씨 빼엿수가?

103019 #1 뭐 이녁 거 이녁 양으로덜 허주, 무신 놈 빌영덜 경 아녀.

103019 @ 삼춘이, 여자삼춘이 헛니까, 아니면 삼춘이 빼어수가?

103019 #1 아, 닥치는대로.

103020 @ 아 닥치는대로. (웃음) 그 다음에 그 조팍 저기 킬 때예, 조 킬릴 때 그때 들어 잇는 게 아까 췌나 물이나. 여기는 밧갈 때는 주로 췌 헛수가?

103020 #1 으.

103020 @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우리들 빌령도 허고.

103020 #1 허고, 남테로 허는 사름도 잇고.  
103020 @ 예, 남테로도 허는 사름도 잇고. 혹 여기 돌테도 써봬디가?  
103020 #1 돌텐 안 써봬.  
103020 @ 아, 돌텐 안 허고예? 그, 남테 아까 산테 말고 남텐 모양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전 마씨?  
103020 #1 남텐, 어느 정도이 적당한 규격 해낭 거기에 빨덜 막 박아놔.  
103020 @ 음, 빨 박아놔예?  
103020 #1 양쪽에 췌 고리해낭 끼얹.  
103020 @ 음, 거는 췌가 끼이는 거마씨?  
103020 #1 췌나 물이나.  
103020 @ 췌나 물이나. 뒤에 이제, 그 아까 꼬실퀴는 사람이 허고.  
103020 #1 밧가는 그 끼게, 끼데 그냥 매달양근예.  
103020 @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예?  
103020 #1 저, 아이고, 그거 췌, 췌명예, 췌명예줄, 췌명명예 멩엔 이거고  
103020 @ 예.  
103020 #1 한줄, 한줄.  
103020 @ 한줄예?  
103020 #1 한줄 끼격이에 무껍.  
103020 @ 아, 한줄 끼격이에 이제 테를 무끄는 거라예?  
103020 #1 으.  
103021 @ 아아, 그 다음에 그 조킴질 메는 게 우터잖아예?  
103021 #1 조킴질도 그냥 춤 이디 슬 나민 그냥 여기 다.  
103021 @ 보리검질도 추윙은에 허주마는 조킴질이 더 우털 거 닥아예?  
103021 #1 더웁곡.  
103021 @ 더웁고. 게난 조킴질은 멧 불 맵니까?  
103021 #1 조킴질도 흐 서너번 서너 번 메야사주.  
103021 @ 예, 맨 처음 메는 검질을 여긴 뭐렌 해마씨?(1시 30분 30초)  
103021 #1 초불검질.  
103021 @ 초불검질.  
103021 #1 초불검질.  
103021 @ 게문 초불검질 뭐 두불검질.  
103021 #1 두불검질. 식불검질.  
103021 @ 식불검질 영허잖아예. 게문 조는 초불검질은 조 소끄는 거우과?  
103021 #1 소끄는 거.  
103021 @ 소끄는 거예. 그 소깻던 얘기 곶아줍서?  
103021 #1 조는 그 소끄는 것사게 그 방벌이는 거난.  
103021 @ 예.



103021 #1 이제 방을 너무 널르민 수확이 널 날 거꼭.  
103021 @ 응.  
103021 #1 너무 좁으민 도장 돼영은에 안 좋을 거고허난. 적당한 거리를 낡 이제 뽑아, 뽑아버리면은 한걸행근에게 이거 사람도 영 앓아근영에 박박허게 앓이면 귀찮차녀.  
103021 @ 예.  
103021 #1 곡식도 마찬가지로.  
103021 @ 아까 도장 돼여분덴 험니까?  
103021 #1 으, 도장 돼연.  
103021 @ 그거는 어떤 말이우과?  
103021 #1 예, 우 득투왕. 우 득투왕 험디 나가 먼저 크저 나가 먼저 크저 행근에 허민 크는 데 힘 다 먹어부렁.  
103021 @ 예.  
103021 #1 그 고고리에 힘이 적어부러.  
103021 @ 예.  
103021 #1 겨난 그걸 이 한걸허게 소파주면은 이제 그런 뭐가 엇는 거.  
103021 @ 그거를 이제 도장?  
103021 #1 도장인디 우 득튼데 헤여. 우 득튼데.  
103021 @ 우 도툰덴. 우 득툰다. 방 벌리는 거. 방 벌리는. 게난 이렇게 방 벌리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줍서?  
103021 #1 ㄱ만 잇자. 그걸 어떻, 어떤 식으로 설명허나?  
103021 @ 게난 이제 제대로 클 수 잇게 이런 그 주변을.  
103021 #1 주변에 한걸허게, 한걸허게 뽑아주는 거.  
103021 @ 그거를 이제 자, 방을 잘 벌려사 되는 거예.  
103021 #1 으, 방을 잘 버려사. 벌리. 버려사 행.  
103021 @ 예.  
103021 #1 방 벌여.  
103021 @ 예, 방 버려 이렇게 얘기를 허는구나예.  
103021 @2 소끄는 거랑 같은 걸로 봐도 돼마씨?  
103021 #1 어 소끄는 게 그게.  
103021 @ 소파서 애가 잘 자라게 해주는 거. 주변 정리를 해주는 거주게이. 그렇게 해서 돼면은 조도 이제 수확을 헤알 거 아니우과?  
103021 #1 수확해야주.  
103023 @ 조 언제 수확험니까?.  
103023 #1 가을이지.  
103023 @ 예.  
103023 #1 가을에 이제 조가 익으면 가을에 비어놓고

103023 @ 예.

103023 #1 말리고 이제 고고리 고고릴 톤아.

103023 @ 예.

103024 #1 걸 전부. 이제 호미 해서 이제 고고리 톤아놓민 그거 메탁기에서 허던가 도끼로 치던가.

103024 @ 으음, 도끼로 치던가예? 그 고고리, 고고리 톤을 때 왜 우리가 빌 때는 이런 앞으로 비지마는 이걸 꺼꾸로 호미로?

103024 #1 깎아앗은에 영 밀려야.

103024 @ 밀리멍 허는 거예. 그게 딱나고예. 그 덩드렁마께 헤영은에 이렇게 헤보진 아녘디가?

103024 #1 그건 아주 그 저.

103024 @ 옛날에.

103024 #1 이제 족양근영에 그 간단히 그 죽은 걸 할 때에 그거 허는 거주.

103024 @ ㄱ랫방석 깎양근에 영영 아.

103024 #1 그건 거 저 그저 조코고리 테작할 때 보통 도끼 써야.

103024 @ 도끼 썩예, 예. 그 다음에 삼춘 그 조 여기는 안 나와수다마는 조 종류도 으라 개 아니우파예? 좁쌀 멘드는 종류.

103024 #1 으.

103024 @1 어떤 조 갈아났수가?

103024 #1 주로 모인조, 흐린조 허민 괴발시리 개발시리.

103024 @ 개발시리예. 꼭 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덴 허멍예?

103024 #1 그거 그거 검수룡헌 개 그 저 흐린조주.

103024 @ 예.

103024 #1 차조지. 즉 말허민 차조.

103024 @ 예, 예.

103024 #1 이제 그거고 모인조.

103024 @ 예.

103024 #1 노랑 거.

103024 @ 노랑 거. 음 거 두 가지. 옛날에는 막 저기 조도 종류 하낫덴 험디다.

103024 #1 건디 건 몰르커라.

103024 @ 음, 뭐 강돌와리 이런 말은 안 들어봐수가?

103024 #1 들어나긴 해서. 건디 난 보든 못 헤연.

103024 @ 보든 못 허고. 게난 삼춘 본 건는 흐린조허고 이제 모인존데 그 흐린조 중에도 이제 개발시리를 이제 하영 헛다라는 거지예?

103024 #1 응.

103025 @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작 해놓면 좁쌀을 멘들아알 거 거 아니우과? 거는 어떤 식으로 멘들아마씨?

103025 #1 쓸은 일단 태작허여낭 불림질 허면.  
103025 @ 예.  
103025 #1 불림질 허면 이제 그 채허고 이제 쓸허고 이제 알맹이허고 이제 분리가 돼니까.  
103025 @ 예.  
103025 #1 그 조를 이제 가정 방엿간에 가야할 거.  
103025 @ 예.  
103025 #1 건 주로. 방엿간에 강 그자 저.  
103025 @ 방에에 강 지면은 쓸 따로 조체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 그 조체는 어떤 식으로?  
103025 #1 건 도새기 먹고.  
103025 @ 아, 건 또 도새기 먹고. 계난 옛날은 버리는 게 엇어예?  
103025 #1 버리는 게 하나토 엇어.  
103026 @ 버리는 게 엇어. 켜 그 좁쌀로는 주로 뭐 헤신고예?  
103026 #1 좁쌀은 양식 살고,  
103026 @ 예.  
103026 #1 양식 먹고.  
103026 @ 예.  
103026 #1 또 팔곡 팔아서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103026 @ 음.  
103026 #1 으, 또 떡도 허고.  
103026 @ 음. 좁쌀로 현 떡은 어떤 떡 잇어신고예?  
103026 #1 시리떡도 잇엇고,  
103026 @ 음.  
103026 #1 오메기도 잇엇고.  
103026 @ 음.  
103026 #1 뭐.  
103026 @1 조오메기도 허고.  
103026 #1 뭐 거 것이 굳젠 허난 생각 안 남짜. 현 멧 가지가 이실 건디.  
103026 @ 예, 것도 나중에 여자삼춘한테 또 물어보쿠다. 그 좁쌀 허영 엇도 허고.  
103026 #1 엇 허주.  
103026 @ 엇도 허고 그 다음에 술도 헤실 거고예?  
103026 #1 아 물론.  
103026 @ 술 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  
103026 #1 건 흐린조라사.  
103026 @ 아, 흐린조 헤갓고.

103026 #1 흐린조 저 오메기 해 낱근에 술허고.  
103026 @ 음, 집에서도 우리 여자 삼춘도 술 해낫수가?  
103026 #1 헤어나실 거라.  
103026 @ 아, 기구나. 건 나중에 또 물어보야켜.  
103026 #1 난 집의 안 부편 나들기만 해나난.  
103026 @ 예전인 식게허젠 해도 조 헤갓도 술도 헤실 거 아니라예? 그때는.  
103026 #1 떡도 허고  
103026 @ 무슨 술 옛도, 옛 허당은예.  
103026 #1 저, 감주.  
103026 @ 감주를 하영 올렛지예. 제주로예. 아아.  
103026 #1 감주가 제대로 이제 제사 때나 명절 때 헛는데 지금은 와서 그 문화가 없어져부러주.  
103026 @ 요즘은 감주허는 법이 엇어예?  
103026 #1 아주 명심하는 집은 지금도 감주 허여.  
103026 @ 아아, 감주 허는 집도 잇구나.  
103026 #1 지금도 허여. 즉 말허면 그게 그 옛 되기 전의.  
103026 @ 예예.  
103026 #1 조청허기 바로 직전이니까.  
103027 @ 음, 맞습니다. 삼춘, 그 보릿낭은 걸름허곡.  
103027 #1 음.  
103027 @ 이 조는?  
103027 #1 우마가 먹고.  
103027 @ 우마가 먹는 거라예? 그거는 뭐렌 헵니까? 조쩍?  
103027 #1 조칩.  
103027 @ 조칩. 조칩이렌 허는 구나. 여기서예? 조칩으로 하고. 조 불리명 잇어 불지 못허는 추억ㄴ튼 거 잇수가?  
103027 #1 이 그런 건 별로 없는데.  
103027 @ 예, 그건 엇고예? 삼춘, 예전에는 무사 이런 보리낭을 읍겨오거나 조 낭 읍겨 오거나 허게 뒤면 쉼나 들로 시경 왓잖아예. 게문 그 흔 바리 두 바리 영 허지 아넵니까?  
103027 #1 으.  
103027 @ 멧 저 멧 무꿈을 흔 바리 허는 건 알아지쿠과?  
103027 #1 서른 못, 서른 붓.  
103027 @ 뭐가 서른 못이우과?  
103027 #1 무꿈 하나 둘 헤영 숫자가 서른 개민 흔 바리.  
103027 @ 조도마씨?  
103027 #1 으.

103027 @ 거는 짝을?  
 103027 #1 으으.  
 103027 @ 고고리 이신 거는?  
 103027 #1 견디 이 저 고고리 이실 땐 그런 말 안 곧고.  
 103027 @ 음, 짝으로 헐 때는 게민 여기는 그 조쪽 그 조 무끄는 게 못이 별로 안 큰가보다양?  
 103027 #1 크지 아녀고.  
 103027 @ 크지 안 하고. 어떤 디는 조 이만큼씩 무끈덴도 헐게마는.  
 103027 #1 건 저 고고리 툷기 전에.  
 103027 @ 예, 고고리 툷기 전에.  
 103027 #1 거 그냥 집의 왕 고고리 찢르젠 헐 때에, 고고리 툷젠 헐 때에.  
 103027 @ 음.  
 103027 #1 집의 가져 올 땐 이젠 크게 무경 헐 쪽에 질메 헐 쪽에 식 개씩 헤 영 으섯 무끔.  
 103027 @ 음.  
 103027 #1 이젠 무경 오곡.  
 103027 @ 게민 그땐 으섯 개가 헐 바리가. 조쪽은 서른 개가 헐 바리고.  
 103027 #1 조쪽.  
 103027 @ 조쪽은예? 출은마씨?  
 103027 #1 출은 마흔 못.  
 103027 @ 출은 마흔 못. 보리도 시경 땡겨수가? 그치록.  
 103027 #1 보리도 멧 바리 멧 바리 행근엥게 거기서 무끄민.  
 103027 @ 예, 멧 개 거는?  
 103027 #1 보리, 보리도 이제 뭐.  
 103027 @ 고고리 이시난.  
 103027 #1 야간 여기선 서른 못이야.  
 103027 @ 아, 서른 못을 헐 바리로 치는데 출은 마흔 못예?  
 103027 #1 마흔 못. 여기도 이 저 뭐 낫으로 빈 거?  
 103027 @ 예.  
 103027 #1 장낫.  
 103027 @ 예, 장낫?  
 103027 #1 그건 서른못 처.  
 103029 @ 아, 출도?  
 103029 #1 응.

### 콩 농사

103029 @ 장낫으로 헛느냐 호미로 헛느냐 그게 뜨나구나예? 영 행 이제 조농사

는 허고. 콩도 하영 같읍디가?

103029 #1 콩 하영 안 갈양 집의 장에 먹을 거.

103029 @ 아, 여기는 하영 안 가는 구나예, 콩은예. 콩 농사 허젠 허든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마씨?

103030 #1 콩 농사 허젠허면 그게 그, 저 보릿그르에 가는 수도 있고.

103030 @ 예.

103030 #1 이제 겨울 놀렀다가 봄 콩 허는 수도 있고.

103030 @ 음.

103030 #1 이제 그러는디 그 우리가 그 밭 허나 허젠 돼민 혼 허나도 허곡 엇인 사름은 반착도 행근앵에 가는디 그건 이파리가 떨어져서 거름이 돼니까.

103030 @ 으음.

103030 #1 겨고 건다는 것만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그 박테리아가 이 질소질을 많이 그 형성해 줘가지고.

103030 @ 예.

103030 #1 이 아주 콩 농사만큼은 자주 허면은 이 밭이 곁어.

103030 @ 예, 예, 예. 게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장담을 걸로만 현 거라예?

103030 #1 장담곡게, 것도 쫘 잇어야 강 품도 허곡 허주게.

103030 @ 예.

103030 #1 풀양근앵에 이 옷도 사 입곡. 무신 거 살림살이도 허곡.

103030 @ 콩으로?

103030 #1 어, 사오곡.

103030 @ 그 콩은 아까 이제 두 번 갈아마씨? 콩은 언제 갈아?

103030 #1 혼번 갈주.

103030 @1 어느 계절에?

103030 #1 늦은 봄 이른 여름.

103030 @ 그때 허면 수확은 가을에 허는 거난예?

103030 #1 가을에 허곡.

103030 @ 콩도 밭갈양 씨 뿌령은에 허는 거우과?

103030 #1 으음.

103031 @ 게든 역시 콩밭은 거름 아녀켜예?

103031 #1 거름 아녀.

103032 @ 거름 안 허고예. 이것도 이제 그 보리 갈아난 그 그르에 갈 거니까. 게문 콩씨는 어떻 뿌립니까?

103032 #1 콩씨도 역시 탄 씨 뿌리듯.

103032 @ 손으로 힘을 줘은에.

103032 #1 힘 줘 아상 뿌리면?

103032 @1 여기는 뿌린덴 아녕 콩씨 뻗덴 허지예?

103032 #1 뻘뎨.

103032 @ 예, 뻘뎨.

103032 #1 콩씨 빼여.

103033 @ 콩밭도 검질 뻘니까?

103033 #1 콩밭 검질 메사주.

103033 @ 여름에는 더 하쿠다예? 검질이.

103033 #1 아니 혼 두어 번 메른 끝나고. 우에서 덮어지니까.

103033 @1 예.

103033 #1 검질이 덜 나.

103034 @ 아아, 콩밭은 여름인디도예. 음, 게른 두불 메른 뉘는 거고. 어떤 걸  
질, 콩검질론 어떤 거라는 거 기억 남수가? 여름 검질들은?

103034 #1 겨난 지금 그 제완지.

103034 @ 예.

103034 #1 제완지 그것이 쉘 많이 나.

103034 @ 아아, 제완지예? 제완지도 종류가 으라 개렌 험디다.

103034 #1 몰르커라.

103034 @ 건 몰르쿠과?

103034 #1 표준은 거 바랭인가?

103034 @ 바랭이 예. 쉘비눔 ㄱ튼 거 안 나수가?

103034 #1 무사 쉘비눔도 나주게.

103034 @ 것도 여름 검질예? 춤비눔, 쉘비눔 어, 그런 건 나고. 제완지 검질이  
메영 놔뒤도 막 부터불고예?

103034 #1 그게 부터봄도 잘허곡. 저 이 쉘비름도 그거 상당히 죽이기 힘든 거.

103034 @ 예, 쉘비눔도예?

103034 #1 지금은 와서 그걸 그 효소 만들민 상당히.

103034 @ 몸에 좋덴들.

103034 #1 몸에 좋덴덜 허는디, (웃음) 우리가 검질메영 던져불곡 뉘 허는 게  
전부 하나이 약초로 생각허민 뉘는 건디.

103034 @ 예. 맞수다.

103034 #1 그걸 몰라 하하.

103034 @ 맞아, 비름, 춤비눔 이런 것도 비름나물허영 육진 먹음니께, 우린 안  
먹어도.

103034 #1 무사 춤비름은 그거 설사도 터지곡 허여.

103034 @ 아, 옛날 경 먹어나수가?

103034 #1 으, 변비허는 사름 먹으민 좋아, 옛날도 먹어나서.

103034 @ 옛날도 먹어수가?

103034 #1 춤비름 먹어. 쉘비름은 안 막고. 쉘비름도 경 좋은 걸.

103034 @ 그 생명력이 얼마나 좋아양? 웃음.

103034 #1 상당히 강한 거주.

103034 @ 예.

103034 #1 경허곡 또 그 뿔고 그 금전초?

103034 @ 음.

103034 #1 비단풀이엔 행.

103034 @ 비단풀 예. 이렇게 영 생경 쪼플락 쪼플락 현 거.

103034 #1 그것도 그 우린 귀차년 건디 얼마나 좋아. 이 담석증 ㄱ튼 거 문 녹여 버리니까 아니라.

103034 @ 예. 근데 비단풀이 옛날에는 마당에 이런 테들도 막 하영 잇어났어 저기.

103034 #1 밧디덜.

103034 @ 흑마당덜 이런 디덜. 잘 보지도 못허는 거 닐아.

103034 #1 아니 만헤여.

103035 @ 아직도 많아마씨? 콩은 수확할 때 콩은 뭐렌 헵니까? 꺼끈덴 허는가 마씨?

103035 #1 꺼꺼.

103035 @ 뭇로 꺼꺼?

103035 #1 호미로.

103035 @ 게난 보리나예 조는 빈덴 근지 아넘니까예. 건디 무사 유독 콩은 꺼끈덴 허는고예?

103035 #1 건 비질 못허여. 꺼건 저도.

103035 @ 아.

103035 #1 비는 거 허고 거끄는 건 차이가 잇으난.

103035 @ 어떻 트난 겨우과? 어떤 차이?

103035 #1 이젠 걸령 물리면.

103035 @ 예.

103035 #1 보리나 존 끊어지는데 이건 꺼꺼져.

103035 @ 그래서 꺼끈덴 굴앗구나게. 게난 콩은 꺼끄고. 꺼끈 다음에 거는 태작 허젠 허면.

103035 #1 건 도께로나.

103035 @ 예.

103035 #1 메탁기로나.

103035 @ 메탁기로나. 옛날에 도께로 콩 하영,

103035 @ 으.

103035 #1 도께로 허는 건 뭐 허염젠 헵니까?

103035 #1 콩태작.



103035 @ 두르린다?

103035 #1 콩태작.

103036 @ 콩태작? 다 태작이라예? 콩으로는 뭐 험니까?

103036 #1 콩으론 메주허곡 국 끌렁 먹고,

103036 @ 음.

103036 #1 그 다음 뭐 뭐냐 그 저 강 돈 강 받아오고.

103036 @ 음, 둠비도 해 먹고.

103036 #1 둠비도 해 먹고 그거주.

103036 @ 예, 결혼할 때 둠비 허지 아녘니까?

103036 #1 에이고, 물론.

103036 @ 그 콩도 종류가 으라 가지우과?

103036 #1 콩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나도 몰르커라.

103036 @ 음.

103036 #1 뭐뭐 청태니 뭐니 청태 뭐 은대두 뭐. 아이고, 나도 이젠 문딱 잊어 부렀네.

103036 @ 콩으로, 콩나물도 행 먹엇지예?

103036 #1 아이, 물론.

103036 @ 여기는 콩나물렌 안 허영 뭐렌 해나수가? 옛날에.

103036 #1 콩주름.

103036 @ 콩주름, 게 주름 놓는 콩허고 장 멘드는 콩허고 뜨나지 아녘니까?

103036 #1 지금이야 뜨나지 옛날은 그게 그거.

103036 @ 아, 그 장 멘드는 거 장콩이렌은 안 험디가?

103036 #1 아, 그저 지금은 장콩이엔 무사. 장콩이엔 허주마는.

103036 @ 예.

103036 #1 이 저 그건 일단 수확해다 낱 논 다음에 장 멘들젠 험 때 장콩이지 그 전엔 장콩이엔 말을 아녀.

103037 @ 아 장 멘들 때. 옛날에사 막 굶은 거 아니우과예? 그, 게 여기는 이제 주름이렌 헛구나예? 콩찍이렌 험니까? 콩칩이렌 험니까? 콩 저기 수확해난 거 저?

103037 #1 아, 콩고질.

103037 @ 건 콩꼬질렌 허여.

103037 #1 고질.

103037 @ 왜냐면 이게 빌 거, 꺼끌 거 아니우과예? 게든 그거 테작 끝나면 이 령게 보통 무경은에.

103037 #1 무경 놔뒀당.

103037 @ 예.

103037 #1 건 불 때기도 허곡 소 먹이기도 허곡.

103037 @ 아, 삼춘 계속 소렌 험신디 쉐렌 안 험니까? 이 동네.

103037 #1 건디 그게 버릇웨연이.  
103037 @ 예.  
103037 #1 어린 뎨 쉼엇는데 조금 욱아가난에 소소 헤연에.  
103037 @ 소소 헤부난 지금도 소렌 험서예?  
103037 #1 그냥 그게 저 질들어부런.  
103037 @ 질들어부런예. 질들어도 이젠 쉼렌도 흐뎡 굴아줍서.  
103037 #1 으, 쉼 떡곡.  
103037 @ 예.  
103037 #1 쉼 떡곡.  
103037 @ 예.  
103037 #1 불. 불 습곡.  
103037 @ 아, 불 습곡. 맞수다. 불 습아야주 불 때는 게 아니고예. 그거를 콩  
꼬질렌 허여. 콩짚이렌 안하고?  
103037 #1 콩꼬질.  
103037 @ 콩꼬질예?  
103037 #1 풋은 풋꼬질.  
103037 @ 풋은 풋꼬질허고, 무사 콩 꼬질엔 험신고?  
103037 #1 몰라 꼬질이렌 현 걸 그 글잘 좇아바시민 뭐가 나올진 모르는데, 지  
금 제주 그 방언을 좇아보면은?  
103037 @ 예.  
103037 #1 예 칠십 프로가 한자음이고.  
103037 @ 예.  
103037 #1 이제 삼십 프론 뜻이고.  
103037 @ 음.  
103037 #1 현대 욱짓말은 한자 뜻이 70%고.  
103037 @ 음.  
103037 #1 예 한자음으로 뎨 건 별로 없고.  
103037 @ 음. 게난 이제 콩꼬질 이렇게 영 꼬투리 있는 것들을 다 꼬질현 거  
뎡아예, 풋도 그렇게 허고.  
103037 #1 경 현거 뎡아.  
103038 @ 콩 농사허명 뎡 얽힌 추억 이런 건 엇고마씨?  
103038 #1 그런 거 별로 엇어.  
103038 @ 거고 삼춘 무사 옛날에 보면 그 조팍디나 이런 디 콩 듨성듨성 영 갈  
기도 허지 아넨니까예?  
103038 #1 건 머드레.  
103038 @ 머드레예? 머르레콩 영 험니까? 여기도.  
103038 #1 머드레엔 곤는디, 그것만 굴렌 허면 안 나와.

103038 @ 아, 그렇주마씨 예.

103038 #1 안 나와?

103038 #1 지금 듬성듬성 낫젠 허니깐 머드레 곱아지는다.

103038 @ 예, 게난 그계 머드레헤고, 대죽도 머드레 허지 아넵니까예?

103038 #1 대죽도 머드레, 꿰도 머드레.

103038 @ 꿰도 머드레헵니까? 게른 꿰머드레 콩머드레 이렇게 허는데, 돌들도 이렇게 논 것도 여기 머드레 헵니까 머들이엔 헵니까?

103038 #1 머들.

103038 @ 거는 돌 현 건 머들이렌 허고.

103038 #1 머들.

103038 @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자 심은 거는 듬성듬성 현 거는?

103038 #1 머드레.

103038 @ 알아수다. 경허영은에 이 왜냐면 별도로 밧이 엇이면 다 머드레 놔갓도 장콩들 현 거 아니라예?

103038 #1 경.

103038 @ 콩ㄱ르[콩ㄱ르]도 뭐 하영 먹엇지예? 콩ㄱ르.

103038 #1 하영 먹고 말고. 옛날 주식이니까덜.

103038 @ 뭐. 콩ㄱ르도 뭇 행 먹어수가? 여기선.

103038 # 콩국 끌렁 먹고 둠비헤영 먹고.

103038 @ 콩죽 이런 건 안 행 먹어?

103038 #1 콩죽 무사 안 행 먹어. 옛날은 이제 해산혈 때에.

103038 @ 예.

103038 #1 애기 놔뵤 콩죽 썬 먹엇저. 무신 콩죽 썬 먹을, 저녁 먹은 후제 콩죽 썬 만든 헷저.

103038 @ 음.

103038 #1 어린 때 시간이 없으니까. 애기 난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헷주. 그건 이제 대개 콩죽을 주로 영.

103038 @ 애기를 비유를.

103038 #1 콩 비유를 경 헤여.

103038 @ 먹는 양식에 콩죽을 하영 먹엇다는 거라예? 밥을 못 먹고 허니까.

103038 #1 경 현 거주.

103038 @ 무사 그 콩죽 영 썬 오면 그 우에 이렇게 영 뜨는 거 잇지 아녀우짜예? 까풀처럼 이렇게 영 생기는 거 뵤렌 곤는지.

103038 #1 몰르커라. 우의 트는 거.

103038 @ 예. 꼭 언딘 건치룩 영 허자넵니까?

103038 #1 지금 말론 순부두여 뵤여 곱안, 곤는 거주마는

103038 @ 그건 모르고예?

103038 #1 몰르커라.

103038 @ 여기 강 들으로 저기 강 들어도 원 아는 사름이 엇어. 웃음.

103038 #1 그거.

103038 @1 예.

103038 #1 순두부를 우리말로 여기 방언으로 이제 글을 사람이 실 건가?

103038 @ 그걸 막 글아.

103038 #1 어디 강 자꾸 들으면.

103038 @ 나올 테주.

### 밭벼 농사

103039 @ 혹시 산뒤도 갈아뽑디가? 삼춘.

103039 #1 산뒤는 거 일년 농사라이.

103040 @ 아, 산뒤는?

103040 #1 일년 농사. 봄에 일찍 가는 게 있고 줌 늦영 가는 게 있고. 역시 또 것도 보릿그르에 가는 거 있고.

103040 @ 예.

103040 #1 건 계난 수확인 늦게 갈수록 족아.

103040 @ 아, 아무래도예?

103040 #1 경혜영 것도 이 거두어들이는 건 역시 뜬 것덜 허고 마찬가지로.

103040 @ 예.

103040 #1 그 호미로 비영 이제 가상을 터나 아니면 저 홀테에서 홀트나 메탁기, 건 메탁긴 최근에 나온 거고.

103041 @ 예, 예.

103041 #1 메탁기에서 흔번 홀트나.

103041 @ 수확하는 건 다 2톤 거고. 그것도 역시 여름농사니까 걸름은 아널 거고.

103041 #1 걸름은 안 허고, 비론 허곡.

103043 @ 비론 허고예. 그 산뒤도 슝습니까? 그거는 검질?

103043 #1 예, 산뒤, 아 요는 뭐이던지 복잡허게 나면은 우 드탕은에 돼들 아녀.

103046 @ 우 드타부난에. 맞아 것도 싸움이 안 돼는 거구나. 검질도 메야돼고. 그 산뒤썰은 귀헌 거 아니우파예? 여기는 논이 없지양?

103046 #1 논 없어.

103046 @ 산뒤썰 썰던 용돌 글아줍서?

103046 #1 곤떡 혜영 먹고 곤밥 혜영 먹고 이제 그건 요는 제사 때 곤밥허영, 곤밥허영 올리는 거 쟈 먼저 글아살 건디.

103046 @ 예게, 그거부터 곱서?

103046 #1 곤밥 혜영근영에 상에 올리고 곤떡허고 시루떡.

103046 @ 예.

103046 #1 이제 저 시루떡 백설귀.

103046 @ 백설귀?

103046 #1 그거 허곡. 경 또 여유 이시민 폴양근엥에 뭐 신발이라도 사고.

103046 @ 예, 계난 이제 예전에 산뒤 간 용도는 제사를, 멧질허젠 현 거라예?

103046 #1 주로 이제 춤 부자칩이의서나 이제 사람들 먹엇주. 이제 우리 저 가난헌 집의덜은 그거 춤 제사 때나 먹엇주 어린 때 당추.

103046 @ 계난 그 곤밥에 대한 추억들은 하시쿠다예?

103046 #1 곤밥에 대한 추억이야 뭐 어느 집의, 계난 옛날도 이 저 제사칩 아이덜 독헌덴 허는 말이 바로 그거지.

103046 @ 예.

103046 #1 이 자기네 집원 어려운 걸 그날 처녀은 준비헤영 나뉘 주니까 뭐 나말 잘 들어서 헌덴 헤영근엥에 허곡. 춤, 그 어려운 그 뭘 그디 강근에게 얻어, 춤젯밥 그 저 음복허곡.

103046 @ 음.

103046 #1 이 그 식게 식게 헤난, 식게칩이. 식게엔 현 게 이거 중간에 말은 똥들로 흘룬디 먹을 식자가 식사엔 현 식자가 에 제사 지낼 식도 웨여.

103046 @ 예.

103046 #1 갠 떡 개짜라.

103046 @ 음.

103046 #1 제사 지내고 식게 지네레 감서 허민 제사 지내고 떡 먹으레 감서 헌말이라.

103046 @ 옛날에 떡허는 게 오직 식게 때 허난예?

103046 #1 으으. 계난 지금 여기 학자덜토 식게 현 건 방송엘 들으나 뭇에 허민 그 잘 그걸 곱갈랑근에 곱아주질 아녀는데 제사 지내고 떡 먹으레 가는 게 식게 먹으레 감서 현 말은.

103046 @ 식게 먹으레 감서?

103046 #1 떡 개자[개짜].

103046 @ 음, 건 처음 들엄수다.

103046 #1 경험실 거라.

103046 @ 겐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예, 식가렌 현 제도도 잇어난마씨. 식게가 아니라 식가렌 헤갓고 그 기제사가 잇으면 휴가를 쥘은에 강 제사를 지낸 오랜 현 게 그게 식가고,

103046 @ 식가.

103046 #1 그래서 식게가 왓덴 헤갓고 학자덜은 경 곱암수다. 이제. 계난 그런 것도 잇고 이런 뜻도 잇고.

103046 #1 게, 식게, 식게 그냥 이 제주도 방언이지만 한자 음이라이.

103046 @ 예 한자에서.  
 103046 #1 한자음. 이걸 이 떡 개허고 이 제사지낼 식허고.  
 103046 @ 음.  
 103046 #1 경 해근에 헨 디 지금 나가 생각할 때에 앞에 식게 허면 한자를 찾을 수 잇는 한 찾아서 한자 놓고.  
 103046 @ 음.  
 103046 #1 여기.  
 103046 @ 뜻풀이도 해보고.  
 103046 #1 뜻풀이 농곡. 이 방언책을 요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너나 할 것이 알아 먹기 쉽곡 뒤흔 게 아니냐 뒤흔냐. 허주마는 그거 지금 한자에 정신 주는 사름도 엇고.  
 103046 @ 맞수다.  
 103046 #1 또 옛날 거 나가 영 해보니까 저디 웃으멍 노는 게 좋은 거지 그거 낡근엔게 영 그거 저거 좇곡 그렇게 힘드니까이.  
 103046 @ 예. 맞습니다.  
 103046 #1 게난 모든 게 경 어려운 거로고. 어려와. 지금 춤 이거 지금.  
 103046 @ 방언 행 써져신게예. 웃음.  
 103046 #1 경 해연 저번에 온 때에 지금 저 스나이 남학생이 이거 얼마간 이 여기 줄 그엇는데.  
 103046 @ 예.  
 103046 #1 줄 그은 딜로 전부 우터렌 그냥 저 찍언 가서.  
 103046 @ 예예예예.  
 103046 #1 찍언 갓는데 이 저 그루후제 경 많질 못허여.  
 103047 @ 예. 나중에 저도 배와줍서. 경허고 그 산디찍도 옛날엔 엇영 못 썼잠 았쭈가예?  
 103047 #1 아 물론.  
 103047 @ 산디찍론 뵈 썼수과?  
 103047 #1 산뒤쩍으로  
 103047 @ 예.  
 103047 #1 노 꼬고 명석 준고 신 삼곡.  
 103047 @ 음.  
 103047 #1 신깁 내곡.  
 103047 @ 신깁 내곡. 게난 산디찍이 정말 생활에?  
 103047 #1 아이고, 우리 생활에 상당히 그 도움을 준 거주.  
 103047 @ 맥도 좋아봅디가?  
 103047 #1 아이, 맥은 못 좋아봐서.  
 103047 @ 아? 명석 좇는 거는 봐보고?

103047 #1 마렛방석은 좋아본디이.

103047 @ 아. 마렛방석은 좋아판만씨?

103047 #1 뽕뽕 도는 거니까.

103047 @ 예예, 아, 거난 옛날에는 집집마다 명석 하나 허젠 해도.

103047 #1 아이고.

103047 @ 산뒤쪽으로 다 현 거라예?

103047 #1 산뒤쪽 허영. 그거 이제 웃어른이 허면 그걸 영 두드리믄 해낫주.

103047 @ 아, 두두림으로. 거 두드리는 건 뭐렌 험니까?

103047 #1 덩드렁, 덩드렁마께.

103047 @ 예. 경 행 이제 부드럽게 저기를 이제.

103047 #1 물 푸멍근에 그거.

103047 @ 물 풀 때는 입으로 푸 부릅니까?

103047 #1 아이, 물론 거. 입으로 푸무멍.

103047 @ 입으로 폼으멍. 갱은에 산뒤쪽으로 엇이민?

103047 #1 그걸 입으로 뽕으라. 입으로 폼으라.

103047 @ 입으로 폼으라. 왜냐허면 그제 젓지 않으면은 다 깨져부니까예?

103047 #1 그냥 뿌서져부니까.

103047 @ 뿌서져부니까. 산뒤쪽으로 해야 메주 같은 것도 저기를 하니까예? 산 뒤 안 간 사름들은 상 와사쿠다예?

103047 #1 짹이 아니고 짹이엔.

103047 @ 짹이렌 험니까? 산디짹.

103047 #1이 이웃집의 강 강 빌어당.

103047 @ 아, 빌어당은에.

103047 #1 메주마 뭐 험 때난 신 삼는 것도 강 빌어당근에 허곡.

103047 @ 음, 삼춘도 신 삼아판마씨?

103047 #1 아, 신 삼아봤주.

103047 @ 아.

103047 #1 지금은 아메도 거 더듬더듬허영 험를 걸럼직 허여.

103047 @ 아, 노도 꼬아야 돼곡. 경. 그 신각을 잘 내야 웅텐 현 게 마는예?

103047 #1 그제 이빠. 이쁘게 해야 곱닥허게.

103047 @ 음, 경해도 그 여기는 초신이렌 험니까? 짹신이렌 험니까?

103047 #1 초신이엔.

103047 @ 초신이엔예. 초신 삼을 때 왜 초신도 종류가 곱게 삼은 거 허고 그냥 낫인 거 하고 그 각에 따랑 딱난덴 허멍예?

103047 #1 불각신이 잇고.

103047 @ 예.

103047 #1 불각신은 노동, 노동파고.

103047 @ 예예예.  
 103047 #1 이 깍신은 고니까.  
 103047 @ 음.  
 103047 #1 노랑케 이제 깍, 불, 깍이 노랑해영근에 고니까 거 깍신은 이 깍신이  
 였 허곡 불깍신였 허곡.  
 103047 @ 불깍신였 허곡. 그.  
 103047 #1 또 하나. 뭐가, 막노동할 때 신게 허는 게 뭐거 잇는데, 잊어부려서.  
 103047 @ 그 옛날에 저기 깍도 막 여러 개 놓는 게 아니고, 세 개 삼갑실 헤갓  
 고 그 상 때. 영장 나면 그 상주들이 신어났던 신 이런 거는.  
 103047 #1 아 그거 역시 그냥 이 초신으로 그냥 신어나서.  
 103047 @ 그냥 초신으로 헤갓고예?  
 103047 #1 초신으로 신어.  
 103047 @ 그 깍 낼 때 미로 이런 식으로 내보진 아녀수가?  
 103047 #1 미로 아니 그건 깍신.  
 103047 @ 깍신예? 경혜야 곱텐 허명예?  
 103047 #1 고와. 노랑행 곱주뒤.  
 103047 @ 깍은 미로 헤근에 내기도 하고예? 계난 이 진짜 산뒤는 제영 이런 집  
 에 다 소용되는 거예? 이런 물건들 만들 때 이제 쓰는 거고. 산뒤허명은에 얽인 추  
 역같은 거.  
 103047 #1 건 별로 없어이.  
 103047 @ 그런 건 엇고예? 알아수다. 이건 농사는 다 짓영 가사쿠다. 이제 감저  
 농사허고예? 뒤.  
 103047 #1 잠깐 또 쪼끔.  
 103047 @ 휴가허쿠다.  
 103047 #1 휴식.  
 103047 @ 너무 오래 앓안.

### 고구마농사

103049 @ 이제는 감저, 아까 이제 공출도 허고 헛덴 허명. 감저 농서허젠 허면  
 은 어떤 식으로 씨 묻는 것부터 시작행은에 쪽 곱아줍서?  
 103049 #1 감저는 구광을 놔야땤.  
 103049 @ 예.  
 103049 #1 그 씨, 처음 씨 묻는 걸 구광이라고 헤여이.  
 103049 @ 구강예.  
 103049 #1 예, 구광을 넣어서 그 줄을 잘 키우면.  
 103049 @ 예.  
 103049 #1 그거. 적당한, 적당한 길이가 땤면은 그걸 가지고 밧뒤 가서.



103049 @ 예.

103049 #1 밧고지를 크게 만들어.

103049 @ 음, 감저 싱글 댐예?

103049 #1 밧고지를 크게 해영 이제 거기에 썰, 줄을 묻어두면 이제 거기에 당는 저 열매가 부뜨는데 저 우에나 남군이나 거기하고 싱그는 게 이 도련은 틀려.

103049 @ 아, 어떻 틀려마씨?

103049 #1 여기는 잘 다져줘야 되고.

103049 @ 예.

103049 #1 거기는 꺾꺾 질렁만 내붙어도 돼여.

103049 @ 아, 거는 무산고양?

103049 #1 거긴 질렁만 내부러도 돼는디 여긴 그렇게 허민 그냥 죽어부러.

103049 @ 아, 땅이 흐뎡 뜬땅이우과? 여기는.

103049 #1 여긴 저 웬땅.

103049 @ 웬땅이 경허는 거우과?

103049 #1 저 뜬땅엔 그냥 질렁만 내부러도 돼는데 이 웬땅엔 잘 다져줘야.

103049 @ 음, 게문 이제 줄 싱경 똑똑 놀르멍은에 싱거사키여예.

103049 #1 막 두드렁.

103049 @ 막 두드려예. 아, 손으로.

103049 #1 으.

103049 @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는구나.

103049 #1 지금은 장갑 쟁 허주마는 옛날은 장갑도 잇이 그냥 맨 주먹, 맨손바닥으로 그냥 막 다져야.

103049 @ 예, 게문 그 감저 농사허젠 허면 준비허는 게. 어떤 식으로. 씨는 씨는 어떻 놔두고 허는 거부터 곶아줍서?

103049 #1 아, 씨는. 아니 이건 내중에 건 썬 쥬 내중에 들어가야주이.

103049 @ 예예.

103049 #1 내중에 들어가. 이건 이제 구광을 넣어서 줄을 키와서 밧되 가서 심고 이제 검질메고.

103049 @ 음.

103049 #1 이제 감저가 잘 들면 한자론 감저라고벳기 쓸 수가 없어.

103049 @ 맞수다.

103049 #1 고구마라고 쓸 수가 없어.

103049 @ 예, 예, 예.

103049 #1 감저 이제 감저가 들민은 이제 그걸 쟁기로 갈아.

103049 @ 예.

103049 #1 이젠 가져와, 가져당 보관을 허는데.

103049 @ 네.

103049 #1 이제 감젓구덩이에 강 묻는 방법도 있고.  
103049 @ 예.  
103049 #1 씨는 사름 자는 방에 넣어둬야 제일 안전헌 거.  
103049 @ 아, 게른 거는 뒤에 낵은에 그 방에는?  
103049 #1 방에는 그 그것만 놓게끔 그 걸 만들어야.  
103049 @ 예.  
103049 #1 만들영근에.  
103049 @ 맥을 만드는 겨우과? 아니면은?  
103049 #1 아니, 맥에 허영 이런 백장에 놔도 돼고. 이곳이 마 골방ㄴ치 우알더  
레 영 혜낵 이 저 그 뭇로 영 가려지게.  
103049 @ 예.  
103049 #1 가리곡 내중에 카텡이라도 영 쳐부리민 거기 몰르게.  
103049 @ 음.  
103049 #1 게난 그런 걸 그 흑 부뜨고 헐 걸 방안에 놓느냐 헐 사름도 잊지마  
는 젤 안전하게 보관헐 수 잇는 게 사름 살 수 잇는 그 온도라야 젤 보관이 좋은  
거.  
103049 @ 음.  
103049 #1 게난 농민덜은 그거 저거 헐 거 엇이 수확헤여 오민 저장허는 방법  
을 잘 알아둬야.  
103049 @ 그렇지예, 썩지 아녀게.  
103049 #1 썩지 아녀게.  
103049 @ 다음 해 또 헤야돼고.  
103049 #1 게난 거기에 놓앗다가 풀기도 허고.  
103049 @ 음.  
103049 #1 많이 넣으면. 또 다시 저 또 구광 놓곡.  
103049 @ 음.  
103049 #1 그걸로.  
103049 @ 예.  
103049 #1 경허민 한 바꾸 영 도는 거.  
103049 @ 예.  
103049 #1 기침  
103050 @ 아이고, 미안허우다, 삼춘. 감전 언제 갈아마씨?  
103050 #1 오월, 오월 초 돼지. 아, 사월달 돼지.  
103050 @ 게난 구광 놓는 계절은 언제우과?  
103050 #1 예, 사월 오일 경이주.  
103050 @ 아아, 사월 오일 경 구광 낵. 줄.  
103050 #1 청명이지. 사월 오일.

103050 @ 예예.

103050 #1 청명.

103052 @ 음, 아이고, 어땠어코? (웃음). 그 사월 오일 행 구광 놓면 그 싱그는 거는 보릿그르에.

103052 #1 보릿그르에도 허곡.

103052 @으, 그냥.

103052 #1 이제 또.

103051 @ 경 행 이제 허곡, 그 감저 싱글 때도 거름 헉니까?

103051 #1 감저 싱글 때 으, 저 갈 때에.

103051 @ 예.

103051 #1 갈 때에 거름 좀 놔줘야 그건 좋주.

103051 @ 으음. 주로 어떤 거름 놔신고예?

103051 #1 주로 퇴비들 조끔씩. 그 저 영 골 팡 놓는 수도 잇곡, 갈 때에 놓는 수도 잇고.

103051 @ 음.

103051 #1 아니면 음, 집 일 때에.

103051 @ 예.

103051 #1 그 줄.

103051 @ 예.

103051 #1 집줄 물 적정 쪽허게 낱 거기에 그냥 영 헤두면은 습기가 잇으니까.

103051 @ 예예.

103051 #1 이 또.

103051 @ 그거는 고향에 이렇게 낱은에 놔두는 거라마씨?

103051 #1 고지에.

103051 @ 고지에.

103051 #1 고지에 골 팡.

103051 @ 으음.

103051 #1 골 팡 그 우에 감절줄 놔낱 흑 더평.

103051 @ 아아, 그런 방법도예. 줄을 버리지 아냉은에 그런 식으로도 헛구나예?

103051 #1 경 아너민 그 줄은 불 때는 거고.

103052 @ 음, 경 아너면 불 때고예? 아, 게문 그 감젓줄로 이제 그 싱그는 거 이렇게 메 놓텐 헉니까? 여기는.

103052 #1 어땡?

103052 @ 감젓메 논 텐 헉니까? 감젓메?

103052 #1 감젓메 놔사주.

103052 @ 구강 놓는 게 감젓메 놓는 거엔 허지예?

103052 #1 구강엔 곧는 사름도 잇고 감젓메엔도.

103052 @ 감젓메 해면 보통은 줄 어느 정도 크기할 때 싱거마씨, 이게?  
103052 #1 요게 멧 센터 웨코?  
103052 @오십 센터.  
103052 #1 사십 센터 정도.  
103054 @ 그 사십센치 정도하면 그 정도씩 허영 짤랑 싱그는 거라예? 그 감저  
밧디도 검질메는 거예? 여름에.  
103054 #1 검질메사.  
103054 @ 감젓검질도 메고. 옛날 감젓검질도 멧주마는 그 웨로 헤갓고 구텡이  
긋 올리는 거. 건 뒤렌 험니까? 골 가는 거?  
103054 #1 골 가는 거.  
103054 @ 계난 골도, 보리도 골 같고 경 허지예?  
103054 #1 으.  
103054 @ 경 허지예?  
103054 #1 주로 허는 건 보리에 많이 허고.  
103054 @ 예.  
103054 #1 일단 감젓고지엔 그 줄덜 더퍼져놓으니까.  
103054 @ 예.  
103054 #1 골 갈기가 힘들어.  
103054 @ 아, 감저는 골 잘 안 가는 구나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보면 감저밧  
디도 그 구텡이 올려준다고 골 잡디다.  
103054 #1 경도 허여.  
103054 @ 예.  
103054 #1 흐는 건디 검질, 검질 안 메곡.  
103054 @ 음.  
103054 #1 경허민 경허영 좋는디 그 줄이 영 받아놓니까  
103054 @ 예.  
103054 #1 줄 받기 전에 건 올리는 거.  
103054 @ 줄 받기 전에예?  
103054 #1 줄 받은 후젠 못 허여.  
103055 @ 그 감저 파젠 허면은 어떤 식으로 팟수가? 옛날에.  
103055 #1 웨로 헤영 쟁기로 갈앙.  
103055 @ 응. 감저 쟁기로 갈기 전에는 줄 걷어알 거 아니우과?  
103055 #1 줄 건 호미로 줄 걷어뵤  
103055 @ 예.  
103055 #1 이제 고지만 내앗정 이제 갈아야.  
103055 @ 음, 계민 저도 감저 췌이레도 가고 헤나신디.  
103055 #1 겨민 감젓줄은 이제 담 우에 걸청 물류왕 소 양석.

103055 @ 네, 소 양석. 그게 영양가 한 거라예?  
103055 #1 으.  
103055 @ 경 혜영 이제, 이제 쉼로 갈양은에 파는 거고예?  
103055 #1 음.  
103056 @ 그 다음에 아까 보관허는 거는 감젓눌 헤갓고 허기도 하고.  
103056 #1 방 안네, 방 안네 보관도 허곡.  
103056 @ 방 안네 헐 때는 이런 뭐 상자치록행은에 짱은에 허는 것과 아니면 가맹이 ㄱ튼 걸로.  
103056 #1 가맹이 혜영 그냥 놔두도 되고 그냥 그런 뭐가 잇으면. 우린 요처럼 헐 저 골방ㄱ치 이 저.  
103056 @ 장을 멘들안.  
103056 #1 요쪽에 영 헐에 그 잇어나서.  
103056 @ 아, 따로 골방치록 영 세왕 멘든 거라예?  
103056 #1 으. 게영 거긴 앞으로 두주 뭐허듯 영 낭으로 막으멍.  
103056 @ 응. 낭으로 헛구나예?  
103056 #1 낭으로 막으멍 건 칸 갈라지주게.  
103057 @ 게영 그거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아수가?  
103057 #1 풀 땐 사례 오민 풀기도 허곡  
103057 @ 예.  
103057 #1 건 여러 가지주워.  
103057 @ 옛날에 풀 때도 무사 절간허영 풀기도 허곡 그냥 썩감으로 풀기도 허지도 아녀수가?  
103057 #1 아, 생감저로도 풀고.  
103057 @ 예.  
103057 #1 응응. 건 전부허는 디. 생감저로도 가고. 절간혜영은에 그건 주정공장으로 풀레 가.  
103059 @ 그 뻗데기헐 때 얽힌 추억이 하실 거 닐아예?  
103059 #1 그때에 그 추억은 널어서 몰리, 그대로 비 안 오민 좋은디,  
103059 @ 예.  
103059 #1 비 오민 그때엔.  
103059 @ 난리가 나?  
103059 #1 비상이고 잘못허민 집안네 싸움도 나고.  
103059 @ 음.  
103059 #1 어디 갔다 왔니 뭐허니 허멍 뭐.  
103059 @ 맞수다.  
103059 #1 (웃음)  
103059 @ 쟁은에 그 비 오젠 허민 다 구름\*\* 밤의 강 좃이레도 가냏지예?

103059 #1 그렇주.

103059 @ 그 말씀 흐끔 곱아줘 줘서.

103059 #1 밤인 초롱 쌍 가사. 그때 전기 엇이난.

103059 @ 예.

103059 #1 전기 엇이난 초롱 쌍 강 놔둬서 그냥 글쟁이 강 견영.

103059 @ 음.

103059 #1 이젠 느람지 아정 강 그냥 그디 그냥 더프는 거라.

103059 @ 음.

103059 #1 뵈에 답을 어의 엇이.

103059 @ 예예, 게민 글쟁이로 헤시면 절, 그 저 감저뵈대긴 어디 강 년 겨우  
과?

103059 #1 테역밧디.

103059 @ 테역밧디. 그냥 밧디는 안 널어마씨?

103059 #1 그냥 밧된 경 널어보지 아녀서.

103059 @ 아아, 저희는 그냥 밧디 그냥.

103059 #1 경덜 헤실 거라.

103059 @ 경허면 밤에도 건 허영허니까 그치록허영 좃이고 허어나신디.

103059 #1 경 아녀민 밧디 년 건 안 좃지 았으면 안 웨니까 열이면 열 개 손  
다 헤여사니깁. 테역밧된 글쟁이로 모이민.

103059 @ 게른 거는 불려야 웨켜예? 글쟁이로 현 건.

103059 #1 그렇지. 브름에 불리는 것사게.

103059 @ 아, 여기는 테엿밧들이 하난 모양이라예. 동네 너른 디 너도 나도 테  
역밧 가실 거 아니예?

103059 #1 저레 헤영근예. 즉 말허면 이 우에, 옛 어른덜 그 지도서 사름덜이  
마을 안네 새왓 이신 디 도련 뿐이렌 허주.

103059 @ 아아, 새왓이 하낫구나.

103059 #1 새왓도 잇엇나서. 이 마을 안네. 테엿밧은 출왓이고.

103059 @ 예.

103059 #1 새왓디, 새왓된 감저 못 널어. 뵈테기.

103059 @ 그렇주마씨. 둥치가 훑어부니까.

103059 #1 곱어놓으니까.

103059 @ 그치록허영은에 허고.

103059 #1 농토가 제일 풍족한 곳이 도련이주.

103058 @ 그냥 옛날부터 도련드르렌 헤십주양. 진드르허듯이양. 그 게민 감젓줄  
로는 뭐 헤신고양?

103058 #1 감젓줄론 쉼먹이.

103058 @ 음. 쉼먹이.

103058 #1 짐승 먹이.  
103058 @ 예, 계영은에 집에 흰 눌씩 놓고 헤낫수가?  
103058 #1 응. 계난 초칩이나 조칩 흰 줄  
103058 @ 예.  
103058 #1 감젓줄 흰 줄 농명 놀을 늘어뒤.  
103058 @ 예.  
103058 #1 놀을 놀엇당 거 빠명 이제.  
103058 @ 계니까 이제 그 수확 시기가 거의 비슷허구나예. 조허고 흐뎡 따난디.  
103058 #1 거즘 비등허여.  
103058 @ 거즘 비등허여마씨?  
103058 #1 고구마가 쪼끔 두에지.  
103058 @ 따로 감젓줄엔 헵니까? 감저꿀엔 헵니까?  
103058 #1 감젓줄.  
103058 @ 감젓줄예. 검젓줄 먹진 아녀나수가? 사름이.  
103058 #1 먹는 건 이파리.  
103058 @ 줄기.  
103058 #1 이파리 줄기 그거 행근에게 줌 먹어주.  
103058 @ 음, 행. 대부분은 쉼먹이고예?  
103058 #1 대부분은 쉼 먹이.  
103058 @ 그 감저 이석 좃이레는 안 텡겨받마씨?  
103058 #1 으, 경 텡겨보진 아녀서.  
103058 @ 아아.  
103058 #1 현디, 조금 어린 때 클 때 막 간세헤더라. 그냥 시에 들어가부렁근에  
계.  
103058 @ 아아, 그때는 잘 감저허는 거는 하영 안 헛구나예?  
103058 #1 음, 심부름을 많이 안 헛주. 어찌다가 앵기면 그냥 일덜 허고.  
103058 @ 예, 앵겨야 일을 허고.  
103058 #1 음.  
103058 @ 그 감저로는 뭘 헤영 먹어신고예?  
103058 #1 감전 주로 간식이랏주.  
103058 @ 아.  
103058 #1 주로 간식. 그 집에.  
103058 @ 쓸 어신 집은 감저도 양식으로 먹고.  
103058 #1 양식으로 먹고.  
103058 @ 으, 어떤 식으로 간식은 헨 먹어수가?  
103058 #1 간식은 콩국 끌렁방근에게 콩국 흰 사발 거려놓곡 감저 쳐당 앞의  
놓곡 허민 거 먹영근에게 때도 살고.

103058 @ 어, 그러면은 음 요즘은 영양식인디. 아, 계난 이제 감저를 먹드래도 집치만 허는 게 아니라 콩국도 ㄴ치 해갓고 이렇게 먹엇다예?

103058 #1 으음.

103058 @ 이 감저도 밥헐 때도 놓지 아넘니까?

103058 #1 밥헐 때도 놓주.

103058 @ 예, 주로 어떤 식으로 헐 때 밥헐 때 놔난신고예?

103058 #1 어떤 식으로 허영 허민. 겐디 감저 낱 현 밥이 맛 좋아.

103058 @ 기지예.

103058 #1 달콤달콤해영.

103058 @ 예.

103058 #1 계영 우리 어릴 땐 그걸 더 먹어나서.

103058 @ 감저 놓은 밥을예?

103058 @ 돌아. 웃음.

103058 @ 그 뭐야 줍쌀 낱 허고 허민 정말 별미라예.

103058 #1 별미주. 지금은 아주 그 돈 많이 줘도 그거 어려울 거라.

103058 @ 줍쌀도 잘 못 사. 맛 좋은 줍쌀을 못 사니까. 경허고 삼춘, 그 감저뻗 데기로도 뭐 해 먹읍니까?

103058 #1 떡.

103058 @ 아, 여기 뻗데기떡을 해?

103058 #1 곶아.

103058 @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3058 #1 저 들방에에서 뻗앙.

103058 @ 예.

103058 #1 ㄴ를 해영. 그걸로 떡허여 먹어.

103058 @ 어떤 떡을 해여? 그걸로. 감저뻗데기로는?

103058 @ 2. 개떡.

103058 #1 으, 개떡인디 췌기, 아니 췌기떡은 저 밀로 만든 거고.

103058 @ 으.

103058 #1 돌레떡엔 허주. 돌레떡.

103058 @ 돌레떡. 둥그렁허게 해연은에예. 아 감저돌레. 그걸로 저기 침떡ㄴ뜨 거는 안 해여마씨?

103058 #1 친떡 안 해 봐서.

## 기타 농사

103060 @ 침떡은 아녀보고 돌레떡 해영 개떡 식으로 경행 먹은 거라예? 그다음 삼춘, 그 말고 혹시 수박이라든가?

103060 #1 아녀봐서.



103061 @ 춤웨는?  
103061 #1 춤웨도 안 해봐서.  
103062 @ 고춘 싱거봤수카? 고치?  
103062 #1 고치, 어린 때야 그 뭐 집에 먹을 걸 쪼금 그자.  
103062 @ 예.  
103062 #1 거 뭐 헛는디 요즘 와서 조금.  
103062 @ 험수과?  
103062 #1 아니, 집의 먹을 건 허여.  
103063 @ 아, 고치 싱것고예? 저기 누물은 갈아마씨?  
103063 #1 아, 누물도게 농촌에 살면서 자기대로 해 먹는 게 그 저 재미니까.  
103063 @ 예.  
103063 #1 또 맛도 좋고. 자기 공들어야.  
103064 @ 공들어야 맛도 좋고예? 늠빠도 여기 하영 갑니까? 여기는.  
103064 #1 늠빠도 그자 집의 먹을만이.  
103065 @ 예, 거는 허고, 감저는? 지실? 지슬?  
103065 #1 지실은 우리 집의 쫘은 멧 곳 낱 허니까 별미가 뉘여이.  
103065 @ 아아, 지실은 어떤 식으로 허는 겨우과?  
103065 #1 지실은 그냥 밧디 강 저 과수원 트명에.  
103065 @ 예.  
103065 #1 조금 행 낫다근앵에. 견디 썩 앞의 일러부카부덴 그냥 그물도 다 치  
곡.  
103065 @ 아아.  
103065 #1 벨 짓을 다 헤여.  
103065 @ 아아, 계난 그 과수원에 그냥 지슬은 멧 개 싱검구나예?  
103065 #1 멧 곳 낱근에게 그자.  
103067 @ 멧 곳 낱구나예? 믱떨들은 하영 갈아서예? 여기예?  
103067 #1 누물?  
103067 @ 믱물?  
103067 #1 믱물은 여긴 도련은 벨로라.  
103067 @ 아아.  
103067 #1 도련은. 저 봉개로 가야.  
103067 @ 아, 여기는 그냥 조허고 보리 이런 거엿구나양?  
103067 #1 응, 그뎌.  
103067 @ 아아, 삼춘넌 모멸 갈아보지 았고?  
103067 #1 어, 안 갈아봐서.  
103068 @ 안 갈아판예? 혹시 여기 그 담배ㄱ튼 것도 싱거나수과?  
103068 #1 담배 싱거낫주.

103068 @ 아, 혹시 삼춘도 싱거판마씨?  
103068 #1 난 하르버지 허는 것만 봐나서.  
103068 @ 예, 그 봐난 것만이라도 어떤 식으로 허드란 거 곶아줍서?  
103068 #1 담뱃 이제 모중판을 만들엉.  
103068 @ 응.  
103068 #1 파니 만들엉 거기 씨 뿌렸당.  
103068 @ 예.  
103068 #1 이젠 그거 하나 하나 이젠 심어.  
103068 @ 아아.  
103068 #1 읍경.  
103068 @ 읍경예?  
103068 #1 읍경 싱경 커가면 이파리 땅. 이젠 이파릴 여깁.  
103068 @ 음.  
103068 #1 이젠 므류와. 이제 공판허곡.  
103068 @ 음. 공판허곡. 혹시 그 이파리 여깁 허면 이렇게 이제 무끄기도 할 거 아니우과? 멧 개씩 여끄는 건 알아지쿠과?  
103068 #1 아 영 심엉 그자 적당.  
103068 @ 적당허게. 이렇게 싱근 거는?  
103068 #1 큰 건 작게 심, 잡고.  
103068 @ 음.  
103068 #1 작은 거  
103068 @ 으라 개.  
103068 #1 여러 개 잡고.  
103068 @ 경허영 그런 거를 뭐뭐 부르는 일름은 엇어마씨?  
103068 #1 게메, 그걸 담배 으깁 물리우켜 허영 그자.  
103068 @ 물리우켜 허고.  
103068 #1 으깁.  
103068 @ 으깁예?  
103068 #1 느람지도 으끄는 거.  
103068 @ 으.  
103068 #1 담배도 으끄는 거.  
103068 @ 게영 그거 풀 때는 멧 개씩 행은에 뭐?  
103068 #1 건 무게난.  
103068 @ 무게로. 무게로. 옛날같은 경우는?  
103068 #1 전매청에서 수매허는 거니까.  
103068 @ 음.  
103068 #1 무게로 허는 거.

103068 @1 옛날에 열 개 허면은 혼 접이여 이런 식으로는 안 해봐마씨? 여기서  
는.

103068 #1 아, 그건 폴레 가쟁 허민 그 요만이 허영은에 요거 담배 일으로 그냥  
감양.

103068 @ 예.

103068 #1 영, 경 허민 그것이 혼 쓰무 개씩은 난 무껌실 거라. 거 이 한 둘레  
가.

103068 @ 혼 둘레가. 혼 둘레 영 험니까? 스무 개. 무꺼 거예? 열 개씩도 무꺼  
덴 허곡 영 골안게마는.

103068 #1 열 개씩도.

103068 @ 그거는 정확한 기억은 없고예.

103068 #1 으.

103063 @ 옛날에는 여기 그, 함덕하면 막 배추 녹물. 배추가 막 유명해났지 아  
녀수가예?

103063 #1 함덕이 상당히 유명했주.

103063 @ 여긴 도련은 그런 거는?

103063 #1 여긴 삼양 내려가야.

103063 @ 아아.

103063 #1 이 집에 짐치 담양 먹을 것도 삼양 강. 여기서도 되는 걸.

103063 @ 예. 무사 안 해신고?

103063 #1 여기서도 되는 걸. 거기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양. 삼양 지금 저 학  
교 그 곁에덜 강 밧 요만씩 행 혼 밧에 얼마씩 헤영.

103063 @ 빌영?

103063 #1 빌영.

103063 @ 삼춘네도 그 속앗인 녹물허젠 허면은 강 빌영 해나수가?

103063 #1 빌영.

103063 @ 건 어떤 식으로 빌영, 어떤 식으로 갈아났수가? 배추는?

103063 #1 배추는 어떤 식으로 갈아. 그때엔 지금은 그 공장에 있언에 거기서  
나오주만, 강 씨 뿌령 낫당 좇인 건 그냥 뽑양 먹당 그 방 빌영 놔두면 그거 크면  
이제 내중에 짐치도 헤영 먹고.

103063 @ 짐치 헤영 먹고. 음, 게 그렇게 해서 현 게 우리 김장 아니라예. 요즘  
예.

103063 #1 김장.

103063 @ 예전엔 배추렌 안 행은에 다 녹물 갈앗덴 영 해낫

103063 #1 배치녹물. 것도 속 안 앓는 거. 들머귀여 뒤여,. 상당히 오히려 옛 어  
른덜 말허는 거 보민 들머귀가 더 맛 좋앗젠 헤여.

103063 @ 그 들머귀는 속 안 앓는 거 아니우과?

103063 #1 아니 앓는 거. 파랗게 녹색으로.

103063 @ 들머귀예? 계민 그걸로도 이제 짐치 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갓이렌 허주마는 여기는, 갓 알아지쿠과?

103063 #1 갓늑물.

103063 @ 갓늑물.

103063 #1 갓늑물.

103063 @ 갓늑물로도 짐치 하영 헤먹어서예?

103063 #1 갓늑물은 일부러 갈질 아녀고

103063 @ 예.

103063 #1 그냥 저런 디 자꾸 씨 불려낭은에 갈지 아녀도 그 담 예염에덜 만허여.

103063 @ 아아.

103063 #1 경허민 그거 헤당은에 자기 밧디 거.

103063 @ 예, 경허영은에 먹고. 이것 저것 하영허고. 그 늑뻘 ㄴ뻘 것도 허영 썰영 물리리도 허고예?

103063 #1 응.

103063 @ 음, 늑뻘도 저기 배추늑물 헐 때 ㄴ치 험니까?

103063 #1 ㄴ치덜.

103063 @ 음, 이런 식으로 하고예?

103063 @ 예. 알아수다. 농사를 여기 흑시 용시렌 험니까?

103063 #1 용시엔 헤예.

103063 @ 용시엔 헤예? (기타 잡음 생략)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물어보쿠다예. 옛날 그 췌 질라났지예?

104001 #1 예.

104001 @ 췌는 어떻 질란마씨?

104001 #1 췌 질를 때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 소, 소를 없은 때는 놔으 췌 멤췌 메연.

104001 @ 예, 멤췌예.

104001 #1 멤췌 그 똥 사름 돈 잇는 사름이 소가 두 머리 잇으면 그거 흔 머리 암소. 가져다가 그걸 키우면서 새끼 낳민 그거 반착씩 이제 나누어서 이제 임자 반나 반.

104001 @ 예.

104001 #1 해서, 거 키, 키우면서 키우면서 이제 소는 이제 불좌가는 거. 이제 숫자를.

104001 @ 예.

104001 #1 그렇게 해서 이제 산 겁주.

104001 @ 그 우리 제주도 말로 하영해예.

104001 #1 예.

104002 @ 췌 종류는 어떤 종류덜 이신고예?

104002 #1 췌 종류는 그거예, 지금에 와서는 말할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그 여라 가진데.

104002 @ 예.

104002 #1 뭐 검은췌

104002 @ 예.

104002 #1 노랑췌, 어럭췌, 식췌.

104002 @ 음.

104002 #1 식췌라는 건 저 요즘 말허는 그 저 육지서 말허는 췌소.

104002 @ 예, 예, 예.

104002 #1 그거 식췌엔 여기서.

104002 @ 여긴 식췌예?

104002 #1 식췌. 뭐 어럭췌도 검은어럭, 노랑어럭.

104002 @ 음, 검은어럭은 어떻히고, 노랑어럭은 어떻습니까?

104002 #1 검은어럭은 검은, 검은털에 하얀색 들어간 거고.

104002 @ 예.

104002 #1 노랑어럭은 노란색에 하얀 털이 들어간 거.

104002 @ 게른 노랑어럭췌 검은어럭췌. 그 빨모양으로도 트나지예?

104002 #1 빨은 접박부리, 건지빨. 또 아이고, 앞더래 돌아온 거 뭐인지 모르겠 다 그건.

104002 @ 접박부리는 어떤 거우파?

104002 #1 접박뿌린 이 빨 곳이 두이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옆구릴 이렇게 허민 옆구리 박을 수 잇는 게 이 접, 접을 박아분다.

104002 @ 아, 게난 접이 어디라마씨?

104002 #1 접은 이 모가지 이디. 모가지.

104002 @ 모가지, 췌 모가지허면은?

104002 #1 이렇게 허면은 여길 박을 수 접 박는, 접을 박는다.

104002 @ 예예예. 접박뿌리 잇고.

104002 #1 접박뿌리 잇고.

104002 @ 그 다음은 아까 또.

104002 #1 식췌 잇고,

104002 @ 빨모양으론?  
104002 #1 건지빨은, 건지빨은 위로 올라간 거.  
104002 @ 아아.  
104002 #1 다시 이 앞으로 올라간 것은 바른 빨은 잘 모르겠네.  
104002 @ 아, 것도 틀냉 놔둬서. 나중에.  
104002 #1 앞으로 돌아간 거. 그걸 나도 이따가 쯤 메모해야 다시 들어봐야 돼  
겟네.  
104002 @ 예예, 접박뿌리 잇고, 건지빨은 위로 간 거고예?  
104002 #1 게고 들각뿌리가 잇는데. 들각뿌리.  
104002 @ 들각뿌리는 어떤 거?  
104002 #1 암소에 잇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  
104002 @ 아, 들각들각허난?  
104002 #1 빨이 힘엇이 이렇게 흔드는 들각부리.  
104002 @ 게난 빨모양으로도 이제 뜨나는 거잖아예?  
104002 #1 예.  
104002 @ 그 다음에, 아까는 털 색깔로 헨 거는 아까 얘기를 한 거고예.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린 췌는 어떤 거 이십니까?  
104005 #1 어린췌에는 뭐 금승하면 금승에도 이제, 그 검게 나민 검은송아지 낫  
저.  
104005 @ 으음.  
104005 #1 이제 노랑송아지 낫저. 뭐 이제 색깔이 거즘 어린, 어머니 배 베껏디  
서 떨어지면은 색깔덜이 거즘 아는 사람덜은 아니까.  
104005 @ 예.  
104005 #1 그렇게 해서 무슨 새끼 낫저. 금승, 다간, 이제 사릅, 나릅.  
104005 @ 음.  
104005 #1 이제 나릅, 금승, 다간, 사릅, 나릅, 다습.  
104005 @ 다습?  
104005 #1 다섯 슬.  
104005 @ 예. 그러면은 그 으습 이런 말은 안 써마씨?  
104005 #1 으습깝장은 지금 들어보질 아녀 진 것 같은데.  
104005 @ 아아, 그냥 다습까지예.  
104005 #1 보통 다섯 다습까지  
104003 @ 다섯 가지. 그 손 어떻 이용헤낫수과? 췌들.  
104003 #1 췌덜은 키웁당근엥에 주로 이제 저 마차, 마차허곡.  
104003 @ 예.  
104003 #1 마찬 그 저 췌, 일본말론 구루마고.  
104003 @ 예.

104003 #1 이제 우리말론 이제 차엔 허연 현디. 이제 그걸로 허곡 밧같이[밧까리]허고.

104003 @ 음.

104003 #1 또. 툇 디보단도 여기서는 그 조 갈 때엔 조는 잘 밧아줘야 그게 이제 커도 이 저 자빠지지 아년.

104003 @ 예.

104003 #1 건실허니깐 잘 밧아주민 존 상당히 좋다고 행근에 조도 밧고. 여러 머리 이시면 밧테 강 여러 답아냥 그냥 돌리면 빨리 밧아정 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

104003 @ 췌도 그런 식으로 밧 불리는 디도 써서예?

104003 #1 예, 몰도 쓰고 췌도 쓰고.

104003 @ 아, 구루마 꺾는 데도 쓰고예?

104003 #1 예.

104004 @ 그 췌 질들일 때는 어떻헤근에 험니까?

104004 #1 질들일 때엔 이제 그 돌코엔 헤영근에 꺾엉 당기는 솔이, 돌이 잇는 데, 이런 둥글렁헌 돌 그냥 무거운 돌.

104004 @ 예.

104004 #1 그거 헤영근에 구멍 뚫병 거기에 끈을 무껴냥.

104004 @ 예.

104004 #1 이제 소 그 밧명엘 그대로 췌왕 쟁 꺾어아정 그냥 다니명 이제 이 목도 든든하게 이제 막 울리곡, 워허면은 목도 든든하고. 이제 명들어근에 여기에.

104004 @ 게영 그 질들이기 전에 췌 이름 불르는 것도 잇수과?

104004 #1 질들이기 전에는 워 별 그자 송아지 이젠 밧 그르쳐사야 허켜 헤영근에 이 저 크멘.

104004 @ 예예예.

104004 #1 밧 그르쳐사켄 허영 모아들영덜 장난부쟁근에네 혼번에 췌기부쟁근 앵에 가는 사름도 잇곡.

104004 @ 아.

104004 #1 건 아주 든든헌 사람.

104004 @ 예.

104004 #1 그런 사람도 잇고, 아니면 그 아까 그 돌코헤영근에 꺾엉 막 가름 돌명,

104004 @ 음.

104004 #1 헤냥 이젠 그 췌길 메왕근앵에 냇 밧디 강. 것도 도덜을 전부 다왕근 앵에 튀어나지 못허게.

104004 @ 아.

104004 #1 경 헤영 소 가는 대로 그냥 막 가 냇, 이제 췌가 지치멘.

104004 @ 예.

104004 #1 그젠 저 시기는 대로 말이 잘 들어 그뻐.

104004 @ 음.

104004 #1 지치기 전엔 제멋대로 막 허고.

104004 @ 지칠 때까지가 췌 그르치는 거구나예?

104004 #1 지칠 때까지.

104005 @ 췌은에 아까 췌 나이 허는 금승부터 세는 거예?

104005 #1 예, 금승, 다간, 사릅, 나릅, 다습.

104005 @ 다습까지예?

104005 #1 으습까지도 들어진 것도 같으다.

104005 @ (웃음) 보통 췌는 멧 설까지 삽니까?

104005 #1 게니깐 다섯 살, 으섯 살 뷌민은.

104005 @ 예.

104005 #1 대개 풀아부니까.

104005 @ 아아.

104005 #1 게난 얼마야 사는 지 그건 우리가 모르고.

104005 @ 몰르고예?

104005 #1 것은 수명이 죽는다는 건 보는 건 옛날은 좀 드물었으니까.

104005 @ 예.

104005 #1 요는 춤, 어디 늙어가민 이거 일 못허게 뷌여가민 그자 도살헤영 저 먹음도 허엿고.

104006 @ 예. 삼춘, 그 췌기도 직접 혹시 만들어봣디가?

104006 #1 만들어보기사 만들어 봤주.

104006 @ 췌기 만드는 걸 뷌 췌기 서꾼뷌 여긴?

104006 #1 췌기 서꾼는 거.

104006 @ 췌기뷌 험니까? 여기는 잠대뷌 험니까? 이 동네?

104006 #1 췌기, 췌기.

104006 @ 여기는 췌기. 잠대란 말은 안 들어보곡.

104006 #1 잠대엔도 곤곡.

104006 @ 게믄 그걸 잠대 서꾼다허지예. 잠대 허게 뷌면은 부분 명칭덜 다 알 아지쿠과? 이렇게 허면.

104006 #1 예, 명칭을.

104006 @ 이렇게 뷌잖아예?

104006 #1 예예.

104006 @ 그 헤면은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행은에.

104006 #1 췌 밑에 건 몽클.

104006 @ 어느 쪽이 몽클이우파?



104006 #1 이거 이거이.

104006 @ 아, 이치록웬 게 몽클.

104006 #1 몽클. 요건 저 설춧대, 요 가운데 거는.

104006 @ 가운데 거는 설춧대, 예.

104006 #1 요건 성에.

104006 @ 예, 여기는 성에.

104006 #1 예, 요딘 들벙이뿔.

104006 @ 여기 영허영 연결웬 디예?

104006 #1 연결, 그 저 멩에에 연결되는 거이.

104006 @ 예, 들벙이뿔.

104006 #1 들벙이뿔. 이젠 여긴 양줏머리. 이 저 배에 대는 디.

104006 @ 예.

104006 #1 양주, 양줏머리.

104006 @ 양줏머리.

104006 #1 으.

104006 @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게 뭐 잇수가?

104006 #1 이제 벳, 요 벳공쟁이.

104006 @ 여기에 이렇게 웬 디?

104006 #1 그 벳받침이 거기 있어. 벳받침.

104006 @ 예, 그걸 벳공쟁이렌 험니까?

104006 #1 벳공쟁이엔도 허곡 벳받침이엔도 허곡.

104006 @ 벳받침이엔도 허곡예, 벳받침. 그 다음 여기가 벳이 이실 거 아니라 예?

104006 #1 요디서 이렇게 뉘.

104006 @ 이렇게 이신 겨우과. 이게 벳. 그 다음에 이 끝에는?

104006 #1 끝에는 보섭.

104006 @ 여기는 보섭예?

104006 #1 보섭.

104006 @ 보섭. 게문 다 웬 거마썸?

104006 #1 쟁기는 다 웬 거.

104006 @ 아, 쟁기는 다 웬 거예?

104006 #1 쟁기는 다 웬 거.

104006 @ 아, 여기는 양줏머리. 이 쟁기도 종류가 특납니까?

104006 #1 제주도는 이 제주엔 일정.

104006 @ 아, 일정예. 게문 무사 막 골 같고 영허젠 허면 그 거는 벳만 가정은 예 조정허는 거.

104006 #1 벳만 뜬 벳 부썸, 골타는 벳, 골타는 벳 그 양쪽데레 좏허지는 게 잇

어.

104006 @ 예.

104006 #1 그거 붙이면은 이제 골 갈곡.

104006 @ 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밧 갈 때는 이제 하고예?

104006 #1 밧 갈 때는 그냥 벧, 한 쪽으로 냉기는 벧하고.

104006 @ 예, 한쪽으로 해서 이제 하고. 그 질메는 어땜 됩니까? 질메는 허기  
뉘든 이렇게 뉘신가 모양이.

104006 #1 예예.

104006 @ 이렇게 뉘잖아예.

104006 #1 맞어.

104007 @ 질메도 그 부분 명칭들이 이신가마씨?

104007 #1 부분 명칭덜이 지금 많은데.

104007 @ 예.

104007 #1 저 안내 등바대는.

104007 @ 예, 건 딱로 허는거고예?

104007 #1 건 도곰. 양쪽에 이렇게 부떠가지고 이제 살.

104007 @ 못하게예?

104007 #1 살에 이제 보호뉘게 현 거.

104007 @ 예, 예. 도곰.

104007 #1 도곰.

104007 @ 여기에 이렇게 덧대는 거 말허는 거 아니우과예? 북삭북삭.

104007 #1 북삭북삭이 기지로 만들영근영에 허난 옛날은 산디짚을로 허던가.

104007 @ 예예예.

104007 #1 산디짚이나 이제 기지.

104007 @ 예, 천 해영예? 예, 도곰. 그 다음에 등바대는 어느 거우과?

104007 #1 그제 등바대 뉘는 거지.

104007 @ 아아, 도곰이 이제 등 이렇게 받치니까, 예예예예예예.

104007 #1 이제 요건 질멧가지. 요 큰 건.

104007 @ 예예, 이 밖엿 거는 질멧가지.

104007 #1 예, 질멧가지, 것도 두 개.

104007 @ 예, 양쪽으로예?

104007 #1 예.

104007 @ 예.

104007 #1 예, 그 가운데, 지금 요디 두 겔 요렇게 꿰야 허는데.

104007 @ 예.

104007 #1 이쪽 거 하고 저쪽 거 하고 그 이렇게 해서 꿰야는데 그거 이름을  
모르겠네.

104007 @ 이 두 개예. 이것도  
104007 #1 으으.  
104007 @ 나중에 저기 알아봡 그림 그렁 놔둡서예?  
104007 #1 질메이.  
104008 @ 질멧가지 잇고. 그 다음에 삼춘 멩에도 잇지 아너우파예?  
104008 #1 멩에 잇고.  
104008 @ 멩에도 영 허면 이렇게 돼는가?  
104008 #1 으으. 멩에 요쪽으로 걸리고.  
104008 @ 예예, 이쪽으로.  
104008 #1 이쪽으로도 이처럼.  
104008 @ 이추룩. 췌는 얼로 일로 연결허여?  
104008 #1 일로 어쨌든 머리가 이레 오던 이레 오던 지금 일직선으로 뚤여부리  
니까 헌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줄이 한줄. 아, 저 한줄.  
104008 @ 예예예예예예.  
104008 #1 이렇게 왕 여기 저 허곡 또 요거 요렇게.  
104008 @ 아, 예.  
104008 #1 아이고, 춤, 뭐허긴 허다이. 어.  
104008 @ 여기 영 저기 뭐 잇자누파예? 예예 이렇게 허영 여기에 소, 췌 연결  
허는 거예?  
104008 #1 으,  
104008 @ 게믄.  
104008 #1 이 쟁기, 쟁기.  
104008 @ 이 쟁기, 쟁기. 예.  
104008 #1 췌 멩에.  
104008 @ 이거 멩에예.  
104008 #1 멩에고, 여기가 등테가 잇고. 등테. 이  
104008 @ 이렇게.  
104008 #1 이 줄 느리지 못허게.  
104008 @ 예예. 등테.  
104008 #1 등테가 잇고.  
104008 @ 등테.  
104008 #1 등테가 잇고.  
104008 @ 이 줄은 무신 줄이우과?  
104008 #1 한줄.  
104008 @ 긴 줄이니까 한줄이렌 허는구나예?  
104008 #1 한줄이고.  
104008 @ 이, 여기 그 낭으로 웬 멩에 웬 거는 이 낭은 무신 거렌 험니까?

104008 #1 그 냥은 아 거 냥 이름?  
104008 @ 예.  
104008 #1 아, 이건 명에랑.  
104008 @ 그냥 명에. 보통 무신 걸로 만들어마씨?  
104008 #1 보통 예, 건 여라 가지 나무.  
104008 @ 나문 여라가지예.  
104008 #1 나무 여러가지로 허고.  
104008 @ 예.  
104008 #1 요것, 요것은 유름줄로 대개 허는다.  
104008 @ 한줄은 유름줄로예. 예.  
104008 #1 끄, 너딩, 너딩엔 허주.  
104008 @ 너딩.  
104008 #1 으, 너딩.  
104008 @ 으, 너딩허고 유름줄은 ㄹ튼 겨우과?  
104008 #1 ㄹ튼 거.  
104008 @ 아, ㄹ튼 거예. 너딩예. 그런 줄기를 너딩이렌 허는 겨구나예?  
104008 #1 너딩은 이런 디 왕 쓰면은 너딩이 뉘부는 거고.  
104008 @ 예예예.  
104008 #1 이제 그냥 유름으로 헐 때엔.  
104008 #1 유름줄이고.  
104008 @ 유름줄. 웃음.  
104008 #1 유름줄은 드랫줄엔도 허고. 거 여라 가지.  
104008 @ 드랫줄이 너딩 닻다. 예예예예.  
104008 #1 계난 요거 두 갠 잊어부런네이.  
104008 @ 이거 두 갠 잊어붙디가?  
104008 #1 요딘 다시 요게 이 밑으로 요렇게 헤가지고 이 접게가 잊어이, 접게.  
104008 @ 예예예예예예, 맞수다, 맞수다.  
104008 #1 접게.  
104008 @ 예, 접게 잇고, 음 접게 잇고, 이 쟁기에 하는 이 저기 꼬리 하는 거.  
104008 #1 계메 그거 두 갠 지금.  
104008 @ 이걸 잊어부렸수가? 이거 허고 이 줄 허고. 이것도 잘 알아뵤 뉘뵤서.  
내중에 한번 더 물어보쿠다예?  
104008 #1 내중에 저 그건 저기 강 덜 알아봐야커라.  
104009 @ 그럼 그리명들 알아봐 줍서. 여긴 목장도 이신가마씨?  
104009 #1 예 목장은 주로 이 명도암 우에 가서 이제 이 여름나면.  
104009 @ 예.  
104009 #1 거기에 메경.

104009 @ 음.

104009 #1 그 저이, 더월 피허고 저 목장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 저 물컷, 그 진 두기나 뭐 이제 공동방제허기가 상당히 쉬우니까.

104009 @ 예.

104009 #1 이제 그렇게 해서.

104009 @ (녹음도 안 돼부러져). 웃음.

104009 @ 이걸로 쓰니까예, 경 허영은이 이제 하고.

104009 #1 경허영 허곡, 다시 지금 목장에, 그 저 고진, 고진 목장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그 마을 목장.

104009 @ 예.

104009 #1 조그만허게 흔 멧 만 평 정도 행근에게 거기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번 맥이고.

104009 @ 음, 경헌 걸 번 맥인텐 험니까?

104009 #1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이제 그 차례로 돌아가면서 소 보는 걸 번.

104009 @ 예에.

104009 #1 이젠 닐은 느네가 번이여이 허영, 모린 느네가 번이여 허곡.

104009 @ 으음, 게문 그런 쉼을 번쉐험니까?

104009 #1 예, 번쉐.

104009 @ 집에서 메는 거는 맴쉐허고예?

104009 #1 아니.

104009 @ 놈의 거 빌령.

104009 #1 번쉐허곡 맴쉐 허곤 그 차이가, 맴쉐허면은.

104009 @ 벵작허는 쉼우과?

104009 #1 벵작허는 쉼고. 번쉐는.

104009 @ 우리 거를.

104009 #1 여러 집의 모여서

104009 @ 예.

104009 #1 같이 그날 관리해주는 거. 그날 관리해주는 거.

104009 @ 게문 그 관리 허는 사름을 뭐렌 헤어마씨? 그 허는 일을 번?

104009 #1 번.

104009 @ 그걸 번이렌?

104009 #1 오늘은 느네가 번이여 모린 누게네가 번이여.

104009 @ 아.

104009 #1 번 맥이는 그날.

104009 @ 당번?

104009 #1 당번.

104009 @ 으, 그래서 번인가 보다예. 당번 헤갓고예?  
104009 #1 차례를 차례로 나간텐 말이주.  
104010 @ 예예예예. 그 췌 키우멍 그 잊어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경험담예, 재미있었던 일 같은 거 이시믄 글아줍서?  
104010 #1 재미.  
104010 @ 번 서낫잖아예?  
104010 #1 으으.  
104010 @ 췌 질들일때도 좋고.  
104010 #1 췌 질들일 때도 춤 나도 이제 그 밧, 그 췌가 보, 잘 나가다가 췌도 췌가 잇는 놈은 요망을 내거든. 노망허고 요망은 틀린 거주게.  
104010 @ 그렇지예. 맞습니다.  
104010 #1 이제 뭘 부린다고 허까. 이제 사람이면 그 살짝살짝 빼여지곡 뭉허곡 행근에 일을 아녜라고 그런 뭉.  
104010 @ 음.  
104010 #1 그런 그 뭉가 잇는데. 에 짐 실런 오단에 그 구루마 찬, 춤 그 마차 찬 차 그냥 드러넣근앵에 일어나지 아녜 때가 잇어게.  
104010 @ 아아.  
104010 #1 것도 뜯 거 보민 그 소가 그 즈 소 머리도 그런 거 보민 영리허긴 영리한 거라. 뜯 거 보면은 그 짓을 허는 췌가 잇어.  
104010 @ 아아.  
104010 #1 아무 거 그런 거 저런 거 안 보면은 묵묵히 일을 잘 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경허난 그런 소는 이제 힘이 잇는 사람한테는 가면은 깜짝 못헤 부리고  
104010 @ 으.  
104010 #1 이제 힘이 좀 약헌 사름아티 가면은 그냥 체멋대로 임잘 막 놀려 먹주.  
104010 @ 음음.  
104010 #1 소도. 계난 웃길 때가 만허여. 짐승도 키워보면은.  
104010 @ 예.  
104010 #1 다시, 그 안 가난 디 갈 때는 예를 들어 나도 흥번 그 시내에 췌를 마차헤연 그냥 가단 보니까.  
104010 @ 예.  
104010 #1 그 안떼나가 그 저 사라봉 곁에 그 노픈 안떼나가 잇으니까 그냥 그 거 보고 그냥 겁난 잡아 튀고.  
104010 @ 아아.  
104010 #1 뭉 혈 때 아이고, 그럴 때췌은.  
104010 @ 겁나예?

104010 #1 겁나.

104010 @ 으.

104010 #1 어땜 뉘, 그 시기를 아주 춤 잘 넘기면 허곡 경 았으면 사고로 그것 이 이제 돌발힐 수가 잇는 거. 밧갈 때도 뉘 경 행근앵에 나 자신이 좀 약해 놓니 까 좀 췌 사름 빌엉 불러다냥근앵에 그 밧 좋은 밧디 강.

104010 @ 예.

104010 #1 담 좋은 밧디, 담 좋은 밧디.

104010 @ 담 좋은예?

104010 #1 밧디 강 강근에게 때리멍 그냥 몰아놓민 밧ㄴ리침도 혼 메칠만 잘 허민 그디 잘 갈곡. 또 꼭 그렇다고 뉘 해서 그 익숙어도 사람이 혼 메칠 간을 췌 가 완전히 익숙기 전에는 꼭 이꺼줘사.

104010 @ 음.

104010 #1 이꺼, 이꺼주면은 소도 제대로 그냥 뉘가 뉘고 그렇지 았으면은 이 뉘에 췌기 잡은 사름. 이렇게 자기가 심을 받아봐.

104010 @ 음.

104010 #1 씨원치 았으면 그냥 제멋대로 또 해부러.

104010 @ 아, 이 사람이 나를 저기 힐 건가 안힐 건가? 웃음

104010 #1 그런 거 보면은 소도 영리허다는 걸 알고. 다시 소가 영리한 걸 어떻게 아는고 허면, 어려서 여기서 난 소가.

104010 @ 네.

104010 #1 여기서 난 소가 예를 들어 목장에 가서 내부리면은 가을 들븐 다시 이 집을 찾아와.

104010 @ 예예.

104010 #1 에미가 없어도. 그 어릴 때 금방 털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그 췌끔 멧 들 잇다가 그 목장에 갖는데 그 송아지가 그해에 가을, 겨, 가을 들면은 다시 그 집을 좇아 온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아주 춤 대단헌 거. 짐승도 대단헌 거 같아.

104010 @ 게난 옛날에부터 췌 대주렌 허지 아너수과예? 그 아까 저기 췌 종류 할 때 암췌 부룽이 이렇게 허지 아넘니까? 그런 거 어떤 식으로.

104010 #1 암췌 부룽이.

104010 @ 어떤 식으로.

104010 #1 게난게 암눔은 암췌.

104010 @ 예.

104010 #1 숫눔은 부룽이.

104010 @ 음, 부룽이도 이제 어린 거 하고 큰 거하고 뉘 뜨나게 부르는. 차이는 엇어마씨?

104010 #1 큰 차이 어신 걸로 나는 지금 이제 배와왔는데.

104010 @ 혹시 새끼 못 나는 췌도 잇지예?

104010 #1 건 지시랭이.  
 104010 @ 지시랭이.  
 104010 #1 돼지던 소던 이제 모든 암컷에 대해서 새끼 못 나는 거 지시랭이.  
 104010 @ 지시랭이. 사름도 경 겁니까?  
 104010 #1 사름은.  
 104010 @ 그 말은 안 낄지만은.  
 104010 #1 사름신디렌 안 허지만은 옥혈 때엔 애기 못 낳근에 현 사름 영 거세  
 기허영 쫘 못웬 짓이나 허면 저 지시랭이 닳은 년 행은에.  
 104010 @ 옥 혈 때는 하기야 대 놓고 못허니까.  
 104010 #1 대 놓곤 못허니까.  
 104010 @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햄구나예?

### 말기르기 1

104011 @ 이제는 물 키워보쿠다?  
 104011 #1 무시거?  
 104011 @물도 키워봄디가?  
 104011 #1 물은 제대로 키워보진 못한 디 놈.  
 104011 @ 허는 거는예?  
 104011 #1 헌디 물 이름은 상당히 만허여이.  
 104011 @ 예.  
 104011 #1 만흔디 난 그걸 모르겠어.  
 104011 @ 알아지는 데로만 허든 돼난예. 물은 보통 어떤 식으로 키우는고예?  
 동네에 영 키우는 거 보면은?  
 104011 #1 동네 물 키우는 건 그자 그 주로 하나 두 개 키우는 사름도 있고,  
 테.  
 104011 @ 예.  
 104011 #1 테 허는 사름도 있고 허주마는. 테 허는 사름은 그자 목장에서 주로  
 낳고 뭐허고 허주마는 이 하나 둘 키우는 사름은 집의서도 낳고.  
 104011 @ 음.  
 104011 #1 이제 그렇게 허니까. 이제 새끼 낳 그대로 들양 탕기멍 얼마간 키웁  
 당 또 풀곡.  
 104011 @ 예.  
 104011 #1 그 저 용돈 쓰곡. 그자. 웃음. 그자 그 정도벳기 모르겠네.  
 104012 @ 예, 예. 그 물 종류들 혹시 알아지는 거는?  
 104012 #1 물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그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걸랑 다음으로.  
 104012 @ 예, 알겠수다. 그거 잘 행 놔둬서예. 물 종류.  
 104012 #1 이땅 메모 헛당은에 나도 흔 장 메모해 줘야.



104013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주로 어떻 이용하신고예?  
104013 #1 물은 밧 불리고.  
104013 @ 예.  
104013 #1 예, 요즘은 차가 있으니깐 허는데 그 질들여서(질뜨려서) 타서 이제 그 아이고 또 그 뭐라고 혈까. 이 통행. 통행허는 걸.  
104013 @ 뭐 탕 덩기는 거?  
104013 #1 탕 그자 먼 데, 그자 갈 일 잇으면 먼 데도 가곡 가까운 데도 가곡. 요즘 자가용같이.  
104013 @ 예, 예.  
104013 #1 예, 그자 썼던 게.  
104013 @ 음, 뭐 씨집장계갈 때도 물 탕 덩기곡.  
104013 #1 아이고, 씨집 장계갈 때도. 건 옛날은 두 말 할 거 없이, 것도 저 백 말을 주로 이용해엿고.  
104013 @ 거 이유가 이신가마씨?  
104013 #1 그건 그 옛말에 들영보면 그 씨집장가가는 날은 그 스포도 신랑이 지나가면은 내렸다헤여.  
104013 @ 아?  
104013 #1 계난 그날만큼은 채고의 우대를 헨다고. 백마는 또 그 임금이나 그 장수, 그 뭐 안네 채고의 그 어른이 타고 다니는 물이라고 헤가지고 아마 그런 거 같애.  
104014 @ 예예, 물도 나이에 따라은에 저기 흐 설 두 설 허는 건 알아지쿠과?  
104014 #1 겨난 그건 그저 이영숙 하르버지이.  
104014 @ 예.  
104014 #1 그 오닐 그 쥘 많덴.  
104014 @ 예예예.  
104014 #1 그 하르버지 요 물에 대행이랑 그 할아버지안티 가자.  
104014 @ 아,예예예. 나중에 그 어른 어디 사는 거 곶아줍서예?  
104014 #1 바로 요디라 요디.  
104014 @ 아, 기구나예 예? 그 분은 물 테우리 헤나수가?  
104014 #1 테우리헤나서.  
104014 @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예예, 흐디 강은에 저기 물어보민 뉘쿠다 예.  
104014 #1 응, ㄱ치 강 거세기허믄.  
104014 @ 물 길렀던 것도 그 어른안티 가믄 뉘겿다예?  
104014 #1 물 길루는 것도 그 어른한티 가믄.

## 말 기르기 2

104011 @ 예전에 말 하영 질파났덴예?  
104011 #3 예.  
104011 @ 말은 어떻 질파났수과? 다른 사름허고 트나게.  
104011 #3 게난 우리 돌덜은 원래 산에만 살주게.  
104011 @ 예.  
104011 #3 겨울에도 내려오질 아녀.  
104011 @ 음.  
104011 #3 경허영 봄 나가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사름 기척허영 들 므는소리 허민 그냥 알려레 그냥 들들 내려와.  
104011 @ 예.  
104011 #3 내려오민 어디 오느냐 허믄 절물벙뒤.  
104011 @ 절물벙뒤.  
104011 #3 으, 절물벙뒤 오랑 딱 중단허주.  
104011 @ 예.  
104011 #3 돌덜이.  
104011 @ 예.  
104011 #3 계영 그디서 이젠 틀어먹곡 허영 계속 돌아보다가.  
104011 @ 예.  
104011 #3 이제 맞블릴 때 웨면 이제 조블릴 때.  
104011 @ 예.  
104011 #3 웨면은 돌아당 조블려 낱 절물벙뒤에 강 내불민 즈기대로 이젠 또 산더레 올라갑니다게 예.  
104011 @ 예.  
104011 #3 예, 경허영 산에 올라가민 이젠 그냥 계속 이젠 겨울까지 살면서 돌덜이.  
104011 @ 산에서 사는 그 물을 무신 물이엔 험니까? 건 물 이름을 트나게 부르진 아녀마씨  
104011 #3 부르지 아녀.  
104011 #1 텃물.  
104011 #3 물, 물.  
104011 @ 텃물.  
104011 #3 텃물.  
104012 @ 텃물, 아, 텃물예? 말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어나신고예?  
104012 #3 물 종류는, 종류는 혼 가진데.  
104012 @ 예.  
104012 #3 색깔이 으라 가지주게.  
104012 @ 아, 색깔예, 예?

104012 #3 색깔이 으라 가지라.  
104012 @ 곱아봅서.  
104012 #3 일가라.  
104012 @ 일가라.  
104012 #3 이청총.  
104012 @ 이청총.  
104012 #3 일가라, 이청총, 삼적다.  
104012 @ 삼절따.  
104012 #3 적다.  
104012 @ 아, 삼적다.  
104012 #1 오유마.  
104012 #3 오유마  
104012 @ 오유마.  
104012 #3 어, 육거을[육꺼을].  
104012 @ 육거을.  
104012 #1 곁.  
104012 #3 거을. 육곁.  
104012 @ 거을.  
104012 #3 육거을. 으섯 가지라 낫는다.  
104012 @ 아까 네 개, 네 번채 안 곱아수다. 새로 곱아봅서.  
104012 #3 일가라, 이청총, 삼적다, 스윌라, 오류마, 육거을.  
104012 @ 예, 아까 윌라가 안 나와신게예 게든 맨 처음에 일가라 헐 때 가라는  
무신 색깔이우과?  
104012 #3 새카망헌 거.  
104012 @ 새카망헌 거예?  
104012 #3 가마귀빋 나 가지고 반짝반짝허주게. 경혜영 그걸 제일 일등으로 색  
깔을 보는 거라.  
104012 @ 예. 일가라예? 그러면 이는?  
104012 #3 이청총은.  
104012 @ 예.  
104012 #3 검은터럭에 흰털이 하나씩 이렇게 난 거주.  
104012 @ 아아.  
104012 #3 거는 이청총.  
104012 @ 이청총.  
104012 #3 음.  
104012 @ 세번 짜는?  
104012 #3 아, 일가라 이청총 삼적다.

104012 @ 예.

104012 #3 삼적다엔 헌 건 빨강헌 물이주.

104012 @ 적다가 그 빨강헌 물예? 예, 그 빨건 물 중에서도 더 빨강헌 거 잇자 누우과?

104012 #3 그게 삼적다라.

104012 @ 아, 삼적다. 혹시 고치적따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가?

104012 #3 고치적따 말은 없어.

104012 @ 아, 삼적다? 그 월라말은?

104012 #3 월라말은 적다말이나 가라말에나 흰줄이긋어진 거. 흰줄.

104012 @ 예.

104012 #3 앞다리나 뒷다리나 흰줄이 진 거 잇주게. 그 흰줄로긋어진 것덜 잇주.

104012 @ 예예.

104012 #3 그건 월라말이고.

104012 @ 월라말. 그 다으에?

104012 #3 오류마.

104012 @ 유마는?

104012 #3 오류마는 그게 막 뭐 즈주빃엔[즈주삐센] 허는가.

104012 @ 아 즈주빃?

104012 #3 으, 색깔이 막 곧 거라. 것도.

104012 @ 아아.

104012 #3 즈주빃.

104012 @ 욱, 욱 거을은?

104012 #3 욱거을.

104012 @ 예.

104012 #3 욱거을은 아, 욱거을.

104012 #1 거무스름?

104012 #3 거을물은 이 주둥이가 희뜩희뜩허영 영 돌라져야, 입이 생긴 물이 잇어.

104012 @ 아아.

104012 #3 것ㄴ라 거을엔 허주게.

104012 @ 예. 게른 이제 그거는 색깔에 따랑은에 영 허는 거 아니라예?

104012 #3 어 색깔.

104012 @ 게른 이 머리에도 여기 영 점 이신 것도 잇지 아녀우과?

104012 #3 어, 그 태성.

104012 @ 태성마. 그러면.

104012 #3 음, 건 태성물예.

104012 @ 태성물예? 그 다음에 코로 영 내려왕 줄 영 허여진 거는?  
104012 #3 간전이.  
104012 @ 간전이.  
104012 #3 간전이.  
104012 @ 또 다리에 흰 것도 있지 아녀우과?  
104012 #3 스족백이.  
104012 @ 아, 스족백이. 계난 족백이도 네 개가 다 허영헌 거 아니라예? 만약에 두 개만 허영허진 아녘니까?  
104012 #3 그런 것도 잇긴 있어. 그것도 벨도로.  
104012 @ 안 글아?  
104012 #3 그 족발이엔만 허주.  
104012 @ 족발예? 그 말 곧장 못 가고 안짱다리처럼 가는 이런 말 이름도 이십니까?  
104012 #3 아, 제마, 제마라고. 네 발인디 각각 이렇게 노려 걷는 건디 보통은, 겐디 두 발로 걷는 거 식으로 앞뒤 다리가 ㄴ치.  
104012 @ 예.  
104012 #3 영 허는 거.  
104012 @ 그거 제마엔예. 그게 더 빠릅니까?  
104012 #3 빨라고.  
104012 @ 건 제마예? 옛날에 우리 조랑말엔 허는 거는 여기서 뭐렌 허는 거라 마씨?  
104012 #3 조랑말행은 우리 토종말을 조랑말엔 허주게.  
104012 @ 아, 조랑말?  
104012 #3 그게 그 말이라.  
104012 @ 그걸로, 텃말헌 게 다 그런 말 헌 거 아니라예?  
104012 #3 조랑말로.  
104012 @ 조랑말로 으음.  
104012 #1 화등인 등 오그라진 거.  
104012 @ 아. 화등이.  
104012 #3 등이 파진 거.  
104012 @ 아, 밀도예?  
104012 #3 어 영 파진 거.  
104012 @ 또 어떤 게 이신고마씨?  
104012 #3 꼬부랑말 잇주. 꼬부랑말도 영 이 등이 영.  
104012 #1 활등이.  
104012 #3 꼬부라진 거.  
104012 #1 활등이.

104012 @ 활이 안으로 간 건 활등이, 엉덩이가 이렇게 꼬부라진 건 꼬부랑물.  
104012 #3 꼬부랑물.  
104012 @ 또 어떤 종류 이신고예?  
104012 #3 그 외는 엇어.  
104012 @ 그 외는 엇어마씨? 모양에 따라 이 머리에 그 귀 모양이 특나다든가 이런 건 엇어마씨?  
104012 #3 그런 건 엇어.  
104012 @ 뭘 새끼는 뭐렌 험니까?  
104012 #3 망아지.  
104012 @ 망아지는 표준어고.  
104012 #1 뭉생이.  
104012 #3 뭉생이, 뭉생이.  
104012 @ 뭉생이예? 옛날 대정 뭉생이. 그 다음에 이젠 그 털, 털도 그 꼬리나 이런 그 이름들 잊지 아녀우파. 부분 부분 몰도 이름들이.  
104012 #1 같기.  
104012 @ 어, 뭘 무사 영 그림 이시면 머리 부분이여 뭐여 이런 그 영 텔 거 아니우과예? 다리 영허면 꼬리 영 있으면 뭐라고 불르는 이름 잊어마씨? 이런.  
104012 #1 같기.  
104012 @ 여기 여기 영 허면 여기에?  
104012 #3 머리 뒤에 건 같기.  
104012 @ 예, 같기.  
104012 #3 같기. 앞에 건 뭐헨 험다마는 모르켜. 앞에 영.  
104012 @ 앞에 허는 것도 잊지 아녀우과예? 영허영은 예? 것도 일름 원래 있어어예?  
104012 #3 일름 잊주게.  
104012 @ 것도 흐끔 뜰내보고예? 이 풀린마씨?  
104012 #3 풀, 그냥 그냥 풀리에만 허여 건.  
104012 @ 풀리 행은에 무사 그걸로 행 탕건도?  
104012 #3 탕건도 허주게.  
104012 #1 총.  
104012 #3 총  
104012 @ 뭉총예.  
104012 #3 뭉총  
104013 @ 뭉총. 그 다음에 물어보쿠다예? 말은 어떻 이용해낫수가? 말은 아까 밧블리는 텃물허고 그 다음에 또?  
104013 #3 주로 밧 블리는 거.  
104013 @ 아, 주로 밧블리는 거. 그 다음은마씨?

104013 #3 그 다음은 뭐?  
104013 #1 탕 텅기고.  
104013 #3 탕 텅기는 건 건.  
104013 #1 자가용.  
104013 #3 집에 자가용이 따로 잇주게.  
104013 @ 말도예? 그 자가용 허는 말을 뭐 따로 부르진 아녀마씨?  
104013 #3 부르진 아녀.  
104013 @ 아.  
104013 #3 타는몰.  
104013 @ 타는몰.  
104013 #3 언제든지 탕 다니니까.  
104013 @ 게믄 건 타는몰 이렇게만 굴암구나예?  
104013 #3 몰 보레 갈 때도 그거 탕 가곡.  
104013 @ 몰 보레 텅길 때는 어쨌든 몰은 그 아까 절물벙뒤 말고 어느 산에 올  
려낫수가? 여기서는.  
104013 #3 아, 시안믄를이라고.  
104013 @ 시안믄를 예.  
104013 #3 시안믄를에 주로 가주, 몰이.  
104013 @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거리우과?  
104013 #3 여기서 거리가.  
104013 #1 성판악 줌 못 강.  
104013 @ 음.  
104013 #3 성판악 흐쓸 못 간디주.  
104013 @ 예.  
104013 #3 절물, 절물 입구 바로 그.  
104013 @ 음.  
104013 #1 넘어가민,  
104013 #3 넘어간 디라.  
104013 @ 예예, 게민 거기에서 그 정물벙뒤까지 왕근예, 몰 보레 가젠 허민 어  
뎡허영 갑디가? 여기서 그 점심도 아정 가야 될 거 아니우과예?  
104013 #3 점심 싸아정.  
104013 @ 예.  
104013 #3 그뎡 차가 없으니까 순 걸영은예.  
104013 @ 예.  
104013 #3 걸어가근예, 게난 몰도 목장에 강 다 혼 곤테만 먹진 아녀주게.  
104013 @ 예.  
104013 #3 이쪽에 먹는 놈 저쪽에 먹는 놈 다 동떨어정 먹는다 말이어.

104013 @ 예.

104013 #3 계민 하루종일 거 돌아봐아정 오쟁허민 어떤 땐 날이 저물어부러.

104013 @ 예.

104013 #3 계민 그땐 젊은 때니까 저물어도 그냥 그땐 차가 엇어놓난 걸어가지고 집의 오는 거라. 오라 가민 혼 저녁 열 시 쉰 때도 잇곡. 늦영 오민.

104013 @ 아침에 멧 시 나장마씨?

104013 #3 아침에 혼 으답 시에 나강근에.

104013 @ 하루종일예?

104013 #3 몰 다 강 좇아보곡 돌아보젠 허민 시간 엇이니까.

104013 @ 멧 머리나 저기를 키와봄디가?

104013 #3 나 혼 삼십 두.

104013 @ 음. 삼십 두예? 아?

104013 #1 동그렁에 밥 거리곡 허영.

104013 #3 밥 거리곡.

104013 @ 예, 그 말 곶아봅서? 그 밥 거리곡 허영 허는 말?

104013 #3 동고렁에 밥 거렁 가른 시방은 물병도[물병도] 잇영 물도 마이병에 질어아정 먹고 허주만은 그땐 병이엔 현 게 없거든. 그냥 땐 병은 너무 그거 둔허곡. 경허민 이제 목은 각각 돌르고 밥 먹을 땐 뉘엿다 말여. 계민 그 저 봉천수.

104013 @ 예.

104013 #3 그런 물 좇양은에 밥차롱 그냥 밥 신차.

104013 @ 물에 등강?

104013 #3 등강.

104013 @ 예.

104013 #3 지싯데가리(지싯때가리에)에 거 밥 맛 좋으메.

104013 @ 웃음. 계난 그 지싯데가리는 어떤 지싯데가리로?

104013 #3 저 콧데산이엔 현 거주. 옛날 콧데산이.

104013 @ 콧데산이지시로, 예, 계문 동그렁 정 가젠 허민 뉘에 정가수가?

104013 #3 아, 거 끈이 잇어.

104013 #1 도시락이난.

104013 @ 예, 그걸 그 끈은 뉘렌 험니까?

104013 #3 그 차롱끈이엔 허주게.

104013 @ 아, 차롱끈?

104013 #1 동고렁끈.

104013 @ 동고렁끈행은에 동고렁에 이제?

104013 #3 주로 차롱 끈이엔 허여서.

104013 @ 차롱끈예? 예예?

104013 #3 끈이 잇주.



104013 #1 밥차롱.

104013 @ 둘러 메영은에. 으음. 그거 헤면은 밧 불리젠허면 그것들을 이제 아래 내려와야 헐 거 아니우과?

104013 #3 내려와야.

104013 @ 밧블렛던 애기 흐꿈 헤여줍서.

104013 #3 밧블리든 절물벵디에 아침 인칙거니 강은에 그 물을 내려온다 말여. 선물 흐나만 몰거나 이끄거나 허민 다 뜨라와.

104013 @ 음.

104013 #3 물덜이. 게민 집꺼지 온단 말여. 오닐 누게네 밧블린덴 허민 그 밧디로 강 이젠 그 밧을 불리주.

104013 @ 예, 맨 앞에 서는 물을 선물이렌 허여?

104013 #3 선물.

104013 @ 뒤에 것덜은?

104013 #3 뒤에 것덜은 그런 말은 엇어.

104013 @ 그 앞에 선물예?

104013 #3 선물.

104013 @ 선물은 어떤 물을 선물로 허는 거라마씨?

104013 #3 선물은 질 그 말 잘 듣는 거.

104013 @ 음.

104013 #3 어, 녹대허고 이끄지 아녀도이.

104013 @ 예.

104013 #3 몽둥이만 들영은영에 영 끓영은에 영 헤가민 물이 몽둥이 보멍 뜨라가는 거라.

104013 @ 음.

104013 #3 영 돌아간 온 디 돌리민 물도 돌아오꼭 경허멍 밧을 불리주.

104013 @ 몽둥이로. 그 몽둥이는 뜨나게 이름은 엇어마씨?

104013 # 뜨난 일름이 엇어. 몽둥이로.

104013 @ 출 먹지 못허게 아까 녹대 헨게 녹대가 뭐우과?

104013 #3 녹댄 물 썩왕 이경 텅기는 거주게.

104013 @ 녹대 썩왕예? 그 입에 썩우는 거는?

104013 #3 망울.

104013 @ 건 망울이고, 녹대는 영허영 줄 헤가지고 이경 텅기는 거. 예예. 그 밧 불릴 때 소리 하영 헛지예? 옛날.

104013 #3 헤난디 이제는 다 잊어불고.

104013 @ 흐번 헤봅서?

104013 #3 목소리도 안 나오고.

104013 @ 나오는 만큼만.

104013 #3 웃음.

104013 @ 이 밧 흔번 불러보게마썸.

104013 #3 다 잊어부런 뉘.

104013 @ 틀내지는 만큼. 자 여기 몰덜 핫수다. 이 몰도 잇고 이 몰도 잇고.

104013 #3 어려려 예, 어~어~ 아이고, 안 나오키여. 어려 어려 어어어어 아이고, 안 뉘커라.

104013 @ 안 뉘쿠가?

104013 #3 목이 안 나오넴.

104013 @ 알아수다. 어려어려 허잖아예? 몰 몰 때는 뉘렌 허멍 몰아마씨.

104013 #3 게난 소리로 므는 거주.

104013 @ 소리로.

104013 #3 두에 몰 므는 사름이 세 사름이 잇어. 요 놈 몰덜이 췌가 좋은 놈덜은 밧을 안 불리젠 뜯 디레 도망가는 놈들 잇주. 게난 뒤에 사름은 쫓아가서 므 거 두와들이고 ㄱ치 영 뭉치게 몰곡.

104013 @ 그런 사름은 뉘허는 사름이렌 곶아마씨?

104013 #3 밧불리는 사름이엔 허주.

104013 @ 밧불리는 사름이고. 몰테우린 뉘렌 헤? 선장 몰 이끄는 사름은 삼춘 ㄱ튼 사름?

104013 #3 그뎨 가른 몰임제엔 허주게.

104013 @ 몰임제, 몰임제예? 그 무사 밧불리젠 허면 그냥 우리 밧 불러줍서만 허영 말로만 허는 거 아니 아니우파예? 흔 밧 불리믄 그 옛날 콤이렌 험니까?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받안마씨?

104013 #1 품.

104013 @ 품.

104013 #3 품은 그, 밧 말지기로 허여. 뎛 말지기 허믄 얼마? 말지기로 허영은 에 백원엔 허민, 백원에 열 마지지기민 천 원 이런 식으로 받주게.

104013 @ 흔 말지게 얼마 허는 식으로예. 경허고 그 몰 조 불리젠 허면 그 불리기 전에 막 고사도 지넛텐 허멍예?

104013 #1 건 밧임제.

104013 @ 음.

104013 #1 밧임제가 ㄱ스허는 거?

104013 #3 밥 먹을 때나 ㄱ스허주. 벨도로 ㄱ스허는 거 아녀.

104013 @ 경 헤도 밧불리젠 허면 몰테우리안티 췌기도 췌은에 대접허고 현 덴 험디다. 밥도. 경은 아녀수과? 여기는. 아이고, 삼춘은 못 얻어먹엇구나게?

104013 #1 웃음.

104013 @ 막 우럭, 밧머리에서 그 밧명에에서 고사도 지넛텐 허멍은에.

104013 #3 밧불리젠허믄 밥 먹거든. 밥먹영 불리거든. 밥 거려 돌아아질 거 아

나라게. 돌아아지민 딱 제각기민, 제각기 이레도 던지곡 이레도 던지곡 젠디 우린 안 해봐서.

104013 @ 삼춘 안 해 봤구나예?

104013 #1 코사 그 바닷고기 해당 허는 것도 사람에 메여가지고 허는 사람이 있고 아녀는 사람이 있고.

104013 @ 아아.

104013 #3 대개는 허는 걸로 봐야주.

104013 @ 예. 이 동네 도련에서는 이제 밧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멧 어른이 나 있어나수과?

104013 #3 어, 두 집, 세 집.

104013 @ 세 집.

104013 #3 세 집.

104013 @ 그런 집의가 부제우과?

104013 #3 그땐 몰 하민 부제주.

104013 @ 그렇게 이제 하고, 몰총은 풀고 허지예.

104013 #3 으. 일년에 혼 번 비주게. 몰총을.

104013 @ 아, 몰총을. 언제 건 언제 비는 거우과?

104013 #3 봄에.

104013 @ 봄에.

104013 #3 몰총 비고 내인이라고 내인이라고 궁둥이에 내인 주는 게 있어. 봄 나민 내려왕 밧 불령 올라갈 때 몰총 비곡 갈기 비곡 이 머리털은 뭘엔 헨다마는. 멩털, 멩털.

104013 @ 멩털?

104013 #3 멘털. 것도 문딱 비곡 총도 문딱 비곡.

104013 #1 얼굴에 털이니까 멘털.

104013 #3 멘털, 멘털.

104013 @ 멩털.

104013 #1 뇷 멘자.

104013 @ 얼굴에 허니까 멘털.

104013 #1 이건 갈귀.

104013 #3 갈귀, 갈귀.

104013 @ 계민 삼춘, 갈귀 용도는 뭘우과?

104013 #3 갈귀 용도는 대개는 보면은 그 당시에 또 무신 거고, 뭘엔 허는고. 예고, 뭘엔 헨다마는 뭘.

104013 #1 비

104013 #3 풀비 그튼 거.

104013 @ 예.

104013 #3 종이에 영 도배할 때 쓰는 그런 거 만들고.  
104013 @ 으, 붓예? 그 그걸 폴비엔 허여마씨?  
104013 #1 폴비.  
104013 @ 폴비?  
104013 #3 풀깃할 때 칠하는 거.  
104013 @ 아 풀깃, 아 그거 만들고. 꼬리는?  
104013 #3 꼬리는 좀 아까도 말했주마는 탕근.  
104013 @ 탕건허는 거예? 이 멘털은마씨?  
104013 #3 멘털은?  
104013 #1 갈기에 ㄹ치 들어가.  
104013 #3 갈기에 ㄹ치 들어가.  
104013 @ 게믄 그런 것도 풀고, (웃음) 이제 뭐 붓 ㄹ튼 거는 안 만듭니까? 들  
현 거는?  
104013 #3 들은 붓은 안 만들어.  
104014 @ 들은 붓은 안 만들고예? 그렇게 하고, 들은 이제 나이는 어떤 식으로  
세여마씨?  
104014 #3 나이는 곧 나민 금승몽아지.  
104014 @ 예.  
104014 #3 금승, 금승몽아지, 두슬배기는 이수매, 삼수매, 스수매 영 여녕을.  
104014 @ 예, 쟁은에 여녕을 멧까지 션니까?  
104014 #3 게난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부러보질 아녀난 수명은 모르커라.  
104014 @ 수명은 모르고예? 게영 삼춘은 멧 수매까지 세봄디까?  
104014 #1 혼 으덱 슬꺀진.  
104014 #3 멧 수꺀지.  
104014 @ 예.  
104014 #3 멧 머리?  
104014 #1 아니, 아니, 낫슬, 낫슬?.  
104014 @ 낫슬을?  
104014 #1 그 질 큰 들 으덱 슬꺀지나 키와봄디까?  
104014 #3 아, 나이.  
104014 @ 나이.  
104014 #3 나이. 우리 백마[뱅마]는 열 슬도 넘주.  
104014 @ 게믄 그건 열 설 넘은 거는 뤼렌 세여수가? 멧 슬이엔 곶아수가?  
104014 #3 삼수매, 사수매. 그런 모르커라.  
104014 @ 오수매 육수매 영은 안 곶아마씨?  
104014 #3 아 세지.  
104014 @ 그거를 세어질 때까지 세어봄서?

104014 #3 금승 이수 두 설짜린 이수주게. 이수, 삼수, 오수.  
104014 #1 스수  
104014 #3 오수, 육수 칠수 팔수 구수, 십수엔 헛네.  
104014 @ 십수엔은 아녀도 십수예? 아, 백물.  
104014 #3 그렇게 뵈주게.  
104015 @ 그렇게 이제 허고. 그 물 질루명예, 잊어불지 못허는 이런 이야기가 잇지예? 산에 갓당 질 잃어먹을 수도 잇고. 새끼는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런 것들.  
104015 #3 새끼는 즈연 분만 뉘니까 허는데, 그 새끼 나면은 옛어른들 말이 그른세라고.  
104015 @ 그른세?  
104015 #3 그른세라고 그 세를 물어 가지고 난다 허여.  
104015 @ 아아.  
104015 #3 나면은 가마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떨어지자 말자 그냥 가마귀가 차가분다 허여. 게난 우린 보도 못해서게. 그런 말만 들엇주.  
104015 #1 약으로 쓰고.  
104015 #3 약제로 상당히 좋다는 건디.  
104015 #1 한방에서 약제로 쓴다고.  
104015 @ 그 그른세는 뭐우과?  
104015 #3 게메. 그른셀 물영, 새 닭은 건디 이렇게 가로 물어부난 나니까 그른 세라 허는 거주게.  
104015 #1 즉 말허면 태아 속에서 양식.  
104015 @ 예.  
104015 #3 뭐 그런 것 같애.  
104015 #1 양식이라고 허는디 그걸 가지고 이 한방에서는 아주 그 저 요긴허게 쓰는 뭐 한방.  
104015 @ 음.  
104015 #3 약제.  
104015 #1 약제.  
104015 @ 약제로예? 아, 게문 이제 그거를 뭐 토해내거나 이런 건가마씨? 아니면은?  
104015 #1 건 어떻게 하는지.  
104015 #3 물어서 난덴.  
104015 #1 물어서 난다고 허니깐.  
104015 @ 물어서 단덴예? 사람 용 쓰는 것처럼 이제  
104015 #1 게난 뱃소곱에서 그거 물어서 크고 먹다 남은 게 이제.  
104015 @ 토해내는 거.  
104015 #3 그런 건 모양이라.

104015 @ 아, 그래서 큰세렌 곱아예. 물들은 성은에 잔텐 허지 아념니까예?  
그 말이 맞은 말이우과? 누웁은에 자는 것덜도 이선게마는 요즘 목장에 보니까.

104015 #3 녁도 자.

104015 @ 예.

104015 #3 사둡서 허여.

104016 @ 그런 식으로 헌텐예?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몰하고. 그 물들은 보  
통 이제 그 뭘, 하영 주로 뭐 먹어마씨?

104016 #3 뭐 먹느냐고?

104016 @ 예.

104016 #3 먹는, 풀 먹는 거주게.

104016 @ 풀들예? 계난 무사 쉼덜은 므른 출도 왕 허는데 물덜도 경협니까?

104016 #3 물덜도 경허여. 겐디 우리 물덜은 산에만 사니까 출혜당 맥이진 아녀  
봤주.

104016 @ 아, 출혜당 맥이진 아녀고예?

104016 #3 산에만 사니까.

104016 @ 계른 새끼 나면 어떻 헛수가?

104016 #3 새끼 낳른 봄나면은 뵁뒤에 오랑은에 낳니까 다 알주게.

104016 @ 아아, 새끼는 봄 뵁영 나마씨?

104016 #3 봄뵁영 나니까?

104016 @ 아, 겨울엔 안 나고.

104016 #3 겨울엔 안 나.

104016 @ 건 몇 개월에 나는 거우과?

104016 #3 물이 십이, 십이 개월엔 허매.

104016 #1 열두 들.

104016 #3 열두 들.

104016 @ 아, 경허난 딱 그 철이 딱 알아지는 거구나. 음.

104016 #3 열두 들.

104016 @ 보통 봄에예, 아, 열두들 만이 이제.

104016 #1 봄에 우레 창. 우레 그 저, 교미헌 뵁 우레찬텐 허주, 우레 찬.

104016 @ 아.

104016 #1 봄에 우레 창 다시 봄 나민 새끼나는 거.

104016 @ 그 말 혼번 곱아취뵁서, 삼춘이. 우레 차는 건 뵁우과? 우레 차는 건.

104016 #3 우레 차는 거는 건 교미허는 거주게.

104016 @ 예.

104016 #3 봄에 이젠 교미 받앙은에게 새봄 나면은 나주.

104016 @ 예.

104016 #3 딱 열두 들 뵁면 나.

## 떡이

104016 @ 예, 알아수다. 그 몰이나 저기 쉼나 떡이는 어떤 것들 잇어마씨?

104016 #1 떡이는 옛날 없는 집의서는 출.

104016 @ 예.

104016 #1 풀 말려가지고 이제 ㄴ실, ㄴ실 들민 하늬브름 올리민 출 비영 낫당 근앵에 그거 떡이는 게 뭐이고. 따시 곡석, 곡석 해난 그 저 남뎡이덜.

104016 @ 예, 예.

104016 #1 이제 그걸 같이 낫당 또 떡이고.

104016 @ 음, 게난 곡석해난 그 남뎡이 떡이는 건 주로 뭐뭐마씨?

104016 #1 조, 조남뎡이허곡.

104016 @ 음.

104016 #1 이제 나록. 산뎡.

104016 @ 예.

104016 #1 나록은 좀 드물엇으니깐.

104016 @ 예예예.

104016 #1 산뎡허곡 또 감젓줄 ㄴ튼 거.

104016 @ 아, 감젓줄도 떡이고예?

104016 #1 감젓줄 ㄴ튼 거.

104016 @ 감젓줄 ㄴ튼 거예?

104016 #1 밧뎡서 나는 건 먹으나 안 먹으나 걸름도 허곡.

104016 @ 예.

104016 #1 그자 앓당 주민.

104016 @ 으음. 그.

104016 #1 그런 건 일거양득이지.

104016 @ 예.

104016 #1 떡여서 배불리고 다시 퇴, 걸름허곡.

104017 @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아까 출 어떻 마련헤마씨?

104017 #1 출은 가을 들멘 하늬브름 스꾸멘.

104017 @ 예.

104017 #1 하늬브름이 스꾸멘 현 거 하늬브름 불기시작허면은?

104017 @ 아, 하늬브름 스꾸멘 험니까?

104017 #1 어, 하늬브름은 소꾸와.

104017 @ 예, 예.

104017 #1 분덴 말 그건.

104017 @ 예예예.

104017 #1 게문 이제 출밧뎡 강은에 출덜 그냥 너나 할 것 엇이 목장, 목장 그

출왔디 덜 강 다 출 비기 시작해여.

104017 @ 하늬브름 소꾸민예?

104017 #1 흐 메칠 물리우민.

104017 @ 예.

104017 #1 거 무껍 이젠 저 이제 늘어두는 거주.

104017 @ 예예예예. 그 하늬브름은 어느 펜이로 부는 걸 하늬브름이렌 험니까?  
이 동네서는.

104017 #1 여기서도 서북풍이지. 하늬브름.

104017 @ 아, 여기서는 서북풍이렌 곱읍니까? 북풍이 아니고.

104017 #1 예, 서북풍.

104017 @ 서북풍. 게문 그 바람이름도 다 트나켜예?

104017 #1 게난 브름 이름이.

104017 @ 예.

104017 #1 예, 나도 지금 이때까지 살아도.

104017 @ 예.

104017 #1 그 어들로 어떻게 오는 걸 지금 잘 모르겠는데 셋브름, 마브름 뭐 갈  
브름, 하늬브름, 뭐 셋마브름, 동마브름, 이제 그 정도벳기 모르겠네.

104017 @ 예. 근데 어느 방향은 모르쿠과?

104017 #1 방향은 대개 마브름은 여기서는 한라산쪽, 한라산 서쪽으로 오는 게.

104017 @ 예.

104017 #1 이제 서쪽. 동쪽으로 오는 건 동마브름이고.

104017 @ 예.

104017 #1 한라산 서쪽으로 오민 셋마브름이고.

104017 @ 거난 한라산 동펜이는 동마.

104017 #1 동마. 서쪽으로 오민 셋마.

104017 @ 예, 셋마.

104017 #1 이젠 셋같이 잇는데.

104017 @ 예.

104017 #1 서쪽으로 오는 갈브름이 잇는데, 어르 거 어떻게 부는 건지 그건 모  
르겠어.

104017 @ 여기서 주로 말허는 게. 하늬브름 부르고.

104017 #1 셋브름.

104017 @ 셋브름은 어디우과?

104017 #1 셋브름은 동으로 오는 거.

104017 @ 아, 셋브름은 동으로 오는 거.

104017 #1 저 하늬브름은 서북풍.

104017 @ 예, 서북풍. 여기서 서북풍은 어디 쪽 웨는 거우과?



104017 #1 이제 저 사라봉.

104017 @ 아, 사라봉 쪽이 서북풍 뒸는 거우과? 어, 거기 오면, 사라봉쪽으로 오면 하늬브름이렌 허는 거라예.

104017 #1 겨울바람.

104017 @ 예, 아, 게믄 여기는 겨울바람이 서북풍이구나예?

104017 #1 예, 서북풍.

104017 @ 그 다음에 갈브름은 어디우과?

104017 #1 게믄, 갈브름을 지금 누게안티 들어도 뚜렷하게 말해주는 사름이 없어. 갈브름 어떻 어들로 오는 게 갈브름이렌 들어도.

104017 @ 브름도 이영숙 하르방안티 들어보면 뒸켜예? 어르신이니까예?

104017 #1 예.

104018 @ 그렇게 하고 으, 출 벳던 기억같은 거?

104018 #1 아 이 출은 뭐 아침 득 울민 비지 저 해가 뜨기 전에,

104018 @ 예.

104018 #1 새벽에 이제 출밭디 강,

104018 @ 음.

104018 #1 이제 출 보아질 때 정도 뒸민 그냥 비기 시작헤영.

104018 @ 예.

104018 #1 이제 흐를 해 넘어가민 또 오곡 그렇게 헤영.

104018 @ 여기서는 출 빌 때 어떤?

104018 #1 그냥 줌호미라고 헤여. 낮.

104018 @ 예.

104018 #1 낮으로 비고. 그 낮이엔 허민 저 줌호미엔 행근앵에 영 그 뭐인디, 이 저 어디 세화 저쪽으론 가면은.

104018 @ 예.

104018 #1 한동 저쪽으로 구좌, 구좌로 낮이엔 허민 장낮.

104018 @ 긴 거예?

104018 #1 장낮을 허고. 여기서는 그냥.

104018 @ 음, 줌호미.

104018 #1 이 저 육짓말로 낮.

104018 @ 예, 예, 예.

104018 #1 줌호미.

104018 @ 줌호미렌 험니까?

104018 #1 줌호미.

104018 @ 음, 줌호미예, 그걸로 여기는 비는구나예? 저쪽 동펜이 가니까 낮으로 빌 때.

104018 #1 낮으로.

104019 @ 밍디다. 그리고 운반하고 이제 저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씨?  
104019 #1 운반은 이제 마차로 이제 들여오고.  
104019 @ 예.  
104019 #1 이제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소나 물에 질메에 시꺼왔는데.  
104019 @ 예.  
104019 #1 우리가 커 간, 커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차.  
104019 @ 음. 그 질메에 헐 때는 어느 정도 시꺼마씨?  
104019 #1 질메 헐 때도 많이 실러.  
104019 @ 음.  
104019 #1 많이 실러. 이제 그 헐 쪽이 세 뭉친데.  
104019 @ 예.  
104019 #1 질메 헐쪽이.  
104019 @ 예.  
104019 #1 요쪽에 헐 뭉치 젤 처음에 질메와 질메 사이에 헐 뭉치 무경근엔게  
무꺼 똥 저 쪽으로 강 것도 무꺼똥 이쪽 이쪽 게니까 짐이 넘어나지 아녀게.  
104019 @ 예 예 예.  
104019 #1 이쪽에 다시 헐 뭉치 무꺼똥 또 저쪽에 강 헐 뭉치 무경.  
104019 @ 세 뭉치를?  
104019 #1 경허영 또 뒤에 헐 뭉치 무끄곡 허민 세 뭉치 무끄는 거.  
104019 @ 세 뭉치예? 게른 헐 뭉치 허게 똥면은 뗏 뭇?  
104019 #1 헐 뭉치가 그건 이제 그 사람에 틀려 가지고.  
104019 @ 예.  
104019 #1 이제 그 또 무꿈에 틀리고. 이거 요 정도민 똥겇다고 행근에게 딱허  
게 정해진 게 아니.  
104019 @ 음.  
104019 #1 정해진 게 아니.  
104019 @ 출 흐뽀씩 무꺼 거 뭇이렌 험니까? 여기도.  
104019 @ 그 뭇으로 뭉치로 헤 갖고 실르는구나예?  
104019 #1 뭇을 열 뭇 스무 뭇 헤영근에 허는 거주. 거 헐 뭉치가.  
104019 @ 헐 뭉치가. 보통 삼춘 할 때는 어느 정도로, 헐 뭉치에 뗏 개 무꺼수  
가?  
104019 #1 글썸, 헐 뭉치에 그때는 헐 열뗏, 열뗏 이상.  
104019 @ 열 뗏 이상. 그러니까 육십 뭇을 하나에. 그걸 헐 바리엔 험니까?  
104019 #1 아니, 헐 바린?  
104019 @ 예.  
104019 #1 이제 여기서는 이 저 줌호미로 빈 것은 마흔 뭇이 헐 바리고.  
104019 @ 예.

104019 #1 저 낮으로나 이 곡식대?  
 104019 @ 예.  
 104019 #1 그건 서른 몫이 혼 바리고.  
 104019 @ 으음.  
 104019 #1 음, 겨난 물건에 따라근에예?  
 104019 @ 보통은 이제 바리로 그 질메 메왕 혼 게 바리잖아예. 아 좀호미허고  
 딱나게.  
 104019 #1 좀호미허고 그대로 이 저 낮으로 빈 거 허고 좀호미로 빈 거 허고  
 곡식대 허고 이제 출허곤 또 차이가 나고.  
 104019 @ 예. 경허영은에 집에 오면은 집에선 건 어떻 저장해수과?  
 104019 #1 놀에 놀어사. 놀영.  
 104019 @ 누는 것도 재미있어예?  
 104019 #1 아이고, 즈미잇고 말고. 이, 계난 건 놀을 출 혼 몫이 두 번 놀어지는  
 거라. 밧되서 혼번 데미나 놀어두나 헛당.  
 104019 @ 예.  
 104019 #1 제기 못 가져갈 것 같으면 이제 놀곡 빨리 가져갈 건 조그마씩 데며  
 두고.  
 104019 @ 음.  
 104019 #1 경해영 실러 오면 집의 왕근앵게 마당에 퍼 놓면 밤원 건 놀곡. 낮원  
 장 실러오곡.  
 104019 @ 으음, 밤의 놀어서예?  
 104019 #1 밤의 놀어, 밤의.  
 104019 @ 예, 맞수다.  
 104019 #1 불싸명덜. 웃음.  
 104020 @ 그리고 이제 그 췌나 새끼 나거나 밧 갈젠 허면 또 뭐 죽 같은 것도  
 헤지예?  
 104020 #1 아이고, 물론.  
 104020 @ 것도 그건 어떤 식으로 헨마씨?  
 104020 #1 죽은 솟되 큰솟되 썩.  
 104020 @ 예.  
 104020 #1 이제 으물이엔 허는디 그건.  
 104020 @ 아, 으물예?  
 104020 #1 으물헤여 쥘. 으물 맥여산다 허영. 으물을 헿근앵게 쭈는 건 이 좀  
 부드럽게, 그 위가 덜 부닥, 저 창,창지가 덜 이 저 부담가게.  
 104020 @ 예.  
 104020 #1 경허영 솥양 주는 거.  
 104020 @ 으음, 그치록허영 건 으물이엔 헤예?

104020 #1 으물.

104020 @ 그때 으물허는 거는 어떤 재료들은 뭐마씨?

104020 #1 재료는 보리도 스팀 주고 그자 거기에 체에 서경. 그 보리체나 이 저 무슨 조풍뎡이 ㄱ튼. 조풍뎡이엔 헤영 조도 초불 깐 거.

104020 @ 예예예.

104020 #1 풍뎡이.

104020 @ 조풍뎡이.

104020 #1 조풍뎡이도 거기에 서경 주곡, 엇이민 으물이 많으면 으물만 헤영 주곡. 경 아녀민 조풍뎡이 ㄱ튼 것도 걸 좀 보테영근엥에 헤주고.

104020 @ 그 다음에 이제 출 빌 때예, 잊어볼지 못한 이런 경험 잇수과?

104021 #1 글쎄, 출 빌 때에 잊어볼지 못한 것은 별로 없는데 혼자서 이제 출 시경 오당.

104021 @ 예.

104021 #1 이제 구루마가 뒤집어졌을 때에, 혼자 일리지도 못하고.

104021 @ 음.

104021 #1 요것ㄱ치 급급헌 노릇이 없어. 넘어가는 사람 붙잡앙 “요거 밀어줍서.” 허면 “나 바빠 허멍 가 버리고”. 춤 그럴 때 인심이 박헤베고.

104021 @ 맞수다.

104021 #1 상당이 그 험디. 결국은 짐을 풀영근엥게 다시 올리는 수가 있고.

104021 @ 예.

104021 #1 어떻허단 그냥 일리는 수가 있고.

104021 @ 으음.

104021 #1 그것도 처음에는 몰란 상당이 뭐 허다가 나도 그 여러 번 헤보진 아년는다 흥번 그런 일을 당헤났는데, 이제 쉼 마차 험 오단에.

104021 @ 음.

104021 #1 아, 저 명도암서 그냥 뒤집어지니까 어떡허민 좋고 그냥 막 걱정허고 잇으니까 것에 아주 줌, 옛 그 웃어른이 완에 “요건 영 허민 일어난다.” 허멍 앞에 채경 꺼꺼질 걸 생갈 안 허고 그냥 뒤에서 잡아 밀리는 거라.

104021 @ 음.

104021 #1 계난 그냥 오글레기 일어난.

104021 @ 어.

104021 #1 짐이 그냥 바르 사니까 아이고, 어떻사 기쁜 지 그런 뎡 춤 말도 못 허여.

104021 @ 계도 어른들이 경험으로예.

104021 #1 경험으로 그 뜬 어른덜이 말헤주니깐. ㄱ치 완 그 처음에 험 뎡 나 바빠 못 허커라 가분 사름덜은 상당히 퀘썸헤보고 인심도 없어 베고 험는데. 내중에 춤 그 사람은 실지 바쁘니깐 경헌 거 같으고,

104021 @ 예.

104021 #1 나중에 분은 춤 바쁜 일이 있어도 이제 길을 ㄱ로 막아부니까 뒤에 서 오는 사람은 이걸 일러 세웁지 않으면 당신도 가질 못할 거니까 같이 협심헌에 그거 일러된 그 할 때엔 그런 때엔 기분이 늘 거 같은 그런 기분이지.

104021 @ 예.

104021 @ 옛날엔 등짐으로도 다 했지예?

104021 #1 허고.

104021 @ 삼춘도 등짐으로 날라봘디가?

104021 #1 예, 등짐 많이 했낫주.

### 빨감

104022 @ 개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는예. 옛날 지들케?

104022 #1 지들커.

104022 @지들커. 응 지들커도 하영 해와야 뵈 거 아니라예?

104022 #1 지들커 많이 해사주게.

104022 @ 지들켄 어떤 종류들이 이신고예?

104022 #1 지들켄경허난 그 곡석 남탱이도 때고, 보릿대도 때고, 또 겨울 들어 가민[뜨러가민] 그 소낭 가지치기 해영도 것도 때고.

104022 @ 예.

104022 #1 또 길레예, 길가에덜 그 나무들이 저 가시 ㄱ치 난 것덜이 있어.

104022 @ 예.

104022 #1 이제 삼동냥이나 저 예고, 근젠 허난, 뭐 하여간 잡냥덜이 그냥 길가에 쪽 난 거 그거, 그 길도 다까지고 그거 허면.

104022 @ 예예.

104022 #1 길덜도 깨끗헤여지주. 그냥 쪽허게 해영 강 그거 그냥 가져당 이젠 못아 일일이. 일일이 못양 요만씩 행근에 허민 들르민 그거 아저당 떼여. 뭐 개짱냥이 무시겨여 상당히 많주. 종류가.

104022 @ 예예.

104022 #1 길레 잇는 건 것도 일거양득이지. 길 다끄고, 나 빨감허고.

104022 @ 예.

104022 #1 허니깐.

104024 @ 그러면 그 지들커 허레 여자덜은 솔입은 걷으레 안 가마씨?

104024 #1 무사 솔입 걷으레 안 가. 여인덜은 여인대로 이제 솔입덜 걷어당근엿게 솔입 떼고.

104024 @ 솔입 걸젠 허면은 아정가는 게 뭐우과?

104024 #1 아정 가는 건 베허곡.

104024 @ 예.

104024 #1 보달 치젠 허른 거기 거기서 칙 견영도 이제 보달이엔 현 건 혼 몽  
칠 만드는 거.

104024 @ 예예예.

104024 #1 몽칠 만드는 건데 이제 그 칙 견영도 허곡 여기서 노끈 가정강도 무  
끄고. 이제 글쟁이.

104024 @ 예.

104024 #1 글쟁이, 표준어로 갈퀴.

104024 @ 예.

104024 #1 갈퀴. 글쟁이 혜영 강 굽어놔 모이민 또 부지런헌 남잔 부인 가민 것  
강근에 같이 도와줘 그냥 허곡.

104024 @ 계난 옛날에 집에 보면 우영에들 솔입 견영 다 놓고 헤나서예.

104024 #1 경 헛주게.

104023 @ 이제 그치록허고, 혹시 여기 쉼똥이영 뭉똥도 연로로 써신가마씨?

104023 #1 쉼똥 뭉똥은 연로로 주로 안 쓰고. 우리가 막 어린 때에,

104023 @ 예.

104023 #1 연로로 쓰는 거 봤는데, 할머니덜이.

104023 @ 예.

104023 #1 쓰는 걸 봤는데. 이제 우리가 커가니깐 아메도 쪼금 그 세상이 변해  
가는 거 같아.

104023 @ 음음.

104023 #1 쉽게 말허민 우리가 봉덕불.

104023 @ 예.

104023 #1 봉덕불 알겠어요?

104023 @ 예예, 부억에나.

104023 #1 부억에나 이저 마루 가운데 이제 불살랑 거기서 초면서 허는 거. 그  
거 그걸 그것광 가족웁.

104023 @ 예.

104023 #1 이제 개가족으로 만드나 소가족으로 만드나 뭉가족으로 만드나 허영,  
그 저 지금 ㄱ트면 코드지.

104023 @ 예예.

104023 #1 두루마기 만들영 입영근앵게 다니고. 이제 감태 그 가족으로 감태 만  
들영은에 감티도 이제 이렇게 등글게허영근앵게 이 그대로 영 벌리른 특허게 써지  
게.

104023 @ 아, 삼춘네도 게른 감티 써납디가?

104023 #1 난 안 써나는데 우리 하르버지빨덜.

104023 @ 아아, 하르버지빨예 예.

104023 #1 그 계난 원시시대를 벗어난 그 시대부터 현 시대까지 보았으니까.

104023 @ 예예.

104023 #1 문명, 현 문명시대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전쟁도 몇 번 보았고.

104023 @ 예.

104023 #1 워정 때 이제 보고, 이제 육이오 때 보고 제주사삼사건은 난이거든. 난, 이제 그것도 보고 허니깐 뭐 지금 현 팔십년 사이에 볼 건 거춤 본 걸로 생각이 들고.

104023 @ 예 맞습니다. 아, 옛날부터 지금까지예. 웃음. 그렇게 그 돌똥 같은 경우는 굴목 같은 건 떼는 데는 안 썬마씨?

104023 #1 물리우멘, 물리우멘 이제 굴목도 떼고 다시 우리도 어린 뎨 “굴목 때라. 굴목 짚으라.”

104023 @ 굴목 짚으라 헛지예?

104023 #1 “굴목 짚으라.” 헤어뎨 가민 ㄹ시락,

104023 @ 예.

104023 #1 ㄹ시락 헤영 아궁이에 담아 낵. 이젠 그 아궁이 막는 돌이 있어. 넵 주룩헌 거.

104023 @ 예예.

104023 #1 그걸 쉼똥 헤어당 짹 손으로.

104023 @ 아, 블라.

104023 #1 블르민 그 열기가 글로 빠지질 안 헤영근엿에 그건 현 이틀 떼어져.

104023 @ 아, 아. 쉼똥으로 그걸 딱 블르, 막는 거라예?

104023 #1 구멍을 딱 막아불뎨.

104023 @ 아아.

104023 #1 경헤영.

104023 @ 그렇게 막는 거를 뉘헌뎨 헵니까?

104023 #1 경허난 “쉼똥 좇어당 그 저 굴목도 막으라.” 헤영근에 어머니네가 말허민.

104023 @ 예예.

104023 #1 “예, 알아수다.” 헤영 이제 쉼똥 헤당 짹허게.

104023 @ 굴목도 막으렌 헤예.

104023 #1 으.

104023 @그 굴목도 막는 그 돌은 무신 거렌 헵니까?

104023 #1 게메 그건 지금 몰르커라.

104026 @ 아, 어쨌든 도 막으렌 현 거라예. 아아, 경허고 이제 뉘 나무 아까 이제 허레 간 것고. 솟도, 여기 솟도 귀마씨?

104026 #1 도련에선 아마 쫓똥 부촌이엇던 ㄹ라.

104026 @ 예.

104026 #1 그까지는 안 헤보고.

104026 @ 솟 폴레 오는 거는 봐납디가?

104026 #1 아니 저, 폴레 오는 거 그거 행근앵에 사 쓰기도 허곡, 아니민 저 고지 강근에게 가끔 저 그 동네에도 그 어려운 사름덜은 그 강 그때에도 웨정 때에 그 산림덜이, 그 훼손허지 못허게 허젠 그 산림계.

104026 @ 예예.

104026 #1 영림소엔 헛지.

104026 @ 예, 영림소예.

104026 #1 영림소 사름덜이 간 직헤였는데, 그 사이에 좀 뭐 쉽게 말허민 도둑질이주.

104026 @ 예, 예.

104026 #1 저런 거 헤여당 가져오민 그거 상 쓰곡.

104026 @ 음, 경 아녀민 거는 집에서 솟 멘드는 거는 장작 영 불피왕예? 집에 서는예?

104026 #1 집에선, 집에서도 소낭 그 저 뭐허면은 저 몰르게 헤당근에게 어디 그 저 밧어염에서 솟을 귀.

104026 @ 아아.

104026 #1 소낭솟허영.

104026 @ 아아, 소낭솟허영예? 그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4026 #1 소낭솟은 구덩이 팡.

104026 @ 예.

104026 #1 이젠 그 낭덜 쟁여냥.

104026 @ 예.

104026 #1 이젠 알로 불부치곡 게난 그 저 흑헤영[흑케영]근에 막 더프곡.

104026 @ 예.

104026 #1 더프곡 우만 이제 솟통 냉격당 이젠 불 완전히 오른 거 닥으민 그냥 옷 구멍 탁 막앙.

104026 @ 아, 경헤영 그냥 여기.

104026 #1 솟 쉬지 못허게 허민 저 그게 호홉곤란으로 불도 꺼불 거 아니라게. (웃음) 경허민 솟 웨여.

104026 @ 아, 그 집에서 그치룩헛구나예? 그걸 소낭솟이렌 헛구나예?

104026 #1 소낭 헤당 현 건 소낭솟. 이제 도토리낭이나 그런 뭐 춤낭.

104026 @ 예 예.

104026 #1 고지 강 춤낭 헤당 현 건 춤낭솟.

104026 @ 예예예, 보통 집의서 현 건.

104026 #1 소낭솟.

104026 @ 소낭솟이여예?

104026 #1 좀 소낭솟은 허피여. 불이 빨리 삭아져.



104026 @ 아무래도 참숯하고 뜨나예. 그 이 지들커 허멍은에 재미있었던 일 하 시커라.

104026 #1 글썸이. 지들커허당은엔에 그 벨로 그런 건 느껴보지 못했는다.

104026 @ 음. 지들커는예? 하영 허레 안 갖구나예?

104026 #1 하영 허레 안 간. 도련이 경우 여기가 아메도 부촌에 가까워던 모양 이라.

104026 @ 장작같은 거 폴레 오는 사름들도 잇었수가?

104026 #1 그건 엇고.

### 사냥

104028 @ 숯으로 허는 데 사냥도 헤 볍디가?

104028 #1 아이, 사냥이야 자미로.

104028 @ 으, 자미로 허는 거?

104028 #1 재미로 이제 그 아이덜 키와올 때에,

104028 @ 예.

104029 #1 그 봄에 이루 후에지. 칠월 아, 칠팔월에 꿩 사냥.

104029 @ 예, 예.

104029 #1 꿩빙아리 거 저 깨워서 그 아주 뭐 허지 아널 때.

104029 @ 예.

104029 #1 굳지 아널 때 늘 얼마 정도 혼 이삼백 메다씩 늘 때에.

104029 @ 예예, 어린 거?

104029 #1 그거 해당 어린아이덜 혼 머리 맥에주면은 그냥 여름 그대로 넘어가.

104029 @ 아아, 그 보신으로 허는 거라예? 꿩빙아리를?

104029 #1 겨울, 겨울 들엉근엔에 꿩덜이 크지. 그땐. 그거 해당 먹이민 보신으 로 허영 겨울 그대로 넘어가.

104029 @ 아아, 경허니까 아이덜 키울 때 그렇게 헛다는 거지예?

104029 #1 아이덜 맥이기 위해서.

104029 @ 그러면 그거 꿩 사냥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헤마씨?

104029 #1 꿩사냥, 꿩사농 할 때엔 여럿이 나강근에덜 이제 망보고 어디레 강 앓는 거.

104029 @ 예.

104029 #1 이제 앓는 거 볼 사름은 망 보는 거고.

104029 @ 예.

104029 #1 놀르는 사름이 잇고.

104029 @ 아, 놀르는 사람.

104029 #1 그냥 개 들양 그냥 막 휘장치면 그 주위를 그냥 막 뛰어나디면 이제 겁냥근에 꿩이 놀면 어디 강 앓는 거 보고, 허민 또 어디 간 앓앗젠 이제 잘 말헤

주면은 그디 강 또 개 대영근에 그 냄새 헤영근에. 물곡.

104029 @ 아, 게른 보통 개 들양 땡기는 거구나예?

104029 #1 개 들양.

104029 @ 꿩 사농 가젠허면 땡 명쫘 가마씨? 혼 번 갈 때?

104029 #1 혼 땡 사름 가야주.

104030 @ 음.

104030 #1 땡 사름 가사.

104029 @ 망보는 사람 놀르는 사람. 이제 어디 앓아져 곁아주는 사름?

104029 #1 건 망보는 사름이 곤는 거.

104029 @ 곤는 거는 망보는 사름예?

104029 #1 개 들양 물리는 사름 잇고, 건 빨른 사름이야야.

104030 @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노루 사농도 헤 볍디가?

104030 #1 노루 사냥은 못 헤반.

104030 @ 아 건 안 헛고예?

104030 #1 노루 사냥은 안 헤 봤는데, 그 옛 어른덜은 제주도에 제주에 사슴까지 잇언이.

104030 @ 예.

104030 #1 노리 사슴 각록 헤영근에 각록 곁아났는데, 사슴은 암놈이고 각록은 숫놈이엔 허영 옛 어른덜이 말헤나서. 거 구분을 헨에.

104030 @ 예.

104030 #1 말헤났는데 예 우리 증조부님쫘은 이 사슴 잡으레 가는데.

104030 @ 예.

104030 #1 이제 두 쫘레 부뜨는 걸 봐서. 쫘레. 싸움 허는 거이.

104030 @ 예.

104030 #1 쫘레 부뜨는 거 반에 그냥 달퍼들언 그냥 두 놈을 붙잡으니까 이제 서로 그냥 이제 땡기기 시작헌 거라. 게난 그 사촌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104030 @ 예.

104030 #1 “형님, 빨리 읍서, 빨리 읍서” “왜, 왜” 허니까, 이제 말 들엉 보민 춤 웃기는 말.

104030 @ 예.

104030 #1 이 사슴 쫘레허는 거 각늑, 각늑 싸움허는 거 심언 헌디 그냥 저 가슴 브려전 뭐 허우다. “제기 왕 이거 심읍씨” “그거 데맹이 심영 조지라, 조지라”

104030 #1 @ (웃음)

104030 #1 경허난 결국은 이제 놓쳐된에 혼 머리만 잡아당 잡수왔젠 허여.

104030 @ 예.

104030 #1 그 그걸 잡쫘난 자손덜인지 몰라도 장사 말 들어서. 그 아들 딸들이.

104030 @ 아아.

104030 #1 우리 대고모님 째은 그 큰도고리에 저 보리 그냥 굴단에 소낙비 와 가난에 ㄹ레 그 안네 앓진 차 오꼴 들린 부억에 들어가낫젠 허매. 그건 보통 힘으 로 안 되는 거주.

104030 @ 예.

104030 #1 경헤엇젠 허고, 다시 우리 조부님째은 그 메칠 굶어도 그 춤 거 무거 운 낭 헤엔 째언 그냥 와낫젠 현 고지서 헛젠 허민. 다덜 그 말덜 들영 겁낫덜. 그 런 게 아마 보신용으로 뭐 그 딱 그 맞은 때엔 보신용이 대단이 좋은 모양이라.

104030 @ 그리고 삼춘, 아까, 대고모렌 허면은?

104030 #1 하르버지 누님. 누님이나 누이나.

104030 @하르버지 누님이나 누이를 대고모님이렌 허는 거라예?

104030 #1 보통 왕고모님.

104030 @ 예.

104030 #1 그 문헌상에 보면은 저 왕고모님은 그 웃할머님이고,

104030 @ 예.

104030 #1 저 대고모님이엔 허주.

104030 @예, 우리 제주도에서는?

104030 #1 왕고모님.

104030 @ 왕고모님이렌 현 거지예?

104030 #1 왕고모님.

104031 @ 그리고 혹시 지달이 잡으레도 멩겨볶디가?

104031 #1 지달인 잡으렌 멩겅는데 난 혼 머리 잡아보들 못헛어.

104031 @ 아아.

104031 #1 그 지달이 잡는 것도 저디 그 아까 이영숙 씨 그 하르버님, 그 하르 버지안테.

104031 @ 그때 우리 같이 강 물어보게예?

104031 #1 어.

104031 @ 그 어르신은 다른 일 헤마씨?

104031 #1 다른 일은 별도 키와나고.

104031 @ 별도 키우고예? 양봉도예?

104031 #1 양봉.

104031 @ 밧디 탱기거나 이렇진 않지예?

104031 #1 이젠 아무 것도 이젠 향시

104031 @ ㄹ치.

104031 #1 언제나.

104032 @ 예. 알겅습니다. 족제비는?

104032 #1 족제비는 족제비덧 낱 잡주.

104032 @ 잡아볶디강?

104032 #1 난 그 저 사냥 그런 것엔 그 낚시질이나.  
 104032 @ 예.  
 104032 #1 사냥이나 그 뭇은 그 나 뭇에 맞들 아년 모양이라.  
 104032 @ 취미도. 아.  
 104032 #1 게난.  
 104032 @ 머정이 엇구나예?  
 104032 #1 으, 맞아. 머정이 엇언. (웃음) 이 낚시허레 가도.  
 104032 @ 예.  
 104032 #1 못허여.  
 104032 @ 으.  
 104032 #1 뜯 옴의 사름은 허는데, 족제비나 이 지달이나 지달이ㄴ라 저 노루  
 예. 아, 아니.  
 104032 @ 오소리?  
 104032 #1 예, 오소리.  
 104032 #1 예. 오소리엔도 허곡 그런 그 뭇엔 허는디, 것덜도 흐나 못 봐보고.  
 이 사냥 텅길 때 그자 ㄴ치 그자 여럿이 가난에 꿩병아리 쫓끔 헤뵈주. 뜯 건 아무  
 것도 못 헤뵈.  
 104032 @ 웃음. (이하 잡음 생략)

## 5. 바다일

105001 @ 오늘은 바다 일에 대행 물어보쿠다예? 그 바다에서 하는 일은 어땡  
 것덜 이시코예?  
 105001 #2 건 난 모른덴 허난.  
 105001 @1 바당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만 곱읍서.  
 105001 #2 해녀 ㄴ트민 강 전복이나 따곡 하간 소라도 잡곡.  
 105001 #1 점복이영 구쟁기영 보말이영 강이영 잡주마는 여기에서 해녀 이 저  
 잠수가 아니면.  
 105001 @ 예.  
 105001 #1 여긴 보말 심, 보말 심으레.  
 105001 @ 예, 예.  
 105001 #1 보말 심으레 가곡 강이, 강인 잡으레 가곡. 도망 텅기는 거난 잡아사.  
 105001 @ 예.  
 105001 #1 웃음. 강이 잡으레 가곡 뭇 경허는 거주 무신.  
 105001 @ 남자들은 허는 거 엇이카마씨?  
 105001 #1 남자덜토 별로 허는 거 엇어.

105001 @ 음.

105001 #2 고기나 강 나끄곡, 낙시나 강 허곡. 남자덜토 가근에 하근거 잘 심어 오고.

105001 #1 이 저 남자덜은 즉 말허민 무거운 돌을 굴리지.

105001 @ 예.

105001 #1 돌, 돌 둥그리민 이제 그저 그디서게 그 밑에 부텃던 거 좇어놓곡.

105001 @ 예예, 돌 일리멍은에 거기 ㄴ치 강예?

105001 #2 돌 일르멍 허른 남자덜 강 큰 돌 일리민 그 아래 점복덜도 잇곡 소라덜토 잇곡 해슴도 잇곡 그 어뎡헤영 스망일민 많이 잡아.

105001 #1 구쟁기 구쟁이 고동 허는다.

105001 #2 고동과 구쟁인 딱난 거주. 고동은 보말.

105001 @ 예.

105001 #2 보말 그 쭈쭈한 쭈쭈이 저 코지가 이러면서도.

105001 #1 웬보말 ㄴ치.

105001 @ 음.

105001 #1 웬보말 ㄴ찌.

105001 #2 이 똥 잇는 쪽이 곁짜허거든.

105001 @ 예예

105001 #1 건 저 고동.

105001 @ 고동.

105001 #2 기냥 민들락허영 까망헌 거는 먹보말.

105001 @ 먹보말. 으.

105001 #2 또 쟈간허영 허영 허민 영 내민 똥이 털어져. 코트데기엔 허여. 그건.

105001 @ 건 코트데기, 예.

105001 #2 코트데기.

105001 #1 계난 보말 종류도 상당히.

105001 #2 웬보말도 잇고.

105001 @ 웬보말은 어떤 거우과?

105001 #2 웬보말엔 헌 건이.

105001 #1 가마기보말엔도 허곡 것 ㄴ라 허는 생이란게.

105001 @ 이렇게 길쭈헌 거. 걸 웬보말엔 허는 구나예?

105001 #1 까망허연. 아마 감아진 게 웬쪽으로 감아진 거 같아.

105001 @ 우뜨리니까 배허는 사름덜은 엇어예?

105001 #1 엇어.

105001 @ 혹시 여기에서 듬복이나 감태 같은 것도 즈물아볶디가?

105001 #2 그런 건 안 허여.

105001 #1 사당 맞된 농곡.

105001 @2 여기는 바당은 없수가? 도런드르.  
105001 #2 바당이 어디  
105001 @ 밧디 놓는 게 뭐라마씨?  
105001 #2 삼양이나 이동이나 가사 바당이.  
105002 #1 듬북 행근에게 그 저 이 작두로 못으멍.  
105002 @ 예.  
105002 #1 이 장호미로 못으멍 저 밧디 낄앙 그건.  
105002 #2 보리.  
105002 @ 음.  
105002 #1 경허민 아마 염분 보충허곡 다시.  
105002 #2 조도 잘 돼곡. 우리도 우리대론 흘 수 잇이난 삼동사름 쥘. 그거 허 여당 흘 천 쎅, 천 쎅 아니. 팔백 쎅은 돼겐다. 현 것에 잔뜩 헤연 왕 낄아근 그대 로 헤먹으렌.  
105002 @ 음.  
105002 @2 아 듬북 낄앙.  
105002 #1 듬북 낄아주면은 일년 일년 헤먹는 거.  
105002 #2 밧 비는 것도 어려우니까. 경 행 낄아쥬 허민 그 다음부면 또 임제가 허여.  
105002 @ 음 게난 일년, 음.  
105002 #1 그 저 듬북 낄아준 값에.  
105002 @ 예예, 값에 그때 흘 동은 헤 먹는 거구나예? 예. 그때는 무신 농사 지 어서마씨?  
105002 #2 보리.  
105002 @ 조나 보리 이렇게예. 감태 허는 거는 안 받마씨?  
105002 #2 감태 안 받.  
105002 #1 감태는 뭐 그냥 듬북에 들어가불지. 감태덜은 딱로 허지 아녕.  
105002 #2 이젠 동더렌 따로 허여.  
105002 @ 예예.  
105002 #2 따로 허영 폴아. 경 허는디 영 뎡기멍 봐도 감태가 많지 아녀. 옛날 은 막 많이 헤난디. 난 뎡겨보진 안 헛지마는 많질 아녀.  
105002 #1 이 감태가 저거 옥도 원료로 그 웨정 때 썬주게.  
105002 @ 예예.  
105002 #1 옥도 공장도 성산더레도 잇엇고.  
105002 #2 그쪽더레 허멍 픈는 쎅이라. 사천 원. 나가 쥘 누게 구헤드렌 헤연.  
105002 @ 아, 구헤봤구나예?  
105002 #2 한 근에 사천 원이렌.  
105002 @ 감태가 어.

105002 @2 뭐, 그 사름은 뭐엔 쓰켄마씨? 전복 양식으로?  
 105002 #1 아니, 전복 양식이 아니고 저.  
 105002 #2 들류왕근에 가를 내영.  
 105002 @ 약으로 먹젠.  
 105002 #1 줌 못 자는 것ㄴ라.  
 105002 @1 수면.  
 105002 @2 불면증.  
 105002 #1 불면증에 그걸 먹켄.  
 105002 #2 육지서.  
 105002 #1 그 뭇에도 올라온 생이라. 인터넷에도 올라온 생이란게.  
 105003 @ 불면증에 감태 좋텐 해갓고. 어쨌든 해조류니까예? 예. 아까 이제 글  
 아주만은예, 고등 게니까 보멸은 어떻 잡앙마씨?  
 105003 #2 돌 일리면서 잡지.  
 105003 @ 예, 돌, 돌 일렁은에 잡는 거 다예.  
 105003 #1 돌에 부튼 거 심으는 거.  
 105003 @ 강이는마씨?  
 105003 #2 강이, 강이도 기냥 막 돌 일르멍 막 이렇게 해서 잡지. 기냥 돌아냥  
 못 잡아.  
 105003 @ 아, 게문 이제 삼춘 곶아젯주마는 그 보멸 종류예?  
 105003 #2 으.  
 105003 @ 다시 한번만 곶아쥬줍서.  
 105004 #2 고등.  
 105004 @ 예.  
 105004 #2 육지서는 대개 고동이엔 허여이. 겐디 이디션 그 쭈쭈허여근 꼭지가  
 나온 거. 딱지 부튼 디는 영허영 납삭허고.  
 105004 @ 예.  
 105004 #2 꼭지 부튼 거이 조썩헤이. 그딘 똥이라. 것이 고등.  
 105004 #1 떡보말.  
 105004 #2 떡보말엔 현 건 까망허곡 검어.  
 105004 @ 검은 거. 문들락허고. 으물도 큰 건 하.  
 105004 #1 수두리보말. 수두리보말.  
 105004 @ 어, 수두리보말.  
 105004 #2 수두리보말엔도 허곡 떡보말엔 허곡.  
 105004 #1 아니.  
 105004 #2 고등ㄴ라 저 수두리보말렌 해낫주.  
 105004 @ 예, 예, 예.  
 105004 #1 또 코트데기.

105004 @2 아 코트데기.  
105004 #1 으.  
105004 @ 그 다음 아까 웬보말.  
105004 #1 대개.  
105004 @1 그 정도예?  
105004 @2 껌질 이런 데 보면 저 눈동자처럼 웬 것도 잇수가? 딱딱허연.  
105004 @ 막 쓴 거.  
105004 #1 췌닥지 입은 거.  
105004 @2 췌닥지 입은 거.  
105004 #1 것ㄴ란 돌포말이렌 허는가?  
105004 #2 우린 돌포말, 돌포말 해부난 몰라.  
105004 @ 예, 여기 돌포말.  
105004 #2 돌포말 그거 해당은에 당뇨에덜 허영 먹어.  
105004 @ 예예, 당뇨에 좋덴 헛 거예. 돌포말마씨.  
105004 @2 먹으민 씨우룽허는 거 잇지 아녀우과?  
105004 #2 씨우룽해도 것이 질로 좋덴.  
105004 @ 그 다음에 메옹이 이런 건?  
105004 #2 메옹이는 맵주룽헛 게.  
105004 @ 예.  
105004 #1 메옹이겠다.  
105004 #2 쏘롬해가지고 영 허영 우린 메옹이엔 해부난 몰라. 거 뭐엔 허드라?  
육지 사름은.  
105004 @ 표준어는 두드럭고등.  
105004 #1 두드럭고등.  
105005 @ 그 다음엔 삼춘 강이에.  
105005 #2 으.  
105005 @ 강이도 종류가 으라 질이렌 허멍예?  
105005 #2 으.  
105005 @ 뭐?  
105005 #2 춤강이도 잇고 똥강이도 잇곡 심방강이도 잇곡.  
105005 #1 아, 저 돌강이도 잇고.  
105005 #2 돌강이도 잇고.  
105005 #1 또.  
105005 @2 지름강이?  
105005 #2 똥강이는 물랑물랑허여.  
105005 @ 어, 똥강이는?  
105005 #2 잘 굳지 아녕 이. 껌다리가 굳지 아녕 영 즈으민 물썩물썩 허여. 거



는 먹지를 안 하여.

105005 @ 똥강이는 안 먹고 그 다음에 심방강이는?

105005 #2 심방강인 심도 못하여.

105005 @ 어.

105005 #2 이렇게 허민.

105005 #1 빨라.

105005 #2 영 현디 어느 쑥안에서 저디 돌아부는디 못 심어, 못 심어.

105005 @ 건 어떻 생겼수가?

105005 #2 얼룩얼룩얼룩헌 게이 홀곡 막 재여.

105005 @ 아.

105005 # 얼룩얼룩 하여. 등어리가.

105005 @ 등어리가?

105005 #2 점 있지. 빨갛빨갛.

105005 #1 희뜩희뜩.

105005 #2 헤뜩헤뜩헌 것도 있고.

105005 @ 붉으스름하고 희뜩희뜩허고예. 그 다음에 아까 돌강이는?

105005 #2 돌강이는 오몽도 못하여.

105005 @ 음.

105005 #2 경허영 끄짜끔짜허고이 이 꺾다리가 기냥 더드러더드러헌 게 막 썩여. 강이 발이 기냥 그 아강발이 기냥 딱딱하여.

105005 @ 아아.

105005 #1 워낙 썩여놓니까 돌강이.

105005 #2 경허영 딱 것이 좁져불민 잘 좁지지도 못하여. 나ㄴ찌 떠 놓니까.

105005 @ 음, 색깔은 어떻하여마씨?

105005 #2 색깔은 검지도 아녀고 흐뭇 희뚜룩헌 게 저 꼭 그 옷 색깔 비똥.

105005 #1 아니, 저저 소곱에 속웃.

105005 @ 회색?

105005 #1 회색이 가까웁고.

105005 @ 어, 그게 돌강이?

105005 #2 돌강이.

105005 @ 그 다음 아까 하나 뭘 골았져마는.

105005 @2 지름강이?

105005 #1 으?

105005 @1 지름강이?

105005 #1 춤강이.

105005 #2 지름강이 춤강이.

105005 @ 춤강이는 어떻게 생겼수가?

105005 #1 불고룡허영은에.  
105005 #2 막 이빠. 건?  
105005 @ 게른 옛날에 강이 잡아당은에 반창허영 보깡 먹엇잖아예? 그거는 어떤 강이를 주로 잡다양 보깡 먹은 거라마씨?  
105005 #2 그자 아무 거라도 먹어.  
105005 @ 아, 강이는 다 먹읍니까?  
105005 #2 똥강이만 안 먹어.  
105005 @ 음.  
105005 #2 똥강이는 끝에 허영 거 먹으면 사름이 죽넨 허는디 몰라.  
105005 @ 안 먹어보난?  
105005 #1 산강이도 물렁진덴.  
105005 #2 영 허영 강 보민.  
105005 @ 예.  
105005 #2 어떻게가 허면, 이 때에 따라근에 물렁 강이가 잇넨.  
105005 @ 아, 계절에 따라예?  
105005 #2 계절에 따라. 일찍 흔 이월 삼월 썸들엔 것이 굳지 못허영 경 현대. 똥강이 같은 건. 건디 똥강인 똑 지픈 디도 엇어. 굿디만 잇주.  
105005 @ 굿디만예. 그 다음에 이제 식킹이도 잇지예?  
105005 #2 식킹이?  
105005 @ 으, 식킹이렌은 안 들어봅디가?  
105005 #1 안 들어본디.  
105005 @ 식케?  
105005 #2 식킹이엔 현 건.  
105005 @ 으.  
105005 @2 얼룩얼룩헌 거.  
105005 #2 얼룩얼룩헌 것이 저 그것이 우리 ㄹ뜨민 뉘 베염강이라고 헤어나서.  
105005 @ 무슨 강이?  
105005 #2 베염강이..  
105005 @ 베염강이? 그 물베염 모양으로 그런 색깔이구나.  
105005 #2 얼룩얼룩허영 빨긋빨긋허고.  
105005 @ 아, 빨긋빨긋허고 으. 베염강이렌 현 거. 거는 어디에 살아마씨?  
105005 #2 바다에 살지.  
105005 @ 것도 바다에 사는데.  
105005 #2 바다에서 주루 이 돌 우의에만 살아. 물 속엔 안 살아.  
105005 @ 아, 식킹이는? 게른 돌 우에 막 행 다니는 게 거의 그거로구나.  
105005 #2 막 영 텅기멍 발발 듣는 거 심방강이라고 허여 우린.  
105005 @ 심방강이?

105005 #2 아, 심방강이 잘도 핫저. 심지를 못허여. \*\*\* 여기서민 쪽허게 저기 돌아.

105005 @ 게믄 주로 춤강이 해당은에 먹는 거우과?

105005 #2 으, 춤강인 저 곱닥허곡 춤.

105005 @ 음, 건 어떤 색깔?

105005 #2 맛도 좋아.

105005 #1 불그룽.

105005 #2 불그릇헌 것도 잇곡 해또록헌 것도 것도 색깔은 으라 가지. 계절에 따라산디사 경허여.

105005 #1 아니, 원래 자기가 위장헌 대로 그대로 허긴 허는디 이쁘게 허곡 보기에 쫘 탄탄해베곡. 그 저.

105005 #2 쩌 색깔이라이.

105005 #2 요 색깔예.

105005 #2 예, 춤강인.

105005 @ 갈색?

105005 #2 갈색 비뚱헌 게 아주 저보다도 더 이뻐. 건 제게 들지도 못 허여. 영기냥 돌 일르면서 이렇게 저 굴갱이로 굽어가민 나와.

105005 #1 어떻 부찌민 꽃게, 꽃강이엔도 굴을 수 잇주. 꽃강이엔도.

105006 @ 우리 제주도에는 꽃게는 안 나오난예? 큰 거는 안 나오잖아예. 이 바당엔 준 것들만. 알앗수다. 그 다음에 흑시 여기에 횡불 가정은에 바당에도 가는 거 봐봣디가?

105006 @2 밤에.

105006 #1 바르?

105006 @ 예.

105006 #2 횡바르.

105006 @ 횡바르 예.

105006 #2 횡바르.

105006 @ 으. 횡바르. 그 횡바르 행은 뭐 잡는 거마씨?

105006 #2 하간 저 문어도 올라오고.

105006 @ 음.

105006 #2 영 강 막 비추면 소라덜토 잇곡이.

105006 @ 아 불 보명.

105006 #2 구쟁이.

105006 #1 불 뿡근앵 그.

105006 #2 불 뿡은에.

105006 #1 생명체덜은 불을 따라 오는 모양이라.

105006 #2 낙지덜토 올라오곡.

105006 @ 음.

105006 #2 난 간, 저 신촌 간에 헛바르 잡으켄 허연 막 휘도 이만큼 무꺼난에  
 ㄱ만 줘자부런에. 웃음.

105006 @ (웃음.) 가켄 헤신디 줘자부런.

105006 #1 물 썬 때.

105006 #2 물 싸민 나가기로 서으누이가 갈 걸로 헤연. 그디 우리 고모가 사니  
 까. 그디 간.

105006 @2 신촌에.

105006 #2 신촌 바로 그.

105006 #1 갯바위에.

105006 #2 노인당 저곳디. 바로 여긴 물이주게. 축항.

105006 @ 으, 축항.

105006 #2 배 들어오는다. 그딘디 영 허영 흥김만 내려가민 걸 잡을 건디 자단  
 보난 뭐 다섯 시. 아척 다섯 시 웨어부런.

105006 #1 뭐렌 헨다마는.

105006 @2 개맛.

105006 #2 물싸민 가야.

105006 #1 개맛디.

105006 @ 경허영은에 못 잡앙 읍디가? 한번도 못 가봤?

105006 #1 그때 틀리난 못 가분 거.

105006 #2 기냥 나가 와부난.

105006 @ 어.

105006 #2 몰라 동생들은 가와신디사.

105007 @ 여기도 원담 같은 것도 있어신가마씨? 바당에 원담.

105007 #1 바다에 원담도 잇엇주. 삼양삼동에도 잇엇고. 일동더레도 잇엇고, 삼  
 동에 잇는 건 확실헨디 이 삼, 삼동에도 뒤 군데 잇어나서.

105007 #2 이 신촌 간 보난 금년에도 간 보난에 잇언게 원담.

105007 @ 아, 원담에서는 주로 뭘 잡는 거라마씨?

105007 #2 원담은 헤쓰지 못허게 허여.

105007 #1 게난 원담은 물든 뎨 고기가 왔당.

105007 @ 예.

105007 #1 이젠 물 싸버리면은 거기서 가두어진 거.

105007 @ 음.

105007 #1 게난 고기 잡는 거주, 즉 말허면.

105007 @ 예. 게난 주로 어떤 고기덜을 잡아신고예? 거기에서는예?

105007 #2 주로 원담 안네 승어가 잘 들어와이.

105007 @ 아, 승어?

105007 #2 그런 것도 들어오꼭 하간 거 다 들어와.  
105007 #1 골고로, 골고로.  
105007 @ 멜도 거리고.  
105007 #1 으, 멜도.  
105007 @ 음, 옛날부터 송어원이 제주도에 핫텐 헨게마는.  
105007 #2 나 저 설개 살 때에 설개엔 허든 알주.  
105007 @2 예.  
105007 #2 그 이 장식굴엔 현 디.  
105007 @2 예, 장식굴.  
105007 #2 나 살아난디 간 혼 이 년 살아난디.  
105007 #1 사삼사건에 느려간.  
105007 #2 그 송어가 그 원담 안네 축항 배 매는 안네 왕 막 혈말 엇이 뛰어.  
경허민 이제 그물을 쳐.  
105007 @ 아아.  
105007 #2 원담 안.  
105007 @2 안에.  
105007 #2 영허영 들어오는, 배 들어오는 디 탁 청 허민 이젠 그것에 왕 이젠  
모여왕 허민 이젠 그 그물을 들르민 그것에 막 담아정 잡는 거 봐났주.  
105007 @ 음. 다 들어왕예?  
105007 #2 으.  
105007 @ 예, 알아수다.  
105007 #2 낮이라사 건 잡대.  
105007 @ 낮이 아.  
105007 #2 물싸민.  
105007 @ 물싸면 으 그렇구나. 물 들어왕 물 싸면 잡는 거예, 예?  
105007 @ 그 다음에 그 혹시 담들 뜰지 못허게 허잖아예? 담 닿는 것도 봐봣디  
가?  
105007 #1 원담?  
105008 @ 원담 보수허는 거?  
105008 #1 원담은 아주 오랜 옛날에부터 현 거라 놓난 그거 이 쓰러져시민 그  
냥 누구를 막론허고 거기에 관련뎌 사람은 그냥 돌 우터레 영 좃영 놓는 거.  
105008 @ 예.  
105008 #1 경허영 그자 다 보수덜. 그건 자기 일로 알양근영에 그 바닷가 사름  
덜은 다.  
105009 @ 으.  
105009 #1 이제 보수해연.  
105008 #2 신촌 강 봐. 원담 잇어.

105008 @ 한번 강은에 보쿠다.  
105008 #1 삼양도 지금 버렁. 저 돌드리도 이실 거고?  
105008 @2 버렁은 지금 엇일 거우다.  
105008 #1 웃인가?  
105008 @2 예.  
105009 @ 혹시 여기에서 뭘 잡는 것도 봐봣디가?  
105009 #2 안 봐봣.  
105009 @ 뭘 잡는 거는 안 봐봣?  
105009 #2 음.  
105009 @ 음.  
105009 #2 막 뭘 들어왔져 잡암짜 해도.  
105009 #1 이, 이딘 웃드르라부난.  
105009 @ 예.  
105009 #1 알드르 사름덜이 그건 허는 거주.  
105009 #2 요번에 막 삼양덜 하영 들엇젠 허드라. 금년엔 어떻허연?  
105009 @ 아, 뭘들예?  
105009 #2 삼동에 막 들언, 많이 들엇젠.  
105010 @ 음, 그러면은 이제 뭘은 안 헤실 거고. 꿩기 나끄레는 삼춘 가봣디가?  
105010 #1 웃음.  
105010 @2 춤대는 하영 이실 거니까.  
105010 #1 아 이 웃음.  
105010 @ 영 허는 거 보난 뭘가 이유가 잇어 이제.  
105010 #1 (웃음) 아니, 사삼사건 때 내려간이.  
105010 @ 예.  
105010 #1 배 탕 꿩기 나끄레 간 거 아니? 간 어떻어뎡허단 볼락 흥나를 나가서.  
105010 @ 예.  
105010 #1 이제 아침 간 기냥 낮 넘도록 살안에 뜬 사름은 흥 멧 개씩 잡는디 볼락 흥날 잡안에 이젠 허니까 아 이거 춤 꿩기 나까젯젠 허영 들어오멍 나 이거 심엇노렌 허난 꼭들락허난 물더레.  
105010 @ 웃음.  
105010 #1 완전 공쳤지. 그 경허난 그 고기 잘 잡는 고기나 것도 사냥에 하나.  
105010 @ 예, 그렇주마씨?  
105010 # 사냥에 맨 거라 놓니까, 사냥허는 거나 같은 거라 놓니까, 나가 여기서 사냥허레 가민 절대 못허여게. 나광 ㄱ찌 가민 간 사름은 그날은 공쳐부러.  
105010 #2 세상을 살생을 말렌 현 세상인 쟁이라.  
105010 @ 예.

105010 #2 이디서 아무것도 잡을 중도, 득 하나도 잡을 중 물론텐 허난.  
105010 @ 음.  
105010 #2 원.  
105010 @ 옛날에 득 게른 유월 쓰무날 어떻허영 먹엇수가?  
105010 #2 득 유월 쓰무날 먹도 아년 유월, 집의 득을 질러나서. 헤도 그 득 어  
명헤근에게 죽음이나 허민 잡젠 허민 스못 기냥 뭐 동네 상뒤 다 불러당.  
105010 @2 웃음.  
105010 #1 하르바님 잇인 때난에 그 하르버님도 기냥.  
105010 @ 음, 예.  
105010 #2 못 허여, 못 허여.  
105010 #1 거세기.  
105010 #2 그런 거 계통에. 어디 돏 잡는 디나 어디 쉐 잡는 디 가도 양반, 양  
반이랑 앓아시렌.  
105010 @ 아예?  
105010 #2 아예, 헐 줄을 모르니까.  
105010 @ 음.  
105010 #2 것도 잘 허는 사름이 잇어. 착착착착착착.  
105010 @2 맞수다, 맞수다.  
105010 #2 그 배설도 착허게 쳐내고.  
105010 #1 그런 추렴허는 딴 가른 주로 배설을, 똥 터는 거.  
105010 @ 으음.  
105010 #1 그런 걸 잘 헤야 웨는데 그걸 못허여.  
105010 @ 음.  
105010 #1 못 허여. 게난 그 이런 그 살생 헤영 거세기허는 딴 아예 그냥 멀리  
허렌 현.  
105010 @ 팔자가?  
105010 #1 팔자가 그런 거 같아. 게난 늬덜 골으민 그냥 웃음만 헐 말이주마는.  
105011 @ 예, 자기가 못허는 디 어떻 헐 거라예?  
105011 #1 으.  
105011 @ 게난 그 바당에 배 탕은에 낙시 허레 갈 때, 뭐 준비헿 갑디가? 어떤  
식으로 준비헤영 갑디가?  
105011 #1 낙신게 춤대 그디 해변덜이란에 춤대덜 헿근에 이걸랑 그뎨 여기서  
그 거세기 내려, 피란 내려간 때난게.  
105011 @ 예.  
105011 #1 이 그디 형제덜토 이시난게, 그 요걸로 형님이랑 헿서, 무시거 헿서  
거세기 허연 허난에 뭐 놈으 거 빌언. 쉽게 말허민.  
105011 @ 예, 게민 춤대 헿 거기에 이제.

105011 #1 정술 메영.  
105011 @ 정술 메영.  
105011 #1 그 낙시 돌아메영.  
105011 @ 예.  
105011 #1 허민 뒤주.  
105011 #2 낙시밥.  
105011 @ 음.  
105011 #1 낙시밥 꿰고. 물주리 헤영근앵에.  
105011 @2 물주리?  
105011 @ 물주리로예? 그런 식으로 이제 헤연.  
105011 #1 물주린 갯지렁이 모양이라.  
105011 @ 예, 맞수다. 갯지렁이. 그 다음에 거기 뽕돌도 됩니까?  
105011 #1 아니, 뽕돌 돌아매사. 건 내려가야 됩니까?  
105011 @ 예,  
105011 #1 내려가야 뒤난.  
105011 @ 그거는 정술은 한나로 쪽 메영 이십니까? 정술에 또다시 낙시 매는 줄을 맵니까?  
105011 #1 이 저, 이 뽕돌 이신디서 이으주. 다시 그 저.  
105011 @ 음, 한번 더 이어예?  
105011 #2 한번 더 이영.  
105011 @2 목줄, 목줄.  
105011 #1 목줄을. 그거 낙시 매곡 요만이 허영은에 다시 그 우에 뽕돌 잇곡 그 다음은 저 낙싯대에.  
105011 @ 음.  
105011 #1 그냥.  
105011 @ 낙싯대에 그냥 헤영예.  
105011 #1 줄은 강 낙싯줄로.  
105011 @ 그런 거는 다 집에서 헤마씨? 어디서 푸는 거 상은에 헤?  
105011 #1 아, 옛날은 다 저 정술은 사당 정술허고 뽕뜰은 사오곡.  
105011 @ 예.  
105011 #1 낙시허곡.  
105011 @ 예.  
105011 #1 그 댄 여기 왕덜 빌어가는 거난에 그 우트레 왕.  
105011 @2 도련드르 많아.  
105011 #1 으, 도련 댄 많으난에.  
105011 @2 왕대.  
105011 #2 왕대도 잇고 저.



105011 @2 수리대.  
 105011 #2 수리대 허곡.  
 105011 @ 수리래도로 춤대허곡.  
 105011 @2 수린댄 아이덜 허는 거고.  
 105011 #1 으, 저 수리대 늙은 걸로라사.  
 105012 @ 늙은 걸로. 혹시 이제 삼춘은 물질을 안 해나니까 소살로 행은에 고기를 쏘으는 것도 봐난마씨?  
 105012 #1 봐사낫주, 봐사낫주마는.  
 105012 #2 나 그런 건. 나 해엄칠 중도 몰라.  
 105012 @ 해엄칠 줄도 몰라.  
 105012 #2 바당에 흥번 갓단이 막 기냥 잡당 보난 그 여에 돌 있어이.  
 105012 @ 예.  
 105012 @2 여예.  
 105012 #2 바다 가운데. 여에서 막 잡단 보난이.  
 105012 @2 물 들어부런?  
 105012 #2 물은 슴빡 든 거 아니. 아이고, 나 죽어지케. 힐 충도 나 죽어지켄 허난 남즈분이 게도 오란 영 허연 오란 안양 굿디레 놔쥬 경 해연 오란 나 살아서.  
 105012 @ 웃음. 저도 해엄 못 쳐마씨?  
 105012 #2 으. (웃음)  
 105013 @ 여기는 고깃배 종류 같은 거는 어떤 종류 있어나신고예? 고깃배?  
 105013 #1 고깃배는 그 낫베엔 해영근앵에 뭐 장난말로 솔박베엔도 허곡.  
 105013 @ 예.  
 105013 #1 그 허난 그 베로 주로덜 헤시난 옛어른덜이 대단헌 거주. 그 춤 조그만헌 거 타 아정근에 경허난 그 어른덜 말은 혼백상지, 혼백상지?  
 105013 @ 예.  
 105013 #1 메영 텅기노렌 허주게.  
 105013 @ 예예.  
 105013 #1 그 메어 아정근앵에 바당에 텅기는 사름은.  
 105013 #2 자리 거릴 때는 그 테우.  
 105013 @ 음.  
 105013 #1 낭덜 이만씩 헌 거 허영 쪽허게 이치룩 영 짜주게. 그디.  
 105013 @ 예, 예.  
 105013 #1 테우엔 테, 테우엔 옛날 우리덜 글은 말은.  
 105013 #2 다 알 거라.  
 105013 #1 테우엔 행근에 그것 그걸로 강 그 저 자리.  
 105013 @ 예.  
 105013 #1 자리 거릴 때.

105013 @ 음, 자리 거릴 땐 그걸로 하고. 낙베는 돛 엇인 그냥 현 배가 낙베지 예? 옛날에.

105013 #1 경허난 아니. 다 돛댄 잇어.

105013 @ 아.

105013 #1 그건 어땜 허는고 허민 이거 항시 이 노 저을 수 없는 거니까 브름, 브름으로게 그 사이엔 쉬고 뒤희곡 헤영 돛 들민 그냥 이 브름으로 갈 거난.

105013 @ 만약에 돛 지왕 현 게 낫배. 돛 현 배는 무신 배렌 험니까?

105013 #1 아니 그건 난, 나가 들을, 들을 때엔 돛, 돛 단 건. 돛을 여러 개 단 건 풍선이엔 헤영근엔에 상인베.

105013 @ 음.

105013 #1 상인베고. 그냥 낙베에, 엔 현 건 돛 하나 들앙은에.

105013 @ 조그만이.

105013 #1 경 텅긴 걸로 알암.

105014 @ 알앗수다. 그 다음에 그 여긴 즘녀, 즘수?

105014 #1 즘네.

105014 @ 즘네, 그 즘네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채취해신고예? 해산물들.

105014 #2 해산물 뭐 바다에 잇는 건 다 심어오고. 전복이고 해삼이고 문어고 윈 그자 봐진 건 다 심어와 먹는 건.

105014 @ 음, 여기는 문어를 뭐렌 험니까? 이 동네는?

105014 #1 멩게.

105014 @ 멩게.

105014 #1 해삼ㄹ란 미.

105014 @ 예, 미. 그 다음에 점복ㄹ란?

105014 #1 점복ㄹ란 점복.

105015 @ 예, 점복. 그 다음에 으, 그 즘네들예, 예전에 즘네들 물질험 때 필요 현 도구? 뭘 들렁 갑니까? 무슨 옷 입고 행은에 옛날엔.

105015 #2 기냥 옛날에는이 속곳 영 허영 입곡.

105015 @ 예.

105015 #2 우의 저.

105015 @2 적삼?

105015 #2 적삼 이만이 현 거 허영.

105015 #1 아래 그건 무신 소중이엔 곶아라마는.

105015 @2 물소중이?

105015 #1 으, 물소중이.

105015 #2 물소중이가 잇어. 영허영 이까지 이만이 오는 거. 헤양케 헤영.

105015 @ 헤양케 헤영. 그거 입곡. 그 다음에 뭘 들렁 가?

105015 #2 테왁 들르곡.

105015 #1 테왁 들르곡 그저 무신 거?  
105015 # 창대 들르곡 그자.  
105015 #1 창덴가?  
105015 @2 비창.  
105015 #1 비창, 비창 들르곡.  
105015 @ 예.  
105015 #1 아, 물안경 쓰곡.  
105015 #2 이 무시 거 저.  
105015 @2 중계호미?  
105015 #2 우리 ㄹ뜨민 골쟁이엔 허는 거. 골쟁이 옛날은. 이젠 벨 골쟁이가 다 낮주마는 그때 그자 골쟁이 아정 강 경헛주.  
105015 @ 음, 그런 거 행은에 이제 물질허는 거고. 경 허여도 이제 저기 오분작 같은 거 트는 거는 골쟁이로 트는 거?  
105015 #1 비창으로도 허곡.  
105015 #2 비창. 비창 바로 저 영허영 납삭허여.  
105015 @ 예예.  
105015 #2 납삭허영 이 지러긴 뉘여.  
105015 @ 음.  
105015 #1 아니, 이만이 허여, 이만이.  
105015 @2 아니 건 너무 크우다.  
105015 #1 이만이.  
105015 @2 이십오센터 내외.  
105015 @ 웃음.  
105015 #1 경 웬가.  
105015 @2 삼십센터 넘어가민 건 못 써 너무 질어.  
105016 @ (웃음) 줌녀들 옛날 물질허고 요즘 물질허는 거 허고 막 트나예?  
105016 #2 트나주게.  
105016 @ 요즘은 어떤 식으로 험신고?  
105016 #2 몰르커라 난.  
105017 @ 아까 물웃도?  
105017 #2 고무옷 입어볼곡.  
105017 #1 고무옷 입곡 물안경 ㄱ장 그 뭐 뉘곡 이 발에도 오리발 신곡 해놓난 예.  
105017 @ 예.  
105017 #1 옛날이사 무신 오리발 잇어 뭐가 잇어. 자기 그 기구 엇이 자기 힘대로 이제 \*\*.  
105017 #2 물안경도 요멘인 현 거 허영 영 요디만 헛주마는 이젠 큰 거 허영은

에.

105017 @2 왕눈.

105017 #2 탁 허게 시리 물 들어갈 디가 엇어.

105017 @ 그러니까예 옛날은.

105017 @2 고무옷 생기니까예, 어 해녀들이 더 힘들덴마씨?

105017 #1 아아.

105017 @2 왜냐하면 물속에 오래 살게 뉘니까.

105017 #1 그거 입으난.

105017 @2 물소중이 입을 때는 추워도 나오는데, 고무옷 입으니깐예?

105017 #1 추운 걸 몰라.

105017 @2 몰라. 그니까 더 오래 살다보니까 더 힘들덴.

105017 #1 수압 때문에 그냥.

105017 @2 것도 잇고.

105017 #1 수압, 수압.

105017 @2 물속에 오래 사니까예? 예.

105018 @ 개난 여기 툄도 허레 뎅기잖아예? 삼춘네도 툄 허레 뎅겨판?

105018 #1 갯것이 갈 때사게.

105018 #2 것사.

105018 #1 그건.

105018 @ 거 곱아줍서. 툄 어떤 식으로?

105018 #1 툄 걸리민 툄 비여사.

105018 @ 예, 툄은 비는 거?

105018 #2 비영 바구니. 옛날은 바구니 대로 만든.

105018 #1 승키구덕.

105018 #2 바구니 아정가근에 칼 아지곡.

105018 @ 예.

105018 #2 호미나 칼이나 가정강 영 허영 툄도 비곡 미역도 봐지민 비곡 정각도 봐지민 허곡 경허영.

105018 #1 정각, 정각. 청각.

105018 #2 이젠 못 허여. 욱허여.

105018 #1 정각, 청각 그것이 화상이 좋다 허여.

105018 @ 정각이예?

105018 #1 불에 스랑.

105018 @ 음.

105018 #1 슬양 춤지름 허영 춤지름 서텅 그 화상에 불르민 그대로 상당이 빠르덴.

105019 @ 아아, 정각예? 그 다음에 우미도 허레 뎅겨난마씨?

105019 #1 갯것이 갈 때사게. 우미.  
105019 #2 우미 가민 천지가만지난 옛날에.  
105019 @ 어.  
105019 #2 해도 원 난 허여와보진 안 해서.  
105019 @ 우미 삼춘 안 허고?  
105019 #2 나가 먹어지지 아녀니까.  
105019 @ 맞아예?  
105019 #2 아니 해반.  
105019 @ 우미 허곡 발래고 이제.  
105019 #2 이젠이, 우미도 허지 못허곡. 우리 ㄱ튼 사름은 못허곡 현디 그땐 내  
분 때난 그자 아무라도 강 그땐 만허기도 해나서 하근 게.  
105019 #1 모든 사름이 다 임제난.  
105019 @ 예 예.  
105019 #2 다 가면 뭐 영 허여근에 요런 엉덕 속에 영 보면 조쿠제기가 슴빱  
답아정 잇곡.  
105019 @ 음, 그게 다 어디 가부러신고?  
105019 #1 웃음. 춤 다 어디 가부러신고?  
105019 #2 이젠 엇어.  
105019 @ 엇어예.  
105019 #2 영 돌만 영허민 오분자기고 전복 새끼고 뭐, 막 기냥 잇는 디 가민  
댓 개씩 문쳐져.  
105019 #1 굼벵 ㄱ튼 건 먹젠, 먹을 생각도 아녀고.  
105019 #2 경 허주만 이젠 암만 강 문쳐도 엇어. 그렇게 바당이 그렇게 맑았어,  
맑았어.  
105019 @ 예.  
105019 #1 이제 굼벵도 엇인 생이랑게.  
105019 @ 예, 굼벵예?  
105019 #2 굼벵도 하도 먹을 거로 알앙 해놓난이 동춘더레 강 허영 오는구나마  
는 저 한동 펜디레 강 엇어.  
105019 @ 음, 굼벵도 막 종류도 으라 개렌 허멍 옛날에.  
105019 #2 이제도 종류 하. 하도 몰라 췌굼벵도 잇곡 하르비굼벵도 잇곡 거 무  
신 들굼벵도 잇고 무시 거 뭐 글아도.  
105019 @ 들굼벵은 어떤 것이우과?  
105019 #2 들굼벵은 빨그른헌 게이 잘 안 먹어.  
105019 @ 음.  
105019 #2 들굼벵엔 헌 거 빨그렷허영 커. 크고 딱딱허고.  
105019 @ 딱딱허고.

105019 #2 먹기는 먹어.  
105019 @ 예.  
105019 #1 잘 안 먹으난 하영 보이는 거로구나게.  
105019 @ 하르비군벗은?  
105019 #2 하르비군벗은 까망허곡 이디 털이 돌아이.  
105019 @ 예.  
105019 #2 털 돌아. 경허영. 그거 밍글락밍글락 맛이 엇영. 늙신네들이나 먹주  
우린 안 먹어봐서.  
105019 @ 음, 하르비군벗은?  
105019 #2 그건 하. 췌군벗은 엇어.  
105019 @ 음.  
105019 #2 췌닥지 입은 군벗은. 하도 해부난. 하르비군벗은 요 신촌 바당에만  
가도 많이 잇언게.  
105019 @ 음, 건 털이 복산해? 음 색깔?  
105019 #2 몽갈몽갈몽갈허여.  
105019 @ 음.  
105019 #2 늙신네털은 겨고 이 육지분들.  
105019 @ 예.  
105019 #2 영 허여 놓은 거 보난에 육지분덜이 대개 그런 건 많이 캐어봐선게.  
105019 @ 음.  
105019 @2 모르니까. (전화)  
105019 #2 몰르질 아녀고 맛도 엇질 아녀디 털 돈고 뭐 밍글락밍글락허니까.  
105019 #1 (전화)  
105020 @ 그 다음에 전복허고 소라는 어뎡 채취하는 거라마씨?  
105020 #2 어뎡허여 그거?  
105020 @ 건 바당 소곱에 강도 허고?  
105020 #2 으. 돌 일르민 옛날은 많이 잇주게.  
105020 @ 음.  
105020 #2 소라ㄹ픈 것도 돌 일르민 막 돌아져. 돌에.  
105020 #1 구쟁기엔 곱아. 구쟁기엔.  
105020 #2 구쟁기.  
105020 @ 구쟁기.  
105021 #2 준 건 조쿠쟁기.  
105021 @ 조쿠쟁긴.  
105021 @2 쌀 엇인 건?  
105021 #2 건  
105021 #1 큰구쟁기.

105021 #2 민둥구쟁기.  
105021 @ 민둥구쟁긴. 그 다음에 살들 잇인 거는?  
105021 #2 쌀 잇인 건 쌀구쟁기.  
105021 @ 쌀구쟁기. 계난 조쿠쟁기?  
105021 #2 조쿠쟁긴 존즌허여.  
105021 @ 조쿠쟁기 쌀구쟁이 민둥구쟁이에, 예? 점복도 종류에 따라은에 이름 이십니까?  
105021 #2 몰라 건.  
105021 @ 암커도 잇고 수커도 잇고 이렇게 허면.  
105021 #1 암커나 수커나 뉘.  
105021 #2 점복은 전북엔 허 오분자긴 오분자기엔 허곡 헤나난 모르커라.  
105022 @ 건예? 알아수다. 아까 삼춘, 테우에 대행은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테우로 허는 거는 자리 거릴 때만 써마씨?  
105022 #1 주로 자리 거릴 때.  
105022 @ 아.  
105022 #2 옛날은 자릴 막 거려나니까이.  
105022 @ 음.  
105022 #1 그냥 테우 아닌 멜도 저 강 거리주마는. 그 저 테우로가 주로.  
105022 #2 이건 해변 사름 신디 강 들어봐사 알주게.  
105023 @ 계난마씨게. 계난 옷드르에서도 생각허는 게 무엇인가 헤갓고, 어느 정도 아는 거를 보는 거난예? 그 다음에 아까 풍선?  
105023 #1 음.  
105023 @ 풍선은 어떤 식으로 생겼수가?  
105023 #1 풍선은 일반 춤 낙배ㄴ치 뉘 거지마는 커.  
105023 @ 예.  
105023 #1 계난 그 그것이 허나엔 허민 낙배가 허나엔 허민 그건 혼 열 스물만 큼 크주.  
105023 @ 예.  
105023 #1 계민 그건 즉 말허민 화물선이주.  
105023 @ 예전에 예.  
105023 #1 옛날 화물선.  
105023 @ 음.  
105023 #1 거기에 이제 막 춤 채수나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물건 실러 아정 육지 강 풀기도 허고 육지서 상, 상 들어왕 여기서 풀기도 허곡.  
105023 @ 음.  
105023 #1 풍선이엔 현 건 바람을 이용행근에 간덴.  
105023 @ 예, 예.

105023 #1 간텐 말로.  
 105023 @2 돛대가 몇 갠고예??  
 105023 #1 돛대 세 갠가?  
 105023 @2 게민 삼대선.  
 105023 #1 으, 돛대가 세 개. 앞의 잇고 가운데 잇고 뒤에 잇고.  
 105023 @ 뒤에 잇고.  
 105023 #1 식 깬 거라.  
 105023 @1 그 풍, 풍선예, 게난 풍선 든 거 아니라예, 그 풍선을 여기에서는 뭐  
 렌 불러난 거 답수가?  
 105023 #1 풍선을 풍선이엔 헛주.  
 105023 @1 돛을 여기선 뭐렌 해마씨? 무신?  
 105023 #1 초석.  
 105023 @ 으, 초석예, 초석든베 이런 식으로도 얘기허고? 으, 초석.  
 105023 #1 초석 올리라, 뭐 내리우라 이제 그처럼 헛 거 답아.  
 105024 @ 예, 예예. 그 혹시 그 배 부분 명칭도 알아지쿠과? 앞에.  
 105024 #1 몰르커라.  
 105024 @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예. 알앗수다. 바당 일름 요 정도 헛주. 흐끔  
 쉬쿠다.

## 6. 의생활

(잡담 생략)

106001 @ 옛날에 옷감, 옷ㄱ음 잇지 아녀우과?  
 106001 #4 으.  
 106001 @ 옷ㄱ음렌 허지예? 여기 뭐렌 헛니까? 옷ㄱ심헛니까? 옷금헛니까?  
 106001 #4 옷금이엔 해낫주.  
 106001 @ 옷ㄱ음예? 옷금은 어떤 종류가 잇어나수가? 종류들, 옷금 종류?  
 106001 #4 옷금 종류가 잇어.  
 106001 @ 예.  
 106001 #1 종륵게 베 미녕 광목 뭐 저멩주.  
 106001 #4 다 춤 주로 그거주게.  
 106001 @ 예, 그걸 삼춘이 흐번 곶아봍서. 베영.  
 106001 #4 베영게 광목이영 미녕이영 그디 또 흐끔 거세기허민 멩지도 잇곡.  
 106001 #1 모시도 잇고.  
 106001 #4 모시도 잇곡.  
 106001 @ 예.



106001 #4 다 잊지게.  
106001 @ 예, 다 잊어예?  
106001 #4 그치룩.

## 명주

106001 @ 알아수다. 혹시 멍지쌀 멘드는 거 봐봍디가?  
106001 #4 아니.  
106001 @ 멍지쌀은 봐환마씨?  
106001 #4 멍지쌀도 안 봐봍주게.  
106001 @ 예.  
106001 #4 어디 무신 이녁이 나상 어디 텅겨야 그런 거 저런 거 허는 것도 보  
고 허지 미상에 앓이민 하루 저물양 일어사도 아녀영.  
106001 @ 음, 계속 미상에만.  
106001 #4 미상에만.  
106001 @ 그러면은 멍지도 종류가 하지예?  
106001 #4 하지게.  
106001 @ 예, 어떤 종류 잇수가?  
106001 #4 좋은 거 궂인 거 증질도 잇곡.  
106001 @ 예.  
106001 #4 하질도 잇곡, 상품도 잇곡 그치룩허영.  
106001 @ 켈 좋은 거는 어떤 거를 좋은 거렌 험니까?  
106001 #1 얼 어신 거?  
106001 #4 얼 엇영.  
106001 #1 곤 거.  
106001 #4 바닥 폐왕보민 멘작허영 올 고른 거. 영 췌민 바달바달바달바달 소리  
나는 거.  
106001 @ 아까 얼 엇인 텐 현 게 얼이 뉘우과?  
106001 #4 그 짜 가당 얼이 잊지게.  
106001 #1 막작이.  
106001 #4 쌀을 잇는 거세기가 잇이나 경허민 그 멍지도 좋아도 궁기도 날 수  
잇어.  
106001 @ 예.  
106001 #4 잇어 가다근에 그치룩허영 허민 그치룩 현 거 엇인 건 좋은 거주.  
106001 @ 예, 경혜영 그리고 그 멍지도 뭐 생멍지여 뭐 이런 말도?  
106001 #4 생멍지도 잇주게. 생멍지.  
106001 @ 예.  
106001 #4 생멍진 그건 메지 아년 것ㄴ라 생멍지엔.

106001 @ 내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이우과?  
106001 #4 생멩지 그것 뜨신 물에 헤영 솥앙.  
106001 @ 예.  
106001 #4 솥아근에 허민 풀이 죽거든. 경허민 그거 풀허영 다듬으민 그냥 멩지로 들어가곡. 생멩진 다듬질 못허주게.  
106001 @ 음.  
106001 #4 췌 거니까.  
106001 @ 췌 거니까.  
106001 #4 췌 거니까.  
106001 @ 아, 다듬이 안 허영 ㄱ대로 생멩지로 헤갓고.  
106001 #4 그건.  
106001 @ 뭐가 더 좋은 거우과?  
106001 #4 종내긴 다 ㄱ튼 건디.  
106001 @ 예.  
106001 #4 생멩지허곡 익은멩지 돼는 거주.  
106001 @ 옷허민 어느 게 더 좋은 거?  
106001 #4 옷허민게 생멩진 대소간 겨울엔 못 입지게.  
106001 @ 예.  
106001 #4 생멩진.  
106001 @ 음.  
106001 #4 익은멩진 겨울에 입고.  
106001 @ 아아, 여름에 헐 때는 생멩지로 허는 거라예? 아, 익은멩지 생멩지.  
106001 #4 생멩지.  
106004 @ 멩지로는 어떤 옷들 만들어수가? 주로.  
106004 #4 멩지로 대소간 허는 건 옛날은 남자, 남자 어른덜은 바지저구리, 후루메 그치룩허당 남은 건 호상.  
106004 @ 예.  
106004 #4 호상은 주루 멩지로벳기.  
106004 @ 아.  
106004 #4 우린 멩지로벳긴 아연.  
106004 @ 멩지로벳기에. 계난 옛날에는 호상헐 때도 무사 그 씨집을 때 입어난 거 장게을 때 입어난 걸로 호상헐넛덴 헤서예? 옛날 옛적엔. 그 말 곱아줍서? 무사 그치룩허당 이제 또 새로 멩지로 허영은에 만들어신고예?  
106004 #4 그건 모르지게.  
106004 @ 으.  
106004 #4 씨집을 때엔 헤난 건 좋은 걸로 헤여 나난 이걸랑 낫당 이루후제 죽어갈 때 입주허영, 대소간은 경허고. 또 경 아년 사름은 새로 ㄱ딱 멩지로 다 허곡.

106004 @ 다 허곡예?  
 106004 #4 경혜연.  
 106005 @ 그, 삼춘 그 미녕 허영 허젠 허연에 멘네도 갈아봄디가?  
 106005 #4 아니.  
 106005 @ 그건 안 하고. 미녕쌀은 어떻 멘드는 거우과?  
 106005 #4 미녕쌀은 대소간 아멩헤도 멘네로 허영 그거 미녕 올 내영 헤신, 허  
 인 걸로 우린 생각허는디.  
 106005 @ 음, 삼춘이 직접은 안 헤보고예?  
 106005 #4 안 헤보고.  
 106005 @ 삼춘 아까 미녕 올내영해서예? 미녕 올 내는 거는 뭐우과?  
 106005 #4 음. 미녕올 내는 건 게 그 멘네 소게 허영 쌀 뽑아근에 허는 것이라  
 게.  
 106005 @ 음, 게민 미녕올 넌텐 허여예? 경허면 이렇게 감양은에.  
 106005 #4 경허는 거.  
 106005 #1 만든 것도 혼 올 두 올.  
 106005 @ 예, 예. 게니까 그 올을 미녕올이렌 허는구나예?  
 106005 #4 미녕올.  
 106006 @ 여기에 흑씨 누에고치 허는 건 안 봐난마씨?  
 106006 #4 안 봐봐서.

## 무명

106007 @ 건 안 봐봐서예? 그 미녕도 종류가 하지예? 좋은 질 나쁜 질 행, 어  
 떤 미녕 잇어낫덴 험니까? 옛날에.  
 106007 #4 옛날에 우린 그자 놈 상 오민 옷만 해 줘나부난.  
 106007 @ 음.  
 106007 #4 그런 저런 건 몰라.  
 106007 @ 멧 새 미녕 옷새 미녕여 일곱 새 미녕이여.  
 106007 #4 그런 건 안 들어나서.  
 106007 @ 그런 건 안 들어나서예? 미녕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  
 106007 #4 우린 미녕 종네기 경 여라 개 허는 건 안 봐나서.  
 106007 @ 뭐 토목이여 이런 말?  
 106007 #4 토목은 그것 거세기 아년 걸 토목이엔 험실 거라.  
 106007 @ 음, 토목 뭐 생목.  
 106007 #4 아이, 생목은 엇어.  
 106007 @ 그런 것은 엇어예? 광목은마씨?  
 106007 #4 광목도 그거주게.  
 106007 @ 기계로 짱예?

106007 # 기계로 짠 거니까.

106008 @ 미녕은 주로 어떤 옷덜 멘들어수가? 미녕으로.

106008 #4 옛날은 대소간 갈옷했지.

106008 @ 갈옷.

106008 #4 감 맥이는 옷.

106008 @ 주로예.

106008 #4 주로. 그건 미녕이 엇어가난에 광목으로 갈옷을 헤엇주. 옛날은 다 미녕으로만 헤엇주.

106008 @ 게난 그 미녕으로 허영 갈옷 현 덴 해도 남자옷허고 여자옷도 트날 거고. 계절에 따랑도 옷 이름도 트나예?

106008 #4 계절에, 흐뎡 생각헌 사름은 광목으로 허곡, 흐뎡 어려운 사름은 미녕도 좋은 걸로 못 허영 나쁜 걸로도 허곡.

106008 @ 예, 게문 그 갈옷은 주로 여자들은 어떤 옷 멘들어 갑디가?

106008 #4 우윈 적삼.

106008 @ 예.

106008 #4 요만인 오는. 적삼허곡.

106008 #1 갈중의.

106008 #4 갈중의.

106008 @ 예.

106008 #4 기자.

106008 @ 남잔?

106008 #4 남잔 중의 적삼게.

106008 @ 예.

106008 #4 아래 중의허곡 우의 적삼허고.

106008 @ 예, 경해도 또 여름에 입는 거는 또 이름 또 트나지 아녀마씨?

106008 #4 아니.

106008 #1 독지, 갈독지.

106008 @ 갈독지?

106008 # 갈독지엔 허주게.

106008 @ 예.

106008 #4 감 맥여근에 여자덜은 갈독지, 갈중의.

106008 @ 갈독지가 어떤 옷이라마씨?

106008 #4 적삼, 적삼ㄴ라.

106008 @ 아.

106008 #4 갈적삼ㄴ라 갈독지.

106008 @ 예, 갈독지예? 갈적삼ㄴ라.

106008 #4 음, 갈적삼ㄴ라 갈독지.

106008 @ 음, 즘뱅이 이런 말은 안 험니까?  
106008 #4 아니.  
106008 @ 갈점뱅이?  
106008 #4 이딴 그런 말 안 써나서.  
106008 @ 아, 그냥 중의렌만예?  
106008 #4 갈중의.  
106008 @ 저기 굴중이 같은 거는 물 안 들영 입어마씨?  
106008 #4 굴중인 그건 여자덜 옛날은 쪽에 굴중의.  
106008 @ 예.  
106008 #4 그건.  
106008 @ 물 안 허고.  
106008 # 그건 물 안 들영 흰 차.  
106008 @ 흰 차 그냥 입는 거라예. 치메 그튼 거는 갈 안 해마씨? 감물 안 들  
여?  
106008 #4 안 들여.  
106008 @ 그냥 중의 적삼만?  
106008 #4 밧디 텡기는 옷이주게. 그게 갈옷이.  
106008 @ 예, 예, 예.  
106008 #4 집의선 잘 안 입주게.  
106008 @ 요새나예?  
106008 #4 집의선 시방은 무시거 문직젠 허민 갈옷을 대소간 입엄주. 옛날 하도  
너미 입어부난.  
106008 @ 으, 입어부는 별로?(웃음)  
106008 #1 옛날 저 푸는체중의엔 헤영근에 영허민 영덩이 봐지는 옷 잇어난 처  
레 아니우과?  
106008 #4 그건 수양중의라고.  
106008 #1 수양중의.  
106008 #1 예.  
106008 @ 그건 뭐우과? 수양중의엔 현 거 곱아줍서.  
106008 #4 것도 중인 중원디 요영 윽으로 질게 현 폭 주질 안 허영 경허여근에  
그레 단추 들양은에 경허민.  
106008 @ 오쭈 늘 때 이럴 때 여자들.  
106008 #4 그럴 때 그냥 영 베르씨민 늣게.  
106008 @ 아.  
106008 #4 경허영 여자덜은 수양, 수양중의.  
106008 @ 수양중의. 그러면 그는 옷 소곱에 입어마씨? 아니면 바지라도 그런  
식으로 행 멘드는 거?

106008 #4 응, 치메 속에.  
106008 @ 치메 속에. 아, 그거는 감물 들어거나 안 허켜예?  
106008 #4 흰 차. 광목으로 그냥 흰 차.  
106008 @ 요즘 허면 속바지?  
106008 #4 속바지지게.  
106008 @ 아이고, 그 말도 처음 들어봤수다. 갈독지는 들어난 거 같은데.  
106008 #4 웃음  
106009 @ 토목 미녕으로는 뭘로 만들어수가? 옛날 토목. 진짜 미녕 흰 거는?  
106009 #4 토목, 토목 미녕 잇어나서.  
106009 @ 음.  
106009 #4 훙은훙은 허여근예.  
106009 @ 예, 이 옛날 무사 이불 2튼 것도 미녕으로 멘들어실 거 아니우과?  
106009 #4 미녕으로 허영.  
106009 @ 예.  
106009 #4 미녕 흐끔 잘 사는 집원 다섯 폭 허곡, 네 폭 허곡 허여근에 미녕에 검은 물 들영 이불 꺾데기도 허곡.  
106009 @ 예.  
106009 #4 경 헤영.  
106009 @ 이불 꺾데긴 검은물로, 그 다음 우에 짓은마씨?  
106009 #4 짓은 무신 붉은물.  
106009 #1 붉은물.  
106009 @ 음.  
106009 #1 웃음.  
106009 #4 미녕에 붉은물 들영 짓허곡.  
106009 @ 짓허고예.  
106009 # 경허영.  
106010 @ 그런 식으로 만들고. 광목으론 주로 어떤 거 만들어수가?  
106010 #4 광목으론게 대소간은 게도 광목으론 남즈도 중의 적삼도 허곡 후루 메도 허곡 여자도 바지도 그걸로 헤영 입곡, 속에 중의도 그걸로 허영 입곡. 치메저 구리도 다 그걸로 헤영 입곡 옛날은 경 헤연.  
106010 @ 광목 나오기 시작허니까 옛날 미녕은 엷어진 거예?  
106010 #4 미녕이 엷어져 간.  
106010 @ 미녕이 좋은 거우과? 광목이 좋은 거우과?  
106010 #4 거 일름이 뜨나난 허주.  
106010 @ 거의 비슷해예?  
106010 #4 다 멘이니까게 으.  
106010 @ 맞아예? 멘.

106010 #4 멘.

106011 @ 홍세미녕에 대행 혼번 곁아줍서?

106011 #4 홍세미녕은 미녕 좋은 곁로 허영 아덜이나 폴젠허민 홍세미녕 두 필씩 허여근에 그 홍세함에다 담젠, 춤 담젠 거세기허주.

106011 @ 그 홍세미녕 용돈 뒤흔과?

106011 #1 홍세미녕 아정가민 헤영 가민 그 홍세미녕으로 무신 곁 헤여납디가?

106011 #4 무시곁 메느리 아기 낳민 그곁로 지성귀.

106011 @ 예.

106011 #4 그곁 멘, 멘들아주곡. 쳇번도 아기 옷도 그곁로 멘들양 입지곡.

106011 @ 음, 애기옷도예?

106011 #1 보선도 멘들곡.

106011 #4 경허주.

106011 @ 쟁허영 보선도 멘들영 선사도 허고.

106011 #4 미녕으론 아니 허매. 광목으로 선사도 헛주.

106011 @ 음, 광목으로예?

106011 #4 광목.

106011 @ 옛날에?

106011 #4 옛날은.

106011 #1 옷광목허고 광목허고 어떻 틀림니까?

106011 #4 옷, 옷광목은 그거 춤 멩지 매듯 숲아근에 발래영.

106011 #1 아, 발랜, 발래영 허영께.

106011 #4 허영께 현 게 옷광목이고, 지챗광목은?

106011 #1 예 지챗광목은 그냥?

106011 #4 이제 빨지 아년 거.

106011 #1 기계에서 그냥 나온 거.

106011 #4 그냥.

106011 @ 음, 게난 지챗광목 잇곡 옷광목. 그 옷광목이 요즘 옥양목 옥양목 허는 게 그거지예?

106011 # 그거지.

106011 @ 근데 여기서는 옷광목이렌 헛니까?

106011 #1 옥양목엔도 헤여.

106011 @ 예, 옥양목엔도 허고 음.

106011 #4 두 가지로 불르주.

106011 @ 지차미녕은 그대로 그냥 짠 그대로예?

106011 #4 짜. 게난, 이제 이제 광목도 그거주게. 광목도 짠 그냥 나온 건 그건 무신 영장 때나 시방은 다 그곁로 몸빼도 멘들고.

106011 #1 복치메도 멘들고.

106011 #4 복치메도 허곡 경.  
 106011 @ 으음, 복치메 멘드는 게 그게 짓찻광목이구과?  
 106011 #4 으, 지찻광목.  
 106011 @ 발래영 허먼?  
 106011 #4 숲아근에 발랜 광목은.  
 106011 #1 옥양목.  
 106011 #4 춤 옷광목이 되는 거지.  
 106012 @ 옷광목이 되는 거예? 예예, 아아. 삼춘, 멘네 용시 해판마씨?  
 106012 #4 아니.  
 106012 @ 안 해판.  
 106012 #4 아무 것도.

### 모시

106012 @ 아무 것도. 그냥 이내냥 마농질만 허멍 살앗수가? (웃음) 모시옷도 멘들아봤지예?  
 106012 #4 모시옷도 멘들아봤주게.  
 106012 @ 모시는 뭘로 행은예, 모신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우과? 모시옷은?  
 106012 #4 것도 중의 적삼.  
 106012 @ 음.  
 106012 #4 남자덜.  
 106012 @ 예.  
 106012 #4 여자덜도 적삼도 해영 입곡 치메도 해영 입곡 옛날은 다 모시로 헛주.  
 106013 @ 예, 모시로 현 옷은 주로 어느 철에 입는 거?  
 106013 #4 으름예.  
 106013 @ 그 호상혈 때는 모시 허민 안 웬덴 허멍예?  
 106013 #4 안 뤼.  
 106013 @ 건 무산고예?  
 106013 #4 모시 들민 즈순 낱민 머리 흰덴 (웃음).  
 106013 @ 음, 안 허곡?  
 106013 #4 안 허지.  
 106013 @ 예.  
 106013 #4 그건 이제도 허여.  
 106013 @ 아, 이제도.  
 106013 #4 이제도 입관혈 때 모시옷은 아저 다니지 아녀지게.  
 106013 @ 음, 입관혈 때 그 관 속에도 안 놓고예?  
 106013 #4 안 뵈.



106013 @ 다 그냥 미녕으로, 아니 멩지로예?

106013 #1 보공 놓는 건 이 숨이나.

106013 @ 예.

106013 #1 이.

106013 @ 옛날 산디찍도 헛젠 허멍예?

106013 #4 산디찍이 좋지.

106013 #1 산디찍 허고 이 미명으로 뵈 거. 그 저 멘네. 목화. 멘네로 뵈 거 허곡, 춤 멩주허곡 헤영 그거 주로 그거 들어갓주, 무슨 뜯 건 허민. 요 중간에 이 저 화장지 같은 거나 뭉 거 낫는데 그건 아주 그냥 천리허민 시커멍허영 안 좋곡.

### 삼

106017 @ 예. 어쨌든 진짜 것만 이제 해야 되는구나. 삼으로도 옷 째니까? 삼, 베.

106017 #1 삼베.

106017 #4 그건 삼베주.

106017 @ 삼베?

106017 #4 베로 춤 삼으로 허는 것ㄴ라 삼베, 삼베 계난.

106017 @ 삼베론 무신 걸 헛니까?

106017 #4 건디 삼베로 허는 사름이 멧 사름 잇어어.

106017 @ 음, 건 뵈로 멘드는 거? 삼베 헛 때 뵈로 멘드는, 뵈허는 거?

106017 #4 몰르주 무신 걸로사 멘들암신디 건.

106017 @ 삼베로 옷은 안 지어뵈디가?

106017 #4 베옷은 멘들주게. 멘들아봄은 허여도 짜는 걸 보나 무시걸 허는 그건 안 뵈나서.

106017 @ 베옷은 뵈 만들아마씨? 베옷으로. 어떤 걸로 만들아? 베로는?

106017 #4 베로도 멘들민게 남즈덜 중의 적삼도 멘들곡 여자덜토 치메도 헤영 입곡 옛날은.

106017 @ 음.

106017 #4 적삼도 헤영 입고. 아으덜토 문 멘들아주곡. 이 속중의라도 문 멘들양 입곡게.

106017 @ 음, 베는 주로?

106017 #4 으름에.

106017 @ 으름에예?

#4 으름에.

@ 어, 으름에 헤 갓고?

106017 #4 으름에뵈기 안 입주게.

106017 #1 모시허고 베는 여름.

106017 #4 으름에벳긔 안 입어.

106017 #1 여름용.

### 도구

106019 @ 예, 혹시 그 멘네 행은에 영 씨블르는 거 봐봬디가?

106019 #4 안 봐봬서.

106019 @ 아, 그 기계 이름은 알아지쿠과? 씨 블르는 거.

106019 #4 몰라, 몰라.

106019 @ 아, 그거는 한 번도 안 봐봬고예?

106019 #4 으.

106019 #1 물레엔 말은 안 들어납디가?

106019 #4 안 들어나서.

106019 @ 씨블르는물레여?

106019 #4 예예.

106019 @ 아, 그런 건 아니고예?

106019 #4 이디서 그런 건 허는 사람이 엇인디. 이 발은?

106019 @ 이 바닥은?

106019 #4 이.

106021 @ 그 게문 저기 미녕 짜는 것도 엇어나수가?

106021 #4 이딘 그런 것도 엇어나서.

106021 @ 미녕 차는 것도 엇고예?

106021 #4 그자 장시 오민 상 흙 뿐이주.

### 바느질 도구

106022 @ 음, 아까 삼춘 그 흥세미녕헐 때 두 필씩 논덴 허지 아녀수가예? 혼 필이른 여기선 멧 자를 혼 필이렌 혜수과?

106022 #4 옛날은 무신 마흔 자여 무시 거여 허여도 시방은 마흔 자짜리가 엇어.

106022 @ 음, 옛날 어른들은 마흔 자 해서예?

106022 #4 으, 마흔 자.

106022 @ 그 자도 보면 옷허는 자는 옛날 그 자가 트나잖아예? 요즘 자허고예?

106022 #4 음.

106022 @ 그건 무슨 자렌 험니까? 옷 허는 자를? 대나무로 이렇게 허영 만들영.

106022 #4 대나무로.

106022 #1 침척이렌 허여, 침척.

106022 @ 침척?

106022 #1 바농질잔 침척.

106022 @ 아, 삼춘네는 그걸 뭐렌 험니까?

106022 #4 우린 그자 자.

106022 @ 자, 으. 갱 건 멧 센치우과? 요즘 허면은?

106022 #1 몰라.

106022 #4 멧 센치가 돼는 건디. 우리가 글을 알앙 그걸 족암시든 알주마는.

106022 @ 경 헤여도 그걸로 허영 허민 이 폭이 메 자 멧 폰 이런 식으로 허잖 아예? 그 저기 베나 미녕이나 허면?

106022 #4 미녕 허민 잘 나가민 일곱 치이.

106022 @ 예.

106022 #4 일곱 치 나가고. 또 족으민 으섯 치 닷 분.

106022 @ 음.

106022 #4 미녕 너비가.

106022 @ 예.

106022 #4 경 벳기 안 돼주게.

106022 @ 요만큼.

106022 #4 시방 멧지덜은 일곱 치가 더 나가.

106022 @ 요즘은예?

106022 #4 요즘은.

106022 #1 혼 치가 열만곤 허민 성냥쌀 하나 혼 치라.

106022 @ 예, 예, 예, 예.

106022 #1 그게 딱 그 바농질 자 혼 치가 이제 성냥쌀 하나.

106022 #4 게난 그게 열 개민

106022 #1 열 개민 혼 자.

106022 #4 혼 자.

106022 @ 예예, 옛날에 사십 센티 정도, 오십 센치. 오 센치 성냥 이렇게 행예, 예? 그 조선자.

106022 #4 요 정도.

106022 @ 예. 오십 센치.

106022 #4 요 정도 돼지. 시방 성냥쌀은?

106022 @ 족아.

106022 #4 족아.

106022 @ 예 옛날에 조사허당 보민예 오십 센치, 사십 센티. 요즘은 삼십 센치 자 허잖아예?

106022 #4 응.

106022 @ 게난 옛날허고 트난 거 같아예? 으, 이제는 직접 이제 삼춘이 직접 헛던 거. 바농질 도구들은 어떤 거 잇수가? 바농질 헐 때 필요헌 도구들. 손바농질

혈 때.

106022 #4 무시 거 필요한 게 있어?

106022 #1 썰, 바농.

106022 #4 썰, 바농.

106022 @ 음.

106022 #1 썰패.

106022 #4 썰팬 썰 감는 거.

106022 @ 예.

106022 #1 또 골무.

106022 #4 우린 그런 거 아년 해나서.

106022 #1 골무 안 해납디가?

106022 @ 여기 골무렌 헵니까? 이 동네는 무시 거렌 헵니까?

106022 #4 그거 깎는, 이디션 깎는 사름이 유드몰어.

106022 @ 음, 유드몰어예?

106022 #4 우린 그렇게 바농질을 해도 그거 쩐 해보진 아녀서.

106022 @ 음, 바농 저기 혈 때 영 허는 거를 뭐렌 헵니까? 바농 혈 때는 뭐 저기?

106022 #4 바농귀 께는 거.

106022 @ 그냥 바농귀 직접 께여마씨?

106022 #4 직접.

106022 @ 어.

106022 #4 우린 이제도 미싱 받아 앓이민 께어나난.

106022 @ 예, 그대로 감각으로?

106022 #4 감각으로 가민 대박 들어가.

106022 @ 어, 이제도예?

106022 #4 이제도.

106022 @ 예.

106022 #1 골무가 양복집의선 유비야.

106022 @ 일본말로.

106022 #1 유비야, 양복집의선 허곡.

106022 @ 예.

106022 #1 그냥 우리말로 골무.

106022 @ 예, 표준어고. 그 다음에 그 바농질 도구 혈 때 그 바농이영 실패영 자영 놓는 거. ㄱ세도 잊지 아녀우과?

106022 #4 상지. 바농상지.

106022 @ 바농상지. 그 다음 바농 께이는 거는?

106022 #4 바농 께이는 건 건 이녁냥으로 멘들양 저 머리꼭 꿰어분 거 헤여근

에 때깍 담양 돌아매민 그건.

106022 #1 무시 거엔 굴읍네까? 일름?

106022 #4 일름 이십니까? 바농 질르는 거벳괴?

106022 @ 바농 질르는 거벳괴.

106022 #1 부게엔 굴아? 무시거엔 굴아?

106022 #4 난 안 들어난.

106022 @ 바농질 허는 거? 게문 이렇게 바농은 멧 개가?

106022 #4 혼이 잇어?

106022 @ 멧 개 들어마씨?

106022 #1 혼 씸이.

106022 @ 혼 씸이.

106022 #4 혼 씸이 미싱 바농은 으섯 개.

106022 @ 예.

106022 #4 으섯 개고, 그냥 바농질 허는 건 스무 갠가?

106022 @ 음, 쓰무 개예? 그걸 혼 씸?

106022 #4 혼 씸.

106023 @ 그 다음에 바늘, 바농질허는 방법도 으라 가지 아니라예? 영 박음질  
이여 무신 땡침이여 이런 말을 허지 아눔니까?

106023 #4 이디선 그런 소리도 아녀.

106023 @ 음.

106023 #1 뒷바농.

106023 #4 뒷바농질 허는 건 바농질 영 허영 썰 헤연에 두이로 바농을 다시 그  
영 뽑은 썰 뒷간으로 바농질 허민 건 뒷바농질.

106023 @ 그 뒷바농질은 어떨 때 허는 바농질이우과?

106023 #4 그건 든든히 허는.

106023 @ 든든히 허는 디. 주로 어떤 디마씨? 든든히 허는 디가.

106023 #4 이 춤 어린아으덜 옷 헐 때민 이 건 강알 썰밥 ㄹ똥 디.

106023 @ 음.

106023 #4 어디 손 아으덜 보곰지르레 영 질르는 그치룩헌 바우 ㄹ똥 디. 그런  
딘 뒷바농질헤영 든든허게.

106023 @ 예. 그 다음 다른 디 이런 디 영 주는 거는?

106023 #4 그런 건.

106023 @ 그런 거는 무신 바농질 허여마씨?

106023 #4 그냥 바농질이주.

106023 @ 뭐 훔질이여 무신 감침질이여 이런 말 안 써마씨?

106023 #4 감치는 건 영영 허영 허는 게 감침. 그냥은 주어가는 건 그냥 호렌  
허주.

106023 @ 호렌예? 호렌 허고.  
106023 #4 호아.  
106023 @ 호렌예. 영영 행은에.  
106023 #4 그게 감치는 거지.  
106023 @ 그냥 듣성듣성허는 거는 호는 거?  
106023 #4 호는 거.  
106023 @ 호는 거예? 아이고 비 잘 왁짜예?

### 옷 종류

106024 @ 그 다음에 남자 옷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  
106024 #4 남자 옷 종류는게 중의적삼계, 바지저고리 후루메, 쫓끼. 그것벳끼 더  
엇주게.  
106024 @ 맨 안에 입는 건?  
106024 #4 안에 입는 건 뺨스벳퀸.  
106024 @ 음.  
106024 #1 후루메허고 두루마기가 차이 이십니깁?  
106024 #4 후루메, 후루메허고.  
106024 #1 두루메기.  
106024 #4 두루마긴 건 훗것ㄹ라 두루마기엔 허곡.  
106024 #1 아, 훗것?  
106024 #4 예, 이 저 봄 때에 으름 때에 거세기 허는 건 두루마기고 후루멘 접  
거.  
106024 #1 접 거.  
106024 #4 겨울에 입는 거.  
106024 @ 음.  
106024 #4 그것ㄹ란 그건 안팎을 헤여사 겨울에 입는 거난.  
106024 @ 예.  
106024 #4 경허고.  
106025 @ 게문 여자옷 맨 안에서부터 입는, 속곳부터 밖에까지 맨 밖에 입는  
것까지 알아봅서?  
106025 #4 안네 입는 거 속곳.  
106025 @ 속곳.  
106025 # 으, 중의.  
106025 @ 예.  
106025 #4 바지.  
106025 @ 예.  
106025 #4 그 다음은 치마.

106025 @ 예.  
106025 #4 저고리.  
106025 @ 예.  
106025 #4 그것벧긔 엇지.  
106025 @ 저고리도 하나만 입읍니까?  
106025 #1 속저고리.  
106025 #4 하나만.  
106025 @ 하나만예? 삼춘, 적삼허고?  
106025 #4 적삼은 이 봄 때에 입는 거. 훗 거.  
106025 @ 훗 거?  
106025 #4 흔 곱.  
106025 @ 흔 곱 현 거는 적삼이렌 허고.  
106025 #4 적삼이고.  
106025 @ 예.  
106025 #4 두 곱 현 건 저고리.  
106025 @ 아, 두 곱 현 거는 저고리예?  
106025 #4 저고리.  
106025 @ 아, 여자들은 뭇 마고자여 이런 건 안 입읍니까?  
106025 #4 이제난 마구지주, 옛날이사 마구지가 어디 잇어.  
106025 @ 마구진 엇어나수가? 옛날에.  
106025 #4 음.  
106025 @ 조끼, 남자덜 조겐 입고?  
106025 #4 남자덜은게 증의적삼 입으민 조끼 입고, 겨울에 바지저고리 입으민  
또 거세기 조끼도 두 곱 거.  
106025 @ 음.  
106025 #4 그거 입고.  
106025 @ 두 곱행예?  
106025 #4 두 곱짜리.  
106025 @ 이 영 끌레 헤갓고 그 누비 헤갓고는 안 헤마씨?  
106025 #4 누비는 거.  
106025 @ 예.  
106025 #4 누비는 건 그건 흐뵆 생각헌 사름은.  
106025 #1 잇는 사름.  
106025 @ 예.  
106025 #4 누비여근에 만들곡.  
106025 @ 음, 누비영 허젠 허민 소곶에 뭇 뵈마씨?  
106025 #4 소곶에 뵈야지.

106025 @ 무시 거 놔?  
106025 #4 숨.  
106025 @ 음.  
106025 #4 숨 압게 낳은에. 누비여냥 이젠 또 혼 썰밥 혼 썰밥 다 또 저구리 만드난, 이 거세기. 이런 바진 대소간 누비지 아녀곡 저구린 누비영.  
106025 @ 아, 저고린 누비영예? 아, 혼 썰밥 혼 썰밥 다 허는 거라예?  
106025 #4 으.  
106026 @ 다 허는 거라예? 아으덜 옷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  
106026 #4 아으덜 옷 종류? 옛날은 우린 미녕으로 아으덜 저 국민학생덜 껌정 물 들여근에 오랑 헤드렌 허민 그거 몰라근에.  
106026 #1 반바지.  
106026 #4 예.  
106026 #1 반바지허곡.  
106026 @ 우의, 우에 거는?  
106026 #4 우의 건 그자 시방 양복 우의 거 허듯, 이디 영 헤근에 그치룩허영 만들곡, 바진 또 시방 저 쓰봉ㄴ찌 만드아근에.  
106026 @ 예, 그건 허고예? 예전에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 또 옷 해줘야지 않음 니까양?  
106026 #4 봇되저고리.  
106026 @ 봇되저고리. 그거는 필로 허영은에 어떻 만드아마씨?  
106026 #4 옛날은 아기덜 등ㄴ릅넨, 등ㄴ릅넨 낳민 봇되저구리.  
106026 #1 삼베로.  
106026 #4 베로 멘들양.  
106026 @ 음.  
106026 #4 베로 멘들양양 아기덜 영영 헤가민 등.  
106026 #1 굵어지래.  
106026 #4 굵어지렌.  
106026 @ 음.  
106026 #4 경허영 허어나민 그거 일뤄꺼지 입져나민 아으덜 등 굵어드렌 아니 헌덴?  
106026 @ 음, 그러면 언제부터 일뤄까지 입는 거라마씨?  
106026 #4 곧 나민.  
106026 @ 아, 곧 나민?  
106026 #4 으, 곧.  
106026 @ 사을 웨영 입히는 게 아니고?  
106026 #4 사을 웨영 입지는 게 아니고, 곧 낳민 아긴 모옥 시키거든.  
106026 @ 예.



106026 #4 경허민 그때 입정.

106026 #4 뱃기는 사름은 삼일 뉘민 뱃기는 사름도 있고. 일주일. 흐끔 거세기 현 사름은 등ㄱ롭지 말렌.

106026 #1 일주일을 입지고.

106026 #4 일주일을 입지곡.

106026 @음, 쟁.

106026 #4 게난 일뉘낭 아기 다시 모옥 시기민 그거 뱃경. 우리도 이제 손지덜 입져낭 베로 멘들앙 잇어.

106026 @ 아, 잇쑈과? 나중예 그 하나 사진 찍어 봐야켜.(웃음)

106026 #1 베넛저고리.(웃음)

106026 @ 쟁은예 그거를 여기서는 붓딤저구리엔 해예?

106026 #4 붓딤저고리.

106026 @ 붓딤저고리도 남자 거 허고 여자 거 허고 트납니까?

106026 #4 딱나지 아녀.

106026 @ 아, 딱나지 안 허여예?

106026 #4 그자 스미만 질게 헤영 손 가냥.

106026 @ 음, 게도 붓딤저고리헐 때는 앞에도.

106026 #4 끈나풀. 끈으로.

106026 @ 끈으로.

106026 #4 으, 끈으로 무경 영 흐 불 감앙.

106026 @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허고. 붓딤저고리 뱃기면 무슨 옷 입혀마씨?

106026 #4 아기 저고리.

106026 @ 어.

106026 #4 아기 저고리 멘들앙. 아기 저고리 멘들앙게 춤.

106026 #1 좀 보드라운 기지 행.

106026 #4 헤여근에게.

106026 @ 애기옷들 보면 또 우리 후루메처럼 질게 멘들지 았음니까예? 그건 옷 이름이 잇어마씨?

106026 #4 옷 이름 엇어.

106026 @ 엇어. 그 다음예?

106026 #4 그거 입지는 사름도 생각헌 사름은 그런 거, 어디서 춤 선세사 들어 오민 입지주. 경.

106026 @ 음.

106026 #1 잇는 집이.

106026 @ 잇는 집이.

106026 #4 예.

106026 @ 배만 영 싸는 것도 잇지 아눔니까? 배부레기엔 험니까?

106026 #4 배부레기.  
106026 @ 예.  
106026 #4 그건 베로 허여근에 영 허영 아기덜 으름에 그냥 멘드글레기 뱃지지 아녀근에 그것만 베만 가냥허영 아으덜 거세기 힘으로 배부레기.  
106026 @ 거 배부레기렌 허는 거. 거 어깨도 이렇게 만들어마씨?  
106026 #4 으, 어깨.  
106026 #1 끈으로.  
106026 @ 끈으로.  
106026 #4 끈으로.  
106026 @ 아, 끈으로 해갖고 이제 배부레기 만드는 거고예? 그 다음에 또 왜 애기들 오줌 싸렌 해갖고 지성귀 못 허난 안에도 영 밑에도 터지게 행은에 멘드는 바지도 잇지 아녀우과? 애기들 거?  
106026 #1 강알튼마지.  
106026 @ 아.  
106026 #4 그것ㄴ란 밑마지. 밑마지엔 허주.  
106026 @ 아, 밑마지. 강알터진마지ㄴ라예? 꼭 그렇게 행은에 입져서예?  
106026 #4 입젓주.  
106026 @ 으.  
106026 #1 춤 옷 안 적지꼭게 그자 벌기민 오줌은 싸질 거난.  
106026 #4 경허난.  
106026 @ 건 밑마지렌.  
106026 #4 밑마지.  
106026 #1 배부레기 배부레기 배 보호, 그걸 세밀히 말허민 배 보호지.  
106026 #4 이디 보호허는 거주게.  
106026 @ 예 예 예, 여름에 배 아프지 말렌예?  
106026 #4 베아프지 말렌.  
106026 #1 듯게 허렌.  
106026 @ 예.  
106026 #4 듯게 허렌. 경허민 훨썬.  
106026 @ 낮아예?  
106026 #4 아으덜게 베 실려왕, 베 실려왕은 아녀주게.  
106026 @ 음.  
106026 #1 일본 사름덜 하루 메기엔 헤영  
106026 #4 예게.  
106026 #1 그걸 두텁게 게로 짱 입곡.  
106027 @ 아, 게난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옷 멘들젠 허민 툄, 툄름 질을 헤야걸 아니우과예?

106027 #4 으.

106027 @ 옷 만드는 그 물림질은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봅서. 맨 처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혼 필 베가 사오든 뭐 미녕이 잇든 헐 거 아니우과예?

106027 #4 미녕 하나 허민 전시 재여. 혼 자 혼 자 다 재영 땃 자 허영 허민 무시 거 무시 거 헐 거만 곁으민 이녁이 다 몰르주게.

106027 @ 예. 게난 들를 때 허기 땀면 만약에 여자 저고리 치메 헐 때예, 저고리는 미녕이 어느 정도 들고. 치메는 어느 정도, 것도 삼춘 거 헐 때는 어느 정도 들었수가?

106027 #4 미녕은 너비 족곡 거세기 허민 여자, 여자옷은 혼 일곱 자.

106027 @ 예.

106027 #4 일곱 자민 적삼 맨들고. 치멘 키 큰 사름은 혼 열석 자 경허민 치메 허곡.

106027 @ 음.

106027 #4 키 족은 사름은 혼 열두 자.

106027 @ 예.

106027 #4 경.

106028 @ 그 다음은예, 삼춘. 바지, 저고리, 치메, 보선 부분명칭이 잇어예? 바지는 이런 식으로 이젠 한복 바지라예?

106028 #4 응.

106028 @ 이렇게 됩니까? 게민 이 부분은 뉘렌 험니까?

106028 #4 허리.

106028 @ 영허영 허리. 여기는마씨?

106028 #4 것도.

106028 #1 가렝인 가렝인디.

106028 #4 가렝이?

106028 @ 뉘, 사폭이여 셋복이여 이런 말은 안 험니까? 폭이렌 허지예? 셋복?

106028 #4 셋복.

106028 #1 음.

106028 @ 셋복도 하고.

106028 #1 어디 땃로 어신가?

106028 @ 이렇게 허면 이게 그냥 우리 일반 적이라고 허면예, 이게 바지가 아까 허리잖아예? 예.

106028 #4 이거 허리.

106028 @ 예, 여기는 허리.

106028 #4 허리. 요딘 상폭.

106028 @ 아.

106028 #4 이디 영 질게.

106028 @ 여기가 상폭.  
106028 #4 상폭.  
106028 @ 예.  
106028 #4 이디 셋북. 이거 질.  
106028 @ 이거는?  
106028 #4 이거 영 현 건 진셋북.  
106028 @ 얼로부터 어까지마씨?  
106028 #4 일로 영 뵈주게.  
106028 @ 예, 예, 일로 이렇게 해서?  
106028 #4 이제 영허민 이건 즈른셋북.  
106028 @ 아, 예예예예예.  
106028 #4 이건 즈른셋북, 요건 진셋북.  
106028 @ 예.  
106028 #4 요건 상폭 경허영.  
106028 @ 예, 잠간에? 여기는 즈른셋북.  
106028 #4 즈른셋북, 이딘 진셋북.  
106028 @ 여기는 진셋북.  
106028 #3 이딘 허리.  
106028 @ 예, 여긴 허리?  
106028 #4 이딘 강알쌀밥.  
106028 @ 여기는 강알쌀밥. 그 다음에 여긴마씨?  
106028 #4 이딘.  
106028 #1 건 다님.  
106028 #4 이딘 다님, 다님 치주. 요영.  
106028 @ 예, 여기는 다님치는 거예? 다님예? 예.  
106028 #1 단이 아닌가?  
106028 @ 다님, 이렇게 무끄는 거예? 예예, 다님?  
106028 #4 다님.  
106028 @1 이제 남자 거는 경허민 뵈는 거우과? 허리 잇고.  
106028 #4 으, 허리 잇고.  
106028 @ 이게 이제 이거 저고리잖아예? 이건 굴중이 닥다. 이거는?  
106028 #4 이건 굴중이.  
106028 @ 이건 굴중이 맞지예? 예, 이건 굴중이. 굴중이는 여기는 뵈렌 험니까?  
아까처럼 허리?  
106028 #4 허리.  
106028 @ 아, 이건 허리. 허리 옆에 이렇게 끈이 들렁 이신게예?  
106028 #1 허리에 끈.

106028 #4 이건 허리 거세기난.  
106028 @ 예, 계민 이걸 뭐렌 골아마씨?  
106028 #4 이딘?  
106028 @ 허리끈ㄱ라는?  
106028 #4 이게 허리끈이주.  
106028 @ 예, 허리끈을 허리끈이렌 험니까? 허리친 험니까?  
106028 #4 허리끈.  
106028 @ 허리끈. 그 다음에 이 여기는?  
106028 #1 폭.  
106028 @ 여기도 셋복?  
106028 #4 아니, 엇어.  
106028 @ 이건 셋복이 엇어예? 여자 거는 예?  
106028 #4 그자 굴중이.  
106028 @ 으, 굴중이. 여기 영 주름도 놓지 아넘니까예?  
106028 #4 주름 놓주게.  
106028 @ 예, 이건 그냥 주름?  
106028 #4 으.  
106028 @ 이건 주름.  
106028 @ 이 밑에는 또 여긴, 여기보단 틀리게 헤신게예?  
106028 #4 이딘 여자 거니까.  
106028 @ 예, 여기 건 무렌 험니까?  
106028 #1 그딘 무신 거 놔신게.  
106028 @ 처지렌 험니까?  
106028 #4 아니, 아니. 밑바대.  
106028 @ 아, 밋바대. 밋바대예? 예, 계민 이름이 다 뉘신가마씨?  
106028 #4 응, 다 뉘서.  
106028 @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적삼이구나?  
106028 #1 예, 적삼.  
106028 #4 적삼.  
106028 @ 이거는 적삼.  
106028 #1 적삼도 뉘곡 저고리도 뉘곡.  
106028 #4 춤, 적삼도 뉘곡 저고리도 뉘곡.  
106028 @ 예, 적삼허면 이, 여기는 뭐렌 험니까?  
106028 #4 이딘 짓.  
106028 @ 이거는 짓.  
106028 #1 동전은 어디?  
106028 @ 여기에 이제 만약에 달믄?

106028 #1 동전.  
106028 #4 이딘 섭.  
106028 @ 어느 거?  
106028 #4 요영헌 거.  
106028 @ 요거는 섭.  
106028 #4 진동.  
106028 @ 여기 이렇게 해서 진동예?  
106028 #4 진동.  
106028 @ 이 두에도 뭐렌 허지 안 험니까?  
106028 #4 두예?  
106028 @ 예.  
106028 #4 뉘엔 이거 짓 허민 목고대.  
106028 @ 목고대예? 목고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짓도, 짓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짓허고 밖으로 나오는 짓허고 딱납니까?  
106028 #4 안짓.  
106028 @ 으, 안짓.  
106028 #4 요건 베껏짓.  
106028 @ 이거는 베껏짓.  
106028 #4 이거 영허민 이딘 짓쟁이알.  
106028 @ 여기는?  
106028 #4 짓쟁이알.  
106028 @ 예, 짓쟁이알.  
106028 #4 요기 이딘 스미.  
106028 @ 여기는, 일로 이렇게 해서 스미.  
106028 #4 으, 스미.  
106028 @ 예, 스미?  
106028 #4 스밋부리.  
106028 @ 여기는?  
106028 #4 스밋부리.  
106028 @ 스밋부리.  
106028 #4 으, 여즈 짓도 그거주게.  
106028 @ 예.  
106028 #4 요건 짓.  
106028 @ 예, 여긴 짓.  
106028 #4 목고대.  
106028 @ 여기는 목고대.  
106028 #4 안짓.

106028 @ 예, 안짓.

106028 #4 바깥짓.

106028 @ 여긴 바깥짓.

106028 #4 요딘 섭.

106028 @ 예, 여기는 섭.

106028 #4 안트레 들어간 건 안섭.

106028 @ 안섭. 밖에 거는 무슨 섭 해마씨?

106028 #4 벅게 그냥 베겏 것 그것 섭이엔 허민 알아먹주게.

106028 @ 예, 예, 안쌩만 따로예? 예.

106028 #4 안네 것만 안쌩.

106028 @ 안쌩. 여기는 뭐렌 험니까?

106028 #4 이건 젓쟁이알.

106028 @ 아, 젓쟁이알. 여기는 아까 진동.

106028 #4 진동.

106028 @ 예.

106028 #4 이딘 스밋부리.

106028 @ 예, 스밋부리. 그리고 스밋부리 험 때 따로 달고 허면 뭐렌 험니까?  
그 색깔 잇는 거 영허면?

106028 #4 색깔 잇는 거 허민.

106028 @ 예.

106028 #4 질스미?

106028 @ 아, 질스미. 질스미는 다른 거 부칭 허는 거예?

106028 #4 응.

106028 @ 으, 질스미 허는 옷은 어떤 옷에 질스미해마씨?.

106028 #4 대소간 이디 흐는 건 흐뵂 고렌.

106028 #1 곤 저고리에.

106028 #4 곤 저고리에.

106028 @ 그런 거는 질스미를 부찌는 거라예?

106028 #4 꾀동.

106028 @ 으, 꾀동이 질스미우과? 아, 꾀동 우리 허는 게 질스미구나예?

106028 #4 으.

106028 @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렌 험니까? 여기?

106028 #4 그딘 배알.

106028 @ 배알. 이게 배레렌 허는 거예?

106028 #4 배, 배알. 경허난 영허민 배 님지이, 이디.

106028 @ 예, 예.

106028 #4 이디 영 꾀이.

106028 @ 모양이?  
106028 #4 경허난 배알.  
106028 @ 배알. 케민 여기도 따로 뭇에?  
106028 #4 그딘 엇어.  
106028 @ 아, 그건 안 하고?  
106028 #4 이딘 배알.  
106028 @ 아아, 여기는 배알이렌 허는 거구나예?  
106028 #1 배 창 모양으로 돼니까?  
106028 @ 예예예예. 우리 표준어는 배래렌 허거든예? 소맷베레예. 그 다음에 삼  
춘, 여기는 엇주마는 여기 영허영 끈 들당 헌 거? 여기 무사 저고리허면은?  
106028 #4 저고릿곰.  
106028 #1 단추, 단추.  
106028 @ 그거 무신 거마씨?  
106028 #4 막작단추.  
106028 @ 으, 모작단추도 있고.  
106028 #4 으.  
106028 @ 그 다음에 아까 저고릿곰?  
106028 #4 저고릿곰.  
106028 @ 저고릿곰 말고 남자 거나 두루마기나 헐 때도 다 그냥.  
106028 #4 곰.  
106028 @ 그냥 곰하는 거라예? 곰은 이 오른쪽허고 왼쪽 거 허면 저기?  
106028 #4 즈른곰, 진곰,  
106028 @ 아, 즈른곰, 진곰예. 어느 쪽이 즈른곰이고 어느 쪽이 진곰 험니까?  
106028 #4 영 허민 이, 이착이.  
106028 @ 옷 멘들당 잊어부런?  
106028 #4 잊어부런.  
106028 @ 웃음. 그것도 남자 거 허고 여자 거 허고 방향이 트납니까? 고름.  
106028 #4 이 저 저구린 다 ㄹ뜨는디 이 우리ㄹ뜨는 이 남방은 뜨나.  
106028 @ 아, 저구리는 똑ㄹ뜨예?  
106028 #4 으, 저구린 ㄹ뜨는디 이 남방은 이 남자 건 영허지.  
106028 @ 예, 예, 예, 왼쪽 게 올라오고.  
106028 #4 으, 이 여즈 건 이쪽이 올라가고.  
106028 @ 예, 저구리는 어느 쪽이 올라갑니까?  
106028 #4 아이, 저구린 트나지 아녀.  
106028 @ 아, 트나진 안 허는데 어느 쪽이 위로 올라 오는 거?  
106028 #4 영헐 테지.  
106028 @ 아, 왼쪽이 올라와예? 으, 경 허영은예.



106028 #1 아니랏주. 남좌여우로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옷도릴.  
106028 @ 예.  
106028 #1 요즘 와서 변허여갓고 이제 다 웬쪽이 이렇게 이 우로 나온 거라.  
106028 @ 예.  
106028 #1 거 왜 이 남좌여우가 나왔는가 허면 이건 남과 여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요것은 웬쪽은 프라스고.  
106028 @ 예.  
106028 #1 쉽게 말허민 그 요즘 뭘로 말허민 오른쪽은 마이나스라.  
106028 @ 예.  
106028 #1 마이나스니깐 여잔 마이나스로 표현한 거고 남잔 프라스로 표현해가지고 옷을 그.  
106028 @ 거꾸로, 달르게예?  
106028 #1 으, 다르게 만들어난 건데 요즘 와서는 그냥 하나로 뉘분 거지?  
106028 #4 이 바지 저고리 ㄹ쁜 건 틀리지 아녀. 남자 거나 여자 거나 이거지이.  
106028 @ 예예.  
106028 #4 영 허는 디 이치록 남방ㄹ쁜 건 멘들 때엔 여즈 건 영 허곡 남자 건 영허곡. 계난 남즈건 대소간 이디가 단추고냥허주게.  
106028 @ 예예 웬쪽이.  
106028 #4 단초고냥허곡 허민.  
106028 @ 계난 겹치는 게 양복허고 한복이 뜨나구나.  
106028 #4 영 헤근에 단추고냥허민 것에.  
106028 #1 난.  
106028 #4 이것도 이디가 이거 짓이거든.  
106028 @ 예.  
106028 #4 이거 짓이난에 이게 큰섭.  
106028 @ 아, 큰섭, 예.  
106028 #4 큰섭 요건 안섭.  
106028 @ 예, 안섭, 큰섭 아까예? 안섭. 삼춘 이제 치메, 치메라고 생각헤야쿠다.  
106028 #4 치메.  
106028 @ 치메 영허면 이렇게 생겻잖아예?  
106028 #4 으.  
106028 @ 이렇게 생겻으면 여기는 허리?  
106028 #4 허리.  
106028 @ 예, 여기에도 끈 영 잇지 아녀우파? 치메헐 때.  
106028 #4 허릿곰.

106028 @ 허릿곰, 예. 그 다음에 이, 이, 이 여기는 뭐렌 험니까?  
106028 #4 그딤 그자 치메폭.  
106028 @ 이건 전체가 치메폭.  
106028 #4 으.  
106028 @ 예, 그 다음 이 밀엔마씨?  
106028 #4 밀엔 단이엔 안 곱아. 엇어.  
106028 @ 예, 이긴 엇곡. 여기 영허면 이, 이, 이 옆에는 뭐엔 곱아?  
106028 #4 거세기 각.  
106028 @ 각.  
106028 #4 각치마.  
106028 @ 예.  
106028 #4 각치마난 이 각 들르는 거.  
106028 @ 예.  
106028 #1 각치마 통치마로구나.  
106028 @ 예.  
106028 #4 이건 통치마지.  
106028 @ 예, 예, 예, 예, 예. 게니까 각치메 통치메.  
106028 #4 으.  
106028 @ 계난 통치마는 다 쥘 입어지는 게 통치마. 작은?  
106028 #4 작은 요새 각치메 영.  
106028 @ 옛날 한복 그게 각치메예? 각치메도 이제 영 겹치는 게 특나지 안 험  
니까예? 왼쪽으로 험니까? 오른쪽으로 험니까?  
106028 #4 아니, 츠레론 이쪽이 영 들르는 게.  
106028 #1 으.  
106028 #4 거세기 허는다.  
106028 @ 예.  
106028 #4 요새 젊은 사름은  
106028 #1 이디게 영 와부러.  
106028 #4 꺼꾸로 허거든.  
106028 @ 으, 오른쪽으로 이렇게 허는 게 겹치는 거구나예? 아아.  
106028 #4 이쪽이 옛날식으로 이쪽이 거세기 허는 거.  
106028 #1 건, 음양이 빛에 의해 가지고.  
106028 @ 예.  
106028 #1 만들어 논 건데 요즘 와서 그걸 변화시켜부는 거.  
106028 @ 예.  
106028 #4 경헌 거.  
106028 @ 경헌 거예? 그 다음에 삼춘 보선?

106028 #4 보선.

106028 @ 예. 장간예, 보선은 이렇게 뿔잖아예?

106028 #4 으.

106028 @ 영 뿔신가?

106028 #1 경 뿔다고 해부러게.

106028 @ 웃음. 자, 보선하면 이 우에는 뿔우과?

106028 #4 보선 허민 그자 다.

106028 #1 보선목 그디.

106028 @ 이름?

106028 #4 이건 보선목.

106028 @ 여기는?

106028 #4 앞코지.

106028 @ 앞코지.

106028 #4 으.

106028 @ 여기 영 허면?

106028 #4 저긴 뿔코지, 뿔.

106028 @ 뿔코지, 뿔

106028 #1 그냥 뿔주.

106028 @ 아, 그냥 뿔. 그 다음에 영 허면 영 신으믄 여기는 뿔렌 험니까? 여기  
가.

106028 #4 뿔치기.

106028 @ 으, 보선도 뿔치기렌 험니까? 게면 여기 뿔가 뿔치기로구나예, 예?

106028 #4 응, 뿔치기.

106028 @ 여기는 앞코지?

106028 #4 그딘 앞코지.

106028 @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뿔렌 험니까?

106028 #4 이딘 보선수늑.

106028 #1 으, 맞아.

106028 @ 수늑, 수늑을 영 마주보게 신잖아예? 신을 때 앞 뿔. 보선수늑. 또 다  
른 이름 이신가마씨? 이런 밑에 이런 거 이신가?

106028 #4 밑엔 엇어.

106028 @ 게민 양말허면 여기는 뿔렌 험니까? 보선, 보선창?

106028 #4 보선창?

106028 @ 그런 말은 안 씨마씨?

106028 #1 그냥 줄 때엔 울로 요 새엔 받는 거.

106028 #4 건 볼 받는 거.

106028 #1 건 볼 받는 거.

106028 @ 아, 볼 받는 거? 으.

106028 #4 볼 받는 거.

106028 #1 건 요렇게.

106028 @ 여기예?

106028 #1 그걸 이렇게 가는 거주.

106028 @ 아, 이 뜬 형질으로 헤갓고 저기 허니까?

106028 #4 볼 받는 거.

106028 @ 어, 볼 받는 거예? 예, 예, 예. 이렇게 행은에 얘기를 하든 뒤고. 옛날 단추들은 어떤 종류들이 잇어나수가?

106028 #4 ㅁ작단추.

106028 @ 예, ㅁ작단추. ㅁ, ㅁ작단추 옛날 그 적삼허거나 허면 다 ㅁ작단추로 현 거고예?

106028 #4 으.

106028 @ 모작단추 이제 꺾나부난 요즘 같은 이런 단추 나온 거라마씨? 요런 단추는 이름 뭐 험니까?

106028 #4 이런 거?

106028 @ 예.

106028 #1 이건 스납. 일본 말은 스납브.

106028 #4 이건 스납뿐 일본말이주.

106028 #1 예

106028 @ 예예, 맞수다. 우리는 다 옛날에는 ㅁ작단추라고 현 거라예?

106028 #1 우리 말론 저거 낄을 수가 엇는 거. 이름이.

106028 @ 단추.

106028 #1 김치가 웨국에 가도 김치엿 허듯이.

106028 @ 맞수다.

106028 #1 이건 스납뿐. 어디 가도.

106028 @ 예예예예.

106028 #4 이건 스납뿐 허는 거, 건 일본말.

106028 @ 예, 맞수다. 삼춘, ㅁ작단추도 못아봄디가?

106028 #4 으.

106028 @ 으, 거는 어떤 식으로 헨에 못이는 거우과? ㅁ작단추 허면은.

106028 #1 나, 잇어부러수다, 그거.

106028 @ 아, 삼춘 헤낫구나?

106028 #4 광목, 광목 허여근에 이치룩 좇앙.

106028 @ 예.

106028 #4 줍아근에 이녁냥으로

106028 @ 으.

106028 #4 나 베와 안네난.  
106028 @ 게른 그거 바농질 다 헤여마씨? 즈은 거.  
106028 #4 즈양, 므작만추 멘들민.  
106028 @ 음.  
106028 #4 요만인허게 끊어내영.  
106028 @ 예.  
106028 #4 허주게.  
106028 @ 예, 게른 므작단추는 허면은 이렇게 곱이 잇어야 웨는 거 아니라예?  
것도 일름 잇어마씨?  
106028 #4 므작단추 허민 그냥.  
106028 #1 못아지쿠광?  
106028 @ 아, 웃음.  
106028 #4 잇어불지 아녀신가?  
106028 @ 으.  
106028 #1 아, 잇어부런 그만.  
106028 @ 손으로 행은예.  
106028 @ 삼춘 다시 해봅서? 새로. <므작단추 시연>  
106028 #1 새로.  
106028 #4 웃음.  
106028 @ 저것도 다 손에 익으니까 헤지는 거주, 어.  
106028 #1 무시거 매뒤가 므작인디 매뒤 무시거옴 끝나마는 요새.  
106028 @ 매듭.  
106028 #1 매듭.  
106028 @ 매듭. 아, 이거 옛날 손 하나만 있으면 못허는 게 없어예?  
106028 #1 게난, 유건, 유건 같은 것도 아무나 못 만들주게.  
106028 @ 예.  
106028 #1 나 저 조천 함덕서 유건 만드는 사름 없어가지고.  
106028 @ 예.  
106028 #1 나 함덕 간 유건 만들언 양촌 만들어서.  
106028 @ 제 지내젠 허민 유건을 써야 짚아예?  
106028 #1 지금은 푼는 거 잇어놓난.  
106028 @ 음.  
106028 #1 거 다 그것가 사오민 웨는 거고.  
106028 @ 예.  
106028 #1 등기른 술술 들어가얏 헐 건디 말을 안 들언.  
106028 @ 이게 저기 통통 헤부니까 닳다예?  
106028 #1 처음부터 너무 등겨부런.

106028 @ 음.  
 106028 #1 이 한걸허게 해냥 제우민 돼는디.  
 106028 @ 예, 잘도 곱다게, 예.  
 106028 #1 으. 이젠 막 마무리해가는디.  
 106028 @ 어어, 완성.  
 106028 #4 웃음.  
 106028 @ 영 해여 봅서. 잡아봅서, 삼춘이. 아이고, 음, 음, 예. 뵈습니다.  
 106028 #1 뵈연. 뵈젠 험수다.  
 106028 #4 이이이. 웃음.  
 106028 @ 자 이런 식으로 해갓고 이제 만들고예?  
 106028 #4 으.

### 재단과 염색

106030 @ 옛날 그 옷감 상오면 옷감 손질은 어떤 식을 헨마씨?  
 106030 #4 어떤.  
 106030 @ 짓헛미녕 오면 그걸로 옷을 못 만들지 아넘니까?  
 106030 #4 무사 만들어.  
 106030 @ 만들어예?  
 106030 #4 흐뎡 크게 만들지이. 쯤.  
 106030 @ 아아.  
 106030 #4 썩 거 보다는.  
 106030 @ 아아, 그 다음 광목보다는 옷을 크게해예? 나중에.  
 106030 #4 광목도 시방은 지춧광목은 좋아들어.  
 106030 @ 음.  
 106030 #4 빨민.  
 106030 @ 아아.  
 106030 #4 경허니까 흐뎡 크게 해 뒤야 제대로 돼지.  
 106030 @ 음, 게민 빨아가면 빨아가면 이제 하얗헤지켜예?  
 106030 #4 으, 헤양허지.  
 106030 @ 으.  
 106030 #4 경허난.  
 106030 #1 양복집의선 걸 지누시엔 허는디.  
 106030 @ 예.  
 106030 #1 물에 담그는 걸.  
 106030 @ 예.  
 106030 #1 이제 그치록 해 냥 이제 그 데립, 다림질 헤영은에 만들면 줄어들지 안 허고.

106030 @ 예.

106030 #1 이제 그대로 만든 건.

106030 #4 좋아들지.

106030 #4 어떤 기지든지.

106030 @ 좋아들어부러예?

106030 #1 응, 다. 어떤 옷감이든지 다 좋아들어.

106030 @ 예.

106030 #4 요새 지참광복은 이 정돈 좋아들어.

106030 @1 오 센치 이상을.

106030 #4 길이가.

106030 @ 예.

106030 #4 치멧 길이 행 놔두민 싹 좋아들지.

106030 @ 우리가 가끔 옷 상은은 빨앙불민 확 좋아드는 건 짓차로 그냥 해부니 까구나예? 손질덜 아녕예?

106030 #4 손질 안 허영 물적저근에 ㄱ만이 물만 적저근에 그자 똑똑 누르땡 물류와근에 허는 건 덜 좋아들지.

106030 @ 거난 이제 만약에 손질허젠 허면 광목이나 미녕이나 물에 담갓당 허는 거구나예?

106030 #4 경허난 제대로 멘들젠 허민 이거 빨아근에 풀을 헤영 아저웁생을 허나.

106030 @ 으음.

106030 #4 무시 거 허민 안 좋아들고.

106030 @ 예예.

106030 #4 경허영 짓차 허민 좋아들어.

106030 @ 음, 경허면 이제 나중에 무사 줄어들엇수강 이렇게 항의허기도 허는 구나. 옷예, 미리 다 빨앙은에 무사 풀을 헤영 오랜 허는 거우과?

106030 #4 풀을 헤사 그 고골고골헌 걸 쪼끔 폐와지지.

106030 @ 어, 옷 만들 때?

106030 #4 으, 옷 만들 때.

106030 @ 으음.

106030 #4 경 안 허민 조골조골헤불민.

106030 #1 경 안 허민 그게 전부 춤 그 옛날 이딴 말로 다리웨질을 해야 될 건디.

106030 @ 예.

106030 #1 다리웨질을 헤알 건디 그건 절약허는 거지, 즉 말허민.

106031 @ 예예, 맞수다. 예, 예. 옷도 저기 아까 이불헐 때도 염색헐텐 헛잖아 예? 여기는 염색허는 거를 뭐 헌 덴 험니까?

106031 #4 물 들이는 거.

106031 @ 물들이는 거를 물그음렌 험니까? 뭘로 물 들여나수가? 옛날에.

106031 #4 물을 사당 들여부난 난 모르지.

106030 @ 음.

106030 #4 그 색색이 물은 사다근에 검은물이민 검은물을 들이민 허곡, 또 뽀은 물 들이는 거 붉은물 들이곡 경허여.

106031 @ 집에서 저 염색허는 염료들은 엇어난마씨? 집에서 허는 거는?

106031 #4 집의서 허는 건 엇어낫주게.

106031 #1 노란 거 치지.

106031 @ 치지로 헤엿은 헤랏수가? 삼춘도.

106031 #4 아니.

106031 @ 치지로 하고. 아까 감물 들이는 거?

106031 #4 감물 들이는 건 감 타다근에 딱딱 뽀얏 건 쩌질아근에 그 이 영 페 와나근에 그 물 낱.

106031 @ 음.

106031 #4 잘 짓어근에.

106031 #1 어제, 어제 어제 간 들으난 요새 전시 쫓낫젠 허멍 전시에 도련 할머니들 멧 분이 나완 어제 쫓낫젠 헤냐?

106031 @ 어디서 행은에?

106031 #4 옛날, 옛날.

106031 #1 옛날 현 거 어제 어디서 어디서 현 생이라.

106031 #4 혼 십오, 이십 년 뒤테어실 거라.

106031 @ 예.

106031 #4 그때에게 어디서 남즈 그때에 윈 싯산디 오란에 할머니네 감 맥이는 거 알아주쿠광? 허관데 감 맥이는 것사 알주게. 영허난 감 맥이는 거 혼번 헤뽀서?

106031 @ 음.

106031 #4 이젠 감 타단 뽀얏 저 그 기지 낱에 이젠 뽀겐 탁탁 털어뽀된 이젠 낱 언 이젠 그거 몰라가난 또 손 봐야 반뽀허지.

106031 @ 음.

106031 #4 그치룩 헤연 허엿는데 누게 경 사진 찍어간 중 알아서?

106031 #1 웃음.

106031 #4 혼번은 저 큰아뽀에 손지가 서울서 완. 할머니, 어뽀난 할머니가 서울 사진 부쨌져선게? 허관뽀, “무싯 사진 영 허난?” 할머니 요새 갈웃 입영 사진 찍은 거. 경허난 그때 상충이 어멍에 종철이 어멍에 양초 어멍에 나에 허난에.

106031 #1 양추 어머니 산 때랏구나게.

106031 #4 산 때에. 그치룩허영 멧 헤 엇영 할망 죽어수다게. 경헤연 허난 헤싯 게, 아, 요 혼번인 딸이 이 저 휴대폰에 찍어 아산 와서 저.



106031 @ 예, 예, 예.

106031 #4 간 보난에 사진이 잇언, ‘어떠난 우리 어멍 사진이 저디 이신고’ 허연  
찍어아전 오고렌 허관데 “아이고야, 이거 멧 해고” 우리 저 집 짓기 전에난에 아  
주 이십년 전으로구나게.

106031 #1 멧 천련 갑니다. 그것노.웃음.

106031 #4 으름이난 믈저덜 쓰고. 밀낭므즈. 난 새 갈옷을 입어졌고. 상충이 어  
명넨.

106031 #1 목은 거.

106031 #4 목은 거 그냥.

106031 #4 갈옷도 깨끗이 입어사.

(잡담)

106031 #4 종철이 어멍이나, 상충이 어멍은 양초 어멍은 보난 우의 흰 건 아래  
난 우알로 갈옷을 입엇고. 그땐 나가 혼 육십벳기 안 난 때난 흐뎡 젊엇주게. 웃음.

106031 @ 옷 허니까 새 걸 혜영 입어실 테주. 삼춘?

106031 #4 새걸, 새걸로 우알로 다른 사름은 그냥 목은 거 이 갈옷도.

106031 @ 예.

106031 #4 고운 물에 빨민 이 헐어 가는 게 보영허는디.

106031 @ 아아.

106031 #4 물 곳이게 빨양은 거물거물거물거물 갈옷 고운 물에 빨아야.

106031 #1 깨끗허게. 좀 더럽게 입지 말아야 허곡.

106031 @ 예.

106031 #1 그래야 곱지.

106031 #4 우린 옛날 갈옷 입어가민 춤 이 색깔 나지게. 보영케 허는디. 그 막  
발래여근에 그냥 너무 발랜 거 오래 입어가가민 바로 춤 시커멍허여.

106031 @ 예, 그 밧디 강 일허고 영 허고.

106031 #4 땀 부뜨민 즉시 빨아불어사 허지 그냥.

106031 #1 그냥 시커매.

106031 @ 예예. 맞수다.

106031 #4 이 색깔 뉘여.

## 신발

106032 @ 예, 맞수다. 이젠 신 종류예? 옛날에, 신은 어떤 신들 잇어신고예?

106032 #4 초신.

106032 @ 예.

106032 #4 창신.

106032 @ 예.

106032 #4 고무신.

106032 @ 예.

106032 #1 남신.

106032 #4 남신 춤. 이디 남신도 기러져선계.

106032 @ 예, 예. 계난 초신은?

106032 #4 이 째으로 만든 건 초신?

106033 @ 예, 남신은?

106033 # 남신은 낭으로 멘든 거.

106033 @ 창신은?

106033 #4 창신은 옛날은 그 선비덜.

106033 #1 가족으로.

106033 #4 가족으로 멘든 거지이, 창신. 경혜연.

106033 @ 아아.

106033 #1 옛날 구두주. 옛날.

106033 @ 예, 창신이?

106033 @ 예예.

106033 #4 으. 옛날 구둑\*주.

106033 @ 가족으로 만든 거라예? 계문 이제 그 신도 남자들 신는 신허고 여자 들 씨집갈 때도 신지 안 험니까예?

106033 #4 시집갈 때도 신어도.

106033 @ 그거는 어떤 거 신엇수가? 시집갈 때는. 거는 창신이렌 안 험니까? 여자 거는?

106033 #4 창신 혜영 신지는 사름이 멧이나 허여?

106033 @ 아, 삼춘도 씨집갈 땐 무슨 거 신언 가수가?

106033 #4 우리 씨집갈 땐 고무신벧긔 안 신어서.

106033 @ 고무신?

106033 #4 그땐 고무신도 어려운 때라.

106033 @ 예.

106033 #4 저 흰 고무신 그때 낫단 기여들어갈 때난 검은 고무신 나서. 겨난 우리 큰아버지가 이치룩헌 째신을 잘 멘들아나수다. 곱게.

106033 @ 으.

106033 #4 그냥 춤 창신이나 바로 엇이 곱게 멘들안 허난.

106033 #1 이 노란 걸로 행근에게.

106033 #4 예, 속지로 허영 감곡.

106033 #1 예예.

106033 #4 저 춤 이 깝이 훤은 썰겍보단 흐뎡 흑게 혜영 노랑케 혜연 우린 큰 아버지가 그걸 삼아쥬예.

106033 #1 신영 텅겍구나예?

106033 #4 신언 땡겨나서.  
106033 @ 음, 기구나예?  
106033 #4 으.  
106035 @ 흑신 초신 멘들 때 어떤 과정을 거청은에 멘드는 거 알아져마씨?  
106035 #4 그걸 어떻게 알아?  
106035 @ 그걸 어떻게 알아예? 자 여기 보게예? 이 부분은 뭐렌 험니까? 이 여  
기.  
106035 #1 창.  
106035 @ 이건 창. 이거는?  
106035 #4 요건 깍.  
106035 @ 어느 게 깍?  
106035 #4 이, 이, 이, 줄기.  
106035 @ 이거 이렇게 웬 거?  
106035 #1 으으.  
106035 @ 여기가 깍.  
106035 #4 깍. 이딴 뒤치기.  
106035 @ 이거는 뒤치기? 예.  
106035 #4 이것ㄴ라 무시거엔사 곱아나신디.  
106035 #1 그거 곱아난 건 몰르키여.  
106035 #4 잊어부런.  
106035 @ 그 요디는마씨? 여기, 여기.  
106035 #4 이건 신들매는 거.  
106035 @ 이건 신들매우과?  
106035 #4 으.  
106035 #1 신 들.  
106035 #4 신 들매는 거.  
106035 @ 예예. 신들매는 거.  
106035 #1 신 들매는 거 여기 끈 허영은에 무끄는 거.  
106035 #4 무끄는 거.  
106035 @ 예예예. 신들매예.  
106035 #1 신들, 매는 거, 메는 거.  
106035 @ 신들매는 거?  
106035 #4 이것ㄴ란?  
106035 #1 멘들아낫주마는.  
106035 #4 신각이온.  
106035 #1 신각은 이거마씨.  
106035 @ 이 앞에는?

106035 #1 앞에 벨도로 뭐가 없어?  
106035 @ 이 두에는?  
106035 #4 뒤치기?  
106033 @ 그냥 뒤치기만 허고. 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예? 아까 가족신도 어디 보여라마는?  
106033 #1 어디 보연게.  
106033 @ 이건 무신 신이우과? 이게 창신?  
106033 #4 이게 창신 아니우과?  
106033 @ 가막창신. 검정거니까. 창신. 이것도 이름 이신가마씨?  
106033 #1 아니, 창신이엔만 불러놓난 건 무슨.  
106033 @ 예.  
106033 #4 일름 엇일 거라.  
106033 @ 예, 창신.  
106033 #1 이건 가족신.  
106033 #4 이건 가족으로 초신 멘들 듯 멘든 거.  
106033 @ 예예예예.  
106033 #1 아렌 이건 자동차 바퀴.  
106033 @ 아, 그걸로예?  
106033 #1 즈동차바퀴.  
106033 @ 여기 국취신이렌 헤신게.  
106033 #1 국취신? (웃음)  
106033 @ 옛날 자동차바퀴. 꼭 무신거치록. 요즘 우리 샌달 모양으로 헤신게예. 이거는 뭐우과?  
106033 #1 이것도 창신일 거.  
106033 #4 이거, 창, 창신에 이거.  
106033 @ 보선? 휘?  
106033 #1 휘, 이것도 창신. 진신 저건.  
106033 @ 음, 이렇게 가족으로 헤연 멘들어신게예?  
106034 #4 남신.  
106034 @ 남신.  
106034 #4 낭으로 만든 거.  
106034 @ 낭은 어떤 낭으로 주로 만들어신고예? 남신은?  
106034 #4 몰라. 어떤 낭으로사.  
106034 #1 종낭이나 그 무슨 저 폭낭이나.  
106034 #4 이건 소낭으론 안 멘들아실 거라.  
106034 @ 예, 소낭으로 안 하고예? 삼춘. 가벼운 거로?  
106034 # 이것ㄴ란 남신이엔 허주게.

106034 @ 예. 남신은 언제 씻수가?  
106034 #1 비온 날.  
106034 #4 비온 때에 신어났주.  
106036 @ 예, 비올 때에예. 그 초신도 종류가 딱난가마씨? 불르는 게?  
106036 #1 아니.  
106036 #4 엇어.  
106036 @ 뭐 세각신이여 무슨 이런 말 안 들어봄디가?  
106036 #1 불각신, 불각신.  
106036 @ 아, 불각신?  
106036 #1 건 불각신허고 이제 각신허고.  
106036 @ 예.  
106036 #1 두 가지로.  
106036 @ 으으.  
106036 #1 불각은 이거 짜 가멍 그냥 그 각을 부찌, 멘들아부는 거고.  
106036 @ 예.  
106036 #1 저 각신은 각을 만들어놔 그걸 흐나 흐나 부찌멍 나가는 거고.  
106036 @ 아까, 각 이렇게 옆에 영영헌 거예?  
106036 #1 이걸 꼭인다.  
106036 @ 각이라고 허는데.  
106036 #1 흠치 즐아가멍 신은 삼아가멍 이 각을 만들엉근에 그레 꾸불려가멍  
그냥 즈는, 저 삼는 게 잇고.  
106036 @ 예.  
106036 #1 요건 저.  
106036 @ 트로 헤갓고.  
106036 #1 딱로 멘들양근앵에 각신 저 불각신.  
106036 @ 예, 각신, 불각신 허잖아예? 각은 주로 뭘로 내나수가? 옛날에.  
106036 #4 이건 산뒤찹이주. 산뒤찹.  
106036 @ 산뒤찹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요번에 뭐 미로 헛덴 현 거는 뭐?  
106036 #4 건 신늘. 늘, 늘.  
106036 @ 아아, 늘이 어느 겨우과?  
106036 #4 바닥.  
106036 #1 줄거리.  
106036 @ 예.  
106036 #1 줄거리가 여기가 혼 발, 혼 발 발양근앵에 그걸로 만들민 여기서 헤  
영근앵게 요까지 오는 거라.  
106036 @ 혼 발 발양. 게문 이게 늘엔 허는 겨우과?  
106036 #1 아니, 늘은 소굽에.

106036 @ 아, 바닥이.  
106036 #4 바닥. 바닥.  
106036 #1 바닥 소꿉에.  
106036 @ 이게 신놀이구나예? 예예예예.  
106036 #1 으.  
106036 @ 소꿉에게.  
106036 #4 길쟁이도 잇구나.  
106036 #1 이걸 그냥 이걸 산뒤쪽으로 허는 거고이.  
106036 @ 예, 계남 미로 헌 게 곱텐 헌 거 아니라예?  
106036 #1 각도 미로 내영근엥에 허고.  
106036 #4 옛날은 산뒤찢. 이 각 허젠허민 제 쪽에 산뒤찢 쪽에 영 허민 동그락 허지게.  
106036 @ 예.  
106036 #4 경허민 그거 허영 막 보비여근에 데왕.  
106036 @ 음.  
106036 #4 각 멘들민.  
106036 #1 각 부병.  
106036 @ 예예. 부병은에.  
106036 #4 영 꼬아지게 만들젠 허민.  
106036 @ 맨 안에 걸 소독이렌 험니까?  
106036 #4 어, 소독.  
106036 @ 산디 소독해갓고예.  
106036 #4 산뒤찢 소독허영 이 각을 멘들민 노랑케 노랑물 들여근에 거세기.  
106036 @ 이렇게 꼬와야 부드러워지고예?  
106036 #4 잘도.  
106036 @ 잘도 고와예?  
106036 #4 춤, 잘도 고와. 이제 그런 신 보젠헤도 어려워.  
106036 @ 무사 여기 영장 나면 고운 신 아니고 그 대강 이렇게 짠 거 잇지 아  
너우과? 그 일름은 몰르쿠과?  
106036 #4 건 불각신.  
106036 @ 그건 불각신으로. 불각신 행예?  
106036 #1 그건 불각신으로.  
106036 #4 영장 날 때에 굿도 좋도 멘들양 상제덜 문 신, 신어났주. 옛날.  
106036 @ 아, 그게?  
106036 #1 상주들은 곱게 출리는 게 아니니까.  
106036 @ 예.  
106036 #4 놈, 놈 웃이렌.

106036 #1 웨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허름허게 출리는 게.

### 모자 등

106037 @ 예. 맞수다. 모자 종류는 어떤 게 이신고예? 굵지양? 웃음. 이, 이건?

106037 #4 이건 장옷.

106037 @ 예, 이건 장옷?

106037 #1 이것도 장옷. 혼례복엔 헤시난에. 혼례복.

106037 @ 장옷예?

106037 #1 이건 스나이 거?

106037 #4 예, 이건 여자 거.

106037 @ 삼촌, 모자들은 어떤 모자 잇었수가? 옛날에 쓰는 모자?

106037 #1 모즈는 이제 갓.

106037 @ 이거는 뭐우과? 모자.

106037 #4 이건 옛날 ㄱ뜨민 대패랭이.

106037 @ 음. 뭐?

106037 #1 아니, 털병것.

106037 #4 털병것.

106037 @ 털병것하고. 털벌립.

106037 #4 이건 겨울에.

106037 @ 예, 겨울에예? 어.

106037 #4 대패랭인 으름에.

106037 @ 예, 으름에. 아, 대패랭인 으름에 쓰고. 그?

106037 #1 그냥 보통 요즘 그 나오는 건 패랭이엔 그냥 허여.

106037 #4 그냥 패랭이엔만 허주.

106037 @ 예, 패랭이?

106037 #1 밀집모자.

106037 @ 예예예예.

106037 #1 거 패랭이.

106037 @ 개난 모자 종류는 이런 털병것, 털벌립. 털병것하고 대패랭이.

106037 #4 대패랭이.

106037 @ 또 갓들도 잇어나시고예?

106037 #1 갓.

106037 #4 갓 잇었고.

106037 @ 갓.

106037 #1 감티 여기 안 보이더라.

106037 @ 감티도 어디 잇긴 잇일 겨우다. 감티. 또 뭐 잇수가?

106037 #1 휘, 이제 휘양.

106037 @ 휘양.  
106037 #1 으, 아니. 요, 요것도 모자 이거.  
106037 @ 이건 뭐우과?  
106037 #1 이건 족두리네.  
106038 @ 예, 족두리.  
106038 #4 여자.  
106037 @ 예.  
106038 @ 엇고. 휘양은 엇수다. 이제 이렇게 잇고예? 여름 모자 여름에 쓰는 거  
는 보통 여기선 뿔 썬마씨?  
106038 #1 여름에 갓, 옛 어른덜은 갓에 탕건에 갓 갓, 썬 다녔고.  
106038 @ 예.  
106038 #1 그렇지 않으면 페랭이.  
106038 #4 페랭이.  
106038 @ 일 혈 때 검질메레 갈 때는 무시거 썬수가?  
106038 #1 샷갓.  
106038 @ 샷갓. 여기서도 샷갓덜도 멘들아난마씨?  
#1 멘촌서 샷갓.  
106038 #4 멘촌서 샷갓 멘들안.  
106039 @ 겨울에 쓰는 모자는 뭐마씨?  
106039 #1 아까 털벌립 그 저 그거나 휘양.  
106039 @ 예.  
106039 #1 이제 그런 정도주. 감티.  
106040 @ 아, 감티하고예? 예예. 삼춘도 양태도 좋아봄디가?  
106042 #4 아니.  
106042 @ 아니.  
106042 #4 탕건만 흔방을 허이단 바농질 베와부난.  
106042 @ 음.  
106042 #4 아니 헨.  
106042 @ 탕건은 좋아반마씨?  
106042 #4 좋아봤주.  
106042 @ 탕건은 어떤 식으로 즈는 거우과?  
106042 #4 총 허여근에.  
106042 @ 음.  
106042 #1 골에 끼왕.  
106042 #4 그런 건, 그런 건 안 나와신게.  
106042 #1 탕건골 어디 꼭 보이는 거 님아라, 인칙에.  
106042 @ 잇수다.



106042 #1 요거.  
106042 @ 예.  
106042 #1 탕간골.  
106042 #4 이게 탕간골이주게.  
106042 @ 예.  
106042 #1 게난, 요 뚜껑은 젤 내중에 허는 거고.  
106042 @ 예.  
106042 #1 여기서 요 7장 돌아오민 우 마무리 허젠 허민 요거 집어놔.  
106042 @ 예.  
106042 #1 마무리허는 거.  
106042 @ 이것도 이름이 딱나마씨? 탕걸골 이름이 잇수과?  
106042 #1 골.  
106042 @ 이거는 탕건골? 게연 이제 맨 먼저는 얼로부터 좇는 거우과?  
106042 #4 이, 바우로.  
106042 @ 어, 이걸 바우렌 헤마씨?  
106042 #4 바우.  
106042 @ 바우레 허고 그 다음에?  
106042 #1 바위.  
106042 @ 음. 바우로부터 탕건 줄을 때는 뭐로 즈는 거마씨?  
106042 #4 총, 총.  
106042 @ 총으로 행은에.  
106042 #4 뭇 또꼬냥에 그거. 옛날은 총 풀주게.  
106042 #1 뭇꼬리.  
106042 @ 예예예.  
106042 #4 경 헤근에. 그거 다.  
106042 @ 바놓으로 허는 거우과?  
106042 #4 바놓으로, 바놓에 꿰여근에.  
106042 @ 예. 계속 영허영 짜는 거 치록 허는 거구나예?  
106042 #4 영 흔 코 흔 코.  
106042 @ 음, 흔 코 흔 코.  
106042 #4 흔 코 걸렁 줍아 텅기고.  
106042 #1 육지부에 바느질은 여기 탕건 멘드는 거 허고 즈는 거 허고 3트곡  
여기 바느질은 일본 바느질허고 똑같아.  
106042 @ 아, 여기는예?  
106042 #1 여긴 이렇게 헤영 나가는 거고. 저 육지선 이렇게 이, 저 요 손가락  
으로 눌러서 허지.  
106042 @ 으으음.

106042 #1 경허영.  
 106044 @ 도롱이 게니까 우장. 삼춘 우장도 헤 밥디가?  
 106044 #1 안 해봐서 우장은.  
 106044 @ 웃음.  
 106044 #1 거 써, 써보긴 헛주마는,  
 106044 @ 예.  
 106044 #4 써보긴 헛주마는.  
 106044 @ 우장은 어제 이영숙 어르신 그때 항상 입어난 거예. 테우리니까.  
 106044 #1 입어낫주게.  
 106044 @ 예예예, 맞수다.  
 106044 #1 그 하르방도 당신 냥으로 즐진 못해나서.  
 106044 @ 음. 즐지는 안 하고예?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106044 #4 우장은 으끈덴 허주.  
 106044 @ 우장은 으끄는 거예? 으음. 잠깐만예?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삼춘, 여기서 헤먹어난 밥 종류 뭐뭐 잇수과?  
 107001 #2 보리밥.  
 107001 @ 예.  
 107001 #2 조팝.  
 107001 @ 예.  
 107001 #2 그자 주로 그거주. 옛날에. 보리밥 조팝 기령 살아져. 사는 집이라사  
 보리밥 조팝도 떡곡. 경 아년 집은 보리밥 조팝도 엇어.  
 107001 #1 힘들어.  
 107001 #2 힘들어.  
 107001 @ 예.  
 107001 #2 농사가 지영 허민이 이제 잘 뉘면 식구가 먹어날 수가 잇고. 옛날은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민 그 보리가 나면 요멘치 나근엔에 웨쌀오리라  
 고 헤여. 영허영 멧 알 현 것ㄴ라는. 웨쌀오리보리 무시거 날 거 잇어. 조도 갈면  
 이제 다 지미 저버리고.  
 107001 @ 음.  
 107001 #2 무시거 헤영은에 잘 못헤먹으니까. 옛날은 잘도 살아나기가 어려워.  
 107001 #1 병해충 방젠 못헤버리니까 옛날은.  
 107001 @ 예.

107001 #2 도저히 가근에 허는 거는 이제 보리라도 갈면은 노랑허게 죽어가. 이 만씩 헐 때부터 죽어가면은 강 주는 거엔 현 건 불치.

107001 @ 예.

107001 #1 오줌.

107001 #2 불치. 소변 받아다가 허벅에 질영 가서 졸락졸락 주고. 그것이 거름.

107001 @ 예.

107001 #2 경행 살아서.

107001 @ 경 행예?

107001 #1 비료가 없어 놓니까 옛날에.

107001 #2 경허고, 돼지 질루면 그 돼지 똥이여 하간 거 그디.

107001 #1 퇴비.

107001 #2 거름도 허젠 퇴빌 멘들젠 헤도 보리가, 보리 조가 없으니까 퇴비 만 들 수가 없어어.

107001 @맞아예?

107001 # 경허민 혼 방울 해당 거 지치는 체 허민 돼여게.

107002 @ 웃음. 맞습니다. 그 밥, 쌀 종류는 어떤 거 잇어마씨?

107002 #2 쌀 종류는 옛날은 보리쌀, 좁쌀 그자 그거 허곡. 곤쌀엔 현 것도 잘 어렵주게. 옛날 이제 갈산디엔 허여.

107002 @ 갈산디?

107002 #1 산디쌀.

107002 #2 산디쌀.

107002 #2 게민 밥허민 그냥 짝 허민 뿌릴 정도. 풀이 안 부떠. 겨곡 이제 ㄴ짜 다끄고 다끄고를 못허지. 방에, 맷돌에 강 흐뎡 허영 오면은 고대로 까다 ㄴ근에 허 민 밥이 돼여?

107002 #1 지금 저 무신 쌀. 거 덜 까끈 것ㄴ라.

107002 @ 현미.

107002 #1 으, 현미.

107002 #2 그렇게 헤서.

107002 #1 현미로 그냥 먹었으니까.

107002 @ 음. 옛날도예?

107002 #2 경헤영 그런 것도 먹지도 못허고. 먹지도 못허었는데 제스 때나 쫘 갈앗다가 제사 때나 먹주, 츠나룩이나 갈민 것에 서끄면 조뎡 이제 풀이 나서 먹을 수가 잇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산, 아주 살아온 후제 이 제국시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안량미쌀이라고 거 들어완.

107002 @ 예.

107002 #2 그거 쫘뎡 서건.

107002 @ 예.

107002 #2 것도 사는 집의가 서꺼 먹었지. 경 아녀민 보리쌀에 좁쌀. 주로 그거.  
 107002 #1 그것에 감저.  
 107002 @ 감저 서경예?  
 107002 #2 콩이나 갈면 이제 그걸로 허영 맷돌에서 곱아가지고 곱 디도 엮어.  
 맷돌에 곱앙. 콩국이라고 헤여. 게민 감저 썸 농곡 그거 혼 직 거러먹고.  
 107002 @ 음.  
 107002 #1 순두붓국이주. 콩국은.  
 107002 @ 게메, 우리 제주 콩국 맛좋아마씨.  
 107002 #2 경헌디 맷돌에서 막 훌게 발발발발 이제거썸 순두부허게시리 허여서  
 게. 기냥 영영 곱민 ㄱ름이 무살무살무살무살 허민 입에 놔도 무살무살무살 잘 안  
 돼여.  
 107003 @ 웃음. 맞수다. 삼춘 그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파?  
 107003 #2 보리쌀을 엮날에는 이제 돌팡에가 잇어낫지. 돌팡에 잇어나니까.  
 107003 #1 연자방아이.  
 107003 @ 예. 연자방아.  
 107003 #2 연자방아 헤영은에 사름 맷 개 허영은에 강 막 돌려. 맷돌을 영 허영  
 사름 맷 개 헤가지고. 요초록 허여가민 요초록 즈룩이 돌으민 이제 그거를 물 메왕  
 도 그거를 지고.  
 107003 @ 예.  
 107003 #1 쉼메왕도 허곡.  
 107003 #2 쉼메왕도 지곡. 그 맷돌을 다, 맷돌을 돌리는 거주게.  
 107003 @ 예.  
 107003 #2 이녀 힘으론 못허니까 돌려다가 이제 널엇다가 이제 그거 몰르면 맷  
 돌에다가 곱아.  
 107003 @ 으음.  
 107003 #2 곱아근에 허민 이제 슬우리, 슬보리쌀은 곱, 곱아도 먹을 수가 잇는  
 디 것보리엔 현 것이 또 잇어.  
 107003 @ 예.  
 107003 #2 것보리는 이제 겹테기 막 바짝 부튼 거. 지어도, 곱아도 그 줄거리가  
 이렇게 부떠 잇어.  
 107003 @ 예.  
 107003 #2 그거 허영 밥허면은 쫄강쫄강쫄강쫄강쫄강.  
 107003 @ 웃음.  
 107003 #2 슬보리가 중간에 나왔어.  
 107003 @ 음, 처음에는 것보리라낫구나예?  
 107003 #1 것보리.  
 107003 #2 것보리. 것보리엔 허곡 즐보리엔도 허곡 두 가지주.

107003 #1 줄보린 그 맥주맥을 말허는 건디.  
107003 @ 예.  
107003 #2 술 만드는 거.  
107003 #1 맥주맥을 말허는 건디 내중에 거 일본놈들이 개량종으로 나온 거고.  
107003 @ 음.  
107003 #1 개량종으로.  
107003 #2 것보리.  
107003 @ 옛날은 줄보리 것보리.  
107003 #2 것보리가 질.  
107003 #1 것보리, 것보리.  
107003 #2 그거 헤다가 또 이제 좁쌀이나 있으면 허린좁쌀이렌 현 게 있어. 개  
발시리라고.  
107003 @ 예.  
107003 #2 영허영 조코고리가 피면 영 쾀쟁이 까릿까릿 요렇게 해서.  
107003 #1 개발ㄴ치 이렇게 허주게.  
107003 @ 예.  
107003 #2 개발시리라고 요러콤 웨여. 이젠 그거를 헤다가 이젠 도께로 그걸 고  
고릴 뜯어다가 이젠 비여 놓고 고고리 강 영 툷는 거라.  
107003 @ 음.  
107003 #2 툷아다가 이젠 옛날은 맥에, 맥엔 현 거 있어. 하르버지덜 즐은 거.  
맥에 이제 저다가 마당에 날어가지고 막 두드려.  
107003 #1 도께질.  
107003 @ 도께질.  
107003 #2 도께로 허연. 이젠 도리께엔 허주.  
107003 @ 예예.  
107003 #2 이제 도리께엔 허주. 두드령 그걸 허영 이젠 푹 물류는 거라. 그걸.  
쌀 나온 거를. 쌀 나오면 또 돌팡에 강 지는 거라.  
107003 @ 음.  
107003 #2 그 껍질을 벳길라고. 경 허영 그 개발시리엔 현 건 또 헤영 또 보리  
쌀에 서끄민 막 맛이 좋는데, 또 그디 모인좁쌀이 또 있어.  
107003 @ 예.  
107003 #2 그 죽 썬 먹고 이젠 그거 잘도 비싸.  
107003 @ 예, 맞수다. 이젠예.  
107003 #2 그거 옛날엔 허영은에 옛날에 서경 게삭지긴 헤도 그런 것도 엇어서  
못 먹엇어.  
107003 @ 예. 맞습니다.  
107003 #2 경헨 살앗어.

107004 @ 웃음 음. 반지기밥은 뭘 반지기밥 현 겨우과?

107004 #2 아, 반지기는 쌀도 놔근에 쌀에 보리쌀에 놓민 반지기.

107004 @ 음.

107004 #2 또 쌀에 또 좁쌀을 놔도 반지기.

107004 @ 음.

107004 #2 거 영 서끄면 반지기.

107005 @ 음, 서끄른 반지기. 흰밥은 우리가 곤밥이렌 허는 거?

107005 #2 곤밥.

107005 @ 곤밥은 언제 먹는 거?

107005 #1 제사 때.

107005 #2 제사 때나 먹주.

107005 #1 멧질 때.

107005 #2 멧질 때.

107005 #1 씨집갈 때 장계갈 때. 아아.

107005 #2 옛날은 계란도 엇언 못 먹엇어.

107005 @ 예. 맞습니다.

107005 #2 경허연. 이제난 계란도 널어지고, 하간 거. 밀가루. 중간에 내가 어린 적에[찌게] 어디 간 보난 목을 이젠 지정 준 것이 어떠한 헤양헌 게 기냥 막 맛잇어. 아이고, 무신 목인고. 이렇게 보리쌀 그 곶아근에 허민 계삭계삭 목 지지민 맛이 엇어났는디 아, 요거는 헤영헌 거 주니까 요치록 헨 두 점을 주는 거라. 뭐가 이렇게 맛신고? 그, 여기서, 밀쌀.

107005 @ 예.

107005 #2 밀쌀 헨 곶안 쫘 나와졌어. 그거 허연 허니까 이제 그렇게 맛 좋안. 그 다음에는 밀ㄱ루가 많이 들어와서 먹고 살았지.

107006 @ 으음. 조팍은 어떻허여마씨? 조팍헐 때는?

107006 #2 조팍만은 옛날은 그자 주로 조팍만 거 돌팡에 강 저당은에 이제 막 푸는체로 퍼.

107006 @ 음.

107006 #2 그거를 막 퍼가지고 이제 쌀 내와근앵에 그거 자꾸 봐야 허여. 멧돌에서 돌리민 후허게 불어보민 다 까지면은.

107006 @ (웃음)

107006 #2 체를 이제 풀어놓고 거기서 푸는 거라. 그 방엿간에 현 거 잇어나서. 이보단 꼭. 경 방엿간에서 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젠 그 체 잇어이. 체엔 현 건 이젠 답아다가 돼지 주는 거.

107006 @ 음.

107006 #2 또 좁쌀은 헤다가 사람이 먹고. 경 허민 밥 허민 조팍만 허민 조팍,

107006 @ 예.

107006 #2 모인좁쌀밥만 허민 모인좁쌀밥.  
107006 @ 음.  
107006 #2 이제 보리밥만 허민 보리밥.  
107006 @ 조팍 저기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돼마씨?  
107006 #2 아 기냥 물 팔팔 끓어가든 이제난 싹엇주. 그젠 물도 엇언 못 싹엇어. 고대로 그자 놔근에게 (웃음) 기냥 허고 먹어서.  
107006 #1 쌀밥허듯게 물 맞창 그냥.  
107006 #2 쌀밥허듯.  
107006 @ 아, 찻지도 안 허영예?  
107006 #2 아니 그자 불살라 놓고 그 가마솥데, 가마솥 쪼그만 헐 거 잇엇어.  
107006 @ 예예.  
107006 #2 그런 것에 밥허영 이제 뉘여 가민 그 남술엔 헐 거 잇어이.  
107006 @ 예.  
107006 #2 낭으로 만든 거.  
107006 #1 주걱.  
107006 #2 첫어보면서 주걱 첫어보면서 이제 뉘엇으면 뜸들이민 그것이 그렇게 맛 좋은 거 그때는.  
107006 @ 예, 이제도 맛 좋은 거 다텔마씨.  
107006 #2 맛 좋아.  
107006 #1 배불리만 먹어지민 그뎨 다 맛 좋은 거.  
107007 @ 예. 그렇게 하고. 혹시 풋밥도 험니까?  
107007 #2 풋도.  
107007 #1 수메.  
107007 #2 그 순메라고. 좁쌀에.  
107007 @ 예.  
107007 #2 개밭시리 팻을 삶, 삶다가 이제 좁쌀을 놔서 밥을 지으면은 그렇게 맛좋은 수가 없어, 그때는.  
107007 @ 으.  
107007 #2 잘도 맛 좋아.  
107007 @ 조에 풋에 낭예?  
107007 #1  
107007 #2 팻죽이라고 있어. 모힌좁쌀을 놔서 죽 쉰근엔에 이제거찌 주물러가지고 죽 쭈민 그렇게 맞셔.  
107007 @ 아, 그 풋죽에, 풋죽허는 거 한번만 더 곶아줍서?  
107007 #2 팻죽. 어떻허민 팻 삶다다 모인좁쌀 그 노랑좁쌀 그거를 부어놓곡이젠 막 끓이는 거라.  
107007 @ 예.

107007 #2 그디서 푸달푸달 허여가면 걸 떠서 먹어.

107007 @ 그게 풋죽예 옛날에.

107007 #2 풋죽.

107007 @ 쏘이 옛이난.

107007 #2 쏘이 옛이난게.

107007 @ 옛날에 좁쌀로 현 거라예?

107007 #2 팔죽이라 현 건 곤쫄로 이제 쭈는 거는 어디 사둔칩의나 상이 나가든. 상이 나면 허벅에 막 썬가. 그런 때나 이제 좀 먹었지. 옛엇어.

107007 #1 흰쌀엔 현 건.

107007 #2 흰쌀엔 현 건 도저히 옛어.

107007 @ 집에서 풋죽허는 거는 좁쌀에 현 거다예.

107007 #2 우리 커올 적에는 경 현 자랐어.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사태에 열다섯에 내려갓지. 저 삼양을.

107007 @ 예.

107007 #2 내려가서 멘촌서 열다섯에 내려간 살았는데 주로 그자 팻허고 주로 좁쌀. 경 아녀민 보리 그거 콩. 그거 갈안 그거 세 가지, 네 가지로 먹고 살았어.

107007 @ 음.

107007 #2 게난 건 또 아무 디도 옛어.

107007 @ 아까 삼춘이 순메허던데. 순메?

107007 #2 으.

107007 @ 순메?

107007 #1 수메.

107007 #2 순메는 밥 그 허다가 이제 팻이 딱딱허면은 이젠 그 순메를 삶아가 지고 걸 그레 집어놔.

107007 @ 음.

107007 #2 경허영 영 서끄민 순메밥.

107007 @ 아아.

107007 #2 풋순메밥.

107007 @ 풋순메밥허는 거예?

107007 #2 응, 콩순메밥. 콩순메엔 현 건 콩도 빨간 머드레라고 헛어.

107007 @ 머드레예?

107007 #2 응, 머드레 허여근앵에 조팻디 영 농왕 이제 그거 막 맛있어. 게민 그거 허영 까냥은에 콩밥. 콩순메밥. 콩순메 낱 해서 먹어.

107007 @ 아아.

107007 #2 팻순메 낱 해서 왕 밥 먹어.

107007 @ 밥도 순메렌 허는구나예? 떡 저기 송편에 속에[쏘게] 담은 것도 순메렌 허지 아녜니까?



107007 #2 음음.

107007 @ 으, 그거를.

107007 #1 서트는 건이. 밥에 지금 예를 들었 우리가 밥 하면서 이 콩 같은 거 나 뭐 잇잖아. 걸 놓는 거, 수메 놓는 거.

107008 @ 아아, 여기는 걸 수메 놓는 거엔 허여예? 그 다음에 흑씨 여기 피밥도 여기도 피도 먹어신가마씨? 이 동네.

107008 #2 저 남군더래.

107008 @ 예, 송당 이런 교래리는 피밥허영은에 먹엇던 피방에 허영.

107008 #2 먹어나긴 해도. 이제 나도 몇 번 먹어나긴 헛는디 여기는 안 지어.

107008 @ 아, 예. 피밥 먹어나긴 헛구나예?

107008 #2 으.

107009 @ 감저밥은 어떻허는 거우파?

107009 #2 아, 감저밥은.

107007 #1 감저 수메 놓으면 감저밥.

107009 #2 어떻헤신고 허민 감저 삶다가 이젠 좁쌀을 넣으는 거라, 그레. 좁쌀이나 보리쌀이나 낱 이제 짓이민 감저, 즐게 썰어 놓면 이제.

107009 #1 수메.

107009 #2 수메.

107009 @ 예.

107009 #2 또 흑게 막 이만큼 썰어놔근에 즐 엇인 때난 그뻬 감저가 주로 잇엇 주게. 경허민 감저 낱 쌀 조금 놔근에 뜨멍 먹어.

107009 @ 아까 삼춘, 그러면 감저밥헛 때 감저를 먼저 치당 좁쌀을 놓는 거우과? 좁쌀 허영은에?

107009 #2 같이같이 놔도 돼고.

107009 @ 예.

107009 #2 이제 주로 감저 흑게 썰면 이제 감저를 먼저 놓고 잘게 썰민 같이 놓곡.

107009 @ 음.

107009 #2 그렇게 헤여.

107009 @ 좁쌀을 먼저 낱 감저 놓는 거는 아니구나예?

107009 #2 으.

107009 @ 아아.

107009 #1 익는 걸 바란스 맞추기 위해서.

107009 @ 예, 예.

107009 #1 익는 걸 바란스 맞칭.

107009 @ 쟁은에 감저 놓은 거를 감저수메밥이렌 허곡 감저밥이렌도 허곡.

107009 #2 감저밥.

107009 @ 예.

107009 #1 예를 들어서 지금 쌀밥들 다 허고 잇주마는 거기에 콩을 놀라면 지금 마른 콩 넣으면 콩이 잘 안 익거든.

107009 @ 예.

107009 #1 계란 미리서 그걸 물을 우찌던가 삶던가 해 낫던가 이제 같이 쌀허고 놓으면은 이제 똑같은 밥이 되는데, 게 익이기 위해서 어느 거 먼저 넣는다. 차례, 순서는.

107009 @ 예, 아까 순메 허는 거는 미리 삶아 놔둔 거를 영 서끄는 거우과?

107009 #1 것도 익이기 위해서.

107009 #2 익이기 위해서. 어느 거 먼저. 이제 콩이나 팟이나 헤도 딱딱허민은 같이 낱 안 익어.

107009 @ 경허니까예. 계란 미리 이제 익영 놔뒀은에.

107009 #2 삼다가 이제 좁쌀 넣어봐도 되고 보리쌀 넣어봐도 되고.

107009 @ 음.

107009 #1 잘 안 익으니까. 얼마간 반 이상 익여 낱 놓면은.

107009 #2 그것이 팟 물 우뜨는 거는 같이 봐도 되고.

107010 @ 예, 예, 물 우땡 현 거는예? 여기 늪뼤 밥에 늪뼤도 낱 헤봄디가? 늪뼤밥?

107010 #2 늪뼤밥게.

107010 @ 아, 늪뼤밥도 허연예? 건 어떻 허는 거?

107010 #2 기냥 쌀에라도 같이 농곡, 농곡 같이 놔.

107010 @ 으.

107010 #1 채 썰어놔.

107010 #2 같이 놔서. 험 범벅엔 현 것도 잇어이. 범벅은 메밀 ㄱ를이라고 메밀 ㄱ를레 이제 무 썰어놓민 이제 범벅.

107010 @ 음.

107010 #2 범벅허영 영 것영.

107010 @ 음.

107010 #1 감저나.

107010 #2 아무 거라도.

107011 @ 예예. 여기 툷밥도?

107011 #2 툷밥은 여기는 우리는.

107011 @ 안 먹어봐?

107011 #2 해변서는 잘, 우리 먹어나긴 헛는데.

107011 #1 워낙 어려와놓니까. 워정 때.

107011 # 해변서는 먹고. 이제 해변 느려간 후젠 우리도 멧번 헛 먹기도 헤였는데. 여기 완은 우린 그다지 또.

107011 @ 가난허진 안 하니까.

107011 #2 가난허진 아녀게 옛날 나 어린 때부텀도 가난허겐 안 살았으니까. 놈 먹는 거 뭐 벨로 먹어보진 아녜고.

107011 @ 툇밥은 어떻 식으로 헙디가?

107011 #2 툇밥도 같이 낱 짓으면 돼여.

107011 @ 툇밥도?

107011 #2 으, 툇을 어떻헌가 허민 툇을 이제 므른 거는 물 우떠갓다가 막 빨아서 놓고, 짓은 거는 삶아근에 시쳐뒤서 놓고 그래.

107011 @ 음. 경혜영 ㄱ치 낱은에 밥 허는 거라예?

107011 #1 음. 잘 썰어알 거. 잘 썰영 놓지 았으면 안 웰 거라. 기니까.

107011 #2 어떻 혜신고 허민 복작 썰영은에 놈서 발발발발 혜영 익어가면은 뒤 집으는 거라. 짓영. 그거 남죽이라고 헌 거 밥주걱, 밥주걱으로 영 짓으면 골로로 이젠 서꺼지니까, 여기 서꺼놓고, 이제 쌀이고 그거 다 익으면은 두께를 딱 더프는 거라. 더펏다가 뜸 들면 거려낱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웃음. 흥번 맛있어.

107011 @ 삼춘은 맛있덴 허는데 사람들은 맛 엇덴 헙디다. 웃음.

107011 #1 웃음.

107011 #2 것도 잘혜야 맛있어.

107011 @ 예예예, 요즘은 영양식으로도 툇밥 헌덴마썸.

107011 #2 맛있어.

107011 #1 똑 같은 재를 가지고 이 집의서 하고 이 집의서 하고 허면은 맛이 ㄱ뜨는 사름도 있고 틀리는 사름도 있고.

107011 @ 예, 맞아 어떻게 허느냐에 따라서예.

107011 #1 손맛이엔 허주. 그걸. 쉽게 말허민.

107012 @ 맞습니다. 폐밥도 옛날 헛덴 헙니까?

107012 #1 폐, 녀폐?

107012 #2 폐, 폐밥이 그거 너미 까라와가지고이, 까다로와. 까락까락허주게. 것이.

107012 @ 으, 옛날 막 송년들 때덜예?

107012 #2 송년들 때 헛 먹엇덴은 허는디, 나도 놈 헌 거 흥번 간 얻어먹어봐서. 혜변 느려 간 때. 주로 우리 내려가서 집 빌어서 사는 집의가 조금 어려운 집의야. 거기 거 좀 얻어 먹고. 옛날에는 밀주시도 먹고 살았는데, 여기 씨집을 오란에 허난 여디도 여기도 먹언 사는 집의야. 사는 집이난 워낙 놈덜이 이젠 먹어가니까.

107012 #1 먹어가니까

107012 #2 저 집은 밀주시를 안 먹으면. 이제 쫄이 핫다고.

107012 @ 허카부덴.

107012 #1 바란스 맞추기 위해서.

107012 #2 밥을 허난 느시 먹을 수 없으니까.

107012 #1 떡.  
 107012 #2 떡 만들안 먹어나고.  
 107012 #1 췌기떡이엔 허는디. 저 무신 육지서 ㄱ뜨민 개떡이엔 헐 건가.  
 107012 @ 예예. 손으로 꼭꼭 즈앙예? 게영 췌기떡.  
 107012 #2 옛날 살아난 난 생각허민.  
 107013 @ 삼춘 국은 어떤 국덜 헐 먹엇수가?  
 107014 #2 주루 옛날은 녹물을 갈아이.  
 107014 @ 예.  
 107014 #2 이 우영팻 이시면 녹물 갈민 그거 허여근에 주루. 그자 웬장 듬앗다  
 가 콩은 가니까.  
 107014 @ 예.  
 107014 #2 소곰도 엇영 담을 수가 엇어. 경 해도 어떻 해근에 못 사는 집의 것  
 도 없어. 우리 간장 웬장 잃어버려나서.  
 107014 @ 으음, 옛날은 막 경 헛텐예?  
 107014 #2 경 허영, 경허영 그거 해 놓앙 무신 그때는 영 허는 거 보민 영 어떤  
 집의 강 보면 웬장 병탱이 헤다가 이제 향에 익을 동안도 못 찹거든.  
 107014 @ 예예.  
 107014 #2 떠다가 숟가락으로 떠다가 그대로 그자 영 먹고.  
 107014 @ 으음. 반찬으로예? 예.  
 107014 #2 그 전엔 짐치도, 고치에도 잘 없으니까 짐치도 또 헤영헌 백짐치라고  
 해서. 안 놓니까 백짐치야.  
 107014 @ 예예.  
 107014 #2 이젠 뭐 그거 논다 저거 논다 허영 먹주마는. 녹물도 이제 녹물이 없  
 어. 옛날 들머귀라고  
 107014 @ 들머귀?  
 107014 #2 들머귀는물이라고 해서. 이만씩 질어. 시커멍허곡 거. 게도 맞은 잇  
 어.  
 107014 @ 예.  
 107014 #2 그런 거 갈앙 국도 끌여 먹고 주로.  
 107014 @ 그게 영양가가 더 실 거우다.  
 107014 #1 아, 지금은 방송에도 허는 디 검푸른 거.  
 107014 @ 예예.  
 107014 #2 그거.  
 107014 #1 지금 요 중간에 이 담배녹물엔 현 거.  
 107014 @ 예.  
 107014 #2 국 끌이른 맞은 잇어.  
 107014 @ 예. 담배녹물하고 그거 하고. 콩나물도 국 헤마씨? 여기서도?

107014 #2 으음.

107015 @ 콩나물은 이 동네서는 뭐렌 험니까?

107015 #1 콩나물.

107015 @ 콩나물. 콩주름이렌 말은 안 해?

107015 #2 “콩주름 난?” 난 게민. “흐끔 줘.” 경허민 “왕 뽕아당 먹어”. 향아리에 영 놓민 왕 뽕아다 먹어.

107015 #1 콩주름은이, 뭐이고 콩나물은 표준어고.

107015 @ 예, 콩주름예? 그걸로 이제 국도 행 먹곡.

107015 #2 옛날은 주로 콩나물.

107015 @ 콩나물로예. 콩주름 낳은에 콩나물 행 먹는 거라예? 것도 식게 때나?

107015 #2 식게 또 기냥 때에 먹젠 허민 것도 콩도 같아야.

107015 @ 예.

107015 #2 경 아무 집의나 콩도 없어.

107016 @ 맞수다게. 예. 늣뽕국도 하영 해서예?

107016 #2 아, 그것이.

107016 @ 늣뽕국을 하영 먹어수가? 나물국을 하영 먹엇수가?

107016 #2 어평혜신고 허민이, 그땐이 늣뽕 이제난 늣뽕도 하주. 늣뽕도 없었어.

107016 @ 아, 주로 들머귀에 나물국이구나.

107016 #2 으, 주로 이제난 유채나물이며, 늣뽕여 부루여 상추여 베라 벨 거 잇주만 부루엔 현 거 꼬작꼬작현 거 잇어나긴 잇어나서.

107016 #1 이 저 우리 커 올 때만 해도 요즘 배추가 아니고.

107016 @ 예.

107016 #1 뭐 일본서 그 개량 배추가 들어와서 하쿠사엔 뭐니 해서 헛지. 이 들머귀 그냥.

107016 @ 예.

107016 #1 그건 아무 디나 해도 크니까.

107016 @ 예.

107016 #1 이 저 개량 배춘 지금 그 속 앓고 뭐허는 건 여기서도 저 삼양이나 돼주. 여기는 안 돼는 걸로 알아.

107016 @ 아.

107016 #2 삼양, 안 돼는 걸로 알앙 갈민 텔 것인디.

107016 @ 안 헨예?

107016 #1 몰라서.

107016 #2 어둡으니까 여기서는 들머귀나물만 갈민 돼난. 삼양 가근에 이제 멧.

107016 #1 멧 밭.

107016 #2 밧덜 막 모든 사름이 가서, 이제 밧을 하나 이젠 그 나물밭을 사는 거라. 게민 멧 밭. 나 다섯 밭 사서, 너 밭 사서, 경행 이젠 것에 무신 옛날은 하고

짬이여 무신 거여 해낫주마는 그 배추늬물을.

107016 @ 예.

107016 #2 갈아근에 배추도 늬물이랏자 이제 ㄴ찌 속도 안 앓아.

107016 @ 음.

107016 #2 속얏게 킵질 못허거든.

107016 @ 으음.

107016 #2 막 좃게 허민 이제난 거름이여 팍팍 놓주마는. 이 이디서 삼양 오즘 허영 영허영 정 강 흐끔씩 주민 뒤여게.

107016 @ (웃음) 으음. 정 허영 퍼데기로예?

107016 #2 응, 퍼데기로 해도 짐치 경해도 맛있어.

107016 @ 예.

107016 #2 퍼데기도 집의 왕 잇으면 이제 물도 많이 들곡 이제 소금도 많이 들고 허니까.

107016 #1 바다에.

107016 #2 주로 바다에 강 잇어. 바다에 강 담가둬서 잇으면은 반은 절여져. 게민 정 와가민 옷은 문딱 젓어.

107016 @ 맞수다.

107016 #2 비니루도 하간 거 잇주만 정 무신 구덕에나 행 저와가민 물이 잘잘 잘잘. 경허영 이젠 소금, 소금에 당갓다가 이젠 허민 소금 죽영 들구.

107016 @ 예.

107016 #2 이제도 경 험시든 또 짐치도 맛 이실 거라. 짬물에다가 허영 허민.

107017 @ 이제 경하고. 콩국 끓이는 거 곴아줍서. 아까 콩국 하영 헤영 먹엇덴 헨게마는.

107017 #2 콩국은 어떻 허여. 콩 이제난 기계에 강 곴아던 허민 게민 맛있엄주마는 맏돌에다가 돌려가지고 이젠 그거를 물에 타는 거라이.

107017 @ 음.

107017 #2 얼마 이제 흔 멧 사발이민 콩ㄴ를이 멧 손가락 놔가지고 영 타.

107017 @ 음.

107017 #2 탕 이제 물이 삭삭 췌여가면. 물 싹싹이 뭐인지 알아?

107017 @ 예, 팔팔.

107017 #1 팔팔.

107017 #2 팔팔 끓여가면, 옛날말로만 곴아.

107017 @ 옛날말만 곴아줘야 뒤여예.

107017 #1 ㄴ레도 돌ㄴ레. ㄴ레엔 곴아살 췌.

107017 @ 맏돌에 곴안예?

107017 #2 돌ㄴ레에 곴안은앵예.

107017 #2 돌ㄴ레에 흐끔 물 등강 놔두민 것이 물 울어.

107017 @ 예.

107017 #2 물 옮겨가민 물 꿰울 동안 헛당 그거를 영 비와놔. 비와놓민 이젠 거 농곡 소곰 흥끔 놓민 두부거치 올라와. 경허민 그땐 이젠 느물이나 뭐 놔서 이제 소곰 농곡 이렇게 놓고.

107017 @ 으음. 그 콩국 막 좋은디.

107017 #2 끌렁 먹어. 그러면.

107018 @ 웃음. 예. 호박입국도 헤영 먹었지예? 호박입국은 어땜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7018 #2 호박입국도 이제 어땜 헤신가 허민 호박입 뜯어가다 그 우의 썰이 잇어.

107018 @ 예, 예.

107018 #2 그거를 영 뱃겨두고 이제 물에다가 영 팍팍 이젠 주물러. 주물렁 이젠 팍팍허게시리 문질러농곡 이젠 물을 팔팔 끓이는 거라. 끓여가지고 이제 저 그 거를 집어놓고, 집ㄴ를이라고 헤여.

107018 @ 예, 집ㄴ를.

107018 #2 보리ㄴ를이라도. 잇어근에 물을 타서 영 서꺼. 그 저 물 꿰는 디레 영 주룩허게 비와놔근에 영허영 짓이면 그렇게 맛 좋아.

107018 @ 으음.

107018 #2 풀풀, 풀풀.

107018 @ 예, 풀풀허영예. 게 그 호박입국은 무신 걸로 간헤여마씨?

107018 #2 아, 소곰.

107018 @ 소곰으로 다.

107018 #2 간장 이시면은 간장허지마는 그땐 간장이 없으니까. 소곰으로 주로 허연.

107018 @ 요즘은 호박입할 때 뭐로 간헬수가?

107018 #2 간?

107018 @ 예.

107018 #2 소곰도 허고 또 간장, 간장.

107018 @ 음, 뭐가 맛 좋아?

107018 #2 간장이 맛 잇어.

107018 @ 간장이 맛있어마씨?

107018 #2 콩국에는 소곰이 맛 좋는다 이 간장이.

107019 @ 아, 호박입국은 간장이 맛중구나예? 알아수다. 여기 뭉국도 하영 헤떡 지예?

107019 #2 뭉국은 우린 춤 옷드르라부난 아녕 먹어봤주마는 먹기는 먹었는데 이젠 그것도 꼭같이 끓여. 물 팔팔 끓여가면 아니, 요즘에는 그 빼다귀덜이, 딸려서 끓여먹는다 옛날에는.

107019 #1 빼다귀가 어딴어.(웃음)

107019 #2 놓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물 팔팔 끓여가민 그 춤 사다가 뜯어다가 이젠 들류와. 햇빛에 들리왔다가 이젠 막 걸 주물러 빨아. 빠는 건 영 주물러근에 백는 거. 영 건정 짜. 짱 이젠 도마에서 막 썰어. 썰어가지고 물 팔팔 끓여가민 이제 저 거를 솟디에다가 집어놔.

107019 @ 음.

107019 #2 집어놓고 또 보릿그를이라도 영 서끄면 흐뭇 것도 폴폴 경 허영 맞 있어.

107019 @ 음, 도마렌 험니까? 무시건렌 험니까?

107019 #1 돔베.

107019 #2 돔베.

107019 @ 돔베에 낱 썰어예?

107019 #2 돔베칼.

107020 @ 돔베칼허고예? 생선국. 여기는 저기 옥돔을 생선이렌 험니까? 여기는 오토미험니까?

107020 #2 그자 생성이엔도 곤고 오토미엔도 곤곡. 오토미는 옛날에는 영허영 넘삭헌 게 오토미고.

107020 @ 예.

107020 #2 영 이디 뭐 질쭉헌 게 생선이엔 햇주게. 건디 이젠 아무 거라도 생선이엔 허곡 오토미렌 허대.

107020 @ 음, 게난 옛날 옥돔게, 옥돔은 여기서는 뭐렌 헤마씨?

107020 #2 요즘예?

107020 @ 옛날예.

107020 #2 옛날예.

107020 @ 으.

107020 #2 게메 옛날에는 옥도미엔도

107020 #1 오토미가 생선.

107020 @ 오토미엔. 이 동네는 오토미?

107020 # 오통생선국 끓여서 오랑 먹어.

107020 @ 오통생선국?

107020 #2 미역 빨아놔 오통생선국 끓여서 왕 먹어봐.

107020 @ 으음. 그거는 어느 철에 어느 때 먹는 거우과?

107020 #2 것도 경 아무나 먹어져? 식게 때나 제사 때나 멩질 때나.

107020 #1 웃음.

107020 #2 웃음.

107020 @ 오통생성은 메역 낱은에 헤야예?

107020 #2 메역 낱.



107022 @ 아, 메역 놔야 맛 좋은 거구나, 그거는. 그리고 냉국덜도 하영 먹어실 거 아니라예? 뭘로 해서 냉국 험니까?

107022 #2 그젠 그 톨 잇지이?

107022 @ 예, 예.

107022 #2 톨.

107022 @ 톨.

107022 #2 그거다가 이제 우리는 바닷가에, 맨촌이나 바닷가에 사니까 막 나 어 린 때에.

107022 @ 예.

107022 #2 이제 그거 뜯어다가 물러가지고, 거 빨아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웬 장 풀어놔 이제 냉국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107022 @ 음.

107022 #2 이제도 해뽕 먹어봐 맛있어.

107022 @ 예. 초나 줌 놓고예.

107022 #2 옛날은 식초도 없으니까 이제 밥 허여 가지고 누룩 놓고 이젠 단지에다가 이렇게 담양 놔두면 부각부각 막 퀘여와. 이젠 먹지도 안 해. 경 허민 그디 벌레가 퀘여이.

107022 @ 예.

107022 #2 벌레가 퀘면은 이젠 그거를 영 헤쳐두고 그렇게 맛있어 식초가.

107022 @ 예, 누룩으로예?

107022 #2 경허영 만들양 그거 먹곡.

107022 @ 음.

107022 #1 또 물웨, 춤웨, 춤웨도 좋고.

107022 #2 춤웨냉국?

107022 #1 춤웨냉국 안 해서 무사?

107022 @ 춤웨냉국예?

107022 #1 이제도 맛있어.

107022 @ 춤웨로도 냉국해예? 춤웬 어떤 식으로마씨.

107022 #1 돌아.

107022 @ 익은걸로?

107022 #2 익은 것도 맛있고 선 것도 맛있고.

107022 @ 예.

107022 #1 싹허게 거세기 가까가지고 씨 딱 빠지고 딱딱 썰어가지고 냉국 해봐 이제도 맛있어.

107022 @ 아아.

107022 #1 물웨허고.

107022 @ 춤웨냉국 허는구나예?

107022 #2 춤웨냉국도 해영 먹고 물웨냉국도 허영 먹고. 냉국 못허는 게 없어 그건.

107022 @ 누물로도 허고, 메역도 허고.

107022 #2 냉국 못허는 게 있어. 아무 걸로라도 허민 냉국이 돼여.

107022 @ 삼춘네는 주로 허는 게 아까 이제 툄허고?

107022 #2 툄허고.

107022 @ 물웨허곡?

107022 #2 옛날은 물웨가 없었지. 어디 혼 밧 갈면 그디 강 사오면 그거 먹었 주. 돈이 잇엉 사먹언 저?

107022 @ 예.

107022 @ 거난 주로 이제 여름에는 물령 놔뒀당.

107022 #2 물령 놔뒀당은에게 툄냉국도 해영 먹고.

107022 #1 저장 방법이난에.

107022 #2 누물죽도 해근앵에 누물 숲아근앵게 냉국도 해영 먹고.

107023 @ 예, 그 다음에 여기 바당에서 난 성계국도. 여기 성계를 뭐렌 험니까? 이 동네.

107023 #1 쿨.

107023 @ 쿨?

107023 #2 이제야 성계국이야 하간 거 헛주. 그땐 성계국도 없었어.

107023 @ 옛날은 쿨?

107023 #2 쿨 잡앙 그냥 그자 까먹음이나 헛주.

107023 #1 까시 없이 노스르름 파르스름 현 건 숨이엔 곶아나고.

107023 @ 예, 숨이고 이거는 쿨고.

107023 #1 으. 까시가 이렇게 잇는 것은 쿨고.

107023 @ 예.

107023 #2 이젠 물똥버섯이렌 허대.

107023 @ 물똥성계.

107023 #1 말똥성계?

107023 @ 그게 표준어. 음, 그 보말국도 헤먹읍니까? 여기.

107023 #2 으.

107023 @ 그건 어떤 식으로 해영 먹어?

107023 #2 것도 그렇게. 메역 빨아 놓고 이젠 보말 까서 이젠 그냥 낱도 먹고. 이제 모살에서 잡은 거난 모살 잇지.

107023 @ 예, 예. 여기 삼양 요디 바다가예.

107023 # 주물러. 줄물러가지고 이젠 막 걸 주물러가지고 그 똥이엔 현 거 잇지. 케민 그 똥엔 모살이 경 마녀. 영 주물러가지고 따라놔. 따라 놓면 아래 모살이 많이 잇어. 경해영 메역 빨아놔 국 끓이민 맛있어.

107023 @ 메역예? 넙패로도 국 헵니까?  
 107023 #2 으.  
 107023 @ 넙패는 어떤 식으로?  
 107023 #2 넙패도. 메역국이나 똑 같아. 가시리국도 똑 가뜨고.  
 107023 @ 가시리국도 허고, 프레국도 하고?  
 107023 #2 프레국도 허곡. 못허는 게 없어.  
 107023 @ 물훼도 헤마씨? 무신 거 물훼헛수가?  
 107023 #2 물훼야 자리물훼도 오징어물훼도 잇고, 하간 거 뭐. 물훼 못 헤먹는  
 것도 엇어.  
 107023 @ 음.  
 107023 #2 요즘엔 뭐 갈치로도 헤 먹대.  
 107023 @ 갈치로예?  
 107023 #2 우리는 주로 옛날에 자돔.  
 107023 @ 자돔?  
 107023 #2 자리ㄴ라 자돔.  
 107023 @ 여기에서는 자돔이렌 헤예? 아아  
 107023 #2 자돔. 가시 빼내영 가시 영 찢라네고 득가리 찢르고 송송송송 썰어가  
 지고 자리물훼 허민 그렇게 맛잇을 수가 없어.  
 107023 @ 음.  
 107023 #2 그것에다가 이제 생강 마늘이나 쫄 놓고 이제 세우리라도 줌. 새우런  
 정구지이.  
 107023 @ 네.  
 107023 #2 정구지 영 썰어놔가지고 맛잇어.  
 107023 @ 음.  
 107023 #2 갯잎도 썰어놓고.  
 107023 @ 갯잎도 놓고, 그 다음에 그 저 뿔도 놓읍니까? 췌피 이런 거.  
 107023 #2 이제난 자리물훼에는 췌피가 놔야 허는디 그전원 제피 먹을 줄도 몰  
 랐어.  
 107023 @ 예전에는?  
 107023 #2 뜯어다가.  
 107023 @ 예.  
 107023 #2 지이만 담아 먹엇지. 물웨 담아먹엇어.  
 107023 @ 아, 옛날 제피 지 담아수과? 제피지는 게민 제피지 헤? 뭐렌 헤?  
 107023 #2 제피지시.  
 107023 @ 제피지시?  
 107023 #2 으.  
 107023 @ 옛날도 제피지시 헛구나?

107023 #2 으음.

107023 @ 절에서나 이렇게 헨 게마는.

107023 #2 아니.

107023 @ 아아.

107023 #2 우리도 뜯어다가 혜영 먹어나서.

107023 @ 어떤 식으로 허는 지 곱아줍서.

107023 #2 그거는 지시 담듯. 다른 지이 담듯.

107023 @ 음.

107023 #2 장에. 간장에다가 기냥 당그민 튀는 거.

107023 @ 음.

107023 #2 이제는 짜게 안 먹어. 옛날은 조금씩 먹을라고 허지마는 이제는 다른 거 뭐 미향이나 무신 거 서꺼가지고 뭐 간장에다가 서꺼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부어놓민 튀주마는.

107023 @ 으음, 옛날 허던 방식은?

107023 #2 옛날은 기냥 간장만 비와놓곡 그냥 먹었주.

107023 @ 음, 지시혜갓고.

107023 #2

107023 @ 마놓시지허듯이예. 아아, 제피도 헛구가?

107023 #2 지시도 못 답는 게 었어.

107023 @ 음.

107023 #2 다 듬으민 지시가 튀는 거.

107023 @ 옛날은 지시 뭐뭐 답아수과?

107023 #2 마늘지허고 췌피지시허고 무수지시도 허고.

107023 @ 아, 옛날도 무수지시 혜서예? 아아.

107023 #2 무수만 이시민.

107023 @ 음.

107023 #2 몰라. 우리 전에는 어땡 혜여신디 우리 커오면서 이제 보아오건딘 그렇게만 헛으니까.

107023 @ 예, 예. 몹치시도 혜볶디가?

107023 #2 아니, 그런 건 아녀반.

107023 @ 아, 몹은 안 허고 웬장에 답아보거나 안 허고.

107023 #2 몹은 그냥 해당 국 끓여먹는 거. 웬장국 끌렁 먹는 거. 그거 혼 가지.

107023 @ 저쪽 서쪽에 가면 몹치시를 하영 먹언게.

107023 #2 거기는 못 허는 게 없어. 바당에 거 해당 다 지시도 답아먹고. 못허는 게 없대. 요새 영 텔레비에 보면.

107023 @ 여기는 몹치시는 안 혜봤구나예. 그렇구나. 아이고, 오늘 하영 혜부난 흥뽀 그만 허쿠다. 다음에 오쿠다.

107023 #2 경허여.  
107023 @ 예에, 삼춘도 버치고.

### 죽류

107024 @ 옛날 죽 했던 종류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신고예?  
107024 #2 죽 못 쓰는 거 엇주.  
107024 @ 못 쓰는 거 엇어예? 곶아볶서.  
107024 #2 콩죽이민 콩죽.  
107024 @ 예.  
107024 #2 팥죽이민 팥죽.  
107024 @ 예.  
107024 #2 또 쌀죽이민 쌀죽.  
107024 @ 예.  
107024 #2 흰쌀죽이민 흰쌀죽. 녹디죽이민 녹두죽. 또 거세기 뭐.  
107024 #1 보리, 조.  
107024 #2 못 쓰는 게 없어. 아무 거라도 쭈민 돼여.  
107024 @ 예.  
107024 #1 콩, 팥 하여간 곡식 명칭 가진 건 전부 죽을 만들 수 잇이니까.  
107025 @ 계민 하나씩 계민 이젠 새로 물어보쿠다. 그 찰죽예? 흰죽, 산디죽 곤죽 여기선 뭐렌 곶읍니까?  
107025 #2 저 기냥 쌀로만 쏘 건 옛날엔 “아이고, 곤죽 썩 주라.” 경 허영.  
107025 @ 예, 계민 곤죽은?  
107025 #2 아파가민.  
107025 @ 아파가민, 곤죽은 어떤 식으로 쭈는 건지, 뭘로 쓰는 건지 곶아줍서?  
107025 #2 쌀 싹싹 씻어놓고, 옛날은 이 육지서 안 왕 여기서 갈산디를 허기 따문에 죽 쭈도 흐뭇 물이 칼칼칼칼허여이. 그래도 것이 곤죽이라고.  
107025 @ 음.  
107025 #2 허여서 허영 허곡.  
107025 @ 음.  
107025 #2 그 다음에는 나룩쌀 들어오니까 쌀, 죽을 쭈민 맛있어.  
107025 @ 음.  
107025 #2 경허영 아무 것도 안 낡은에, 아팡 어디 머리나 아팡 머리나 아팡 누민 저 흰죽 쭈근에 먹영 뚝제와사켜. 경허여근에.  
107029 #1 패마농 썰어놓곡. 므물죽은 감기에 좋고. 패마농 썰어놔 허민.  
107029 #2 메밀죽은 패마농 썰어놓고 먹어서 폭 뚝내민 감기가 좋아.  
107029 @ 음, 계난 옛날들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집의서 다예 치료?  
107029 #2 병원이 어디 잇어?

107029 #1 자가 치료.  
107029 @ 예.  
107029 #2 우리 클 때에 애기덜 주사 놓젠 허민 주사도 엇언 나냥으로 주사 사  
당 꺾꺾 찢르멍 낫어.  
107029 @ 아이고 뭐.  
107029 #2 아방은 또 저 군인 가불고 해놓니까.  
107026 @ 음,  
107026 #2 게니까.  
107026 #@ 예. 그 다음에 이 좁쌀죽도 썰지예?  
107026 #2 음.  
107026 @ 그 좁쌀죽은 어떻게 쭈는 거우과?  
107026 #2 좁쌀 모인좁쌀이나 흐린좁쌀이나 낱 그자 고대로 쭈는 거라. 그냥 장  
도 안 놓고 허여서 옛날 지 잇잖아. 이 장아찌라고.  
107026 @ 예예.  
107026 #2 이제 장아찌엔 허지마는.  
107026 #1 지시.  
107026 #2 마늘. 콤데산이 마늘 헤영 장아찌 듬앗다가.  
107026 @ 예.  
107026 #2 그거 흔 쪼가리 갖다 놓곡 이제 그 죽 쭈서 그거 조청 먹는 거.  
107026 @ 으, 조청 먹는 거예? 그 게난 좁쌀죽을 하영 헝 먹을 거 아니라예?  
좁쌀죽을 무신 죽 헛수가?  
107026 #2 뭐 허린 걸로도 쭈 먹고, 모힌 걸로도 썰 먹고 노랑좁쌀, 모인좁쌀로  
도 헤영 먹고 허린개발시리쌀로도 헤영 먹곡.  
107026 @ 음, 경 쏘 죽은 무슨 죽?  
107026 #2 거 좁쌀죽.  
107026 @ 좁쌀죽예?  
107026 #2 개발시리쌀 뇌근앵에 죽 쭈라 허민 검은개발시리죽.  
107026 @ 음.  
107026 #2 또 모힌좁쌀 낱 죽 쭈라 허민 그 죽이 그 모힌좁쌀 뇌민 저 거세기  
맛이 잇어이.  
107026 @ 아.  
107026 #2 노랑헌 거.  
107026 @ 예.  
107026 #2 그거 허영 죽 썰은에 이젠 잘도 비싸. 그런 쌀은. 거 허영도 죽 썰  
먹고. 못 쭈 먹는 게 엇어. 아무 거라도 죽은 쭈.  
107026 #1 채고의 죽은 꿩죽.  
107033 @ 아, 꿩죽. 아, 그러면은 꿩죽은 어떤 식으로 쭈는 거마씨?

107033 #2 꿩죽에는 이제, 이제난 거세기허주. 꿩허곡 이제 저 쌀허고 나서 거 방앗혹[방에톡].

107033 @ 예.

107033 #2 도고방에. 것에 막 흐끔 찢어.

107033 @ 쌀허고 꿩허곡 ㄴ치냐.

107033 #2 경허영 꿩아근에 썬먹고.

107033 @ 옛날은.

107033 #2 이제는 막 쉬아. 또 어떻헌가 허민 그거를 꿩을 보까. 보까서 기냥 믹서기에 싹 곱아근에 기냥 썬면은 그렇게 맛 좋고.

107033 @ 음, 삼춘, 꿩죽을 잘 썬는구나, 예? 웃음.

107033 #2 뭐 경허영 껌은꿩로도 썬고 노랑꿩로도 썬고. 이제난 흰 꿩이 나왔지 그때 당시엔 흰꿩은 없었어.

107033 @ 아아.

107033 #1 노랑꿩.

107033 #2 노랑꿩 아니민 빨강꿩 잇고 껌은꿩 잇고.

107033 @ 아, 색깔이예?

107033 #2 경헛주.

107033 @ 무신 걸로 썬 죽이 맛 좋아마씨?

107033 #2 다.

107033 @ 다, 꿩죽은 뭐 고소허난예?

107033 #2 꿩죽은 다 맛 좋아.

107027 @ 풋죽은 어떤 식으로 썬수과?

107027 #2 먼저번에 곱앗는데.

107027 @ 예, 그래도 또 곱아야 돼쿠다.

107027 #2 풋죽은 이제 옛날은 쌀이, 곤쌀이 엇이니까 모힌좁쌀 나서.

107027 @ 음.

107027 #2 풋 습아가지고.

107027 @ 예.

107027 #2 막 영 썬물러. 썬물러 가지고, 이젠 그레 쌀 놓고 허영 썬.

107027 @ 음.

107027 #2 좁쌀이라도 모힌좁쌀엔 흰 건 그 노랑헌 좁쌀 잇잖아.

107027 @ 예예.

107027 #2 히리지 아년 좁쌀. 히린좁쌀도 잇어났주. 그건 잘도 맛있어난디 히린 좁쌀은 이제 그 죽을 못 썬고.

107027 @ 음.

107027 #2 이 히린 거엔 흰 거는 이 소금이나 뭐 놔볼면 기냥 사르륵허게시리 물이 흘러부러.

107027 @ 아, 흐린 건예?

107027 #2 노린 거는 그냥 풀풀 혜영 낱 잇는디, 경허기 때문에 히린 걸로는 소금 낱 찌는 건 안 돼여.

107027 @ 아, 아, 그것도, 그러면은 우리 그 찹쌀 이런 것도 잘 안 허겟다예? 소금 낱 허는 건?

107027 #2 찹쌀죽도 고대로 먹고, 그대로 썬서 먹고.

107028 @ 콩죽은 하영 혜 먹엇덴 허명예? 콩죽은 어떤 식으로 헛수가?

107028 #2 콩죽은 그 맷돌 방에 저것에 이렇게 곱아가지고.

107028 @ 으.

107028 #2 이젠 그 맷돌을 이젠 콩까르를 모힌좁쌀 그 노랑좁쌀.

107028 @ 예.

107028 #2 이렇게 서경. 물 팔팔 끌어가든 영 낱 영 짓어.

107028 @ 음.

107028 #2 짓엉 짓이면 옛날은 남주걱.

107028 @ 예.

107028 #2 그거를 이렇게 계속 짓으멍 썬가민 것이 죽이 돼여.

107028 @ 음.

107028 #2 그러믄 이젠 불뿔 먹기 위해서 그 죽에다가 막 무신 누물입이나 뿔을 해당 막 놓는 거라.

107028 @ 음.

107028 #2 놔서 허민 좀 많지게.

107028 @ 음.

107028 #2 찹 혼 줌 놔서 썬 먹젠 허민 다 식구가 못 먹을 거니까 하간 푸성거리 헤사 허여. 옛날은 달래 이제는 꿩마농엔 허지. 그때는 꿩마농엔 현 거 거 캐여 놓고, 저 냉이.

107028 @ 예.

107028 #2 이제 난시.

107028 @ 난시.

107028 #2 그거를 밧디 가민 막 하지. 그거 헤다가가 죽 썬민 그렇게 맛 좋을 수 없어.

107028 @ 맛종을 수밖예 없지에 그 향이랑예?

107028 #2 경허영 먹고 살앗어.

107028 @ 게믄 보통 이제 꿩마농허고 난시?

107028 #2 이젠 꿩마농도 엇어.

107028 @ 경허니까 비료 하도 줘불고 약 쳐불고.

107028 #1 제초제 때문에.

107028 @ 예, 아 콩에 꿩마농허고 이제 난시허고 낱은예?



107028 #2 그렇게 맛있어. 콩국에도 그렇게 허민 맛좋고.  
107028 @ 예.  
107028 #2 또 죽에도 그렇게 그거 두 가지를 놓면은 그렇게 맛 좋을 수 있어.  
107028 @ 음.  
107028 #2 게민 막 그젠 어디 조크르에 그튼디 기냥 밧데기로 이젠 막 그냥 흐  
꼼허민 개간허여근에 뭐 딴 거 허고 딴 거 허주마는, 그 농스 짓도록은 그 밧을 놔  
두거든.  
107028 @ 예, 예.  
107028 #2 게민 그디 강 막 헤여오는 거라. 달래고 춤 무시거 난시고.  
107028 @ 예.  
107028 #2 경 캐여다근엥에 막 죽 흐 이만치 헤당은에 막 퍼놔. 게민 죽이 돼거  
든.  
107028 @ 으음.  
107028 #2 멧 사발 늘어나거든. 경허연 먹언.  
107028 @ 맞아예. 근데 이제 생각허민 그제 얼마나 영양식이라예?  
107028 #1 연양식.  
107028 #2 그때는 그렇게 먹으니까 아픈 디도 엇고.  
107028 @ 맞아예?  
107028 #2 그렇게 살안. 이젠 흐꼼 허민 다리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107028 @ 맞아.  
107028 #2 어디 뇌졸중이니 그렇게 말허는디, 그젠 그런 사름 그런 병도 몰랐  
고.  
107028 @ 예.  
107028 #2 그런 사름도 없었어.  
107029 @ 아까 이제 모멸축 아까 했잖아예? 그 모멸축 혈 때는 어떤 식으로 허  
영 현 거라마씨?  
107029 #2 그거는 기냥 물 끓어가든 쌀 놓고 물에 쌀에 양이 맞게 물을 놔.  
107029 @ 음.  
107029 #2 그렇게 막 것이면은 메밀은 쪼끔 썬도 풀풀허여.  
107029 @ 음  
107029 #2 게민 고대로.  
107029 @ 음.  
107029 #2 저 감기 걸린 때는.  
107029 #1 패마농.  
107029 #2 패마농 놓고 썬 먹고.  
107029 #1 지금 말허민 쪽파.  
107029 @ 예예예.

107029 #2 그거 낱 썩 먹고. 경 허는 거.

107030 @ 예, 예, 예. 경허여근에 이제 하고. 녹두죽은 썩 먹잖아예?

107030 #2 응.

107030 @ 녹두죽은 어떻 허여?

107030 #2 녹두죽도 그자 콩죽이나 꼭 같아.

107030 @ 으.

107030 #2 뭐이든지 콩죽이나 똑 ㄱ트게 썩.

107031 @ 방법은 이제 하고, 독죽은 언제 썩 먹었수가?

107031 #2 아, 독죽 경 아무나 그땐 썩 먹도 못 헛주. 나가 그때 시절에 이제 스물셋에 여기 씨집왔거든.

107031 @ 예.

107031 #2 여기 완 보니까 씨하르버지가 독을 몇 개 여기 질루는 거라. 질루다가 거 잡아서 이젠 식구덜이 여냥 보식, 보식으로.

107031 @ 음.

107031 #2 이젠 그거 허민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는 삶아.

107031 @ 예.

107031 #2 삶으면서[쌀-] 이젠 쌀도 ㄱ찌 넣고.

107031 @ 음.

107031 #2 허영 삶아근에 허민 문딱 삶아지면 그 찢어봐근에 다 식구가 나눠 먹었주. 그렇게 해서.

107031 #1 쌀 넣고.

107031 @ 쌀 낱예? 아, 그때 쌀은 어떤 쌀 낱마씨?

107031 #2 아, 그 독죽에는 또 곤쌀이 잇어야.

107031 @ 아아.

107031 #2 맞이나.

107031 @ 아, 거난 잘 사는 집의 오난 것도 먹어진 거 아니라예?

107031 #1 견디 그 옛날은 좀 우스운 게?

107031 @ 예.

107031 #2 출을 끝나나 뭘 끝나나 그 끝나야 그, 그 전의 먹어서 일을 허여야 에너지가 그 뭐 거기에 일허는 디 같 건디. 그 일 끝난 다음에야 그, 그걸 헤영 먹어. 옛날은.

107031 @ 얼떡엇던 영양보충 해주는 거주마씨예? 예.

107031 #2 “에그 자이, 기냥 허젠 허난 모든 거 허젠 허난 얼떡엇저게. 저거, 아이고 저거 연양 보충 시켜사켜게, 저거. 무시거 허영 맥이코게.” 경허민 그때는 돼지도 영 이젠 하간 디 돼지고기도 넣어젓주마는 저 삼양 잇잖아. 그디 무관 하나가 잇어나서.

107031 @ 음.

107031 #2 그디 가근엥에 그 무판에 가근에 식게멩질이나 허젠 허민 혼 뒤 근 갈라당.

107031 @ 음음음.

107031 #2 이젠 첫갈엔 햐주마는. 이멘씩 헤영은에 혼 점씩 나뉘주는 거라.

107031 @ 예예.

107031 #2 경허영 먹고. 이제 득죽은 아무 디나 못 먹어.

107031 @ 예.

107031 #1 게고 동네에서도 관에서 제일 저 귀한 손님 온 때에.

107031 @ 예, 예.

107031 #1 경 현 때에 이제.

107031 @ 득 잡양 주고.

107031 #1 득 잡양 드리곡.

107032 @ 예, 이제 그치록허곡. 그 옛날에 그니까 아까 콩죽헐 때도 풀들예, 푸성귀 낫주마는 그 녹물죽이렌 행은에 또 끌렁 먹엇수가?

107032 #2 녹물죽게 기냥 좁쌀 농곡 그냥 썬민 돼주게. 녹물죽게.

107032 #1 뜯 죽.

107032 #2 콩 안 낱.

107032 #1 뜯죽 헐 때에 녹물은 그냥 녹물이 들어가민 녹물죽이 돼부는 거. 녹물이 많이 들어간 거주. 그건.

107032 @ 예, 옛날예예. 불량 먹젠 허민 없는 집의덜은.

107032 #2 콩도 매집의 없으니까 기냥 그자 쌀 좁쌀 놔근엥에 죽 썰. 그치록허영 소금이나 영 허텅. 그냥 흰죽은 소금 안 놓고.

107032 @ 음

107032 #1 게난 그 재료가 어느 게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변할 수가 있는.

107032 @ 예, 맞수다.

107032 #2 옛날은 쌀이 좁쌀도 없는 집인 없으니까.

107032 @ 음.

107032 #2 보리쌀도 영 곱아서, 그 요렇게 잘게 부쇄가지고 걸로도 죽 썰.

107032 @ 음.

107032 #2 국죽이라고 허여.

107032 @ 아, 국죽이라고. 게문 그 국죽은 어떤 식으로 헐 거라마씨?

107032 #2 보리쌀을 영 갈아가지고 이젠 물 팔팔 끓어가민 간 걸 놓고.

107032 @ 예.

107032 #2 푸성거리 녹물이고 뭐이고 헤다 낱은에 하영 썬민.

107032 @ 으음.

107032 #2 이젠 녹물은 하고 쌀은 얼마 못 봐. 그것도. 경 행 먹고.

107032 @ 계영 그 이름을 국죽이라고 한 거라예? 예.  
107032 #2 국죽.  
107033 @ 삼춘 지난 번에 보난 평사농도 헛덴 헨게 마는.  
107033 #2 어느 제 강. 가민 생전 안 행 와. 못 행 와.  
107033 @ 머정 엇덴게. 평죽도 헤영 먹잖아예?  
107033 #1 평.  
107033 #2 평죽도 득죽이나 똑 같애.  
107033 @ 음.  
107033 #2 그렇게 해서. 평 헤다가 그거 거 털 벳겨두고 다 허여근에 물 헤영  
싹싹 끓여서 이제 닭은 불에 행 그걸 케우주마는 평은 안 케와.  
107033 @ 아, 건 무산고예?  
107033 #1 몰라, 털을.  
107033 #2 몰라. 옛날 식으로산다. 그 득도 빵 보민 막 여디 털 빠민 뭐 잇잖아.  
107033 @ 예.  
107033 #2 경헌디 안 기시려.  
107033 @ 아아.  
107033 #2 닭은 기시려고.  
107033 @ 예, 예, 예.  
107033 #2 영 헌디 닭은 기시린다. 평은 안 기시려.  
107033 #@ 음.  
107033 ##2 경허영 그자 득죽이나 것도 꼭 ㄴ치 썩 먹곡.  
107031 #1 겐디 아까 득죽 넘어갈 때에 그 아니 곶은 말이 잇는데.  
107031 @ 예.  
107031 #1 사금퍼리.  
107031 @ 예.  
107031 #2 흰 사금퍼리. 그거 놓고 마늘을 꼭 옛날엔 그걸 똑 놔놔어  
107031 @ 득죽할 때예?  
107031 #2 그거는 뭐인가 허민 그 독을 제허기 위해야. 이 닭에도 그 독이 이시  
니까.  
107031 @ 예.  
107031 #2 독을 제허기 위하여서 그거 놓는 거.  
107031 @ 음, 흰 사금파리 그 사기그릇 그거허고.  
107031 #1 사기그릇허고.  
107031 #2 요멘씩 현 거 미짱 갑만큼 아마도 현 거서너 덩어리 놔야.  
107031 @ 음.  
107031 #2 경 허영 먹엇주마는. 거 안 놔도 엇영 못 먹엇어.  
107031 @ 맞수다. 맞수다. 마늘도 하영 낱은에 이제 하고예, 맞수다?

107031 #2 옛날은 마늘도 없었어. 어디 놉 싱근 지 담양 먹젠 허민 강 사와야.  
 107031 @ 음.  
 107031 #2 이제는 마늘도 안 낱 짐치 헤영 먹고. 경허영 먹어서.  
 107031 #1 옛날은 그 선조들이 재배 방법을 몰라부런.  
 107031 @ 예, 비료도 없고.  
 107031 #1 여기도 허민 다 돼는 건디, 여기서 허민 안 돼영근에 어디 삼양이나 어디 가사 돼는 걸로만 알안.  
 107033 @ 예, 맞수다. 경허고 그거 말고 다른 죽들은 어떤 거 잇어나신고마씨? 그거 말고 죽 헤먹은 거 이신가마씨?  
 107033 #2 건 잘 모르것는다. 뭐 죽 못허는 것이 엇어. 밀죽도 썩 먹곡.  
 107033 @ 으응, 밀죽.  
 107033 #2 밀도 그것도 어떻 허냐 허면 맷돌에 곱아.  
 107033 @ 예.  
 107033 #2 곱아서 그렇게 보리죽ㄹ찌 썩 먹고.  
 107033 @ 음.  
 107033 #2 다 경허여.  
 107033 #1 돼지고기도 죽에 들어가.  
 107033 @ 아, 돼지고기도예?  
 107033 #2 아이고, 돼지고기 어디 시난 돼지고기 낱 먹어서.  
 107033 @ 웃음. 게난 허품 잘 살아가난게 돼지고기도 행 먹고.  
 107033 #2 이제 나난 돼지고기.  
 107033 @ 바당 걸로 허영 죽 쭈는 건 엇어마씨?  
 107033 #2 무사 엇어.  
 107033 @ 어떤 걸로?  
 107033 #2 그때는 고등어로도. 고등어 잇잖아. 고등어로도 그뻘 이 앞바다에서 거리는 사름덜이 잇어. 어부들이.  
 107033 #1 잡는 사람?  
 107033 #2 있으니까, 이젠 그 지계에 놓고.  
 107033 @ 예.  
 107033 #2 그 어부 처들이 지고 와서 “삽서. 삽서” 허민 거 사서 이젠 고등어를 이젠 손질헤가지고 이젠 물에 낱 끓어.  
 107033 @ 음.  
 107033 #2 끓영 가시 탁탁 털어튀근에 것도 아무 찰이라도 놔도 돼여.  
 107033 @ 음, 고등어죽이 경 맛 좋덴예?  
 107033 #2 찰이 없으니까.  
 107033 @ 음.  
 107033 #2 메쌀 헤여 가는 거엔 허여근에 허쟁 허민 혼 돼 강 받아오젠 허민

돈 많이 줘야 강 받아오니까 어떻게 죽을 썰 먹어.

107033 @ 맞아마씨. 어.

107033 #2 중간에야 많이 나난 해엿지, 우리 커울 때는 거 썬 먹을 것도 없었어. 케난 아무걸로라도 낡 썬 먹어.

107033 @ 고등어죽예?

107033 #2 고등어죽.

107033 #1 우리 어린.

107033 #2 또 그 옥돔.

107033 @ 예.

107033 #2 옛날은 옥돔이 잇엇, 잇주마는 이젠 옥돔도 하나 나민 뭐 멧 만 원 가노니까.

107033 @ 맞수다.

107033 #2 옥돔죽도 못 썬 먹언.

107033 #2 그때는 이 서쪽으로 옥돔이 많이 나와. 케민 그런 죽털도 썬 먹고.

107033 @ 옥돔을 이 동네에서는 뭐렌 불러낫수가?

107033 #2 옥돔.

107033 @ 옥돔.

107033 #2 이제는 생선이엔 허지마는 생선이엔 허지마는 옥돔.

107033 @ 옥돔 해갓고.

107033 #2 고기도 그렇게 말히고.

107033 @ 옥돔죽 맛 좋아예?

107033 #2 맛 좋주게.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예, 알아수다. 지난 번에 우리 삼촌 범벅 잇덴 허는데, 범벅은 어떤 범벅 어떤 범벅 해 먹엇수가?

107034 #2 못 해 먹는 범벅 잇어?

107034 @ 경해도 곱아봅서?

107034 #2 뭐 메밀로도 허여 떡곡 보리로도 허여 먹고 밀로도 허여 먹고.

107034 #1 좁쌀로도 허여 먹고.

107034 #2 좁쌀로도 허여 먹고/ 못허는 게 없어 범벅 해먹는 게.

107034 @ 범벅허젠 허민 ㄱ를 곱아와야지예?

107034 #2 ㄱ르, ㄱ르 곱아와야.

107034 @ 범벅 종류 중에 삼촌네 하영 해 먹어난 범벅은 무신 범벅?

107034 #2 예, 그자 주로 좁쌀범벅 많이 해 먹엇지.

107034 #1 좁쌀범벅 보리범벅.

107034 #2 그자.

107034 #1 많이 나는 게 주식이 보리 조니까.

107034 #2 이 정의렌 메밀이 만허니까 그딴 메밀핍떡을 많이 헛건만, 여기는 메밀이 없어. 그때 당시에.

107034 @ 아.

107034 #2 혼 집이 이제 뭐 흥뽀 허민 멧 말 허민 거 얼마 돼여?

107034 @ 그러니까.

107034 #2 없어.

107034 @ 음, 그러면은 이제 보리허고, 어 조허고예? 조핍떡 허는 거 혼번 곶아 볍서?

107034 #2 아, 조핍떡은 좁쌀 곶아서도 허여 떡곡, 옛날엔 그 좁쌀이 체에 강 멧돌에 강 돌려야, 가근에 이제 들방에엔 허매이.

107034 @ 예.

107034 #2 들방에. 들은 어떠난 들방에엔 험신고 허니 그 이제 막 짓어놔근에 에 멧돌 막 걸어놔 사람 힘으로 못 돌리니까.

107034 @ 예.

107034 #2 말을 메와 놓고 이젠 들 몰면서 허민 빙빙 돌아가니까 것이.

107034 #1 연자방아.

107034 @ 예.

107034 #2 그것이 들방에.

107034 @ 예.

107034 #2 들방에보고 연자방아.

107034 #2 들방에에 가근에 저다뒤 헤근에 곶아서 죽 썬 먹고. 다 경허연. 죽 썬 먹고 범떡도 헤여 먹고. 조핍떡 맛 좋아. 흥뽀 허민 “에이그. 허린좁쌀 낱근에 조핍떡 행 먹어사켜.” 허린좁쌀에 감저 썰어놔근에 감저 뜨떡뜨떡 썰어놔근에 헤영 딱딱 허여근에 먹으민 잘도 맛있어.

107035 @ 으, 감저 들고예, 좁쌀도 들고. 웃음. 자, 그 다음에 옛날 여기 즈베기 이런 것도 하영 먹엇지예? 즈베기는 어떤 것덜 헤 먹엇수가?

107035 #2 보리츠베기.

107035 @ 보리츠베기.

107035 #2 밀츠베기 그거.

107035 @ 보리츠베기허고 밀츠베기 두 가지. 보리츠베기허고 밀츠베기 어떻 멘 들아?

107035 #2 아 그것도 그르로. 그 멧돌에서 곶아서.

107035 @ 음.

107035 #2 가를 어떻허민 저 대 총체로.

107035 @ 예.

107035 #2 쳐가지고, 이젠 곶면 아메도 훤은 것이 많이 나와이.

107035 @ 음.

107035 #2 경허민 이젠 그거 곱아가지고 이젠 그걸 거러놓면서 쳐.

107035 @ 예.

107035 #2 총체로. 이제 대거름체도 있고 대체도 있고 다 잊지마는 그 총체.

107035 @ 예.

107035 #2 거름체 말고 총체로 쳐가지고.

107035 #1 제일, 제일 즘진 거.

107035 @ 예.

107035 #2 저 허영 처근엔에 이제 그거를 놔서 범벅도 헤 먹고 즘베기도 헤여 먹고.

107035 @ 음.

107035 #2 다 그런 거.

107035 @ 음, 건데 보리츨베기 있고. 밀츨베기 잇는 거고. 그 조베기 만들 때 뭐 누물 같은 건 안 놔마씨?

107035 #2 즘베기 몰 때 그 국물에다 누물 낵 먹주게.

107035 @ 아, 누물도 놓고 이제 헤영은에.

107035 #2 으.

107035 @ 즘베기로 식량을 해보진 안 헛수가?

107035 #2 무사 안 허여 다 허주, 즘베기.

107035 @ 즘베기도예?

107035 #2 즘베기도 그 경허영 먹젠 허민 잇는 집이라야 해 먹주. 죽 허여근에 영허영 영 허영 좁쌀 멧 방울 놓고 막 푸성거리 많이 놓고 허여서 영 허민 물이 쭈 루루헤여이.

107035 @ 예.

107035 #2 게민 거 먹고 살았지.

107035 @ 음, 게난 이제 우리가 즘베기 헛 때도 보면 요게 무사 반죽을 쫄 헛 령헛헛 허게 허는 방법도 있고, 이걸 몰르게 헤영은에 손으로 영 튼영도 허잖아예. 그 일름도 트난가마씨?

107035 #2 아니, 트난 건 아니. 물렁 즘, 영허영 수제비라고 딱딱 떠 놓는 거는 다른 걸로는 안 돼여. 밀가르벳기.

107035 @ 으음.

107035 #2 밀가르벳기.

107035 @ 밀가르벳기.

107035 #2 다른 걸로 영 뜯어놓민 그냥 헤싸져부런 안 돼여. 경허난 즘베긴 그 자 보리츨베긴 이렇게 영 췌여.

107035 @ 예.

107035 #2 푹푹 끓으멍 영영영 췌어 놔야 돼여.



107036 @ 계난 그 저기 영 손가락으로 떠놓는 거는 밀밖에 안 되는 거예? 아  
아, 그 다음엔 옛날 칼국수 같은 것도 하영 혜 먹었잖아예? 여기서는 그 이름을 뭐  
렌 험니까?

107036 #2 칼국수.

107036 @ 칼국수. 어. 칼국수 해갖고.

107036 #2 칼국수. 그 보리나 메밀이나 혜 가서 밀어가지 이제나 똑 곱아.

107036 @ 아.

107036 #2 딱딱딱 떨어가정 물 팔팔 끓영. 사는 집의는 그 국물에다가 다시  
넬라고 이제 찹 막 사는 집의는 이제 소님이나 가면 밀, 저 모밀이나 뭐 험 때는  
소고기.

107036 @ 음.

107036 #2 이제 막 딸려와서.

107036 @ 예.

107036 #2 혜껏지마는 그런 집의 엇어. 양반의 집의나 가근에 막 사는 집의나  
그런 거 혜영 먹었지. 경험지.

107036 @ 모밀 조베기 험 때는 또 늣뼉 같은 것도 떨어놓켜예?

107036 #2 음. 늣뼉에 메밀은 테운 거니까.

107036 @ 그러니까.

107036 #2 음, 경허영.

107036 @ 경허여근에 이젠 하고예. 그거 말고 예전에 무사 그 멧질 같은 경우  
허면 멧질허기 전에 뭐 모밀국수 이런 거는 안 험니까? 이 동넨? 국수제 이런 거.

107036 #2 아니.

107036 @ 미리. 선홀 같은 덴 험 게마는.

107036 #1 음.

107036 #2 이디는 옛날에는 이딘 메밀이 귀하니까.

107036 @ 음.

107036 #2 쓸 받아다가 이젠 그거를 묵이나 썬서.

107036 @ 예.

107036 #2 멧질 뭐 이거 영. 똑똑. 이제 묵덜 나잖아.

107036 @ 예예, 모밀묵.

107036 #2 그렇게 썬 가지고 막 가를 내여, 쓸 받아다가 멧돌에 곱아가지고 총  
체로 쳐가지고 이젠 썬는 거야.

107036 @ 예.

107036 #2 계난 메밀은 요것이 원처 연허고 부드러우니까 조금 곱어도 웨.

107036 @ 음.

107036 #2 곱어도 그자 험 썬 가지고 허영 딱 그릇에 험 영 놔두민 이젠 것이  
영 곱으민 묵 파는 거치 뜨민.

107036 @ 예.  
 107036 #2 갈르민 메밀묵이 돼여. 그거를 옛날은 또 똑똑허게시리 그 목점이라고.  
 107036 @ 예.  
 107036 #2 요렇게 썰영 니게반듯허게 썰어가지고 이젠 고지에 꿰여.  
 107036 @ 예예.  
 107036 #2 고지에 꿰여가지고 또 이젠 참지름 발르면서 귀. 이 저.  
 107036 @ 아.  
 107036 #2 화룻불에 불 살라가지고 적쉐라 허는 거 잇어.  
 107036 @ 음. 음.  
 107036 #2 이젠 그거 놓면서 참지름 불르면서 구멍 경혜영 상에 올리고.  
 107036 @ 아아, 그냥 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다시 꿰예?  
 107036 #2 이제는 안 굽지마는.  
 107036 @ 음.  
 107036 #2 이제는 안 구워. 그 전엔 다.  
 107036 #1 경허곡 이 모멸묵엔 청묵허고 그냥 묵이 잇주.  
 107036 @ 예, 예, 예.  
 107036 #1 계난 청묵은 하얗게 그 저 전분 앓져서 현 게 청묵이고.  
 107036 @ 예.  
 107036 #1 이 그냥 묵은 그대로 그 저 전분 아니 앓정 곶아당 그냥 쏘 거.  
 107036 #2 청묵은 그렇게 허주게. 메밀쌀을 이젠 딱 허게시리 사에 담야.  
 107036 @ 음.  
 107036 #2 사에 담야가지고 놀려. 막 이렇게 놀려가민 그 푸들푸들헌 물이 나오 거든. 계난 어느 정도 해야지 경 안 허민 이것이 알와부거나 너미 돼여불거나 해도 안 돼여. 그것도 정도 맞화가면서 허여 놔서 이젠 솟디 옛날 가마솥 썰거든. 가마솥 디 이젠 아래 밧창에다가 참지름 싹 불와가지고 이제 달과서 춤지름을 싹 불라가지고 이젠 그걸 확 빻는 거라. 달와논 물을.  
 107036 @ 예.  
 107036 #2 경허영 막 썬, 막 썬야 헤여.  
 107036 #1 젓어.  
 107036 #2 이제 저으지 아녀면은 요것이 두루 썰은 안 돼여.  
 107036 @ 음.  
 107036 #2 알와도 안 돼고 돼여도 안 돼고. 돼여도 돼긴 돼는디 딱딱 갈라져부러 맛이 없어.  
 107036 @ 음.  
 107036 #2 어느 정도 맞아야. 경혜영 그거를 허여가지고 썰어 점까지 썰어가지고 대 꼬지, 꼬지에.

107036 #1 적꼬지.  
 107036 #2 적꼬지라고 만들어서.  
 107036 @ 예.  
 107036 #2 만들어서 이제 꿩영 영 화롯불에 놔. 적췌 꼽아놓고 영영 구면서 참 지름 쭉쭉 부르면서 경허영 상에 올리는 거.  
 107036 @ 예. 그거는 이제 식게 때나 멧질 때나? 어, 적을예?  
 107036 #2 경 안 허든 또 청묵이나 뭐 경 가정에서 경 허여 먹을 수도 없어.  
 107036 @ 그렇지.  
 107036 #2 거 때 굵는 때에 뺏을 헤여 먹어. 막 중간에야 하간 거 허여 먹었주 마는, 옛날에 나도 어린 적에 봐 난 걸로 그자 어머니 아버지 허는 걸 봐남 뿐이지.  
 107036 @ 삼춘넌 양반집이 그런 것도 이제 하영 헌 거고. 웃음.  
 107036 #2 주로 그 멧질 때에 제스 때에는 그런 묵을 주로 쭉고.  
 107036 @ 예.  
 107036 #2 또 골, 골 해가지고 감줄 꼭 감주 해서 올리려.  
 107036 @ 음.  
 107036 #2 우리는.  
 107036 @ 감주 해서예, 예?  
 107036 #2 감주헤영 감주팽에 딱 허게시리 이제 그 지금 이제금 도자기라고 잇잖아.  
 107036 @ 예예.  
 107036 #2 그런 병에 질어가지고 싹 상 앞의 놔서 행 절허고, 거 올리고.  
 107036 @ 예.  
 107036 #1 지금 사름덜은 골엔 허민 못 알아들 사름이 앞으로 만힐 거라.  
 107036 @ 옛기름예.  
 107036 #1 옛기름엔 허영 지금은 곧는디 그자 옛사름덜은 골.  
 107036 @ 예.  
 107036 #1 보리골.  
 107036 @ 음. 보리골예?

### 김치

107037 @ 그 다음은 이제는예, 김치로 넘어가쿠다. 김치헌 종류는 어떤 거 잇어 신고예?  
 107037 #2 먼저 번에 곶앗는데.  
 107037 @ 곶아도 또 이제 툄나마씨.  
 107037 #1 또 나왔구나.  
 107037 @ 예.  
 107037 #2 먼저번에 곶아본 거벳긔 잇어.

107037 @ 음.

107037 ##1 늪빼집치, 배추집치.

107037 @ 다시 돌아봅서.

107037 #2 거주게.

107037 @ 거주게 허지 말고. 또시 삼춘 입으로.

107038 #2 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이여 뭐 당베추여 뭐 나왔지마는 옛날은 들머기벳기 없었어.

107037 @ 음.

107038 #2 키가 이만이 해. 쟈디 속도 하나도 안 앓고이, 이렇게 허면서 막 기냥 정쟁이가 이만이 해여. 케민 그거를 딱딱 캐여다가 이젠 춤 소금국에 당갓다가 해먹고. 또 중간에 우리 이제 나 씨집 여기 온 후제는 또 그 하꼬산이엔 현 거.

107038 @ 음.

107038 #2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허민 속 앓아 그거는.

107038 @ 예.

107038 #2 요만치 허여서 속 앓이민 이젠 캐여다가 여긴 소금도 그뻘 엇이니까 나도 구루마에 시꺼근에 저 삼양에 그디 가서 바닷물에 커농곡 허영 구루마에 시꺼 단 집치도 담아나고.

107038 #2 이제난 흐뎡씩 허민 그 전에는 주루 바늘지허고 짐치벳기 없으니까.

107038 #1 반찬이.

107038 @ 예, 예, 예, 예.

107038 #2 먹는 게 반찬이엔 현 것이.

107038 @ 예예예. 맞수다.

107038 #2 구루마로 혼 구루마 헤영 와야 담양은에 식구가 다 먹고.

107038 @ 어째든 겨울반찬.

107038 #2 지시도 이때 나근에 큰 향아리에다가 우리는 식구가 많헤 놓니까 큰 향아리에다 담곡.

107038 @ 음.

107038 #2 마늘 그 쫑 이제 나오기 전에, 쫑 나오기 전에 헤가지고 벳겨 두고 시쳐가지고 이젠 그걸 썰영 행은에 즈박즈박 싸여가지고 우이 간장 비와.

107038 @ 예.

107038 #2 간장 비와놓고 헛다가 익기도 전에 다 먹어.

107038 @ 반찬이 어시난예? 맞수다.

107038 #2 그 아이덜 보민이 그 마늘 땡구리 그 저 뿌리.

107038 @ 뿌리.

107038 #2 그거 영 헤영 보니 저디 올렛 아이덜 강 보민 그것덜 하나씩 들르고 와서 그것이 간식이라이.

107038 @ 음.

107038 #2 집의 향아리에 강 막 더듬어.  
 107038 @ 예.  
 107038 #2 그건 멧 개 안 돼지개.  
 107038 @ 예, 맞수다.  
 107038 #2 어멍아방안티 욱들으면서.  
 107039 @ 맞아. 경혜영 살아서예?  
 107039 #2 것이 간식이야.  
 107039 @ 그 계난 계니까 이제 배추김치 아까 들머귀김치 이제 한 거고예? 그 열무김치도 해신가마씨?  
 107039 #2 안 해봐서.  
 107039 @ 안 해판?  
 107039 #1 열무가 있어.  
 107039 @ 늬뻬 갈면 뿌리 하기 전에 우에 건 뭇렌 험니까?  
 107039 #2 요즘.  
 107039 @ 예?  
 107039 #2 요즘은 뭇 뭇엔 곶아. 춤늬물썸엔도 허고 동 사가민 춤늬물 동지엔도 허곡 그자 그런.  
 107039 @ 그런 것도 김치 혜영 먹지예? 경 안 해?  
 107039 #2 허영 먹주게.  
 107039 @ 예, 그거는 언제적부터 춤늬물썸으로 김치 해신고예?  
 107039 #2 이때에.  
 107039 @ 으, 이때에. 으, 거는 어떤 식으로 허여? 춤늬물썸은?  
 107039 #2 것도 들머귀김치나 푹 그트게.  
 107039 @ 양념덜은 어떤 거 늬니까?  
 107039 #2 양념이 어디 있어.  
 107039 @ 웃음.  
 107039 #2 주로 마늘이나 흐뽀 영 놓고, 소금 영 허트고 고추엔 현 건 이제 갈 아근 혜영현 그 고추가 어떻인지 이제 고추 짓뻬경허고 흑지마는 담지 아녕 쟈쟈헤 둡서 혜영 해당 몰랴가문 혜영헤부러.  
 107039 @ 음.  
 107039 #2 뻬, 뻬디 발앙은예, 게민 그거를 뻬는 디가 없었어.  
 107039 @ 예예,  
 107039 #2 그걸를 솟디 낱 보끄는 거라. 보까부러가민 거멍허진 았아. 거기서 파삭파삭 허면은. 방에.  
 107039 @ 예.  
 107039 #2 그. 도고방에 뻬이는 거라. 뻬아근예 헤도 경 허영 늬민 김치가 혜영 헤도 “아이고, 맛 좋다.”

107039 @ 아, 혹시 젓갈같은 건 안 놓니까? 짐치할 때.  
107039 #2 젓갈이 어디 있어.  
107039 @ 아, 젓갈도 엇구나. 웃음.  
107039 #1 백김치.  
107039 #2 중간에야 것도 나왔지.  
107039 @ 중간에야예?  
107039 #2 결혼헨 온 후제야.  
107039 @ 음,  
107039 #2 온 후제야 젓갈도 나왔어.  
107039 @ 옛날엔 그런 것도 여기는 바당허고도 멀고 허난에 예, 그런.  
107039 #2 머나 브드나 여기선 가깝기 허지마는 해도, 즘 옛날엔 멜이나 들면  
그거 멜장시[멜짱시]가 와.  
107039 @ 예.  
107039 #2 오면은 멧 사발 행은에 그거를 혼 사발, 혼 사발 사는. 돈이 없으니  
까 혼 사발 사는 사름 두 사발 사는 사름 허민, 그거를 와근에 뭐 허기 전에 국 끓  
여먹어부러.  
107039 @ 멜국?  
107039 #2 멜국 끓여 먹어불민.  
107039 #1 젓 닻기 전에. 웃음.  
107039 #2 그 누물놓고 국 끝이민 그렇게 맛이 있어.  
107039 @ 싱싱헌 거고예?  
107039 #2 국 끓여먹어불민.  
107040 @ 삼춘, 물짐치같은 것도 해신가마씨? 나박짐치?  
107040 #2 나박짐치도 내가 여기 온 후제야 헛지. 그 전에는 없었어. 나박김끼  
헛 게 없으니까.  
107040 @ 음.  
107040 #2 뭇으로 헤여.  
107040 @ 늣뻘 안 허난예?  
107040 #2 늣뻘도 나 씨집 온 후제야 그 늣뻘씨가 어떻헤엔 전해 온 거라. 게서  
다 사방에 허연에 늣뻘 갈안 먹고. 씨집오기 전의부터 나오긴 헛지.  
107040 @ 음.  
107040 #2 경허영 늣뻘가 그제 늣뻘는 이제거찌 혹지도 안 허여. 꼭 지레기가  
요만씩 허여.  
107040 @ 음.  
107040 #2 경헌 거 뽑아다가 걸로 국도 끓여 먹고.  
107040 @ 음.  
107040 #2 또 짐치도 헤여 먹고 그렇게 허멍.

107040 @ 물집치?

107040 #2 그거 몰라가지고 생기리 허여가지고 마늘이 없으니까 또 이멘헌 것도 안 내비리. 콩치도 안 내밀어. 내불지 아녀. 그런 거를 다 허영 썰어가지고 몰려가지고. 이제 걸로 지 담아 먹고.

107040 #1 지시담을 때 마늘지시헐 때 그 ㄴ짜.

107040 @ 으음.

107040 #2 경헐 담아 먹고. 마늘지시도 이제 사는 집의야 마늘지시도 먹엇지. 옛날에는 이제 놉. 옛날 저 멩도암 그 양풍언. 김풍언.

107040 #1 김좌수네 집의.

107040 #2 김좌수네 집의 막 그 이제 말로 ㄴ뜨민 그 중.

107040 @ 예, 예, 예.

107040 #2 잇잖아. 그런 사람 많이 들안 허는디 마늘 지시 어떻게 종앞의 마늘 지시를

107040 #1 줄 수가 잇냐?

107040 #2 줄 수가 잇느냐? 그 이파리로나 헌 거나 주지. 경허영 막 허여낫덴 허여. 마늘지시도 없엇어. 그 전인 너무나 이디 것이 뭐헤가지고이.

107040 @ 웃음.

107040 #1 먹을 게 없어놓니깐게.

107040 @ 예, 맞수다.

107040 #2 나 춤, 커울 적에 나가 열다섯에 이제 저기 요 밑에 동네 다 불부져 부니까 저

107040 @ 음음.

107040 #2 삼양1동으로 갔지. 간 헌 적에 부떠는 마늘도 많이 나오고.

107040 @ 음.

107040 #2 또 허연, 나도 이젠 올라완에 처년 때에도 마늘 싱거가지고 가근에 드르드르 삼양장엔 헌디 잇어나서 그디 정 간 풀고.

107040 @ 마농행은에예? 어어.

107040 #1 웨정 때엔 우선 먹을 게 전연 없어가지고 이 공무원도 혼 들 봉급 받아도 거기 돈을 부쳐야 쓸 혼 가마닐 사서.

107040 @ 경허니까예?

107040 #1 쓸 혼 가마니 쓸 혼 삼분의 이 값 정도의 그 혼 들 공무원 혼 들.

107040 #2 혼 들 내내 이 아빠가 가근앵에 그르후제주만 아주 그르후제. 한 오십 년 전, 오십 년도 안 돼엇지. 더 돼엇지.

107040 #1 더 돼엇주게.

107040 #2 강 한 달 내냥 저디 강 일 행 오면 돈 사만 원. 사만 원 받아오면 받아오도 아녀. 그자 주로 책 같은 거 이녁 이제 주사 맞는 거 그거 허영 오지. 것도 봉급도 안 아져와나서.

107041 @ 웃음. 계문 사나 죽으나 이젠 삼춘이 이제 헛구나? 경허고 동지집치는 어떻습니까?

107041 #2 동지집끼 저 그 누물동이 이렇게 사 가면.

107041 @ 으.

107041 #2 푹푹푹 킁킁다가. 이제도 그렇게 헝 먹지.

107041 #1 꽃 피기 전에.

107041 #2 꽃 필락말락 헝 때에 그걸 푹푹 킁킁가지고 소금국에 허영 딱 담갓다가, 딱딱 누르땡 낫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헝 낫다가 고대로 킁킁다가 그 먹었어.

107041 @ 음.

107041 #2 마늘도 엇고 고추도 어시니까 그대로 킁킁와도 그렇게 맛있어이. 누르르허영.

107041 @ 소금국 허영 그냥 동지만 담양예?

107041 #2 돌 지들랑 놔뒀다가 그대로 킁당 먹고. 또 고춧ㄱ르라도 이시민 영허영 허터서 먹고.

107041 @ 음. 누렁허게 익으믄 먹어예. 그걸.

107041 #2 시금트롱헌 게 맛이 잇어낫는다 이젠 먹으렘 해도 못먹을 거 같아배.

107041 #1 못 먹어. 못 먹어.

107041 @ 걸 동지집끼?

107041 #2 동지집치.

107041 @ 음.

107041 #2 이제는 얼마든지 이제는 맛있게 헝 수가 잇주마는 그전에는 맛있게 헝라도 미원이 시카?

107041 @ 예.

107041 #2 뭐 이제 썸이 다시다도 잇네 좀 젓갈도 잇네. 아무 거라도 사명다가 놓주마는 아무 것도 없어.

107041 #1 양념이 없으니까.

107041 #2 깨라 헌 것도 조 갈면 조팍디 머드레라고 놔이.

107041 @ 예예.

107041 #2 그걸를 이젠 놓민 하나씩 허영 따다가 멧 다불 허민 이젠 그거 허영 양념 먹을 수도 없어. 그자 경허영 쪼끔씩 제스 때나 쓸라고.

107042 @ 음, 계문 삼춘 이제, 옛날에야 늠뻘집치 안 헛주마는 요즘은 늠뻘집친 허잖아예.

107042 #2 요즘에야 허지.

107042 @1 어떤 식으로 헝니까? 요즘은.

107042 #2 요즘에는 난 아무것도 헝 충 몰르니까 늠뻘집끼 헝라믄게 그런 짐치도 잇고 저런 집도 잇고 영 허영은에 허민 푹푹 썰어가지고.



107042 @ 음.

107042 #2 무우를 아이고, 뭘엔 굳젠 해도 잊어부러졌저.

107042 #1 늬삐 썰엿.

107042 @ 음.

107042 #2 늬삐 썰엿 소곰 허터가지고 썰엿허민 양념 잘 허민 그렇게 맛있지. 식당에도 나오잖아.

107042 @ 예.

107042 #1 소곰.

107043 @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아까 꽤마농으로도 짐치헙니까?

107043 #2 옛날에는 아녀서. 이제나 허지.

107043 @이제는 어떤 식으로 헙니까? 꽤마농짐친?

107043 #2 꽤마늘 해다가 이제는 다 까는 거라. 탁허게 시쳐가지고 건져가지고 막바르 담가야 맛있지 소곰국에 담갓당은 맛 없어, 찢겨가지고.

107043 @ 아아, 다른 것들은 소곰국에 허잖아예?

107043 #2 으, 기냥 막바르 이제는 뭘 짓갈 다 놓고 모든 걸 다 낱 허민 그렇게 맛있주게.

107043 @ 보통은 어떤 짓갈 놓니까? 거기에는.

107043 #2 어, 기냥 멜젓도 놓고 경허주게. 액젓도 놓고, 놓고 싶은냥 그자 놓고 이젠 뭘 다시다도 잊겟다 뭘 간장도 잊겟다 뭘 없는 게 없으니까.

107043 @ 예. 이제 행만 먹으믄.

107043 #2 다 놓면은 맛있지.

107043 #1 양념간장도 있고.

107043 @ 양념간장도 있고 맞수다.

## 김치

107044 @ 장간만예? 누게안티 줄 거 아니난예? 아까 우리 파짐치 하고예, 그 다음 또 꿩마농도 짐치해마씨? 옛날은 하영해실 거 같에.

107044 #2 옛날은이 콤데산이가 없으니까 꿩마농을 뿌리로 파오는 거라이. 입사 귀는 또 거세기 국도 끓여먹고 죽도 끓여 먹고 또 짐치도 담아먹고 헛는디 그거를 이젠 다 뿌리를 이젠 영허연 뿌리 시쳐가지고 헤양케 헤영.

107044 @ 음.

107044 #2 쫌 물량. 물랴가지고 간장에 커. 그것을 바로 마늘지 해서 먹어.

107044 @ 으음.

107044 #2 맛있어. 그래도.

107044 @ 으음. 그게 더 맛좋은 거 닻아예?

107044 #2 생차 때는 맵고 맛이 없지만 경헤영 먹어서.

107044 @ 옛날은 꿩마농들이 하서예?

107044 #2 하서.

107044 @ 으음.

107044 #2 우리도 어릴 때 강 “평마농 캐어오라” 경허민 그거 재미가 있어.

107044 @ 예, 예, 허는?

107044 #2 강보면 밧디덜 기냥 막 오질오질 오질오질 영 언 밧디.

107044 @ 예.

107044 #2 요만씩 오질오질 허민 걸 막 기냥.

107044 @ 재미로?

107044 #2 재미로, 빨리 파오렌 허민, 빨리강 막 글갱이 아정 강 허곡. 기냥 강 캐어오렌 허민, 기냥 칼 아정 강 캐오고.

107044 @ 아.

107044 #2 경 바구니 승키바구리. 요 밑에는 구덕을 많이 좇거든.

107044 @ 예, 예, 예.

107044 #2 계난 승키바구리 아지고 해서 막 재미부짱 넣어 아정왕 집의 왕 다 듚양은에 걸로 짐치도 담양 먹고.

107044 @ 으음.

107044 #1 그자 국도. 견디 무쳐 먹어보진 아녀서.

107044 @ 아아.

107044 #2 그걸로.

107044 @ 그걸로 무쳐먹진 안 허고예?

107044 #2 재료가 없으니까 못 무치는 거지.

107044 @ 음, 음, 음.

107044 #2 뭐 이제거치 설탕이 잇나 뭐 잇나게.

107045 @ 음, 음.

107045 #2 설탕도 어떻 헤신고 허민 중간에다가 그 이 제국시대가 잇잖아.

107044 @ 예, 예.

107044 #2 그때에 완에 그 노랑설탕을 줌 나눠줘서.

107044 @ 음.

107044 #2 그렇게 헨 그거를 콩 보까가지고 이젠 콩 막 그냥 뜨뜻하게 허영 헌 때에 설탕을 허끄는 거라. 허터가지고 솟 소굽에 딱 놔두는 거라. 뜻뜻헌 솟 소굽에 서 그것이 딱 영 허영 파자가 되는 거라. 계민 그거를 한 개씩 먹어보면 그렇게 맛 잇을 수가 없어.

107045 @ 음, 그게 요즘 강정 아니라예? 콩강정. 맞수다.

107045 #2 경허영 먹어서.

107045 #2 그 다음에 여기는 갓을 뭐렌 험니까? 이 동네서는.

107045 #2 갓?

107045 @ 예.

107045 #1 갯늬물?  
107045 @ 예, 갯늬물.  
107045 #2 옛날은 갯늬물.  
107045 @ 갯늬물예?  
107045 #2 이제는 갯이여 무신 갯늬물엔만 주로 했주, 우리 갯늬물.  
107045 @ 갯늬물로는 주로 뭐 행 먹어마씨?  
107045 #2 물짐치.  
107045 @ 아, 그걸로는 물짐치를 허여? 게믄 물짐치는 어떤 식으로 했수가?  
107045 #2 딱딱하게 헤여다가 시쳐가지고 이젠 향아리에나 쪼끄만헌 향아리나 두경 맞는 거.  
107045 #1 단지. 단지.  
107045 #2 단지.  
107045 @ 음.  
107045 #2 쪼끄만헌 단지레 이제 거를 즈북즈북 이제 썰여. 썰여가지고 소금을 놔.  
107045 @ 음.  
107045 #2 소금을 놔가지고 물 팔팔 끓여가지고 그렇지 아녀민 막 독해서 못 먹어.  
107045 @ 음.  
107045 #2 게믄 팔팔 끓여가지고 이젠 놔서 이젠 향아리 두경을 딱 더껴.  
107045 @ 음.  
107045 #2 더경 놔다가 혼 이를 삼일만 이시민 맛있어.  
107045 @ 음.  
107045 #2 이제난 뭐 다음에 무신 뉴스끄르니 뭐 무신 거엔 나왔주마는 그젠 설탕도 엇으니까 고대로들 먹고 살았지.  
107045 @ 음.  
107045 #2 다음엔 그 설탕이 나오난 것도 낭 먹고.  
107045 @ 게믄 옛날에는 물짐치헌 거는 갯늬물로만 물짐치헌 거우과?  
107045 #2 으.  
107045 @ 아, 다른 거는 물짐치 안 허고?  
107045 #1 늬삐.  
107045 #2 늬삐도 중간에도 나왔주. 막 옛날에는 갯늬물.  
107045 @ 중간에 늬삐 물짐치는 어떤 식으로 헌 거라?  
107045 #2 것도 그렇게. 그냥 똑똑 썰어놓고. 소금 놓고 이젠 다른 양념이엔 헌 건 마늘도 시민 놓고 없으면 말앙 그자 소금 놓고 물 부어낭 영 허영 맛팡. 게영 식초가 없으니까 어떻 헤신곤 허민 이제 영 허여근에 향아리에다가 그 밥을이.  
107045 #1 쉰다리.

107045 #2 쉼다리거치 놔두면 막 오래 이제 ㄹ트민 먹지도 아녀지게. 막 벌레가 생겨.

107045 @ 음.

107045 #2 생겨 막. 식초가 돼여. 게민 그거를 떠놓면서 냉국도 해 먹고. 하간 그런 것에도 놔 먹고 다 했지.

107045 @ 으음. 옛날 어른들은 지혜가 잇었던 거주예? 그런 것도 다 만들었으니까.

107045 #2 것도 식초를 만, 경허젠 허민. 누룩을 옛날은 누룩을 만들었어. 누룩을 놔야.

107045 @ 예, 누룩 놔야 이제 발효가 쥬예? 나중에 누룩 만드는 것도 다 조사 쥬 거우다. 이제.

107045 #2 나 누룩 만들 쥬도 몰른다.

107046 @ 아까 만들었뎀 허멍. 그 다음에 여기, 새우리도 짐치 쥬수가?

107046 #2 에이고, 그때는 새우린 난 몰라쥬저.

107046 @ 아, 게민 새우린 언제 쥬수가?

107046 #2 축담 밑에이.

107046 @ 예.

107046 #2 쥬 같민 그자 쥬장에나 쥬어낭 먹는 걸로 알앗쥬. 축담 밑에.

107046 @ 음.

107046 #2 아무디도 아니 축담 밑에 같아.

107046 @ 예, 새우리는?

107046 #2 물 툐툐 털어지민 그거 비영 그자 쥬장에 쥬어낭 먹고. 주로 쥬장에 쥬어낭 먹어.

107046 @ 새우리는?

107046 #2 경허영 툐 허게 쥬어놓곡 이제 그거를 떠 놓고 냉국허민 맛잇어.

107046 @ 음, 새우리는 짐치는 안 해보고.

107046 #2 중간에야 새우리짐치가 나왔지.

107046 @ 예.

107046 #1 집 둘레에 심는 게.

107046 @ 예.

107045 #1 이제 아까ㄹ치 그 저, 새우리허고, 양웨.

107046 @ 예.

107046 #1 양웨 헤영근영에 이제 쥬당 먹곡 다시 그 저 양엇간엔 헤영근영에 그 저 쥬 올라오는 거.

107046 @ 예, 예.

107046 #1 양웨불엔도 곤고.

107046 @ 예, 예.

107046 #1 그거 혜영 딱시 지시 듬양 먹고. 또 반찬, 반찬으로도 행 먹고. 경덜  
헛주 뭐.

107046 @ 계난 양웨를 하영 먹엇겠네 예전에는예? 아아.

107046 #1 계난 집 둘레에 거 웨.

107046 #2 것도 매 집이 없어.

107046 #1 집가지 아래 그계 헛느냐고 하면 물이 떨어지니까 흑을 파불거든. 그  
걸 심으민 흑이 도망가들 안 허여. 옛 어른덜이 지혜라, 것도.

107046 @ 뿌리 딱 저기 하믄예? 예, 맞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 젓갈

107048 @ 그 다음에 젓갈은 옛날은 안 헛주만 계도 담앗잖아예. 젓갈은 어떤  
거 담양 먹엇수가? 집에서.

107048 #2 아, 젓갈.

107048 @ 예.

107048 #2 젓갈은 주로 그자 멜컷벧기, 멜컷 자돔.

107048 #1 자리젓.

107048 #2 자리젓.

107048 @ 예.

107048 #2 그거.

107048 @ 여기는 삼춘 자돔젓 헛수가? 자리젓이렌 곱앗수가?

107048 #2 자돔.

107048 @ 자돔젓.

107048 #1 자돔엔도 허고 자리엔도 허곡 두 가지 다.

107048 #2 자돔 삼서 그자 그거주.

107048 @ 음.

107048 #2 우지. 이제도 자리엔도 곤는 사름 잇고 자리엔도 곤지마는 옛날엔 주  
로 “자돔 삼서, 갈치 삼서, 고등에 삼서, 각제기 삼서.” 웃음.

107048 @ 웃음. 옛날은 다 폴레 다녀시난예? 맞수다.

107048 #1 자돔이나 자리다 두 가지 다 병용해?

107049 @ 그러면 삼춘, 그 자돔도 젓갈 담아봤지예? 그건 어떤 식으로 담읍니  
까?

107049 #2 아, 기냥 소곰허고.

107049 @ 비율은?

107049 #2 비율 건 난 몰라. 우리 부모네가 돛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영 돕는 거  
보니깐 자리를 영 그릇에 놔가지고 이렇게 소금 놓고 영 배합을 시켜.

107049 @ 예.

107049 #2 배합을 시켜가지고.

107049 #1 버무려.

107049 #2 향아리레 영 이렇게 똑똑 허여서 이젠 또 이젠 영 똑똑 놔가지고 이젠 그레 똑허게시리 저 뭐인가, 저 누리떠. 누리뜨는 거엔 현 건 대바드랭이.

107049 @ 예.

107049 #2 대바드랭이 영 혜연 만들어가지고 딱 놀령 우의 돌 지들봐. 경허영 허곡. 경허영 이젠 벌레 퀘지 말게, 이제 벌레, 옛날 파리도 만헤낫서이.

107049 @ 예, 맞아예.

107049 #2 파리 만헤나니까 쉬프리가 왕 어똥꾸름허든 들어가니까 그거를 방지 위허게 허젠 허면 호박입도 혜영 더꺼나고.

107049 @ 예.

107049 #2 또 그렇지 않으면 쌈수세기엔 현 거 잇어.

107049 @ 쌈수세기?

107049 #2 쌈수세기 뭐엔 곤는고? 옛날은 쌈수세기.

107049 @ 예.

107049 #2 영 줄 받으면 올라가는 거. 가시 돈은 거.

107049 @ 알아집네다.

107049 #3 그거 헤다가 영 혜영 소곱에도 놓고 영 둘레로도 둘르민 파리가 안 와.

107049 @ 음.

107049 #2 경허영.

107049 @ 음, 아, 게른 이제 젓갈 담은 우의로 헤갓고예? 그거를 더뜨는 거라 예? 그걸로예?

107049 #2 막 더뜨면 안 돼고 영 허영.

107049 @ 가로.

107049 #2 둘랭이면 이렇게 영 허영 흐끔 공간 잇게 행 놔두민 안 들어.

107049 #1 아, 그저 단지, 단지 베껏딜로?

107049 #2 베껏딜로.

107049 #1 아, 베껏딜로오.

107050 @ 경혜영 아마 그거가 파리 퇴치허는 무슨 게 잇나봐예?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헤서 담그고. 멜쳤은?

107050 #2 멜쳤도 똑 ㄴ타. 그렇게 소금 버무리고. 그자 그렇게 행 행 놔둬야 허주 경 안 허면 벌레가 많이 퀘여.

107050 @ 음.

107050 #2 먹을 수가 없어. 벌레가 뭐 옛날은 이만씩 허여. 이만씩 허여.

107050 @ 그 벌레를 무신 벌레, 뭐렌 헉니까?

107050 #2 베랭이 퀘엿저게. 막게게. 그것이 파리 웨영 나가.

107050 @ 예예.

107050 #2 계민 구데기 지레긴 이만씩 헤여이. 큰 건.  
 107050 @ 계난 베랭이가 큰 다음에는 구데기가 되는 거구나예?  
 107050 #1 어, 베랭이가, 버랭이가 어느 정도 돼민 구더기 돼고.  
 107050 @ 예.  
 107050 #1 구더기에서 탈바꿈 허민 프리가 돼고.  
 107050 @ 쉬프리 되는 거? 음, 그 구데기가 하는 거구나. 구데기는 영 꼬리 들  
 린 거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  
 107050 #1 으으.  
 107051 @ 혹시 아가미젓도 해봤수가?  
 107051 #1 알게미젓.  
 107051 #2 알게미젓. 그거는 우리는 우뜨르라부난 헨디 거.  
 107051 #1 해변사름덜.  
 107051 #2 해변사름이 허영 플레와.  
 107051 @ 아, 알게미젓 허영 플레와예? 그거는 무신 걸로 허는 건고예?  
 107051 #2 갈치.  
 107051 @ 아아.  
 107051 #2 갈치 니깍 허여단 거. 니깍 허어나민 요만큼 허영 갈치 현 거 허곡.  
 107051 #1 창자.  
 107051 #2 창자 헤놓고 허여근에 영 알게미젓 삼센 허영.  
 107051 @ 니깍은 니깍으로 쓰고. 나머지로 저기를 허는 거라예? 슬로는?  
 107051 #1 니깍허고.  
 107051 @ 예.  
 107051 #1 겨난 고길 나끄젠 허면은 다시 갈치에 나쁜 걸 거 어느 정도 그 이  
 껍으로 이제 다시 내리면 그거 물영근앵에 올라오면.  
 107051 #2 젓갈 못 담는 거 잊어. 바닷고기 아무 걸로도 듬으면 돼주.  
 107051 @ 알아수다. 경 험니까?  
 107051 #1 강이젓도 있고, 강이젓도 있고.  
 107051 @ 어어.  
 107051 #2 고등어젓도 있고.  
 107051 @ 고등어도 젓헤예? 아아.  
 107051 #2 각제기젓도 있고. 젓 못허는 거 없어.  
 107052 @ 강이젓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씨? 계민.  
 107052 #2 아, 강이젓도게 난 그런 건 잘 안 담아보난 몰른디, 강이젓은 허젠  
 허른 이제 금방 먹지 아너근앵에 막 그냥 오래 놔둘 거는 막 간장 짜게 허영.  
 107052 @ 으음.  
 107052 #2 짜게 헤영 딱 누르떠야 속에까지 들지. 강이젓이라 현 거는 흐끔만  
 간장이 떴다 허면 못 먹어.

107052 #1 떳다허면 싱겁다 허면.  
 107052 @ 으음.  
 107052 #1 싱거워.  
 107052 #2 그것이 무신 내가 나가지고.  
 107052 @ 아, 아.  
 107052 #1 변해분다 이거지.  
 107052 @ 경허난 소금을 완전 하영 낵 허는구나예? 경허영은에 하고. 그 다음  
 에 옛날에 무사 반찬을 출레렌 해신고예?  
 107054 #2 반찬 출려야 밥 먹을 거난게.  
 107054 @ 어, 무사 출레렌 곶아신고예?  
 107054 #2 출레, 그건 모르커라.  
 107054 @ 음. 게도 옛날에 출레렌 이런 말은 하영 들어짚우과. 뭇 출레렌 헉디  
 가?  
 107054 #2 무신 거 출레 즈쳐사 밥을 먹주게. 경 허여낵주게. 출레 엇이 밥을  
 먹어져게. 경, 경헌 말만 들언 건 모르커라.  
 107054 @ 출레 즈쳐사예? 예.  
 107054 #2 에이고, 아무 것에라도 먹어져. 게난 아무 걸로라도 출레엔 허주.  
 107054 @ 예.  
 107054 #2 출레. 게난 웬장도 출레. 이제 지시ㄴ라도 출레.  
 107054 @ 음.  
 107054 #2 젓갈도 출레.  
 107054 @ 예.  
 107054 #1 것이 한자음일 거라. 출레가.  
 107054 @ 한자음이 아니고예? 짠 것. 거난 옛날은 다 짜지 안 합니까?  
 107054 #1 차다.

### 장아찌와 회

107055 @ 츳다에서 온 거. 게난 춘 음식. 게니까 요즘은 반찬이렌 허지만 반찬  
 이 주로 짐치허고 뭇 웬장이나 이제 자리젓갈 이런 거니까예 짜다라는예 의미로,  
 한자는 아니고예. 그 다음에 지시도 얘기헛지만 삼춘, 여기서 지시 담아본 거는 뭇  
 뭇 지시 담아봤수가?  
 107055 #2 지시야 뭇 여기서 못 담는 거 없지.  
 107055 @ 음, 어땡. 예를 들면?  
 107055 #2 마늘로 담고.  
 107055 @ 마늘로 담은 건 무신 지시?  
 107055 #1 마농지시.  
 107055 #2 파빨리로도 헤영 지 담고.



107055 @ 음.

107055 #2 또.

107055 #1 양웁간도 잇고.

107055 #2 양웁간으로도 허영 담고, 무우말랭이도 담고. 못 담은 거 엇어.

107055 @ 옛날에 췌피도 헌덴 허고?

107055 #1 아이고 그건?

107055 #2 건 따와야.

107055 #1 췌피 따와는데, 그 췌피짐친, 아 췌피지신 그 저게 그 저 방부제이면서 한방에 구충제.

107055 @ 예.

107055 #1 방향, 방향제도 뒤고 구충제도 뒤고 해서.

107055 @ 음. 경허영 옛날덜 하영 담은 거구나예? 아아.

107055 #1 고지 강 일부러 뜯어당근에 담은 사름덜.

107055 #2 이젠 췌피도 없어. 문딱 개간해불고 허니까.

107055 @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치지시도 해봤수가?

107055 #2 으, 반추.

107055 @ 아, 반추 해판? 그.

107055 #2 나 험 먹진 아넛주마는 이제 우리 친정에 살 때 우리 할머니가 이제 반추낭을 큰 거를 하나 해가지고.

107055 @ 음.

107055 #2 이젠 그거를 이젠 지 담은 거를 나가 할머니 허는 걸 봐나서.

107055 @ 아,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7055 #2 그걸 막 찐라.

107055 @ 예.

107055 #2 이만큼 굵으니까. 찐라 가지고 영 갑을 지어, 영 내와.

107055 @ 예.

107055 #2 요만큼 해가지고 갑을 내와 가지고 것도 간장 끓여.

107055 @ 예.

107055 #2 끓여서 부어.

107055 @ 예.

107055 #2 경 허영 낫다강 먹으면 맛있어. 것도. 경허영 먹어.

107055 @ 음, 요즘 반추 모르는 사름도 하서예? 게니까.

107055 #2 몰르주게. 엇어져부러주. 요즘은.

107055 @ 거는 줄기로 갖고 허는 거예? 반추는예?

107055 #2 대.

107055 @ 대로예? 어.

107055 #2 막 크민 천장밭디 허주게. 거 찐라불면 또 나와.

107055 @ 또 나오면 또 허고 또 허고.  
107055 #1 반추가 뭐인고 허면 남양에선 바나나.  
107055 @ 으, 그 님은 파초.  
107055 #1 파춘디.  
107055 @ 예.  
107055 #1 반출 지금 영 거로 거기서도 헛는데 그걸 하우스 안에 담으니깐 바나나가 달려.  
107055 @ 음. 그런 종류네예.  
107055 #1 게난 이 크든 아녀고 이 손가락 지럭시.  
107055 @ 예예, 바나나 종류네예? 아.  
107055 #1 바나나 종류, 저것이.  
107055 @ 예, 그 다음에 그 잎도 바나나허고 똑 ㄹ트난예?  
107055 #1 으으.  
107055 @ 그 유로는 지시 안헤봤수가?  
107055 #2 아니, 중간에야 헛지. 그때는 유도 없었어.  
107055 #1 무사 전원 해나실 거라.  
107055 @ 어.  
107055 #2 옛날엔 엇어어.  
107055 @ 옛날엔 엇고예? 아.  
107055 #2 이 중간에야 계속 담으명덜 먹엄주마는.  
107056 @ 음, 옛날에 반찬이렌 허민 아까 마농지시렌 헤신디 마농지시 담은 법 골아줍서. 건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107056 #2 아, 마농지시 돕는 거는 마늘 메여다가 그걸 뿌리를 이 뿌리를 이 잘라. 잘라내두고 이렇게 벳겨. 벳겨가지고 입사귀를 뜯어.  
107056 @ 음.  
107056 #2 그 입사귀도 없으니까 다 먹었어. 누리룽헤도.  
107056 @ 예.  
107056 #2 다 먹고 헛는디 걸 잘라가지고 이젠 향아리에 담아 가지고 이젠 소금 흥 징 이젠 그 마늘 흥 징 놓고서. 간장이 귀허니까.  
107056 @ 예예예.  
107056 #2 옛날에는 흥 그것만 주로 웬장허고 간장만 먹어 놓고 살아놓니까 멧말에치 허여도 없는 집은 없었어. 경허여근에 허민 주로 그자 그 소곰에, 소곰 의지 헤영. 소곰국 확확확확 꿰와가지고 간장 같이 꿰와가지고 놔서 먹었어. 경허영.  
107056 @ 마농시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예?  
107056 #2 중간에는 간장만 난 먹었지.  
107056 @ 음, 중간에. 옛날에는 간장이 귀하니까.  
107056 #2 옛날에 우리 어린 때는 그렇게 우리 열 설 흥 열두 술 썸은 경허영.

107056 @ 계난 마농 혼 징 놓고 소금도 혼 징 놓고 이렇게 해서예? 어어. 그 다음.

107056 #2 이젠 그런 거 몰를 거야.

107057 @ 그러니까. 간장으로만 허는 줄 알주. 경 소금으로예? 그리고 삼춘, 이 휘들도 하영 혜 먹엇잖아예? 어떤 휘를 여기서는 혜 먹어신고예? 도련에서는.

107057 #2 아무 걸로라도 휘 먹긴 허는디 주루 휘 먹는 거는 자리휘.

107057 @ 자리휘. 어.

107057 #2 자돔휘.

107057 @ 자돔휘예, 그 자돔휘는 어떤 식으로 헨 먹엇수가?

107057 #2 아, 그거는 그냥 막 썰어.

107057 @ 예.

107057 #2 썰어가지고 이 쫑지 기차붙고 데가리 기차두고 혜가지고 막 썰어가 지고 이젠 그것에다가 식초.

107057 @ 음.

107057 #2 식초 잇잖아.

107057 @ 음.

107057 #2 식초를 짝 비와놓고 이젠 너미 허여도 자리가 굳어.

107057 @ 음.

107057 #2 식초를 많이 놓면 굳으니까 저 적당히 놔가지고 그레 헹 물 놓고.

107057 @ 음.

107057 #2 그자 하간 거. 웬장을 좀 놔야.

107057 @ 음.

107057 #2 자리에는 웬장을 놔야. 간장 놓민 맛이 없어.

107057 @ 예.

107057 #2 웬장 놓고.

107057 #1 양념장 놓면 맛 좋을 거라, 지금.

107057 @ 예.

107057 #2 양념장, 웬장.

107057 @ 예.

107057 #2 웬장, 고추장. 경허영 서껍 배합헹 허민 맛 좋게. 경허영 미원도 많이 들어감 실 거야. 아메도.

107057 #1 요즘이야 경 험주. 저.

107057 @ 요즘예?

107057 #2 옛날엔 미원 없으니까 안 먹으니까 요즘에는 미원 많이 들어감실 거야. 난 그런 것도 잘 먹어지지 아녀니까.

107057 @ 음, 그?

107057 #1 돛추럼 허민 도새기새끼도 허고.

107057 @ 예, 그 새끼훤 허는 거를 한번 골아줘 봅서? 요즘 뭐 새끼훤허는 디도 잘 어시난예?

107057 #2 몰라. 어떻 허여. 알아져?

107057 #1 아니, 건 잘 못아냥 양념 골로로 낱근엔에 물.

107057 #2 난 그런 것도 안 먹고 돛간도 안 먹으난 도무지 생각을 아녀.

107057 #1 물 놓고 초 농곡 양념장 잘 농곡 행 그냥 혼 그릇씩 먹는 거주.

107057 #2 게난 그 새끼훤나.

107057 @ 예.

107057 #2 그 즈베설 잇잖어?

107057 @ 음, 음, 음.

107057 #2 그거를 막 못이는 거라.

107057 @ 음.

107057 #2 원 건데기 흥끔도 잇이 막 못아. 난도질 해놓고 이젠 식초, 사이다 낱 막 영허영 짓이는 거라.

107057 @ 음.

107057 #2 젓어서 물 쪼금 놔서 먹는 사람도 잇고. 또 고대로 춤지름 쫘 좋고.

107057 @ 음, 춤지름 놓고예?

107057 #2 췌 놓고.

107057 @ 음.

107057 #2 고춧그르도 쫘 놓고 경허영.

107057 @ 음, 삼춘은 그런 건 잘 안 먹엄구나. 겨난 잘 안 살찌는 거주게.

107057 #2 브리도 안 헌다. 그런 건.

107057 @ 아, 비유가 약해 갖고.

107057 #2 돛간 먹는 사름도 보민 일로 피 나와가민 저거 무신 귀신이라고. 웃음.

107057 @ 삼춘은 먹엄실 거 아니?

107057 #2 먹어.

107057 #1 웃음.

107057 #2 나가서 먹주. 집의선 도저히 해오질 앓으니까. 나가 사오지 아녀니까.

107057 @ 게도 돼지고기는 해 줘지예? 게난 돛간만, 늘 거만 아녀는 거 아니예?

107057 #1 음. 웃음.

107057 @ 아, 기구나. 경허영은에 하고. 이 바당에서 훤 헐 수 잇는 것덜은 어신가마씨?

107057 #2 주로 뭐 요새사 회 헐 것 천지가 만지. 문딱 갈치로도 허고 고등어로도 허고 다 해연게. 못허는 게 없어.

107057 @ 옛날에는?

107057 #2 옛날은 주로 자돔훤.  
107057 @ 예.  
107057 #2 그자 상어.  
107057 @ 아, 상어도 훤 허여마씨?  
107057 #2 으. 상어.  
107057 @ 무슨 상어가 여기서 낚수가?  
107057 #2 이 가시상어.  
107057 @ 음음.  
107057 #2 이 은상어도 잇어낚주. 옛날은 막 해근에 그거는 막 뭉뜰락허게 슬  
쳐. 그거는 반찬헤여 먹고.  
107057 @ 아아.  
107057 #2 가시상어.  
107057 @ 가시상어렌 현 게 잇어예?  
107057 #1 게난 고기도 우리 어린 때에 나난 게 지금 다 없어.  
107057 @ 그러게예?  
107057 #2 은상어엔 은상어가 우리 고모님이 바다에 어부라나서. 어부덜 헨 멧  
에비아덜이 헤오민 이제 주로 우리 집일 가져오주게.  
107057 #1 처가칩이난.  
107057 @ 음.  
107057 #2 가져오민 이젠 와근에 다 허여 쥐뿔 가곡.  
107057 @ 음.  
107057 #2 이제 무시거 고등어라도 헹 오민 딱허게 젓갈 담아뿔 가곡 경허연  
나난 알주. 몰라.  
107057 @ 음.  
107057 #2 게난 고등어도 큰 향아리에다 이만치헌 향아리에다. 혼 큰 옛날은 어  
부덜 정 텅기논이  
107057 @ 예.  
107057 #2 구덕이 잇어.  
107057 @ 아아.  
107057 #2 그걸로 기냥 지게에 정와.  
107057 @ 음.  
107057 #2 신촌서.  
107057 @ 아아.  
107057 #2 신촌서 멘촌을.  
107057 @ 음.  
107057 #2 정와근에 당신 손으로 우리 고모님이 헤 뿔. 어머니가 사니까. 살아  
이시니까 어머니 먹을 거. 경허민 동네서 이제 난 할머니영 살지이. 할머니영 살민

그 곁에는 문밖 어려운 사름덜이니까.

107057 @ 음.

107057 #2 고등어 허영 딱허게시리 이젠 그거를 허여근앵에 담아뵤 가민 또 재근을 해야 헤여.

107057 @ 그건 무신 말이우과?

107057 #2 젓갈 안 뵤게 허젠 허민. 거 건져가지고

107057 @ 예.

107057 #2 또 소금을 담아야 헤여.

107057 @ 아, 그거를 재근이렌 헉니까?

107057 #2 또 항아리에 걸 담아 데껴두고, 초불물은 데껴두고 재근 안 담으민 기냥 젓갈 뵤불영 먹을 수가 없어.

107057 @ 으음.

107057 #1 냉장고에 놓는 거같이.

107057 @ 예, 소금을.

107057 #2 이제는 냉장고가 잇주마는 그때는 냉장고가. 재근을 헷다가 이젠 그 거 쵸 먹고.

107057 @ 게문 그자락 소금을 하영 허면 그거 구면은 완전 소금 텅어일 건디.

107057 #2 게도 맛있어.

107057 @ 으, 그거 굴 때에 뵤 물에 담그거나 이러진 안 헤마씨?

107057 #2 당그젠 허민 당강 먹지. 국은 끓렁 먹젠 허민 고대로 멧 점 낱 끌리민 뵤는디 그대로 먹젠 허민 흐끔 우려뵤도 먹을 수도 잇고. 물에 담갓다가.

107057 #1 이

107057 @ 저장을, 젓갈 안 뵤게 헤서 자꾸 자꾸 허는 구나예?

107057 #1 경허난 소고기나 뵤지고리라도 오래 놔뵤서 먹을라면 소금에.

107057 @ 예.

107057 #2 소금에 막 당가.

107057 @ 으음.

107057 #1 소금 머무려서 그냥 짝 지둘러두민.

107057 #2 게난 것도 또 재근을 해야.

107057 @ 예, 예.

107057 #2 그렇지 앓으민 기냥 소고기도 허민 쪽에다이 뵤 흐끔 상한 거시기가 잇고.

107057 @ 음.

107057 #2 안 좋아. 다 재근을 해야 뵤.

107057 @ 예.

107057 #2 이제난 뵤 냉장고 허연 헷주마는 그때 적에도 갈치도 그렇게 낫다가 재근헤 놔야 허고.

107057 @ 음.

107057 #2 경 아너민.

107057 @ 게도 삼촌네는 확실히 잘 사는 집이니까 혼 항씩 그런 거를 저장을 한 거네.

107057 #2 저장을 허지. 그 동네도 아무도 허는 사름 엇어. 우리 동네도.

107057 @ 그렇겠지.

107057 #2 밑에 동네도. 그 동네 경. 그 고등어를 행은에 구덕 즐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구덕을 즐으니까 그 대쪽이엔 허민 훑어낸 거 잇어.

107057 @ 예, 예.

107057 #2 대쪽. 훑어 낸 거를 헤영 허민 그것이 슷 안 놔두민 망울이 뒤여.

107057 @ 아아.

107057 #2 경허면은 그거를 이젠 그 가마솥되 불 슷다가 이젠 걸 꺼네가지고 이젠 적췌에다가 톱 낱 귀.

107057 @ 으.

107057 #2 귀가민.

107057 #1 불췌미.

107057 #2 그 할머니덜이 왕이.

107057 @ 냄새에.

107057 #2 냄새. 어찌피 먹읍센 허영 떡곡.

107057 @ 음, 게든 그거를 불망울이엔 헉니까?

107057 #2 불망울.

107057 @ 불망울.

107057 #1 불망구리엔도 허고.

107057 @ 아, 불망구리엔도 허곡 불망울. 게든 슷허영 불 현 거를.

107057 #2 슷허영 영 헤근에.

107057 @ 별경헌 거예?

107057 #2 놔근에 영 헤영 불살르젠 허민 슷도 귀오민 돈 주민 살 수가 잇엇어. 그땐 슷 묻는 사름이 이시니까.

107057 @ 예에.

107057 #2 사울 수는 잇는데, 우리는 그 대쪽을 많이 허니까.

107057 @ 음.

107057 #2 그거를 이제 이용헤가지고 허고. 또 낭 때는, 낭도 없엇어. 낭이 엇어 놓니까. 낭이나 어떻허영 살랑 허민 등겨가지고.

107057 #2 게수미.

107057 @ 예.

107057 #2 물 췌 툃다가라고 허여. 게수미라고 허여. 그거 불망울 끼운 걸.

107057 #1 건 일본말일 거야.

107057 #2 계수미라고 헤여가지고.  
 107057 @ 일본말.  
 107057 #2 슷 만들어가지고 주로 불 살랑 영 초고, 화로에.  
 107057 @ 예예. 으음.  
 107057 #1 그리고 옛 어른들이 그 지혜가 얼마나 좋았는지 박 이름 든 거 허고.  
 107057 @ 예.  
 107057 #1 네 발 달린 짐승은 같이 안 먹었어.  
 107057 @ 으음.  
 107057 #1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그 뭐 그것어.  
 107057 @ 예.  
 107057 #1 호박 수박 그 박이 들어가는데.  
 107057 @ 예.  
 107057 #1 그, 그것이 어르 것에 맞는고 허면은 갈치에는 호박이 들어가야 돼여.  
 107057 @ 그렇지 호박 갈치, 음, 갈치호박국예.  
 107057 #2 호박입도 놓고.  
 107057 #1 옛날은 쟁, 고기 먹젠 허민 제사칩의서 어떤 디서 먹었는데, 쟁국에 저 이 고기, 돼지고기나 소고기 들어가는 디 호박 같이 썰영 놓지 안 하거든게.  
 107057 @ 예예. 쟁국에는예, 맞수다.  
 107057 #1 그대로는 뭐 해서 호박국은 갈치에는 호박이 들어가야 서로 이 저 뭐가 독이 풀려.  
 107057 @ 예. 궁합이 맞는 거.  
 107057 #1 궁합이 맞아가지고 독이 풀리는 거고. 다시 갈치에 그 호박에 박이 안 들어강근엔예.  
 107057 #2 먹으면서 헤여.  
 107057 @ 예.  
 107057 #1 탄 것들 극이 돼버리고.  
 107057 @ 으음.  
 107057 #1 비늘인 거 같아. 갈치에 비늘이. 그 비늘 다 뱉겨두고 쫄 헤 먹는 거 보면은 그 비늘에 독이 잇는 거 같으고.  
 107057 @ 예, 맞아마씨. 잘 상하고.  
 107057 #1 게난 돼지고기 실컷 먹꼭 수박 실컷 먹으민.  
 107057 @ 탈나예?  
 107057 #1 탈나부러.  
 107058 @ 맞수다. 삼춘, 이제는 그 반찬들예, 계절에 따른, 뭐 여기 무신 조림. 이런 것도 헤 먹잖아예? 옛날 우럭 조림이여 뭐여 허는, 그런 반찬들은 어떤 거를 행 먹어신고예? 조림 같은 건?



107058 #2 옛날에?  
107058 @ 옛날에나 요즘에나.  
107058 #2 요즘에야 뭐 일천 반찬은 뭐이든지 놔서 허여 먹었지마는 옛날에는 주로 놓는 게엔 현 건 간장.  
107058 @ 음.  
107058 #2 간장도 없으면 소금국 해냥.  
107058 #1 콩, 콩.  
107058 @ 콩지시도?  
107058 #1 콩 조금 놓곡.  
107057 @ 음.  
107058 #2 그것도 중간에.  
107058 @ 음, 것도 중간에예? 그냥. 우럭만 허믄.  
107058 #2 볼락이나 우럭이나 허민 그자 요즘에는 요즘 중간에 들으믄 그자 콩 놔서 간장 놓고 콩 낱 막 쪼리민 맛 좋아 것도.  
107058 @ 옛날 우럭조림 같은 것들 맛좋아예?  
107058 #2 이제도 해염주게. 이제도.  
107058 @ 그런 것도 강이도 그런 식으로 보강 먹어신가마씨?  
107058 #2 음, 강이는 먹을라면 이제 어떻게 먹느냐 허면 콩 낱 먹을라면 콩을 보끄는 거라.  
107058 @ 예.  
107058 #2 콩을 보까가지고 이젠 간장을 이젠 콩 보강 위에 놓고 찰 강이 놓고 콩 보끈 거 놓고 간장을 팍팍 끓여.  
107058 @ 음.  
107058 #2 끓여가지고 이젠 그 간장을 탁 비워, 그레. 놓면 강이가 빨강해. 빨강해.  
107058 @ 으음, 강이조림은 빨강허니까 그렇게 웬 거구나? 예에.  
107058 #2 그래.  
107058 @ 그걸 무신 반찬 해여마씨?  
107058 #2 강이반찬.  
107058 @ 강이반찬, 강이조림 이런 말은 안 허고?  
107058 #2 이제나 조림이지. 강이 졸랑 먹게 경 허엿주.  
107058 @ 강이 졸랑 먹게. 강이헐 때 짓궂틀도 서툼니까?  
107058 #2 으, 옛날에 어떻헤신고 허민 이제 그 강이를 놔가지고 간장에 낱 막 후라이판이나. 옛날은 후라이판도 엇이니까 냄비에 낱 보끄다가 이제 가르.  
107058 @ 음.  
107058 #2 가르 영 허끄면 강이범벅이 돼여.  
107058 @ 음.

107058 #2 계민 영 허영 그자 수저로도 떠 먹을 수 있고 경.  
107058 @ 그 음식을 뭐렌 굴아?  
107058 #2 강이반찬.  
107058 @ 강이반찬, 강이범벅엔도 험니까?  
107058 #2 강이범벅 돼는 거지.  
107058 @ 범벅이지만 반찬예? 그 다음에 여기는 고사리 꺼끄레 하영 가지예?  
옛날에. 고사리로는 어떤 식으로 반찬, 뭘 해영 먹었수가?  
107058 #2 고사리로는 그자 아무 거라도 허영 먹어져.  
107058 @ 음, 하영, 여긴 우뜨리난예, 고사리들 하영 꺼꺼실 거고.  
107058 #2 우뜨르보단도 이젠 나도 그런 건 잘. 이제난 막덜 잘허여이. 맛있게  
덜 허는디 주로 그때는 찰지름 좀 서끄고, 꿩마농이라도 해오민 그거 놓고 이제 찰  
간장은 엇이른 쪼끔 간장 놓고 소금 놓고 해서, 허여서 쪼려먹고 그자 하간 거. 것  
도 반찬을 만들라든 물론 거는 물에 담갓다가 삶아야 해여. 삶앙 또 물에 담가야  
해여. 경 아녀민 씨.  
107058 @ 으음.  
107058 #2 쓰니까 경해서 이제 보꿀 때에는 참지름 좀 놓고.  
107058 @ 음.  
107058 #2 간장 쪼م 놓고. 하간 거 찰 놓을 거 이시민 양념 이시민 낱 허영 먹  
주.  
107058 @ 경허영 보깡 떡곡.  
107058 #2 주로 옛날엔 꿩마농. 꿩마농 해당 썰어낱 같이.  
107058 @ 거난 이 봄철에 그치 나오는 거니까 음.  
107058 #2 경 허영.  
107058 @ 꿩마농 같이 낱은에 험구나게. 호박들은 어떤 식으로 해 먹어신고예?  
옛날은. 요즘에야 애호박 잇주마는 옛날에야 다 익은 거예?  
107058 #1 호박보단도 아까.  
107058 #2 늙은호박, 늙은호박.  
107058 #1 고사리 나오난.  
107058 @ 예.  
107058 #2 고사리엔 젓국 허는 것도 있어.  
107058 @ 젓국마씨?  
107058 #1 젓국고사리가 있어.  
107058 #2 삶는 고사리가 아니고.  
107058 #1 그대로 삶는 게 아니고 젓국고사리. 그건 지금 그 어디 일본이나 어  
디서도 시험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이렇게 좋앗느냐 상당히 뭐하는 건데,  
이제 주로 고사리에가 뭐가 독소가 뭐가 잇는고 허민 피임제.  
107058 @ 으음.

107058 #1 피임제가 있는데 이.

107058 #2 건 날고사리로 먹을 때.

107058 @ 음.

107058 #1 그것을 젓국하면은 독소가 싹 없어져부러.

107058 @ 음.

107058 #1 요새에 이제 그 소다 낱 허는 사름 뭐 낱 허는 사름 거 삶는 사름덜 이 판 거 낱 삶는 사름덜이 있는데, 일본선 그걸 시험해봐도 독소가 제거 안 돼는 데, 젓국엔 제거가 됐다는 거라.

107058 @ 아아.

107058 #2 독, 젓국 현 거는 요즘엔 또 썰 때에 쓰도 안 허여. 거 젓국이라부니까.

107058 @ 계난 그 젓국은 뭘 젓국이렌 허는 거우과?

107058 #2 재 잇잖아?

107058 @ 예, 불치?

107058 #2 불치가 아니고 바로 잠진 밑에.

107058 @ 예예예예.

107058 #2 가라앉는 재가 있어. 그거를 이젠 그거 무시거 이시카부덴 체로 쳐부러야 헤여. 그거를 이렇게 고사리 영 이렇게 놓면 이레 탁탁탁탁 쳐 놓는 거라. 그걸.

107058 @ 아아.

107058 #2 쳐놔서 뜨신물.

107058 @ 예.

107058 #2 팔팔 끓여가지고 탁허게시리 이디 물이 즈박즈박 요 정도 올라오게 허영 크는 거라.

107058 @ 아아.

107058 #2 쟁 뚜게 탁 더프는 거라. 경헛당 오늘 아척 허민 저녁 때에 쫌이나 그 건져내여. 그 물이 식어야. 식어야 그 독이 다 나오니까. 게서 시쳐서 기냥 그자 간장 므른 거 보까 먹듯이 간장 놓고 허영 므큰.

107058 @ 아아.

107058 #2 므큰.

107058 @ 므큰.

107058 #2 므큰 숲아야.

107058 @ 예.

107058 #2 경 허영 허민 맛있어.

107058 @ 게른 냄새도 안 나고.

107058 #2 으, 쓰지 않아.

107058 @ 쓰잖아예? 아, 쓴 물 빼는 거를 젓국으로 이제 하는 거구나예? 아아.

107058 #2 요새는?  
107058 @ 이 젓국 헌텐 헌 말은 오늘 처음 들었수다.  
107058 #1 처음.  
107058 @ 예.  
107058 #2 요새 소다 낱덜 허난 파랑허긴 허더라.  
107058 #1 소다에 그게 안 빠진다는 거라. 독소가.  
107058 @ 음.  
107058 #2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 아녀봤는디 일본 사름덜이 그걸 헤보니까.  
107058 @ 음.  
107058 #2 젓국을 놓면 고사리가 검어져.  
107058 @ 아아.  
107058 #2 경혜부니까 요샌 파랑허게 임시 기자 곤 것만 먹을 때라 놓니까.  
107058 @ 예예.  
107058 #2 눈으로만 먹을 때니까. 입으로 안 먹고 눈으로 먹을 때라놓니까.  
107058 @ 맞수다.  
107058 #2 그 소다 놓고 허민 파랑대. 경 보까도 파랑더고. 경허영 먹는 거지.  
젓국이 제일. 옛날 어른덜이 잘.  
107058 @ 소다 허민 영양소도 파괴웨불고예,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마씨?  
107058 #2 게메. 경사 허는디.  
107058 @ 아, 젓국으로 해서. 웨냐허면 우려내젠 허민 멧 불을 우려내지 아넘니  
까예? 옛날 어른들은 젓국으로 헛구나? 아아.  
107058 @ 그 다음에 호박, 늙은호박 무침 허는 거는 어떻 헛니까? 탕쉬도 옛날  
허잖아예?  
107058 #1 제사 때.  
107058 #2 난 모르 키여. 그건 옛날. 그자 호박으로만 호박으로만 헛주게. 주로  
호박적도 허고.  
107058 @ 호박적도 허여마씨?  
107058 #2 어, 영 나풀나풀 요렇게 행 묵적거찌 꼬지에 꿰어 것도. 꿰서 귀.  
107058 #1 올릴 게 어시난게.  
107058 #2 올릴 게 어시니까. 걸로 뽕뿌라도 허고.  
107058 @ 예, 뭐 뽕뿌라야 요즘은 뽕뿌라허지마는.  
107058 @2 그제도 헛어.  
107058 @ 아, 옛날 헛수가?  
107058 #2 감저뽕뿌라도 주로.  
107058 @ 으음.  
107058 #2 없으면.  
107058 @ 호박을 적 해서 식게 때 이런 때 올려서마씨? 아아.

107058 #2 음, 너 점씩 허영 케민 목적이나 똑 ㄴ타.

107058 @ 목적도 너 점씩 랩니까?

107058 #2 으, 너 점.

107058 @ 호박적 허는 것도 처음 들었수다. 이것도. 계난 동네마다 뜨나고 올릴 게 어시난.

107058 #1 아니, 경헌디 도련도 엇어서.

107058 @ 으음.

107058 #2 호박채가 또 주로야.

107058 #1 채 허영 먹는 거.

107058 #2 채 허영. 그자 제스 때 가민 호박 두 점. 콩누물 딱허게시리 헤영 고 사리 흐끔 놓고 콩누물 흐끔 놓고 호박 두 점 농곡 헤영근영에 그자 때 사름이 한 접시야.

107058 @ 예.

107058 #2 경허영 쥐.

107058 @ 식게 먹으레 가민은 그것부터 쥐나서예? 옛날에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먹어났수다. 옛날에 그렇게 만든 음식은 뭐렌 합니까?

107058 #2 채소헨 허주.

107058 @ 호박채.

107058 #2 채 허영 멘들양덜 먹어사주.

### 장 답그기

107059 @ 호박체렌 허는구나예? 아아, 삼춘, 이젠 삼춘 전공 나왔수가?

107059 #2 전공이 뭐여?

107059 @ 장 하영 답앗텐 허난.

107059 #1 웃음.

107059 #2 거 몰라.

107059 @ 장은 언제 답음니까?

107059 #2 거야 뭐 이제 옛날에는 주로 혼 동짓들 썸에 거 썸양.

107059 @ 예.

107059 #2 썸양 이제 막 밟아서 이젠 그제는 영 산디집으로 헤영 메달아.

107059 @ 음.

107059 #2 매달양. 이젠 산디찍도 없언 매달 수도 없어. 겨영 매달아가지고 거 돌르면 꺼내영 선들 초싱.

107059 @ 예.

107059 #2 음력 선들 초싱, 나민 동짓들 구물영 강이나 장을 담은 거라. 답앗다가 이젠 선들 구물 다 웨영 정월 초싱 나기 전에 그거를 뜨는 거라.

107059 @ 음.

107059 #2 떠근에 놔둬서 웬장은 웬장대로 간장은 간장대로 해영 딱허게 담양.  
107059 @ 음.  
107059 #2 놔뒀당도. 놔뒀당 먹을 저를도 없었어. 그냥 항에 돌아정 이런 개미  
에서 뜯어다가 먹었지.  
107059 @ 아까, 무신 거 재미?  
107059 #1 장깨미.  
107059 #2 메주 깨미. 영영 똑똑 떠다 먹었지. 떠냥은에 묵엇당 먹을 수도 없어.  
없어가지고.  
107059 #1 없어가지고.  
107059 @ 삼춘 메주깨미 장깨미 이 저기 갈리지 안 현 때 그거를 곤는 거구나  
예? 웬장 찌꺼기를 갈리지 안 현 때 그것 채 아직 익지도 아널 때부터 먹어분 거구  
나게. 게문 삼춘, 장 담젠 허민 무사 그 메주 삶는 날도 따로 날 반양 허지 안 험니  
까예? 어떤 날 주로 헛수가?  
107059 #2 아, 그거는 이녁 본명, 본명일 없는 날.  
107059 #1 식구 본명 엇인 날.  
107059 @ 식구 본명 엇인 날.  
107059 #2 그런 날 주로.  
107059 @ 그리고 무슨 본명 엇어도 어떤 날은 장 안 담는다 허는 날도 잇지 아  
녀우과?  
107059 #2 이 하르방은 잘 알아, 난 몰라.  
107059 #1 신일이.  
107059 @ 예.  
107059 #2 건 지간으로 안 빵 천간으로.  
107059 @ 으.  
107059 #2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경신 임계허는디 경신 허는디 경신.  
107059 @ 예.  
107059 #1 그 저 메울 신자 그게, 실 신엔도 허고 장맛이 엇어진텐 해불어.  
107059 @ 그 날은 안 해예? 아아, 납날?  
107059 #1 아, 납날은.  
107059 @ 으.  
107059 #2 벌레가 켜덴 허여.  
107059 @ 벌레 켜덴. 납신 해갓고.  
107059 #1 경허고.  
107060 @ 장은 어떤 종류들 담아봤수가?  
107060 #2 아이고, 없는 집원이, 저 콩도 없으니까 못 됴으니까이 쫓도 허영 글  
아서이 기냥 해영 담곡.  
107060 @ 음.

107060 #2 아무 걸로라도 허영.  
107060 @ 아, 풋으로도 장을 담아예?  
107060 #1 보리웬장도 허곡.  
107061 @ 보리웬장도 허곡. 게른 보리웬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  
107061 #2 것도 다 삶앙게.  
107061 @ 음.  
107061 #2 경허영.  
107061 @ 경 허영은에 게른 보리웬장은 보리 허고 콩을 서끄는 겨우과? 아니면 보리로만 허는 겨우과?  
107061 #2 이제도 저 그 보리썰 잇잖아?  
107061 @ 예.  
107061 #2 보리썰에 그 저 웬장 삶아가지고 밍을 때는 그 보리썰 집어놔.  
107061 @ 으음.  
107061 #2 그레 집어놓민 영영 산디쩍 해서 딱 돌아맹 놔두민 것이 같이 터. 보리썰이 크면 장 담을 때에는 그 메줏가루를 시쳐두고 물기 싹 빠지와가지고 이젠 내일 당그젠 허민 오늘썸 시청 놔둬야주게. 경헤야 물기가 빠지니까. 간 간물에다가 텃날은 영 집어놓는 거지.  
107061 @ 음.  
107061 #2 경.  
107061 #1 턱운다는 건 지금 말론 허민 발효.  
107061 @ 예예.  
107061 #1 발효시니는 걸. 매달아 두면은 발효가 잘 돼민 잘 텃젠도 허고, 곱게 텃젠도 허곡. 꺾게 텃젠. 꺾게 트민 몸 꺾인 사름 텃젯젠도 허곡.  
107061 @ 으음.  
107061 #2 꺾게 트민 요렇게 또 힘든 게 없어.  
107061 @ 음.  
107061 #2 머리 닳은 게 이만씩 돌아오곡이 막 뜨송험젠 헤도이 그것이 아니라.  
107061 @ 아, 머리 닳은 것도 돌아와마씨?  
107061 #1 곱팡이, 곱팡이.  
107061 @ 곱팡이가?  
107061 #2 곱팡이, 머리 곱팡이가 이렇게 돌아와.  
107061 @ 아, 그 곱팡이 이름을 무신 곱팡이렌 험니까?  
107061 #2 우린 기자 검은곱팡이여 흰곱팡이여 허난 몰르지.  
107061 @ 음.  
107061 #1 검게 텃저.  
107061 @ 검게 트면은예?  
107061 #1 검게 텃저.

107061 #2 경허문.  
107061 #1 곱게 텃저.  
107061 #2 그 장 허민 아니, 아니 메주 이렇게 갈라지는 수가 있어.  
107061 @ 예예예 예.  
107061 #2 그디다가 들어놓민 거 시쳐내젠 허민 잘도 힘들어.  
107061 @ 맞아예? 그게 잘 안 틀 때 꺼떻게 변해부는 거구나예?  
107061 #2 거 너무 뜻어도 그럴 수도 있고. 몸 굿은 사름 봐도 그럴 수가 잇는 거고.  
107061 #1 옛날은 몸 굿다 뭐허다 현 디 지금 우리가 생각허민 관리를.  
107061 @ 잘 못 헨겨주게예.  
107061 #1 온도에, 적정한 온도에 맞추지 못헨 거.  
107061 #2 어찌다가 경 돼부러.  
107062 @ 맞수다. 그 메주는 게니까 언제 아까 메주 썬는 게 아까 그 동지 이 때? 메주 썬는 거?  
107062 #2 으, 동지 때 썬든가 이제는.  
107062 #1 동깃들엘 허던가.  
107062 #2 옛날엔 그렇게 헛지만 이제는 한 시월만 구물어가민 기냥 썬. 썬다가 션들만 나민 기냥 담가.  
107062 @ 아, 장 담그는 거는 무조건 션들에 담그는구나예? 션들에 이제 담그 고예?  
107062 #2 건디 여기 사름이나 경허지 육지 분들은 삼월달 나야, 등가. 장을.  
107063 @ 기후가 뜨나니까 헨건가.  
107063 #2 몰라.  
107063 @ 삼춘, 장 담 귀허게 여겨잖아예? 쟁은에 뭐 헐 때 장 담글 때는 무신 거 허지 말라 이런 금기사항도 하서예? 몸 굿이면 텡기지 말라 허듯이. 무신 말을 곶아나신고예?  
107063 #2 그것이 메주 트는 과정에서.  
107063 @ 예.  
107063 #2 굿게 곱게 트는 수도 잇고 곱게 트는 수도 잇고 허니까 몸 굿인 사 름일랑 보지 말라.  
107063 #1 여자 ㄹ트면 생리. 그런 것도 피허렌 허곡.  
107063 @ 그런 거 헐 때는 메주도 썬지 말렌 허곡.  
107063 #2 건 확실히 알아져. 생리 헐 때는.  
107063 @ 아, 알아집니까? 그러면 몸 굿인 때는 허지 말렌 허고. 또 허지 말렌 허는 건 잇어마씨?  
107063 #2 아 건, 좋은 날에 봐근예. 좋은 날에 봐근앵에 이녁 이제 식구가 이 제 그 헤치가 이제 없는 날.



107063 @ 예.

107063 #1 열두 날말이렌 안 든 사름 잇는 날. 웃음.

107063 @ 본명일은 허지 말렌 허영.

107063 #2 본명일은 허여도이 옛날 사름은 경 곶아라. 본명일에 허민 그 사람이  
뚝이 잘 난덴 허여.

107063 @ 아아. 본명일에 메주 쭈면은 뚝 잘 난다고. 담은 날도 틀리, 메주 쭈  
는 날도 허고 장 담은 날도 그거 곶리잖아예?

107063 #2 으. 겐디 이젠 경 안 허대.

107063 @ 그래도 아까 본명이 다 허젠 허민 메주 쭈 날이 하지 안 험니까? 식  
구도 하나까.

107063 #2 없어.

107063 @ 어느 날 쭈면은 쥘 좋다 허는 날 잇어예?

107063 #1 툃날 많이 좃앗주. 토끼날덜.

107063 @ 음, 툃날.

107063 #1 도새기날 허고.

107063 @ 아아.

107063 #2 이 쉼날에는 담으면 장 간에 틀 적에 니치력 님은 게 잇넨 허여.

107063 @ 니치력이.

107063 #1 쉼 거, 쉼 것ㄴ라.

107063 @ 아아, 쉼날은. 쉼날도 안 험 거고 므날은?

107063 #1 므날은 새는 거주.

107063 @ 아, 므날은 새는 거고. 게믄 툃날 모날 아까?

107063 #1 도새기날.

107063 @ 도새기날. 그 세 날이 제일 좋은 날?

107063 #1 아니 뭐, 미, 미일더도 다 세여. 빼는 게 축일 신일 보편적으로 그걸  
빼주.

107063 @ 음.

107063 #1 그걸 빼고. 신일 천간 신일 빼곡. 경허영 그 세 날을 제외하곤 거쥌.

107063 #2 그 날만 허민 장이 돕으면 장이 이 하르방이 “오늘날 허지 마라. 오  
늘 써.”

107063 @ 아, 웃음. 어느 날 허민 써? 그런.

107063 #1 신일.

107063 @ 신일 허면은.

107063 #2 써.

107063 #1 아 저, 옛날 문세에 경 쉼 거난.

107063 @ 예, 예.

107063 #2 경 곶아.

107063 @ 그날 안 허고. 쥐날은 어떻 헉니까?

107063 #2 쥐날은 좋주 뭐.

107063 @ 쥐날은 좋은 날로 허는 거구나예? 옷 같은 거는 쥐날 안 헉텐 이렇게 헉 게마는. 호상 헉 때.

107063 #2 그런, 그런 날은, 호상은 새는 거주.

107063 @ 예.

107063 #1 옛날 아, 지금 그 육지들은 장을 담그는 날은 많이 보는 모양이고.

107063 @ 예.

107063 #2 이 쏘는 날은 제주도에선 봐도 육지선 안 보는 모양이대.

107063 @ 음, 우리, 제주도는 둘 다 보잖아예?

107063 #1 둘 다 봐.

107063 @ 장 담으는 날이나 저기 허는 날이나.

107063 #1 둘 다 봐.

107063 #2 요새 사름덜은 안 봐. 고대로 그자 아무 때라도 허지.

107063 @ 예.

107063 #2 경해도 어떻 안 허여.

#### 떡류

107064 @ 자, 우리 식게 때 허는 떡 종류, 옛날 떡 종류 어떤 거 잇어나수과?

107064 #2 아이고.

107064 #1 겐디 케명 이름이 전부 이젠 잇어부런이.

107064 @ 예.

107064 #1 케명덜이 그게 이 저 시루떡 ㄹ라 무시 거. 시리떡, 시리떡을?

107064 #2 침떡엔 허주.

107064 #1 침떡.

107064 @ 예.

107064 #1 침떡은 옛 어른덜이 땅을 표시헉 거엔 허고.

107064 @ 예.

107064 #1 효를 생각해서 헉 건디 침떡 그 원릴, 원리부터 지금 곤는 건디.

107064 @ 예, 예.

107064 #1 예, 상웨떡은 상, 그건 상 베껏디 올리니는 거니까 상웨떡이고.

107064 @ 예.

107064 #1 다시 송편 이제 지름떡. 뭐 세미떡 것처럼 헉는데 그 모양덜이 예 그 침떡은 땅을 표시헉에 그 뭐 줌 그 땅은 이렇게 그냥 멘짜허지 아녀다는 그런, 그 수매 놓민 트덜트덜 헉 게 아니라게.

107064 @ 예.

107064 #1 그치록헉 거고. 이 지름떡은 그 톱니가 이 혼 들을 표시헉 건디. 서

른 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라.

107064 @ 아.

107064 #1 톱니가.

107064 @ 톱니가?

107064 #1 서른 개가 한 달을 이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올립니다, 조상에게 올립니다 해서 헌 거고. 송편은 그것이 이제 깨끗한 거.

107064 @ 예.

107064 #1 이 사람이 아주 이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그 거세기헌 걸 의미했젠 허고, 저 요는 뭐 이 돌이 절반이라 절반이엔 허는가?

107064 @ 솔벤.

107064 #2 절반 솔벤 절반 잘 아닙니다.

107064 #1 그런 거나 이 손가락떡이나 뭐 전부 있는데, 이젠 이름 전부 잊어부 런 몰르커라.

107064 @ 맞아예? 옛날 허듯이.

107064 #1 옛날덜은 다 곱아나신디.

107064 #2 침떡도 쯤썰로 만든 건 침떡.

107064 @ 예.

107064 #2 곤솔로 만든 건 설귀.

107065 @ 아, 곤썰허고 설귀도 톱나게 허고예.

107065 #2 쯤썰로 만든 건 침떡.

107065 @ 음.

107065 #2 쯤썰침떡. 곤솔로 만든 건 설귀떡 경.

107065 @ 예, 게른 침떡도 그렇게 두 종류?

107065 #2 으.

107065 @ 그 다음에 또 또 무신 떡 잇수가?

107065 #2 그 다음에 무시 거 뭐 생편.

107065 @ 생편?

107065 #2 꺫사 하르방 곱아.

107066 @ 우리 남자 삼춘 말고. 생편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107066 #2 아 그자 고대로 그자 이렇게 해서 그자 영.

107066 #1 ㄱ를 곱아당 물.

107066 #2 반달.

107066 #1 물 버무령.

107066 #2 어떻허영 챗번부터 만드는 거?

107066 @ 예, 예.

107066 #2 이젠 중간엔 잊어가지고 저 방엿간에 강 들팡에 간 영 둥그려당 헛 지만 이제는 저 중간에 우리가 여기 씨집온 후제는 온 후제까지도 들팡에서 곱아당

생펜을 만들어서. 경헌데 그 다음부터는 으 이제 기껏방에 강 쌀 가져강 빠다.

107066 @ 예.

107066 #2 빠다근엔에 그 속에다가 팟도 담고.

107066 @ 음.

107066 #2 담을라면 아무 거라도 담을 수 있어. 속 담는 건.

107066 #1 물 버무려사주. 물 버무려사.

107066 #2 송편ㄱ를 헤다가 고대로 행은 안 돼여.

107066 @ 음.

107066 #2 물 팔팔 끓여. 팔팔 끓여근에 이젠 이렇게 이젠 다라에다가 놔서 이런 통을 파는 거야.

107066 @ 음.

107066 #2 통을 파서 물을 켜는 물을 이디 비워.

107066 @ 예.

107066 #2 비와가지고 이제 탁 더퍼. 더퍼가지고 이렇게 허영 이 영 재미를 멘들아 내는 거라.

107066 @ 음, 음.

107066 #2 막 둥그려가지고. 경허민 허곡. 으차 허면은 그 물이 설언, 잘 안 끓여졌다 허면 물 선 거라고, “물 설었져, 이거 안 돼키여.? 물 설영 느시 만들 수가 없어.

107066 @ 아.

107066 #2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젠 또 물에 이젠 크게 헤다가 개떡거치 멘들아가지고 이젠 영 물에 팔팔 끓이는 솟디 영 놔가지고.

107066 @ 음.

107066 #2 이젠 그거를 익을 만허민 건져내가지고 이건 물 선 것디레 아저당 막 켜여. 그렇게 허민 송편이 멘들아질 수가 있어.

107066 @ 음.

107066 #2 경허민 이젠 영 허영 흔 재미가 영 멘들아놓면 이거 푹푹 끓으면서 영영영영 만드는 거.

107066 @ 계난 그 생펜 모양은 어떤 모양 됩니까?

107066 #2 아, 요렇게 요렇게 잇어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거.

107066 @ 어, 좀 둥그스름 헤갓고예? 아.

107066 #2 다 전을 돌지는 거 아니여이.

107066 @ 음.

107066 #2 요렇게 반쪽만.

107066 @ 아, 반쪽만. 그거를 무신 거 돌진덴 곱아마씨?

107066 #2 저 무신 거온.

107066 #1 뭐엔 골아났는디 잊어부런.  
107066 @ 아까 전 돋진텐?  
107066 #2 춤 전 돋지는 거.  
107066 @ 우리 솟전허듯이예? 아.  
107066 #2 영허민 거 전도 잘 안 뒤엇저게. 영허민 영영 줍아부는 사름 잇주게.  
107066 @ 예예예.  
107066 #2 요렇게 요렇게 줍아야 곱게 나오는디 몰를 땀 요렇게 요렇게 줍아불  
민 똥그렁허영은에 보기가 싫어.  
107066 @ 아아.  
107066 #2 경허곡 지름떡은 이젠 그걸로 허영 옛날은 찹쌀도 엇으니까이. 이젠  
그걸로 헤가지고.  
107066 #1 밀어.  
107066 #2 밀어가지고 지름떡 가다, 그걸로 지름떡 가다 헤가지고 영허영 수제  
비 멩글 때에 영 그 칼국수 멘들 때 영 밀잖아.  
107066 @ 예.  
107066 #2 경허영.  
107066 #1 밀대로.  
107066 #2 밀대로 밀어가지고 푹푹 떠내여근에 옛날에는 지름도 엇영 지지지  
못허니까 그자 지지지도 아녕 썩내여. 솔입에다가 썩.  
107066 @ 아아.  
107066 #2 경허영 허민 것이 지름떡.  
107066 @ 지름떡 대응으로.  
107066 #2 그 막허영 무시거 이제 영장인 때나 뒤헛 때 쓸라면 지름떡 만들고  
세미떡이라고 헛 게 잇어.  
107066 @ 예, 예.  
107066 #2 저 영 쪼꼬만허게 헤가지고 영 요렇게 전 돋저가지고  
107066 #1 요 정도.  
107066 @ 세미떡을 그렇게 작게 헤예? 아아.  
107066 #2 쥌간하게 보기 좋아.  
107066 @ 어.  
107066 #2 믱물로 헛 것도 이만이 크고.  
107066 @ 저는 큰 걸로.  
107066 #2 물떡.  
107066 #1 이만이 큰 건 물떡.  
107066 @ 큰거는 물떡. 모양은 푹그튼데?  
107066 #1 으, 모양은 푹 같은데.  
107066 @ 아아.

107066 #2 그거 만들고, 어디 강 쓰쟁 허면 이젠 또 거세기. 수꾸락, 수꾸락떡엔 현 거 있어.

107066 #1 손가락떡. 손가락.

107066 #2 요렇게 헤가지로 수까락으로 짚어.

107066 @ 예.

107066 #2 경혜영 쓸 만이 만들앙 것도 솔입에 송펜 찢 때에 ㄴ치 찢면 되는 것이고, 또 지름떡도 그렇게 찢민 되는 것이고.

107072 @ 음, 옛날에 인절미 이런 거는 안 해봣디가?

107072 #2 은절미는 거 아주 쉬운 거.

107072 @ 으,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7072 #2 이거, 이거를 영영 헤가지고 수까락으로 뺱허게 돌라근에 영영 꼭 둘러두고 두 개 헤 가지고 헐 만씩 허영 영 영 놀려도 되는 것이고.

107073 @ 으, 건 은절미 험니까? 절편험니까?

107073 #2 절편은 여긴 안 해봣서.

107073 @ 아아.

107073 #2 저쪽디레 가난 나가 허연 쥘 먹어봣지.

107073 @ 음, 네모나게 이렇게 헤갓지고.

107073 #2 경허연 반달떡도 있어.

107073 @ 예, 반달떡도.

107073 #2 거건. 건 납삭허게 헤가지고 허는 거 보니까, 그디 간에 나가 어떻허 연 (웃음) 포목장시를 간 (웃음)

107073 @ 어어.

107073 #2 포목장시를 가니까 이제 그 정의 갖지.

107073 @ 예.

107073 #2 이렇게 허여가지고 여기 딱 허게 두 개 벌르대.

107073 #2 벌런 찢난 반들떡.

107073 @ 예.

107073 @2 그거 봐난.

107073 @ 동글락허영 반착 딱 잘라가지고예?

107073 #1 영 동글락헌 거는 뭘 떡이라?

107073 #2 그건 큰 은절미 건.

107073 #1 건 은절미.

107073 @ 음.

107073 #2 또 송애기떡엔 현 건 있어어.

107073 @ 예.

107073 #2 건 이디도 써. 송애기떡이런 이렇게 영허영 이렇게 부찌민 뉘.

107073 #1 똥글락헌 거 두 개 헤영 부찌민.

107073 @ 우리는 송애기떡 안 험니까? 거는 무사 송애기떡이렌 험신고예?  
107073 #1 몰라.  
107073 #2 영 혜영 쪼꼴락헌 거 영 부뜨니까.  
107073 #1 송애기똥ㄴ치 송애기똥ㄴ치 똥 것산디.  
107069 @ 게른예? 다시 정리해 보께예? 삼춘예, 우리 식게 때 올리는 떡, 식게 때 상에 올리젠 허민 무신떡 멘들아서마씨?  
107069 #2 그거는 우직예. 설귀떡 건 아무나 허도 못헛어.  
107069 @ 음.  
107069 #2 침떡이.  
107069 @ 침떡으로라도예?  
107069 #2 쭈썰허영 침떡허영 허곡, 또 침떡이 쫄이 원체 귀해놓니까 쭈썰떡 우에.  
107069 @ 예.  
107069 #2 쭈 영 없어.  
107069 @ 음.  
107069 #2 없어가지고.  
107069 @ 산뒤쫄을 없어?  
107069 #2 경혜영 쌀가루를 없어놓민 한쪽은 침, 저 쭈쫄떡이고 한쪽은 또 쭈쫄떡이고.  
107069 #1 지금으로 생각허민 모양 내는 거라, 건.  
107069 #2 영 보면 이쪽은 희고 이쪽은 저 쭈썰떡이니까 검고.  
107069 @ 음, 그 떡은 무신 떡이렌 험니까? 그렇게 헌 것이.  
107069 #2 것이 침떡.  
107069 @ 그냥 침떡이렌 헤여. 뭐 다른 고달 부짚 떡이여 이런 말은 안 허고.  
107069 #2 난 그런 말은 안 들어보지 안허고. 쌀로만 헌 거는 이제 설귀떡.  
107069 @ 설귀떡. 쭈쫄이 들어가면 침떡. 게민 그거를 이제.  
107069 #2 고구마로도 침떡 쓰고.  
107069 #1 수메, 수메.  
107069 #2 침떡 처서 먹을 수도 잇고 올릴 수도 잇고.  
107069 @ 고구마로도. 고구마 어떻게?  
107069 #2 고구마까를.  
107069 @ ㄴ를로 아아.  
107069 #2 침떡 멘들아내여.  
107069 @ 그거는 무신걸로 헤여갓고 ㄴ를 멘드는 거우과?  
107069 #2 절, 옛날은 워인가 허민 그 웨정시대에 그 감저 해서 거 뻗테기엔 허주게.  
107069 @ 예예예예예.

107069 #2 바찌렌 해낫주게. 허단 중간에는 이젠 그거를 안 받아가불었어. 어땡 허연. 거를 주로 그걸로덜 그걸로덜 살았거든.

(잡담)

107069 @ 예, 경허영은에. 그치록 웨정 때 행은에.

107069 #2 웨정 때에 경허영 그자 설귀떡만으로만도 올릴 수가 엇이난.

107069 @ 예.

107069 #2 그거 반쪽서 행영 올렸주. 상에.

107069 @ 예.

107069 #2 그거를 헤다가 것만도 올리젠 허민 올릴 수가 없어이.

107069 @ 예.

107069 #2 계난 고구마를 썰어놓는 거라.

107069 @ 음,,

107069 #2 고구마 썰어놓곡 영혜영 징징이 놓젠 허민 다 놓면 떡이 기냥 부떠 불잖아. 여기 팻 삶아가지고 이젠 뺏아.

107069 @ 음.

107069 #2 뺏아가지고 이디 또 허꺼근에 우의다가 또 혼 징을 놓면 허민 큰 시루 허젠 허민 열두.

107069 #1 쟁ㄱ장.

107069 #2 칭ㄱ지 텔 거라.

107069 @ 아아. 큰시루예?

107069 #2 큰시루에. 막 크지. 케민 그거를 열두 징을 ㄱ는 거. 경허영 영 떠 내민 딱딱 떠내민 혼 징 혼 징씩 허영 올리는 거.

107069 @ 음, 경허영은에 감저ㄱ를 헤갓고 그거는 감저.

107069 #2 감저떡은 경허영 그자 먹젠.

107069 @ 먹젠 하고.

107069 #2 쌀도 좁쌀도 귀허니까.

107069 @ 예.

107069 #3 그땐 그 절간이, 뺏테기가 만허니까 그거 허영 식구덜이라도 오면 주로 먹고.

107069 @ 먹을 걸로?

107069 #2 제사 지나나민 그 제삿상에 올렸단 거 내려왕 떡곡 그렇게.

107069 @ 케민 맨앞에 설귀떡을 만약에 허고예? 그 설귀떡 우에는 무신 떡 올려?

107069 #2 송편.

107069 @ 아, 송편 올리고. 송편 우에는?

107069 #2 송편 우에 지름떡도.

107069 @ 송편 우에는 지름떡 올리고.



107069 #1 고명떡.  
107069 @ 예.  
107069 #2 고명은 저 무신 산에 강 쓸 때에 고명 올리지. 기냥 제사 때는 안 허여.  
107069 #1 여기선 아녀는가? 대소상 때는 헤난디.  
107069 #2 대소상 때야 허주.  
107069 @ 그 고명은 무신 어떤 걸로 올리는 거우과?  
107069 #2 기냥 그 쌀로. 그 쌀가루로.  
107069 @ 쌀가루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과?  
107069 #2 아, 고명이라 현 건 낫사 지름떡. 이디 이제 거세기 영혜영.  
107069 @ 손가락떡.  
107069 #2 손가락떡. 절변, 술변 그거주게.  
107069 @ 아 여기도.  
107069 #1 세미떡.  
107069 @ 세미떡 이런 것도 전부 하는 거라예? 여기도 절변을 헤마씨?  
107069 #2 으.  
107069 @ 절변은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  
107069 #2 요렇게.  
107069 @ 동글락허게 헤서.  
107069 #2 동그랗게 헤가지고 것도 막 부져불지 아녀는 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헤가지고.  
107069 @ 두 개 딱 놀렁.  
107069 #2 요런 식으로.  
107069 @ 게민 모양이 이런 모양 나와. 아까 송애기떡?  
107069 #2 것 말고. 송애기떡은 이렇게 나오고 죽아야 허고.  
107069 @ 아, 송애기떡은 죽게 허고.  
107069 #2 절벤은 커야.  
107069 @ 아아.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절벤을예 동글락허게 헤갓고 이렇게 놀평 절벤본으로 놀평 만들거든 마씨. 여기는 동글동글허게 그자.  
107069 #2 동글락허게  
107074 @ 이 제주도 ㄱ튼 제주도도 툃나예? 그걸 절벤이렌 허고. 술벤은 뭐렌 허여? 어떤 거를 술벤이렌 허여?  
107074 #2 술벤은 안 허여.  
107074 @ 술벤은 안 허고. 게민 절변이 이런, 삼춘 떡 멘들아야쿠다.  
107074 #2 허는 사름이 잇긴 잇어.  
107074 @ 이렇게 절변허잖아예? 게민 아까 이제 이렇게 옆으로 허는 거는, 죽게 허는 거는?

107074 #2 그건 송에기떡.  
 107078 @ 이건 송에기떡.  
 107078 #2 손가락떡.  
 107078 @ 송에기, 이건 절벤. 그다음에 손가락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 두 개. 이거는 이제 손가락떡. 그냥 손가락떡이렌 험니까? 여기는 뭐 병거떡 이런 거는 안 해?  
 107078 #2 안 허여.  
 107078 @ 그 다음에 송편은 영허영 여기 전 돈저근에.  
 107078 #2 여기서 보니까 허는 사름덜이 잇더라. 저기서 온 사름덜이 잇으니까.  
 107078 @ 예.  
 107078 #2 막 허터져 놓니까 어떤 집의 간 보난 \*\* 우리는 그렇게 안 허여.  
 107078 @ 안 하고예? 생편 이렇게 만들고. 세미떡은 이런 식으로 허는데 작은 거.  
 107078 #1 으, 작은 거.  
 107078 #2 으.  
 107078 @ 작은 거는 속에 팻 행 수메 낭예. 그 다음에 어 세미떡은? 저 물떡은 큰 거?  
 107078 #1 물떡은 큰 건디 상엔 안 올라가고. 건 나눠 먹을 걸로.  
 107078 @ 예, 그 다음에 물떡 요거는 세미떡.  
 107078 #1 젠디 이거 큰 것도 잇고.  
 107078 @ 이거 큰 건는 뭐렌 헤마씨? 물떡 말고.  
 107078 #1 중간만이 현 것도 세미떡인디 그자 우리 세미떡엔 말만 들어나부니까.  
 107078 @ 므덜로는 크게 허고. 쓸로는 족게허고.  
 107078 #1 므덜로는 크게 허고, 쓸론 족게허고.  
 107078 #2 경허난 옛날에는 물떡엔 현 거는 어떻헌가 허면 저 거세기 어디 영장이 나잡아.  
 107078 @ 음.  
 107078 #2 멧 놈역.  
 107078 @ 예, 멧 놈역.  
 107078 #2 멧 사름치ㄱ라 혼 사름치ㄱ라 혼 놈역 두 놈역 헤 가거든. 경허민 이제 그거를 영 헤여근에 강 두 개든 하난 안 허지.  
 107078 @ 음.  
 107078 #2 두 개든 세 개든 혼 놈역씩 테와주곡. 경허영 강 물떡은.  
 107078 @ 물떡은예?  
 107078 #2 계난 옛날에는 팻도 귀허니까 콩은 쫄 잇이니까 또 콩허영근엔에 막 물떡 소굽에 막 답아.

107078 @ 음.

107078 #2 경허민 콩을 안 먹어근에 영 보민 게도 흐뭇 중간질은 때라이.

107078 @ 음.

107078 #3 기냥 막 비와냥 내부러.

107078 @ 아.

107078 #2 겁덕만 먹영.

107078 #1 콩입 놓는 사름도 잇고이.

107078 @ 거기에예?

107078 #1 앙꼬를.

107078 @ 알꼬를? 게민 것도 콩입 순메 험니까? 그것도.

107078 #1 콩잎 순메주.

107078 @ 쟁은에 물떡은 그런 식으로 하고. 게민 보통은 다 이제 풋으로 행은  
에 놔예? 순메를예. 아 쌀로는 죽은 거고 큰 거 허는구나. 그 다음에 삼춘, 은절미  
는 여기 해, 은절미?

107078 #2 아니.

107078 @ 이 동네는 안 하는 거예?

#1 들어났는디 은절미.

107078 #2 은절미야게 밥 찌냥은에 거세기헌 거고. 찌근엔에 영 만든 것이 은절  
미주마는 옛날 찌근에 밥 찌근에 영.

107078 @ 츠나룩 허영 허난. 게난 우리 저쪽에는 은절미가예 이렇게 이만큼허  
게 네모나게 은절미가 넓작허게 헌 거.

107078 #1 네모난 게 은절미로구나.

107078 @ 우리는 거긴 그렇게 하고 들반착헌 거 하고 그 다음에 절벤하고 딱  
나.

107078 #2 저쪽에는 쌀이 이쪽보단 먼저 나왔거든. 나룩을 지나까 우리 대정 나  
룩썰 이제 이디 씨집오란 육년 쉼 후제야 대정 나룩썰을 반앙 먹어서. 이딘 강나룩  
썰벧긔 없어.

107078 @ 예, 예, 예, 예. 논이 엇이난예?

107078 #2 논이 엇으니까.

107078 @ 게난 이 송에기떡이여 손가락떡여 헌 것도 이쪽에서만 허는 거예?

107078 #1 믱물로도 요것이 은절미민 믱물로도 영 멘든 거 잇었나서.

107078 @ 그것도 은절미. 썰 엇인 집은 믱물로 행 식게허고.

107071 @ 떡은 그 종류고. 삼춘, 설귀떡 칠 때는 어떤 식으로 쳐마씨? 모물떡허  
고 침 믱물떡 떡하고 똑 ㄱ릅니까?

107071 #2 것도 물에 낱 반죽을 얼마 쉼 거 해근에 이젠 만들어서 이젠 무슨  
바가치로 시루레 아래에다가 이제 팟이나 뿔이건 누들 입사귀.

107071 @ 예.

107071 #2 고망나니까?

107071 @ 예, 예.

107071 #2 더뜨는 거라. 더퍼가지고 그레 팻을 놔. 팻을 놓고 가를에 알징에는  
죽영 드니가 이제 뚜껍도 죽영 놓고 흐쫂 올라고 츄츄 더 올라올수록 크게.

107071 @ 아아. 층 뭐 저기?

107071 #2 우로레 가면 영 퍼지니까.

107071 @ 그렇지 크니까예? 어.

107071 #2 경허영 쩌내민 설귀떡.

107071 @ 음.

107071 #2 설귀떡 칠 때도 뒀인가 옛날엔 무 놓는 사람도 있고.

107071 @ 예, 예.

107071 #2 무도 중간에 놔부니까 주로 감저.

107071 @ 아아, 감저?

107071 #2 감저 썰어근영에 팍팍 씻어놔 썰영 채거찌 막 썰영.

107071 @ 예.

107071 #2 물에 막 시치는 거라. 그 무신 그렇지 아녀민 쌀ㄱ를이 노랑혜부러,  
그 진이.

107071 @ 예, 예.

107071 #2 시청은에 그 쌀까루레 막 서터.

107071 @ 설귀혈 때도 그치룩예?

107071 #2 그렇게 해서 맛 좋아.

107071 #1 감저가 들어온 지가 한 백이십년이 .

107071 @ 예, 천팔백년. 천구백년 우리나라 온 때.

107071 #2 우리 하르바님이 젊었을 때 처음 들어완 지금 혼 백 난 어른덜 어린  
때.

107071 @ 예.

107071 #1 들어와가지고 별미로 헨 헛젠 허난 어쨌든 그런 걸 떡에 들어가기  
시작헌 건 불과 혼 칠팔십년.

107071 @ 그렇주마씨, 예.

107071 #2 노랑, 노랑, 노란히린좁쌀이 잇었어.

107071 @ 예.

107071 #2 노랑헌 히리좁쌀이 잇는데, 그것에다가 감저를 그렇게 헹 버무렁 놔  
떡을 치면 그렇게 맛좋은 수가 없었어, 이제. 이제도 맛 좋은 거라.

107071 @ 그렇주마씨게.

107071 #1 배고플 때니까

107071 #2 할아버지 돌아가셔,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그런 떡은 좁쌀 혼 멧  
말 뺏아다가 그 떡을, 떡허레 막 와나서. 소상 때 마을 사람들이 오니까.

107071 @ 예.

107071 #2 이젠 설귀로는 맥일 수 멧 시리 천 헤가나 동네 사름덜이 “에에, 줍  
 찰떡이사.” 경허는 사름 잇었어.

107071 @ 음, 음.

107071 #2 쟁 내놓니까 노랑허고이 감저놓고 해 놓고 허니까 노랑허고 허니까  
 “아이고, 이런 떡이 어디 시닌?” 헨에 먹는 거.

107071 @ 음.

107071 #2 동네 사름덜 대접해낫저.

107071 @ 예, 그치룩하고, 이제 시루떡 이제. 시리떡이엔도 허지예?

107071 #2 시리떡계.

107071 @ 웨 시리도 으라 종류 이실 거 아니라예? 그건는 어떻 말치시리 이런  
 식으로 굽니까?.

107071 #2 흔말들이 닻뉘떼기도 잇고. 흔뉘들이도 잇고. 다 잇어.

107071 @ 젤 족은 게?

107071 #2 흔 뉘.

107071 @ 예.

107071 #2 반뉘짜리도 잇어. 그건 쟈끄만헌 거. 굿힐 때나 영허여근에 사름덜.

107071 @ 예예.

107071 #2 놀앙 춤추는 거.

107071 @ 음.

107071 #2 그것도 잇고. 흔 뉘들이는 쫘 커.

107071 @ 예.

107071 #2 것에 헨 백시리천에 산에.

107071 @ 제혈 때. 게문.

107071 #1 흔 뉘 닻 뉘, 흔 말.

107071 #2 조그만헌 식계 때는 닻뉘들이에 청 허영 먹을 수도 잇고.

107071 @ 닻 뉘들이는 두 뉘 들어가는 거마씨?

107071 #1 음.

107071 #2 음, 두 뉘ㄹ라 닻 뉘.

107071 #1 사 리터. 이 리떠가 흔 뉘난.

107071 @ 그 시리들은 색깔이 어떤 시리들이 잇었수가?

107071 #1 지새.

107071 #2 지새.

107071 @ 검은시리?

107071 #1 검은 거 지새엔 허주.

107071 @ 예, 이 동네는 거의다 지새시리 쓴 거라예? 숨 쉬는. 떡 만들젠 허면  
 영 저기 판도 이실 거 아니우과예? 그건 뉘렌 헤?

107071 #2 무시거?

107071 @ 떡 달루젠 허민?

107071 #1 떡 밀젠 안반에서 헛주. 주루. 떡 달루젠 허민.

107071 @ 안반에서.

107071 #2 도고리 잇잖아. 낭 도고리 그것에서 주로 헛주게.

107071 @ 낭도고리로?

107071 #2 중간에야 하간 거.

107071 #1 다라가 나오고.

107071 #2 옛날은 도고리. 것에서 상웨떡 몰앙 이만치 또 올라와.

107068 @ 음.

107068 #2 걸로 상웨떡 만들고.

107068 @ 그 상웨떡은 어떤 식으로 헤마씨?

107068 #2 상웨떡은 또 거세기 어떻헌가허면 가루 이제 그 밀.

107068 @ 예.

107068 #2 밀 헤다가 갈아.

107068 @ 예.

107068 #2 갈아가지고. 이젠 기주엔 현 거 잇어이.

107068 @ 음, 음, 음.

107068 #2 놓아근에 이제 ㄱ뜨민 소다 같은 거. 막걸리거찌 멘들아.

107068 @ 음.

107068 #2 밥허영 딱허게 이런 디 문영 낫다가 것을 막 퀘어 올라. 퀘어 올르민 가를에다가 영 부어낱은에 영 막 달좌. 달좌가지고 어떻허민 이런 디 딱허게시리 헤영 낱. 뭐 포 더꺼근에.

107068 #1 구들 질은 디 허민 더 좋고.

107068 #2 이만이 부꺼 올르지. 부꺼 올르민 이젠 그걸로 떡 만들젠 이렇게 만 들명 또 이젠 이디 뜻뜻헌 디 놓는 거라.

107068 @ 음.

107068 #2 놓면서 이렇게 이렇게 영 놓면서 이디 경 아녀민 뭐 더끄지 아녀민 갈라져부는 수가 잇어. 더꺼줘야 빨리 퀘여. 영 올앙 보민 이만치 헛단 게 이만치 돼지.

107068 @ 커져예?

107068 #2 경허영 크면 솟디 아정강 찌는 거야.

107068 @ 음, 솟디 치젠허면 그 상웨떡 헛 때는 상웨떡 소굽에는 뭐 안 놔마 씨?

107068 #2 아니, 놔야지.

107068 #1 풋.

107068 @ 무시거?

107068 #2  
107068 @ 경혜영은에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밀로 허여마씨? 보리로 헤마씨?  
107068 #1 보리도 밀.  
107068 #2 보리상웨도 잇주게. 밀상웨가 그렇게 맛있엇놓니까 부주라도 혼 동이 구덕 헤 가젠 허민 막 ㄹ레에다가 갈아.  
107068 #2 갈아근에 체로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그 가를를 헤가지고 막걸리를 가져당 부어낱 경혜영 만드는 거.  
107068 @ 으, 밀상웨가 이젠 더 고급으로예?  
107068 #2 밀상웨.  
107068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7068 #2 흐뎡 허민 사름이라도 에이고, 보리상웨 ㄹ치. 밀떡엔 현 건 그 개떡 말.  
107068 @ 아아, 보리밀떡 개떡. 췌기떡 이런 식으로 헤갓고예? 아아.  
107068 #2 그때는 췌기떡이지. 그거를 그 어떻헌가 허민 그 발효 시켜난 그 국 물을 놓고 같이 허는 거야. 췌기떡 만들야.  
107068 @ 췌기떡은?  
107068 #2 경해서 이렇게 낫당 그냥 찌는 거야. 건, 램찌도 못허여.  
107068 #1 꺾데기로 꺾데기가 많이 든 거니까 힘이 없어.  
107068 #2 대소상 가민 칩의나 가민 떡허레덜 많이 가지. 그거 하나 아니 준 것이 큰 승이엇어.  
107068 @ 음.  
107068 #1 췌기떡 안 주민.  
107068 #2 췌기떡 하날 줘서. 무시거 해서.  
107068 @ 어어.  
107068 #2 그 집의 가난 췌기떡 하나 안 줘라.  
107068 @ 일허레 간 디 수고헌 거에 대한 대가를 안 헛구나예? 삼춘 상웨떡 치제 허면 솟디 치는 거 아니우과예? 그렇게 허면 영 밑에 까는 거 잇자녀과?  
107068 #2 이렇게 이것이 솟이면은 이디다가 징을 놔.  
107068 #1 시릿징.  
107068 #2 시릿징. 췌도 잇고 이제난 하간거 잇지마는 대로 만들야가지고 이제난 이디다가 포를 낄야.  
107068 @ 음.  
107068 #2 아래 물 놓고 이디다가 징을 놔가지고 이젠 이딘 폴 낄야가지고 이제 상웨떡을. 떡을 이렇게 놔.  
107068 @ 음.  
107068 #2 영 바짝 부짱은 안 돼고. 이렇게 띄와놓고 이제 그거를 찌 내민 찌면서도 막 커져.

107068 @ 으음, 부풀었어?  
107068 #2 경혜영 내여근에 솟 열어봐 내 놓고. 이젠 구덕에. 구덕에 내 놓고.  
107068 @ 음.  
107068 #2 이제난 뭐 나이롱 바구니여 하건 가 잇주마는 우리는 멘촌서 그 대.  
107068 @ 예.  
107068 #2 대 바구니에 그 차롱에. 차롱에다가 바구니에다가 허영.  
107068 #1 요즘은 떡집이서 시릿징을 저 이층 삼층 이렇게 허는디 옛날은 이거 단층이주.  
107068 @ 아아,  
107068 #1 단층, 이층  
107068 #2  
107068 @ 이층은 해난 거 답아마씨?  
107068 #1 그전이사 해서?  
107068 #2 그전인 없었어.  
107068 @ 예. 그렇게 하영도 못허고. 옛날에는.  
107068 #2 경.  
107068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107068 #1 이 시릿징 이층 나온지도 채근에.  
107068 #2 난 쟈디 다 잊어부런 아무 것도.  
107068 #1 음.  
107067 @ 하나도 안 잊어부런 너무 잘 곱압수다. 빙 부견게마는.  
107067 #2 빙.  
107067 #1 빙떡  
107067 @ 빙떡도  
107067 #2 어느제 봐서.  
107067 @ 하나 얻어 먹어수게.  
107067 #2 빙떡.  
107067 @ 예, 빙떡도 제사 때 헛수가?  
107067 #2 빙떡 주로 허주.  
107067 @ 빙떡 한번 지져봅서.  
107067 #2 것사 지지는 거야 믱물크르 헤여다가 요새 후라이팬도 좋고 허니까 옛날에 솟뚜껍 가르쳐놔 인제.  
107067 @ 예.  
107067 #2 가져 죽은 솟을 솟뚜껍 놓고 이제 그 돼지지름 잇잖아.  
107067 @ 예, 예.  
107067 #2 이제 돼지지름 행 거를 쫄라. 쪼령 낫다가 거 거려놓면서 이제 빙떡. 경 아녀민 후라이에 그 저 솟뚜껍이 부뜨니까.



107067 @ 예.  
107067 #2 이젠 혜영 영영 국자로 헤다가 영 놔 짓엉 영 허영 판을 만드는 거  
라.  
107067 @ 예.  
107067 #2 만들아가지고 익으면 이젠 무신 도마.  
107067 @ 예.  
107067 #2 이 돛배.  
107067 @ 예, 돛배.  
107067 #2 이제난 그전에 도마 돛배엔 헛지.  
107067 @ 예, 예.  
107067 #2 돛배로 허여근에 영 그레 탁 놓민 이젠 순메.  
107067 @ 예.  
107067 #2 순메 찢순메도 허고 녹물순메도 허고.  
107067 #1 늪빼순메도 허곡.  
107067 #2 그거 혜영 말앙. 건 쉬운 거.  
107067 @ 건 쉬운 거라마씨? 요즘 잘  
107067 #1 물 안 맛앙.  
107067 #2 나가 그날 간에 이젠 어떻 혜신고허민 뒷, 뒷날.  
107067 @ 예.  
107067 #2 가난 먹다 남은 거 시난 지집서 흐관테 나는 못 지진다. 이 지질 사  
름이 엇는 거라. 가빠치기만 헐라고. 나허고 말제 간 사름허고 우리가 저거 쥐불게,  
흔 메칠 놔두민 먹지 못한다. 그디 요리사가 잇는데, 그자 물을 팡 놔부는 거라.  
107067 @ 아아.  
107067 #2 가를도 없고 밀ㄱ를 좀 잇으면 서끄민 더 잘 돼는데, 이제 가루도 없  
고 아무 것도. 기냥 지지난 더 가르도 생전 지질 수가 있어.  
107067 #2 아 엄불려단 주난덜 잘 먹덴.  
107067 @ 웃음. 맞아예?  
107067 #1 늪빼로 거 저.  
107067 @ 예.  
107067 #1 지름 이렇게 늪빼 딱 잘라근에. 그걸로  
107067 #2 그 돛지름. 돛지름 혜근에 이제 그 보시에다가 헤가지고.  
107067 @ 예.  
107067 #2 늪빼를 헤여가지고 이젠 그디.  
107067 @ 적시명은에.  
107067 #2 똑허게 이 늪빼가 뜨거우니까 그디가른 잘잘 녹아.  
107067 @ 계난 어른덜이 보통이 아닌 거라.  
107067 #2 솟뚜겅이에는 계속 불르지 아녀민 안 돼여. 요샌 멧 장씩 지질 수가

잇는데 그 계난 맛 좋아. 요번에도 옛날 사름덜은 돛지름 헤여당 허주게. 돛지름 헤여당.

107067 @ 돛지름헤야 맛좋아예?

107067 #2 돼지고기이 살 진 거 해도 돼. 거도 돼여. 돼지고기 살진 거 가죽 부뜰달로 그렇게 해도 돼여.

107067 @ 예예, 옛날은 다 그런 식으로.

107067 #2 계난 옛날은 뉘인가 이런 전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솟 하나 들러두고 이제 나무도 없으니까.

107067 #1 정지에서.

107067 #2 부엌에서 어디 강 삭다리 꺼꺼다가 “이거삭다리 꺼끄레. 삭다리에, 아이고, 이거 빙떡 지지젠 강 완쭈게. 그거 브랑브랑 슴으멍 빙떡.

107067 #2 이제는 가스불 못전당 못허여.

107069 @ 어떻허코마씨?

107067 #2 에이고,

107067 @ 맞수다. 제사떡 종류하고 큰일 상날 때 떡허고 트나지예?

107069 #2 떡날 거 없어. 고대로 잘 사는 집인 제스 때에 뉘헌 때 똑ㄹ찌허고. 상 난 때도 잘 사는 집인 많이 허는 것만 쥬

107069 @ 그 아까 떡 퀘는 순서예, 그 식게 때 떡 퀘는 순서는 어떤 식으로 돼? 맨 밑에는 삼춘네 집인 설귀떡은 몇 개 놓니까?

107069 #2 두 빗.

107069 #2 많으민 너 빗도 올릴 수 잇고.

107069 @ 송편은 몇 개 정도 놔?

107069 #2 그거는 빙떡을 올릴라면 영 해근에 \*\* 송편은 혼 그 다음에 빈떡 올리고.

107069 @ 아. 아 그냥 바로 송편만 다 이렇게 설귀떡 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설귀떡 한쪽에는

107069 #2 건 허고 싶은냥.

107069 @ 허고 싶은냥?

107069 #2 빙떡허고 설귀떡만 올릴 수 잇는 거, 송편 우에 저 빈떡 올릴 수 잇는 거 그진.

107069 #1 상이 크면.

107067 @ 예.

107067 #1 하나씩 따로따로 쭈 올릴 수도 잇는 건데, 상이 족을 경우에는

107067 @ 예.

107067 #1 겸헤야 돼니까.

107069 @ 음음.

107069 #1 쓰러지면은 안 돼니까 쓰러진 건 무주건 저 그 머리털이 부뜨던가

뭐가 떨어지민 부터.

107069 @ 예에.

107069 #1 쓰러지지 아녀게 올리는 게 정성 우로 차린 거 떡덜은 올릴 수가 잇는 거고.

107069 @ 삼춘네는 거기는? 송편 같은 경우는 멧 개가 들어가?

107069 #1 네 개 다섯 개.

107069 #2 네 개

107069 #1 앞줄게. 너개다섯 개 영 옆으로도 허민 사오 이십 스무 개 들어갈 거 아냐?

107069 @ 스무 개자락 들어가? 하영 올림찌 게민.

107069 #2 다른 거 빙떡에나 잇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지.

107069 @ 음.

107069 #1 사사 십육 들어갈 수도 잇고.

107069 @ 송편을 하영 올리는 거. 송에기떡이나 절벤은 멧 개 정도 들어가?

107069 #2 아, 그거는 제사 때는 안 허고.

107069 @ 제사 때는 안 허고.

107069 #2 지름떡만.

107069 @ 그 위에 지름떡 놓는 거라마씨? 지름떡을 우찍

107069 #2 우찍은 몰라.

107069 #1 건 안 들어봐서.

107069 @ 그냥 여기는 지름떡엔만 곁아예?

107069 #2 송편 우에 그 저 무시거 다른 떡 헤지면은 이 뭐인가 제스 때는 우린 주로 이 송편허고 저 지름떡허고 빙떡 뿐이니까.

107069 @ 빙떡하고.

107069 #2 것만 하나까. 상웨는 상웨떡은 만약에 허면은 뜯 쩍시에 올리고.

107069 @ 상웨떡만 뜯로 올리는 거라예? 영 레는 거는 설귀떡은 송편하고 맨 우에는 지름떡?

107069 #2 으 가스테라 빵덜 많이 나오잖아. 따로

107069 @ 그러면은 삼춘 지름떡은 멧 개 올려?

107069 #2 아, 그거는 보기 좋게.

107069 @ 아 보기 좋게 여러 개 우로 헤가지고.

107069 #2 흔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가지.

107069 @ 그런 식으로 헤갓고예?

107069 #2 요렇게 요렇게 나오면 영허영 또 이렇게 놓면 한 으섯 개 들 거 같아. 여섯 개.

107069 @ 여섯 개 정도예?

107069 #1 게난 올리는 게 이 으, 땅에서 나오는 건 음이고.

107069 @ 예.

107069 #1 열매도 음이고. 움직이는 것은 양이라.

107069 @ 예.

107069 #1 이제 고기.

107069 @ 예.

107069 #1 종류. 양은 음은 짝수고.

107069 @ 아아.

107069 #1 이제 그렇게 돼니까 거기에 그거 맞게.

107069 @ 으, 게른 떡도 게른 짝수로 올려마씨?

107069 #1 짝수, 짝수로 짝수로 올려.

107069 @ 짝수로예? 두 빗 놓고 네 빗.

107069 #2 경허니까 이 집안은 특히 뜨나.

107069 @ 아 그렇구나.

107069 #1 원칙, 원칙을 좇는 거니까.

107069 #2 이제 사름덜 경 아녀.

107069 @ 예.

107069 #1 지금 저기 우리 광김도 지금 연령 많은 분 허고 작은 분덜 트립이 생겨. 옛 케케묵은 옛날식만 그냥 생각험젠 허명. 명도 하르버지가 가르켜 준 게 없 어져 간다.

107069 @ 맞수다, 맞수다.

107069 #1 이락당 가르친 건 후손들이 고수를 허여 현재까지. 명도암은.

107069 #2 우리 집안은 아주 옛날 식으로.

107069 @ 옛날 식으로.

107069 #1 명도 하르버지 후손덜은 신식 좇는 편이라, 지금.

107069 #2 그 후손보다 우리 후손덜이 젊은 사름덜도 그런 걸 잘 지켜.

107069 #1 말을 잘 들어줘.

107069 @ 예.

107069 #2 경허니까 허지

107069 @ 삼춘, 아까 그 송에기떡이나 손가락떡 절벤 이런 거는?

107069 #2 같이 올려.

107069 @ 식게 때는 안 하드래도.

107069 #2 으, 제혈 때. 같이 올려.

107069 @ 거는 영장이나 이럴 때 허는 거잖아예?

107069 #2 송편 우에.

107069 @ 송편 우에 뭐가 들어가는 거우과? 송편까지 하면? 절벤은 어디 놓는 거?

107069 #2 절벤 아래다가 놓곡

107069 @ 예.

107069 #2 그 다음에 세미떡 놓곡 그 다음에 저 거세기 손가락떡 놓고.

107069 @ 예.

107069 #2 그 다음에 지름떡이나 무시거 이시민 그 놓고.

107069 @ 음. 송에기떡은 어디 놔?

107069 #2 송에기떡 이시민 송에기떡 같이 올려.

107069 @ 같이 올리고.

107069 #1 만약 쓰러질 것 같으면 이제 뜬 그릇에.

107070 @ 뜬그릇에도 어쨌든 이 상례 할 때가 떡은 젤 하영 올라가는 거네예?  
음, 그 다음에 인절미 여기도 안 하고. 아 절변도 여긴 동글랑허게 솔벤은 안 만들  
고 우 고품으로 허는 떡들이 송에기떡

107070 #2 세미.

107070 @ 세미. 고품으로 올라가는 여기서는

107070 #2 궤명.

107070 #1 궤명.

107070 @ 여기에서는 궤명예? 궤명으로 허는 게.

107070 #1 고가 궤로.

107070 @ 절벤 손가락떡 그다음에 세미떡예? 아고, 이, 삼춘네 친정에 식게 언  
체우과? 이거 이제도 허는 거 아니?

107070 #1 아니라.

107070 #2 새사름덜 일본 가불고 허난.

107070 @ 이런 떡을 봐야 돼는데.

107070 #2 안 허여.

107070 @ 절벤이랑 세미 송에기떡 손가락떡.

107070 #2 없어져.

107070 #1 지금 말로만 남는 거지.

107070 #2 대개는 큰 대소상 때에 2뜬 때 어디 영장이나 할 때는 이건 어디던  
지 주로 만들암실 거야.

107076 @ 지금도예. 그때가 가장 큰 저기니까. 그 다음 여기 삼춘, 당에도 다녀  
봤지예? 당에 덩길 때는 뭐 가정가? 떡을.

107076 #2 떡 건 우린 안 행 덩겨.

107076 @ 떡 아녀?

107076 #2 우리 저 친정에는 당에도 안 덩겨.

107076 @ 아아.

107076 #2 이디 완 보난 당에 다니대. 바로 우엔테 영 허는 거 보니까 사과 혼  
방울 배라도 이시민 혼 방울.

107076 @ 으.

107076 #2 미짱이라도 이시민 혼 방울. 할머니 하르버지 여기 잇더라. 경허면 여섯 방울이라이. 여섯 방울이고, 또 무시거 메허고, 무신 저쪽에는 솔래기엔 허주 마는 여기선 완 보난에 여기 완보난 어시난덜 어떤 집인 간 보난 갈치. 불치 두에 다가 달아매영.

107076 #1 솟 우에.

107076 #2 솟 우에 돌아메민 쉬프리가 안 데가리 거 허영 텅기는 집도 봐지고.

107076 @ 아아.

107076 #2 이제 주루 생선이나

107076 @ 으.

107076 #2 그렇지 양으면 우럭이나 베타 물렛다가. 구워서 가고. 채소엔 현 건 무시거 허영 가곡. 또 먹는 거엔 현 거 주로 밥 두 사발허곡. 경허영 가는 거.

107076 @ 떡은 안 헤영 가예?

107076 #2 떡은 허쟁 허민 개떡거찌이.

107076 @ 예.

107076 #2 멘들양 므물코르라도 시민 므말궤르 그거 행은에 두어 개 딱 네 개 허영 가는 사름 잇대. 난 아녀고.

107076 @ 아녀고. 그 떡을 무신 떡이렌 헛디가?

107076 #2 그 떡은 그냥 므물떡이민 므물떡. 밀떡이민

107076 @ 돌레떡 이런 말은 안 허여?

107076 #2 경 곶아.

107076 @ 경 곶기도 하고예? 거고 삼춘 이제 시리떡 헤갓고 혼 웨보다 더 족은 거 그건 무신 시리엔 헤?

107076 #2 족은시리.

107077 @ 곶혈 때 놀기 위해서 허는 거예? 무슨 나까시린가 무슨 거 하는. 올리는 것도 안 허고. 그 다음에 이제 곶혈 때 삼춘네도 곶허여 볍디가?

107077 #2 아녀봐서.

107077 @ 곶혈 때도 떡 종류도 하영 헨게 마는. 그런 떡.

107077 #2 기냥게, 팽떡게. 영허영 돌레떡.

107077 @ 아까 펜떡은 무신떡.

107077 #2 돌레떡.

107077 #2 돌레떡 궤라.

107077 #2

107077 @ 걸 펜떡이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벅시리 그런 거 하고예? 그 다음에 이진 말고 떡 종류가 잇인가. 이디 오니까.

107077 #2 곶허는 디 쓰는 거 거 두 가지뿐. 곶허는 디 강 돌레떡이나 하나 얻어 먹언 와서. 경.

107077 @ 돌레떡.

107077 #2 계난 바르 여기서도 조천면디레 딱나고 우쪽더레 딱나고 여기 딱나고 허난 건 몰라.

107077 @ 경허난예? 계난 바로 옆에가 조천이라도 신촌하고 여기도예?

107077 #2 뭐이든지 딱나.

107077 #2 뭐이든지 딱나. 영 그릇도 다 딱나.

107077 @ 아아.

107077 #2 뭐엔사. 우리 밑에 동네니까 그자 이 비등. 완 살아보니까 비등허여.

107077 @ 삼양은 어떻습니까?

107077 #2 삼양도 같아.

107077 @ 삼양도 같으고예? 경허난 삼양 ㄱ튼 행정구역 허는데, 신촌허고는 딱난 거라.

107077 #2 딱나.

### 소와 고물

107079 @ 그 다음에 아까 순메허는 거, 순메허는 거는 주로 풋 허잖아예?

107079 #2 으.

107079 @ 풋, 순메로 써 본 거 뭐뭐 잇수가? 한번?

107079 #2 순메로 써 본 건 팟허고 없는 집원 콩도 시민 콩 낱 허고.

107079 #1 감자도 허고.

107079 #2 막 그냥 기지 감자 한 데는 이 가음이 족게 들크름.

107079 #1 떡 가음도 허고.

107079 #2 잠질이 썰어놓고 허여근에 찌면 것이 익어.

107079 @ 예, 예, 예.

107079 #2 감저순메허여.

107079 @ 감저혈 때 풋도 서꺼. 아니면 감저로만?

107079 #2 더 맛있지. 것도 그렇게 서꺼.

107080 @ 삼춘 계민 우리가 떡 혈 때 생펜이나 쏘굽에 뭐 놓잖아예? 누물순메든 그것도 순메로 허고 명징 혈 때 이렇게 우에 쓸 놓고.

107080 #1 것도 순메. 징징이 것도 순메.

107080 @ 징징이 놓는 것도 순메. 이름은 다 순메렌 허는 거예? 떡 칠 때도 뭐 허지말라 허는 이런 것도 잇어예?.

107080 #2 무시 거 허지

107081 @ 몸 곳인디 떡 텅기지 말라 이런 거.

107081 #2 그거이 어떻허영 부정어 타. 떡 칠 때에.

107081 #1 으으.

107081 #2 생전 그 시릿마개 현 것이 바바바바 허명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잇어면 그거를 조혜가 잇어. 지게, 옛날 지게 잇어이. 지겔 정 와.

107081 #1 웃음.  
107081 @ 웃음.  
107081 #1. 지게  
107081 @ 아, 실제로  
107081 #2 지게 정왕 절 하면 없어져.  
107081 @ 웃음. 아, 옛날 그런 식으로 헨 거라예?  
107081 #2 그거 부정 타면 감당할 수가 없어. 생전 익지도 안 하고. 또 익었더라 해도  
107081 @ 예.  
107081 #2 요런 데만 익지 가운데는 고대로 ㄱ를로 있어.  
107081 @ 무사 경 험신고예?  
107081 #2 부정타다고 허난 건 몰라.  
107081 @ 웃음. 지게 정은예.  
107081 #1 이, 그 과정이 아마 시루에 담을 때에 어떻게 잘.  
107081 #2 똑ㄱ치 담앗주마는 경허난 것도.  
107081 #1 똑ㄱ치 잘 안 뵈 거지.  
107081 #2 떡 시루가 잘 뵈면 떡도 많고, 가운데로 떠내불면 기냥 떡도 얼마 뵈도 아녀고 막.  
107081 @ 맛도 없고.  
107081 #2 가를 내나. 곤쫄ㄱ를 내 나고.  
107081 @ 경허면 이제 몸 굶어도 떡 안  
107081 #1 정성허는 집의서게  
107081 #2 정성허젠 허민 헐 말이 없어. 케니까 거세기 허니까 허지. 요셋 사름덜 어디 정성?  
107081 @ 부정타는 거, 떡 안 뵈는 거는 시리 칠 때 험니까?  
107081 #2 으.  
107081 @ 시리칠 때예?  
107081 #2 계난 나도 모르겠어. 우리 흥번은 아니 찌는 할머니를 데려왔지.  
107081 @ 떡 치는 할망들이 딱로  
107081 #2 아니 영 방상이 삼춘 오랑 헤여 줍서. 할머니.  
107081 #1 손 도웁 해주다고 허는 할머니.  
107081 @ 예예.  
107081 #2 경허영 이젠 그 할머니가 헤영 흥 시리 베렸어. 그 다음부턴 잘 뵈데. 그거를 또 난 서건 \*\*어멍 그 허단허단 버천에.  
107081 #1 그때 절 해서? 건.  
107081 @ 안 해서?  
107081 #1 마게가 글로 그냥 바로 터정.



107081 #2 마게 무사 안 헤어수가?  
107081 #1 아니, 게메. 마게가 터질 때가 있고 안 터져도 떡이 서는 데 있고.  
107081 #2 암만 시루에다가 시루가 이렇게 솟이 있으면 시리를 영 맞지는 거야.  
107081 @ 예.  
107081 #2 맞지면 마게를 허민 터짐 시작허민 아저다 데미고 데며도 기냥  
107081 @ 시릿마게헐 때는 무신 거로.  
107081 #2 떡허당 현 걸로.  
107081 @ 떡 허던 걸로.  
107081 #2 그 갈르로.  
107081 @ 그 터지기 지게 정 강 절허고? 웃음  
107081 #1 웃음.  
107081 #2 이젠 그런 거 없어.  
107081 @ 으, 옛날 어른들이 재미진 그런 말 있어. 그리고 삼춘, 맨 마지막에  
현 떡 이런 거는 누게 먹지말라.  
107081 #1 막떡, 막떡.  
107081 #2 아으, “젊은아이덜랑 먹지말라, 막된 할망이난 먹주.”  
107081 @ 건 무사 먹지  
107081 #2 막 웬 사름이나 먹지. 늙는 사름 먹는 거여. 젊은 사름덜은 안 먹는  
거여. 안 쥐 막떡.  
107081 @ 절벤 어뎡헌 말은 엇수가? 다른 데 강 보난 잇언게 그런 말도.  
107081 #2 엇어.  
107081 @ 어뎡 아방 절벤은예? 절벤 모양이 서쪽하고 뜨나.  
107081 #2 아주 뜨나.  
107081 @  
107081 #2 정의레 절벤도 잘도 크고 반들도 딱 반들ㄴ치 멘들아놓고.  
107081 @ 여기는 등절비 이런  
107081 #1 등절미 나도 들어보긴 들어봤다. 그 이름.  
107081 @ 들어보긴  
107081 #1 여기도.  
107081 @ 물떡을 여긴 하영 허는 거예?  
107081 #2 옛날에 물떡도 옛날에 영장 나면 물떡을 해 갖주.  
107081 @ 음.루 물떡 해갓주.  
107081 #2  
107081 @ 부주로.  
107081 #2 ㄴ는대구덕. ㄴ는대구덕 막 살을 막 가늘게 가늘게 해서 즐기 때문에  
ㄴ는대구덕.  
107081 #1 이빠.

107081 #2 승키구덕은 굵게 물 빠정 허니까.  
107081 #1 채소 낱 덩기는 거난  
107081 @ 승키구덕. 이런 식으로 떡하고 관련돼 잇는예?

### 별식

107082 @ 혹시 그 수에도 담아봅디가?  
107082 #1 음.  
107082 #2 수엔 나 담을 충 몰른다.  
107082 @ 봐보기 해실 거.  
107082 #1 보기가.  
107082 @ 큰일허젠 꼭 수에를  
107082 #2 계난 옛날은 보리 곶아근앵에.  
107082 @ 예.  
107082 #2 즈질게 해놓곡.  
107082 #1 피, 우선 듯 잡을 때 피 받아놓고.  
107082 #2 이 메밀, 메밀가르 서끄고.  
107082 @ 예.  
107082 #2 허여근에 피 옛날은 이제난 잡채에 하영 썰어놔지. 피만 낱.  
107082 @ 예.  
107082 #1 그레 듯 북부기니 무신 거니 내장 썰어놓을 것도 없엇어게. 혼 점씩 경허난 순 그자 피 낱.  
107082 @ 음.  
107082 #2 그거 뭐.  
107082 @ 보릿ㄴ를에.  
107082 #1 보리ㄴ를에.  
107082 #2 중간에야 밀ㄴ르 뭐 잡채도 베라벨 맛이 잇지마는 그전엔 벨로 맛도 굳어가민 딱딱해불고 보리난.  
107082 @ 보리니까. 옛날 방식이 맛있엇던 거 같은데.  
107082 #1 꽤마농.  
107082 #2 꽤마늘은 어디 잇어서.  
107083 @ 옛날 헐 때는 그런 식으로만 한 거라예? 둬비는 이제?  
107083 #2 둬비는 옛날부터 거 나온 거. 이 중간엔 안 허지.  
107083 @ 건 어떤 식으로?  
107083 #2 이제 잔치나 뭐 둬비 콩을 막 물우떠. 물우뎀다가 맷돌 잇잖아. 그거 를 둘이 앗앙 그걸 ㄴ는 거야.  
107083 @ 음.  
107083 #2 곶아가지고 그거 둬빋주멩이로 막 짜. 돗지름 서끄면서.

107083 @ 돛지름  
107083 #2 그거를 돛지름 안 서끄민 내리질 아녀.  
107083 @ 아아.  
107083 #2 콩이 진이. 돛지름을 서끄면 그것이 사르르허거든.  
107083 @ 아아.  
107083 #2 경해가지고 이제 걸 짜가지고 솟디 큰 가마솟디 낱 끓여가지고 이젠  
끓일 때도 돛지름 즈근 거 놓고 지금 간수.  
107083 @ 예.  
107083 #2 간수 해서 이렇게 빙빙 뜨박뜨박 이제 ㄱ뜨멘 뭐 잇잖아. 저 순두부.  
107083 @ 예, 예.  
107083 #2 순두부ㄱ찌 나와. 배보자기에 베치마거치 큰 거 허여다가 이디 널판  
대기 깔아놓고 아래 도고리. 도고리다가 낱 널판테기 낱 그레 낱 이젠 ㄱ레착,  
107083 @ 응.  
107083 #2 ㄱ레착 더평 놔두민 두부가 돼.  
107083 @ 음, ㄱ레착으로 딱 눌르면 두부고예. 게문  
107083 #2 게난 흐뎀 이제거치 비삭져. 비삭져.  
107083 @ 그게 잔칫집의 가보면 고소허고.  
107083 #2 돛지름 들어가니까.  
107083 #1 그뎀엔 틀이 엇엇어이.  
107083 @ 둬비틀.  
107083 #2 중간에 나왔지.  
107083 #2 아주 옛날이야. 나 씨집을 때만 해도 그걸 해서.  
107083 @ 둬비에. 그렇게 이제 둬비 해나면 찌꺼지들이 잇어실 거 아니우과?  
107083 #2 비제기라고 이제는 무신 거렌 허느니?  
107083 @ 비지.  
107083 #2 비지.  
107083 @  
107083 #2 돛 쏘아 비제기국이나 혼 사발씩 주민 비제기 이제는 돛 솟아난 국  
국물을 다 그것이 큰 거야.  
107083 @ 맞수다 몹국도 끓이고.  
107083 #1 으.  
107083 @  
107083 #1 잘 먹어젓저 허곡. 웃음.  
107083 @ 아아, 잔칫집 가민 비제기국을 쫓구나예? 막 동네 ㄴ놔주기도 헌덴  
헨게 마는.  
107083 #2 그 다음에는 몹국이 나왔어.  
107083 @ 아

107083 #2 다음에.

107083 @ 비제기국이 먼저 나온 거우과?

107083 #2 아주 그 다음에는 순대 삶아난 듯 삶아난 국물에 퐁퐁 끓여뒀 먹지. 이제는 안 먹지.

107083 @ 음.

107083 #2 허기 허는디 그렇게 돛 삶아난 국물로 안 먹지.

107083 #1 등집텐 해연

107086 @ 예, 삼춘 여기 개역도 행 먹지예? 개역은 언제 헉니까? 주로.

107086 #2 오월장마에 주로 허주.

107086 #1 보리 꺾나민 개역허기.

107086 #2 여름장마 지민 예펜 궁둥이덜 개역 슬진 텐 허곡. 앓앙 하도 곶아나 난에 궁둥이가 무겁게 슬져서

107086 @ 개역덜 먹으니까.

107086 #2 입에 놓민 사랑사랑.

107086 @ 옛날은 그냥 ㄹ래에 근 거난예?

107086 #2 보간에 ㄹ래 맷돌에 물 소곱꺼지 이제는 영 허여서 허민 안 들어.

107086 @ 예, 예, 예, 예.

107086 #1 가루가 즈질아놓니까.

107086 #2 맷돌에 암만 곶아봤자.

107086 @ 옛날엔 또 보리나 꺾나나면 개역 행근에 친정에도 아정 가고 뭐 헛덴 이런 말도 헛 게마는.

107086 #2 중간에. 거 방엿간에 강 뺏앙 오고 개역해근에 느랑 어른덜신디도 가져가고.

107086 @ 음.

107086 #2 우리 혈 적에는 그렇게 힘들었어, 개역은. 혼 뒀 보까놓민 그거 막 곶아야지.

107086 @ 예예. 솟에서 직접 보깁예?

107086 #2 것보리라도 해여놓민 체가 있어. 그거 쳐 ㄹ를이 얼마 없어. 것보리. 것보리개역 아이고 입에 놓민 까락까락 까락까락. 이 중간에는 뭐 기갯방에도 강 뺏아오고 문닥헌 것덜.

107086 @ 경허면 밥에 비병 먹고.

107086 #2 나 씨집을 때만 헤도.

107086 #1 이제 육지도 어렵게 살았주마는 제주 경우에는 워정 때에 공출 바치 느라고 먹지 못허였지. 해방 뒀니까 이젠 살 건가 허니깐 그 다음다음해엔 사삼사 건 터져부러지. 씨를 밧디 가서 보리씨를 그걸 갈질 못헤연 쟁기로 갈아야 혈 건 디 오닐 허영 널 일찍 스테가 터지니까 사삼사건이 터지니깐 일헛 시간이 없어.

107086 @ 음.

107086 #1 허니까 쌀 뿌려뒀도 그걸 갈 시간 없으니까 그대로 춤 췌 좇어먹단 남은 거 올라오난 그거 먹어, 먹은 허니까 무시겨 농사덜을 할 수가 없지. 그대로 그냥 계속 배 고파오다가 이제 저 아시안게임.

107086 @ 예.

107086 #2 아시안게임 허기 시작허니까 풀리기 시작했주.

107086 @ 음.

107086 #1 올림픽게임 끝나니까 거즘 쌀밥을 먹었지.

107086 @ 올림픽예?

107086 # 아시안게임과 그 웨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름덜이 다 굶언. 봄 나민.

107086 #2 그때 나가니까 쌀도 아주 끝난 허니까 쌀도 안량미쌀.

107086 @ 예, 예, 예.

107086 #2 곤밥. 그 전에야 안량미쌀이 잇었나.

107087 @ 맞수다. 지지미들은 뭘 지정 먹어신고예?

107087 #2 지지미. 그자 보리 곶앙.

107087 @ 보리로. 지지미도 허고 떡도 허고 즈베기도 허고.

107087 #2 밀이나 갈민 지지미.

107087 @ 지짐이 헐 때는 뭘 낵 헤마씨? 여기서.

107087 #2 무시겨 낵 허여 먹을 중은 알아서.

107087 @ 웃음.

107087 #2 주로 그거 허영 돏지름 헤여 논 거 그거 영허영 꺽사 빙떡 지지돏.

107087 @ 그냥 그르만 낵.

107087 #2 이제난 파도 썰어낵. 파 지지미도 헤엇져 배추지지미도 허엇져 하간 거 헛주. 그제야 무신 거.

107088 @ 그런 식으로 허영 지지미 허고, 술도 직접 해봣디가? 해본 거 닻아.

107088 #1 웃음.

107088 @ 딱 보니까. 이젠.

107088 #1 폼이.

107088 @ 폼이. 술 하영 헐

107088 @ 안 드셔마씨?

107088 #2 그때 하르버지.

107088 @ 음.

107088 #2 나 처년 때는 안 헤보고. 완에 시에 살 때에 이제 혼 멧 년 전이고 그것이. 정인이 혼 두 설 때난 이제 오십 멧 년.

107088 #1 오십육 년.

107088 #2 오십육년.

107088 #2 오십칠년.

107088 @ 오십칠년 전이. 그땐 무슨 술 헐디가?  
107088 #2 그때는  
107088 @ 고소리 헤갓고.  
107088 #2 시에 나가 애기 하나 들고 시에 간 살앗거든. 돈이 어려와.  
107088 #2 게니까 탕건은 헛주마는 술 술장시를 헐다고, 헤연 이젠 술을 허영  
폴젠 허난 좀 허영 풀 수가 없어.  
107088 @ 으음. 예예. 밀주 단속 허영예?  
107088 #2 게연 그거를 어떻게 헤신고 허민 보리 톱운 원료가 나와.  
107088 @ 예.  
107088 #2 원료가 나오난 깡넝이ㄱ를, 골를 허연 서꺼근에 그 놈으집이 살명 큰  
항아리에다 듬양 이제. 술을 다끄는 거야. 솟을 빌어와야 허는 거야.  
107088 @ 예.  
107088 #2 빌어완에 흐뎡 막 할망이라도 선생네 집의니까, 이런 거 아녀갓다 허  
영 조사를 허 주인ㄱ라 말허연 헐디. 그 다음에는 그디서 살단 이제 여길 온 거라.  
107088 @ 음.  
107088 #2 아빠가 군인살 때니까, 여길 오니까 아마도 술장스 안 헤뵈쟁은 못  
헐 거.  
107088 @ 으음.  
107088 #2 멧 항씩 듬으멍 멧 들씩 다끄멍 풀앗으니까.  
107088 @ 음.  
107088 #2 나 저 드리. 드리 잇어.  
107088 @ 교렐 드리 송당허는데.  
107088 #2 그거 술허벅 이젠 이런 구덕에 영 농곡 술허벅 정 몰르게. 이젠 그거  
를 싸는 거라. 썩 것을 구덕에 낱 산으로 멧 허벅사 정 올려신디 결국은 돈도 다  
못 받으멍. 나 술장스도 많이 헤 봐서.  
107088 @ 음.  
107088 #2 술 장스도 허민 켈로 잘허곡 맛이 이시니까.  
107088 @ 음.  
107088 #2 이젠 시기가 부뜨는 거라이. 그 집의는 술이 맛 좋다니 딴 무신 거 양  
갓물 서갓느니 경 아녕은 맛 엇넨 허멍 막 시기덜을 부떠. 헤도. 잘 풀러.  
107088 @ 맛이 좋으니까예?  
107088 #2 술장스도 많이 헤뵈지.  
107088 @ 게난 그 술 다끄젠 허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행은에 따끄는 거라마  
씨?  
107088 #2 고소리.  
107088 @ 고소리?  
107088 #1 듬는 거부떠 .

107088 @ 밥행은에 허는 거부터.

107088 #2 여기 와서 시에서는 밥으로 헤 보리쌀을 허엿지 여기 오니까 짱냉이  
ㄱ를이 막 나왔어.

107088 @ 음.

107088 #2 네니까 그 짱냉이 ㄱ르를 사다가 막 썬.

107088 @ 음.

107088 #2 원료가 또 풀아.

107088 #1 원론 누룩 대신.

107088 #2 원료를 서경 이제 발효를 시켜. 이제 향아리레 담은 거라. 발효도 오  
래지 아녀.

107088 @ 음.

107088 #2 원료를 놓기 때문에.

107088 @ 예.

107088 #2 경허민 이제 이제 아메도 시루떡을 혼 열 시린 쳐야지.

107088 @ 아, 갱 떡을 청은에 현 거구나예? 밥이 아니고.

107088 #2 떡을 처근에 허민 동네 사름덜 왕 떡곡 어려울 때난이. 맛이 좋게 술  
장사도 허여봐서. 나 아녀본 장스 엿어.

107088 @ 그렇게 떡 치면 그 다음에 또 따끄젠 허면 어떻게 허는 거?

107088 #2 아, 기계가 나왔어. 기계가 나오면 뭐인가 삼양 동네 잇어서. 그거를  
이젠 슬제기 이젠 그거를 그 지서가 알면 지서가 알면 안 될 거니까. 지서가 알면  
은 알 될 거니까.

107088 @ 예.

107088 #2 영헌 어디 고평 닳은 디 앓쳐근엿에 나무 다끄는 거라. 고소리거찌  
나와. 그 나오는디 저 대바지.

107088 @ 예.

107088 #2 대바지 이만치 현 나오는 소리가 찌렁찌렁찌렁 허주.

107088 @ 으음.

107088 #2 경허영 따까. 이제 혼 대바지가 딱 석 돼 들어어. 겨민 혼 석 돼 들  
면 그걸로 하나 나오면 혼 솟에 잘 웬 거. 경 아녀문 술 간이 잘 안 돼영 안 나오  
면 술이 시금트릉허곡 안 나와.

107088 @ 으음, 발효가 안 돼영예?

107088 #2 발효가 잘 돼야. 술 젓어보면 기냥 그 게꿈이 박삭박삭박삭박삭 매날  
젓거든. 이제 일주일 간 돼여가민 그것이 이젠 썩 내려 앓아가민 그제부면 다끄는  
거라.

107088 @ 막 발효 웬 곳테 허는 거구나예? 게문 술 익는 냄새가 진동허컨게 여  
기?

107088 #2 쿠싱허여.

107088 @ 그거는 삼춘 오메기술도 헤반마씨?  
107088 #2 오메기술은 거 쉬운 거.  
107088 @ 어떤 거?  
107088 #2 막걸리 멘든 거. 거 쉬운 거.  
107088 @ 거는 뭤로  
107088 #2 난 헤보진 아년는데 놈 허는 거 보기만 헛어. 히린좁쌀.  
107088 @ 예.  
107088 #2 검은 히린좁쌀 잇잖아. 이젠 개발시리라고 헛 거. 이제도 그런 거 나  
얹주마는. 그런 거를 물에 담갔다가 그런 시쳐두고 방엿간에 뺏아와. 이젠 영허연  
오메기떡거찌 허영 솟디 낡 삶아.  
107088 @ 음.  
107088 #2 삶아가지고 이젠 이 도고리레 건져 놔.  
107088 @ 음.  
107088 #2 건져놔가지고 누룩 놓고 막 이렇게 쭈물러.  
107088 @ 음.  
107088 #2 쭈물렁 물 놓고 허민 흐뎡 똥죽 잇잖아.  
107088 @ 예예예예.  
107088 #2 똥죽거찌 허민 그거를 향아리레 부각부각부각 켜지. 것도 이젠 것도  
잊어부런 몰르켄게. 흐 말이민 것도  
107088 #1 막걸리.  
107088 #2 그렇게 맛잇을 수가 없어 우의다가 진누렁허영.  
107088 @ 기름도 막 피고예? 삼춘 오합주렌 행도 들어뵈디가?  
107088 #1 웃음.  
107088 @ 오합주 하영 헤영 쫓구나, 이제. 것도 오합주도 헤영 풀아.  
107088 #2 아니.  
107088 #2 오합주는 몸보신?  
107088 #2 그건, 그것만이  
107088 @ 오합주엔 뭘뵈 들어가는 거우과?  
107088 #2 인삼 들어가지.  
107088 #1 참깨.  
107088 #2 참깨 지름 들어가지, 참깨 들어가지 또 거세기 누룩 들어가지.  
107088 #1 누룩도 밀 누룩.  
107088 @ 밀누룩으로.  
107088 #2 또 무신 거고?  
107088 @ 계란?  
107088 #2 들어가지.  
107088 #1 꿀.



107088 @ 오합이 아니라 막 여라 가지.  
107088 #2 오합주는 말뿐이지.  
107088 @ 생강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  
107088 #2 생강 봐야지.  
107088 #1 생강  
107088 #2 꿀에도 너큰허지 아너고 꿀 농곡 허민. 계란 이제 쓸 한 뉘면 계란  
흔 한 판.  
107088 @ 하영 진국이네.  
107088 #2 또 인삼.  
107088 @ 예.  
107088 #2 인삼 가루.  
107088 @ 인삼은 가루로 허고.  
107088 #2 요새 오합주엔 헤도.  
107088 @ 음음.  
107088 #2 우린 경허영 먹엇주마는.  
107088 #1 저 오합주ㄱ장은 강술엔 현 게 잇어나서이.  
107088 @ 강술.  
107088 #2 난 안 담아보고.  
107088 #1 나도 외할머님한테 외할마님은 원 정의원 해여난 그 어른 딸이난에  
그 모든 그 춤 아까 말헌 오합주 만드는 그걸 헤영 물을 일체 안 들이는 거라. 것  
만 딱 버무령 흔 일년 놔두는 거라. 놔두민 그냥 누룩ㄱ치 되는 거주. 강술.  
107088 @ 강술.  
107088 #1 건 강술. 누룩가티 뉘면은 이제 그 누룩을 즈베기만이 헤영은에 허민  
대접에 놓는 거라. 경헤연 물 떠놔 그레 놓민 그게 술이라.  
107088 @ 아아.  
107088 #2 강술.  
107088 @ 그거를 이제 물 우뜨면 술맛이 나는 거. 차 마시듯이예?  
107088 #1 술도 상당히 쉼텐 허여. 계난 지금 강술엔 허연 나 지금  
107088 @ 올 때마다 가정가마씨?  
107088 #1 어디고 저  
107088 #1 저 서쪽에. 한림 넘어 강. 수옥이 딸 시집간 디가 어디?  
107088 #2 저 어디. 독고동 밑에.  
107088 @ 독고동  
107088 @ 옹포.  
107088 #1 옹포도  
107088 @ 금성, 금릉 ,판포.  
107088 #2 어디여마는.

107088 @ 서쪽에예?  
107088 #1 그 저 오름 잇고 저 도체비 비친 사름 절허곡 절간.  
107088 @ 아아, 용당.  
107088 #1 용당 우의.  
107088 @ 용수 고산.  
107088 #1 용수 우의 곳더레 간디.  
107088 #2 용수 우의란가. 아까 술을  
107088 #1 거기서 이제 강술 말을 들언는다. 강술이엔 헨에 해도 체라한 강술  
아니. 제주도 안네 어디서도 못 들엇는다 거기선 들엇어. 나가 우시 갓단.  
107088 @ 예예예.  
107088 #1 우시 갓단 그 말을 들엇는다 그 뜯 디선 일체 못 들언 헛는다 술 맛  
이 쪼끔 그 뜯 거보단 그 저 향기가 잇고.  
107088 @ 음.  
107088 #1 뭐가 잇더구만.  
107088 #2 술이나 뭐이던지 정성도 해야 돼고.  
107088 @ 맛수다.  
107088 #2 손맛도 잇어야고 그래. 뭐이던지.  
107088 #1 게난 즉 말허면 아이큐주, 아이쿠가 어떨 것이다. 그런 요셋말로 아  
이큐. 저 손맛이엔 헨 게 바로 그러라.  
107089 @ 삼춘, 순다리? 순다리  
107089 #2 순다리주게.  
107089 @ 순다리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7089 #2 그거야 쉬운 거주.  
107089 @ 저야 모릅주.  
107089 #1 쥘 쉬운 거주.  
107089 @ 저야 쉬운주 안 쉬운주 모릅주게.  
107089 #2 밥이라도 쉬여가면 누룩만 퀘여가민 먹으면 순다리 돼부러.  
107089 #1 요구르트  
107089 @ 그냥 요구르트.  
107089 @ 누룩만 낱예?  
107089 #2 옛날엔 주루 삶아만 먹어나서. 삶아.  
107089 @ 순다리 삶양 먹언예?  
107089 #2 배아 이제는 그대로 먹어야 맛 잇어. 삶으면 시금트름 맛이 없어.  
107089 @ 우리는 삶양 먹어보진 아녀수다.  
107089 #1 썩차?  
107089 @ 예.  
107089 #2 여기 완 보난 삶양 먹엄대.

107089 @ 예.

107089 #1 요즘은 짱근에 냉장고에 놔둬서 소님 차로 대접.

107090 @ 예, 예. 발효 식품?

107090 #2 요구르트 막 세는 거.

107090 @ 누룩 만들 땐 어떻 안 허여? 안 만들.

107090 #2 사당허주. 거 안 만들야. 할마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107090 #1 보리 곶앙.

107090 @ 삼춘이 만들엄신게.

107090 #1 보리 곶앙은에게 이젠 것에 물 버무렁 이젠 그 물 버무리는 게 그 발효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 영 허면 췌여질 정돈 모양인 모양이라. 부서진 중 그거.

107090 @ 음.

107090 #1 경혜영 췌망에 낱 잘 밟앙 어디 잘 데며두민 그냥 트는 거주. 거고 온도.

107090 #2 산뒤칩 시민 것이 췌고.

107090 #2 산뒤칩예?

107090 #2 이 요렇게 곶아가지.

107090 #1 또.

107090 #2 이제 경허난 우에다 무시건.

107090 #1 또 누룩놓고.

107090 #2 누룩을 놓던가 우에다 무신 거 옷감이라도 더퍼줘.

107090 @ 으음, 발효.

107090 #2 발효가 췌여.

107090 @ 누룩도 허면 그 곰팡이 같은 거 피잖아예?

107090 #2 노랑곰팡이가 제일 좋은 거.

107090 @ 노랑곰팡이? 아아.

107090 #2 진누렁케 잘 텃져. 허고 “맛 좋켜.” 경허고

107091 @ 음, 그런 식으로 헌 거고. 옛도 다까뵈디가?

107091 #2 아니 나 옛 안 따까뵈.

107091 @ 거짓말고 옛도 하영 헌 거 닳아. 자 옛만 다까뵈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7091 #2 아니, 그건 집안에

107091 @ 집안에 집에

107091 #2 아 그건 단지 쉬운 거라.

107091 @ 옛 만들젠 허면 뭘 헤얍니까?

107091 #2 밥 헤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밥을 익으면 이제 그 쌀이 익으면 딱 이젠 영 들러내는 거라. 솟을. 솟을 들러내던 다라민 다라레 퍼놓고 이제 영 흐끔

영 식어가면 물을 놔.

107091 @ 예.

107091 #2 물을 놓면서 이젠 또 그 옛기름 잇잖아.

107091 #1 예, 골.

107091 #2 옛 허젠 허민 기냥 쓸은 모인 걸로는 안 된다. 촛살로나 차좁쌀로나 해야주.

107091 @ 밥을예? 모인 건 안 되는 거구나.

107091 #2 경허민 이젠 이디 퍼 놓민 떡이 웨여. 물 놓고.

107091 @ 음.

107091 #2 또 옛기름 영영 헤가민 물 트로 건지 트로 웨여. 그 순간에.

107091 @ 아아.

107091 #2 경허영 이젠 딱 멧 시간 놔둬. 멧 시간 놔두면 이젠 그것이 영 보면 안 켜 때에, 안 켜 때는 우알이 없어. 우알이 없고. 궤면은 우의가 말끗허민. 것이 궤여올랑 발효가 웨면 짜는 거야. 끓이면 웨. 허쟁허민 덜 웨게 허젠 허민 막 끓이고.

107091 @ 그게 옛.

107091 #2 @ 삼춘, 옛에도 이것저것 넣은에 허잖예? 웨야지고기도 농곡.

107091 #2 살찐 거 놔도 좋고. 살찐 거 놔야.

107091 @ 예, 예.

107091 #1

107091 #2 살찐 거 쟁도 낱 허고.

107091 @ 마농옛도

107091 #2 마농같이 영 기자는 등갈등갈 마농옛은 또 허민 문짝허게 익어. 익어도 등갈등갈헌냥 잇어. 경해도.

107091 @ 계난 옛날덜은 옛을 해야 몸보신 현 거 아니라예?

107091 #1 감주 더 딸린 게 옛이주게.

107091 #2 옛은 하도 헤나난 진저리나서 윈.

107091 @ 웃음.

107091 #1 계난 그 골을 하녕 놓느냐 적 맞췌 그냥 씌도 허곡.

107091 #2 요새 장에 강 사온 골은이 많이 들어.

107091 @ 잘. 골을 잘 못 만든 거라예?

107091 #1 밀가루 서끈덴.

107091 @ 골에다가 밀가루 서껴?

107091 #2 왕 놀려보른 알아져. 짜보면 밀가루 서끈 거는 이디가 쩌뜩쩌뜩허여. 경 아년 건 사르르허여.

107091 @ 아아.

107091 @ 뭇로 놔?

107091 #2 보리.  
107091 @ 보리도?  
107091 #2 밀굴은 더 새는 거주. 옛날은 줄보리허고 밀만 헤낫는데, 살보리가 솔보리가 살이 많고 좋대.  
107091 @ 아아.  
107091 #2 살이 만해.  
107091 @ 계란 그계 골 놓는 것도 그 순서가 잇잖아예? 골 만드는 과정을?  
107091 #2 골 만드는 과정은 보리나 밀이나  
107091 @ 예.  
107091 #2 아무 거라도 다라 튀이면.  
107091 @ 보리면?  
107091 #2 이 정도 놓는 거야. 놔가지고 물 우땡. 하를 헤천 그거를 이젠 건져. 음, 바구니덜 핫잖아.  
107091 @ 예.  
107091 @ 2 이제  
107091 #2 더핑 놔두는 거야. 또 적지는 거야.  
107091 @ 아아.  
107091 #2 돌르민 또 적져. 잘 허면 오래곡. 잘 헤놓니까 삼일 만에 난에 돌르긴 허대. 경허영 이건 거시 무 이젠 영 허영 빨이 뽀족뽀족뽀족 나면 이젠 거 또 이제 말라. 또 물 적지는 거라. 또 물 적져놓고 물 적녀종고 말르는냥. 것이 빨이 나는 거라. 쉬염이. 말제민 것이 나온 거야. 요만치 돼면 널어야 헤여.  
107091 @ 예.  
107091 #2 병탱이가 퍼. 널엇당 그거를 파삭 돌르면 부벼가지고 골을 저 거 쌀 거져 돼게 만들야근데 뭐 푸는체로나.  
107091 @ 쉬염덜 다 내보내부는 거.  
107091 #2 요샌 믹사기에 허난 좋대.  
107091 @ 그냥 집에서 곱아?  
107091 #2 집의서 좋을 수가 잇어. 믹사기에.  
107091 #1 베 가마니 가져오민 글로 물 줍  
107091 @ 예.  
107091 #1 보리  
107091 @ 보리 가마니체  
107091 #1 경허영 빨 나민 그냥 돌랑 그 옛 멘드는 디선 그 빨리 순이고 뿌리고 다 들어가는 거라.  
107091 @ 음.  
107091 #1 다. 우리  
107091 @ 집에서 허니까.

107091 #1 집에서  
 107091 #1 빨리는 전부 떨어뒀 허는다.  
 107091 #2 내우니까 열 개 반도 안 나. 몰량 그냥 허민.  
 107091 @ 그러니까마씨?  
 107091 #2 집의서.  
 107091 @ 밖에 허는 거는.  
 107091 #2 짐의서 혼 뒀 허는 거민 석 뒀 사와 허여. 쓸 혼 말에  
 107091 @ 게난 삼춘은 안 해본 게 엇인게게예?  
 107091 #2 말허난 줄줄 나왔다이.  
 107091 @ 안 해본 게 엇어. 메칠 전에도 골 낫덴 헨게 골은 잇수가? 이제 다  
 곶아부런.  
 107091 #2 이제 찍영 가라.  
 107091 @ 예, 알아수다. 게난 안 해 본 거 엇어. 삼춘 이, 이 마을에서 도련에  
 서만 특별하게 해 먹은 음식 이신가마씨?  
 107091 #1 글쎄, 도련에서만 엇일 거라. 요 주위덜은 거쥌.  
 107091 @ 비슷비슷.  
 107092 #1 여기가 사통오달 뒀 곳이라 봐서. 전부 이웃마을이고 게난 놀 때도  
 옛날 우리 여기서 거로 저 용강 봉개 명도암 이 회천 신촌까지덜  
 107091 @ 다 ㄱ치들  
 107091 #1 다 ㄱ치덜 놀아놓니까.  
 107092 @ 특별한 것은 엇어.  
 107092 #2 줄보리. 이걸 살보리라이.  
 107092 @ 예, 알아수다. 잠깐만예? 겐데 순 안 헛져. 무신 거 안 헨 게 아니라  
 문딱 선수, 선수.  
 107092 #1 문딱 거깃말만 허젠.  
 107092 @1 예게.

## 8. 주생활

### 구조

108001 @ 그 집지엇던 경험 핫지예? 그 집지엇던 경험을 대략적으로 곶아쥬릅  
 서.  
 108001 #1 묻는 거, 말을 허렌 허면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디 질문허면 답은  
 지금 아메도 연령 들어가니깐 그게.  
 108001 @ 예.  
 108001 #1 질문에 답은 쉬운데 내가 생각헌다면서 허는 건 상당히.

108001 @ 어려와예?

108001 #1 으.

108002 @ 예, 알아요. 우리 집 종류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단보니까 집 종류는 어떤 종류덜이 잇어난 거 답수과?

108002 #5 초가집부터 살았으니까.

108002 @ 예.

108002 #4 그 초가집도 여러 가지가 잇고.

108002 @ 예.

108002 #1 초가집 쓰레트집 양철집. 웃음.

108002 @ 예.

108002 #1 기와집.

108002 #5 이 동네는 초가집 웨에 뭐 기와집이나 무슨 집은 없엇고.

108002 #1 아, 기와집도 잇어낫주.

108002 #5 잇어낫주만.

108002 #1 잇어낫주. 간 멘들진 안 헛주마는.

108003 @ 예, 알아요. 우리 제주도 말로 곶아줍서예? 그 집 하면은 삼춘네 집 어렸을 때 생각해방예.

108003 #5 으.

108003 @ 집은 만약에 초집. 초집 잇지 아녀우과예? 초집 이시면 부모님 사는 집은 무신 집이우과?

108003 #5 여기서는 춤 우리 부모님 살아단 집이 저디 지금 잇는데 그대로.

108003 @ 아아.

108003 #1 안거리.

108003 #5 뭐, 안거리라고 해가지고 잇고.

108003 @ 예.

108003 #5 대문간 지금 말허민 대문간인데.

108003 #1 먼문.

108003 #5 먼문.

108003 @ 먼문.

108003 #5 또 부억간이 또 잇어. 정지. 정지라고 해서.

108003 @ 예.

108003 #5 경해서.

108003 #1 모커리 건.

108003 #5 춤 디근자 집으로 우리가 출생헌 집인데.

108003 @ 예.

108003 #5 거기서 살아서 컷으니깐 뭐 그것을 뽏따서 나도 그런 집을 지으레 다녀봤고.

108003 @ 예, 게문 안거리 있고.

108003 #1 밧거리 있고.

108003 #5 모커리, 모커리가 있고 밧거리가 있는데, 나가 자란 곳은 모커리라.

108003 @ 아, 모커리에? 게문 제일 부잣집들은 어떤 집들이 이십니까?

108003 #5 여기는 대부분 그런 식인데.

108003 @ 아아.

108003 #5 디근자가 그러니까 디근자가 돼지.

108003 @ 아, 디근자예. 대근자 헐 때는 안거리.

108003 #5 으, 모커리.

108003 @ 모커리.

108003 #5 양쪽에 모커리가 돼니까. 부역간까지 따로 허니까.

108003 @ 아, 부역간도 모커리엔 헐니까?.

108003 #5 부역간이라고 허는데 것도 집 형태는 모커리라.

108003 @ 모커리예. 밧거리 형식이 아니라 모커리예. 아까 먼문은 뭐우과?

108003 #5 먼문은 그 대문.

108003 @ 예.

108003 #5 사람이 저런 식으로 것이 이.

108003 #1 올레에서 곧 들어오는 문.

108003 #5 올레에서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그 좀 살았다 허는 집은 그런 그 대문간이 있어.

108003 @ 으, 그거를 여기에서는 먼문이렌 해서예?

108003 #5 먼문.

108004 @ 예, 알아수다. 그 게문 삼간집 짓어봤수가? 사간집 짓어봤수가?

108004 #5 아, 집은 여러 가지 잇었으니까 보통은 여긴 사삼사건 후에 지은 집이니까.

108004 @ 예.

108004 #5 보통 삼간.

108004 @ 예.

108004 #5 오간짜리는 이 양반네 집 그렇지

108004 @ 오간짜리도 거 아무나 사는 집 아닌디, 예.

108004 #5 어.

108004 @ 삼간집 짓는 과정예? 안거리부터 헤영 한번 짓어봅주.

108004 #5 안거리는 보통 이 집을 지을랴고 허면 대들포라 우선 해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짓는데.

108004 @ 예.

108004 #5 거 삼간집인 경우는 대들포가 두 개.

108004 @ 예.



108004 #5 그렇게 해서 그걸 세우면서 이제 흙 날짜를 것도 세우니까.  
108004 @ 예, 택일도 허고예? 어떤 날 세와마씨?  
108004 #5 어떤 날이 아니고. 그건 아무나 하는 택일이 아니니 때문에.  
108004 @ 예.  
108004 #5 어디 그, 흙 저 택일 허는 곳에 가서 택일을 해와부니까 여기서 아무  
세와지는 게 아니니까.  
108004 #1 쉽게 말허민 생기에 맞고.  
108004 @ 예.  
108004 #1 예, 그 천화일 그튼 날을 빼고.  
108004 @ 예.  
108004 #1 이제 그 날이 이제 집짓기 옛날부터 내려온 날이 있으니까.  
108004 @ 예.  
108004 #1 그 날을 찾아서.  
108004 @ 으, 경혜영은에 하는 거라예?  
108004 #1 으.  
108004 @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젠 허면 대들포 하면 아까 삼간집 허든 두 개  
마씨?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우과? 만약에 집을 허면?  
108004 #5 이것이 앞에니까 이쪽 사면 이것이 앞이니까 요쪽이 대들포가 잇고  
요쪽이 잇고 해서 두 개.  
108004 @ 예.  
108004 @ 두 개?  
108004 #5 칸이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해서.  
108005 @ 아, 그러면 칸에 따라 대들포가 잇는 거구나예? 만약에 사간집이면  
대들포가 세 개가 잇는 거라예? 그러면은 여기도 주춧돌 같은 것도 놓니까?  
108005 #5 주춧돌이 그거야 물론이주.  
108005 @ 아. 건 어떻게. 대들포 세운 다음에 어떻게.  
108005 #5 썩기 전에. 기둥 살 자리에 주춧돌을 전부 으.  
108005 #1 다져서.  
108005 #5 땅을 다져 가지고.  
108005 @ 맨 처음 허는 게 땅 다지는 것부터 해야 할 거 아니라예? 그것부터  
굴아줍서. 그거부떠. 순서대로 집을 짓어보쿠다.  
108005 #5 그러니까 그건 흙 그림이나 설명해야 마땅허겠는데.  
108005 @ 여기 그러면 똤마씨.  
108005 #5 아니.  
108005 @ 영 허영은에. 여기를 집 짓어보쿠다.  
108005 @ 음. 예.  
108005 #5 삼간집원 경우.

108005 @ 예.

108005 #5 삼간집원 경우 여기 그 말목을 썰 땀 말목을 박아서.

108005 @ 예.

108005 #5 썰을 먼저 쳐.

108005 @ 예, 말목이런 헤예. 썰을 치고.

108005 #5 사방에다 썰을 쳐.

108005 @ 사방에예, 예. 사방귀를 전부 말목이런 헉니까? 말목, 예?

108005 #5 그렇게 해서 주치 앉은 자리를 정해.

108005 @ 예. 예.

108005 #5 요렇게 해서.

108005 #1 이 가운데도 지둥 저 방드레 들어가는.

108005 #5 여기까지 이제 전부 말목을 쳐 놓면 이걸 대들보가 아니니까.

108005 @ 예.

108005 #5 이렇게 해서 이제.

108005 @ 주치가 게문 여덟 군데 뒤는 겨우다예?

108005 #5 이것은 신식 집이고, 옛날 집이 따로 있어.

108005 @ 예.

108005 #5 옛날 집은 또 일로 나가는 거야.

108005 @ 아.

108005 #5 이렇게 나가는데.

108005 @ 예.

108005 #5 이걸 대들보 지둥이고.

108005 @ 요게 요게고예? 대들보가 여기하고 여기우과?

108005 #4 아니, 아니.

108005 @ 여기가 대들포예?

108005 #1 요게 대들포고.

108005 #5 그 다음은 뿔지둥이라고 해서 뿔도리로 해서 밑으로 또 나가는 거라.

108005 @ 예.

108005 #1 저 사이에 난간이고.

108005 @ 음.

108005 #5 게문 여긴 난간이라고 해 가지고 요것보다 층이 야트게.

108005 @ 예.

108005 #5 층이 야트게 예 여기서 말허민 요런 식으로 기둥이 사는데 요런 식으로.

108005 @ 네.

108005 #5 요건이 대들포가 나가는 것이고. 요건 뿔지둥이라고 해가지고.

108005 @ 예.

108005 #5 이거 기둥이 사는데.  
108005 @ 텃지둥예? 이게?  
108005 #5 이게 텃기둥.  
108005 @ 아, 이렇게 해서. 으, 텃기둥예, 예?  
108005 #1 즉 말허잖면 대들포 이은 거.  
108005 @ 아.  
108005 #5 여기서 저기 난간 나가는 식으로 나간 거주.  
108005 @ 예, 예, 예. 그래서 텃기둥은 이 옆으로 대들포 옆으로 해서 세운 거  
라예?  
108005 #5 대들포허고 막바로 나가. 막바로.  
108005 @ 막바로, 바로 앞으로.  
108005 #1 대들포 이은 거.  
108005 @ 요기 바로 이어서.  
108005 #5 게문 보통 이제 방들은 요런 식으로 가르는데.  
108005 @ 옛날 집예, 예?  
108005 #5 이건 마루.  
108005 @ 예, 여기를 마루를 뭐렌 험니까?  
108005 #1 상방.  
108005 @ 상방예. 아 가운데로 마루하고.  
108005 #5 여기에는?  
108005 #1 고팡.  
108005 #5 앞에 저 뭐 방.  
108005 @ 예, 예, 방.  
108005 #5 이 뒤에는 곳간이지. 여기서 말허면.  
108005 #1 고팡.  
108005 #5 고팡.  
108005 @ 이 동네선 고팡이렌 험니까? 고팡.  
108005 #5 여기도 방.  
108005 @ 예, 방.  
108005 #5 여긴 부엌.  
108005 @ 예, 부엌을 여기서 정지?  
108005 #1 정지.  
108005 @ 예.  
108005 #5 삼간집은 대부분 이렇게 나가고.  
108005 @ 방 두 개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불을 때게 뉘면은 만약에 굴목을 하  
거나 하면 어디로 하는 거우과?  
108005 #5 이것이. 올로 요 사이.

108005 @ 아, 여기 아까 이제 중간에.  
108005 #5 계난 요건 난갓으로 나가고.  
108005 @ 예.  
108005 #5 요기는 뒷난간이라고 헤가지고 작게 나가는 디도 잇고 크게 나가는 디도 잇고.  
108005 @ 예.  
108005 #5 방 때는 것은 올로 때는 디가 만허여.  
108005 @ 예.  
108005 #5 밖으로 돌아서.  
108005 @ 밖으로 돌아서예. 아까 이거 부역이니까 일로허겠다예?  
108005 #5 아, 여기.  
108005 @ 여기로 해서, 이건 굴목예?  
108005 #1 굴목.  
108005 #5 부역문이 일로 나는 디도 잇고 일로 나는 디도 잇고.  
108005 @ 아, 굴목 잇는 쪽으로 부역문이 나는 경우도 잇어예? 계문 그거는 정 짓문?  
108005 #5 여기는 방문이고.  
108005 @ 예, 방문예?  
108005 #5 계문 요던 난간이 질게 나가는디가 요즘 와서는 요기를 짤라서 방을 크게 만드는 디도 잇긴 잇는데.  
108005 @ 예.  
108005 #1 옛날 집이난에 지금 듣는 건.  
108007 @ 옛날 식으로 하면 이렇게 주로 방이 삼간집이면 방이 두 개가 이시구나예. 그러면은 방도 그 안방은 어느 게 되는 거우과? 큰방.  
108007 #5 안방은.  
108007 @ 부모님들이 받는 방.  
108007 #5 고평 부튼 딜 안방을 쓰는데.  
108007 @ 고평 부튼 디. 계문 안방이렌 험니까? 여기선 뭐렌 불러마씨?  
108007 #5 큰방.  
108007 #1 작은구들 큰구들.  
108007 @ 아, 큰구들 맞수다.  
108007 #1 으, 작은구들 큰구들.  
108007 @ 고평  
108007 #5 옛날에 곳간에 쌀 같은 거 놓면은 잊어버릴까 큰방에 부쳐서 헛다고 허는데. 요즘 와서는.  
108007 @ 큰구들 작은구들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정짓간도 따로 헌덴 헌 거는 무신 말이우과?.

108007 #5 요것이 이렇게 허면은.  
108007 @ 예.  
108007 #1 요까지 방이 뒤편이 버리면 부엌 그 정짓간을 방을 만들어볼면은 이젠 그 정지가 엇으니까.  
108007 @ 예.  
108007 #1 거 윗으로, 밖으로 나강은에 그건 생각허는 집.  
108007 @ 예.  
108007 #1 네가 방에 안 싸이고 그 네가 전부 밧게서만 음식을 만들어도 딴 디서 허니까.  
108007 #5 대문이 일로 들어오는 디가 잇고. 먼문간.  
108007 @ 먼문간예?  
108007 #5 이것은 올레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108007 @ 여긴 올레예? 여기는 먼문간 예.  
108007 #5 여기는 부엌허는 디가 잇고.  
108007 @ 아, 예. 이 따로 정지렌 험니까? 아니면 정짓간험니까? 옛날에.  
108007 #5 정짓간이주, 정짓간.  
108007 @ 정짓간으로, 예, 예. 정짓간 예. 정짓간 하면 솟이라든가 이렇게 앓지는 거 어떤 식으로 앓지는 거 글아줍서?  
108007 #5 건 방에 따라서 틀리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앓지고 허는 디가 잇는데.  
108007 @ 고대로 잇지예? 아, 그럼이 정짓간 허는 디도 방 멘들기도 헤마씨?  
108007 #5 그런 디는 별반 없는데, 춤 요 근래에 이젠 멧 년 뒤편이냐? 혼 스십년 뒤편이냐. 그때 뒤편이냐는 아이덜 키우기 위해서는 방 떨어내어가지고 방 멘드는 디가 잇어났주.  
108007 @ 아, 기구나예?  
108007 #5 방이 모자라니까.  
108005 @ 예, 경허문 아까 우리 이거는 바닥을 현 거 짚아예?  
108005 #5 으, 바닥.  
108005 @ 바닥 말고 이런 기둥이니 뭐 위에 이름들도 잇일 거 아니우과?  
108005 #5 으.  
108005 @ 예. 그 이름들을 좀 아는 대로 글아줘 봅서?  
108005 #5 지금 그건 현장 보면서 이야기해서 좋겟는데.  
108005 @ 예, 삼춘 게문 집의서예.  
108005 #1 여기서 굳는대로만 글아봐. 지등.  
108005 @ 일단은 굳 다음에 강 글아주면 될 거.  
108005 #1 아래 주춧돌 낱. 예 여기서 이거 문 주춧돌 삼칸집원 경우에 주춧돌 으답 개.

108005 @ 으답 개예.

108005 #1 으답 개. 또 이 중간에도 여기 주춧돌을 놔야돼.

108005 #5 익거 이디 이 고비마다 이거 다 놓게 뉘 거.

108005 @ 예.

108005 #1 경허면 열 개, 열하나 열두 개. 삼간집원 경우에.

108005 @ 삼간집원 경우는 주춧돌이 열두 개.

108005 #1 열두 개.

108005 @ 그 다음에 기둥은 몇 개가 세와지는 거우과?

108005 #5 주춧돌 들어가는 딴 다 들어

108005 #1 여기 뿔지동.

108005 #5 이것도 다 들어가게 뉘 거.

108005 @ 예, 뿔지동은 몇 개가 뉘는 거우과?

108005 #1 아, 주치가 더 들어가겄구나. 뿔지동.

108005 @ 뿔지동까지 잇으니까.

108005 #5 주치도 똑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108005 @ 예.

108005 #1 이것이 일로 나와근예.

108005 @ 예.

108005 #5 일로 담아부러 벽장이라고 헤가지고.

108005 #1 백장.

108005 @ 예, 백장 잇어예? 예.

108005 #1 백장.

108005 #5 이렇게 헤여버리면은 요레는 뉘가 합쳐서 방에서 합쳐서 헤부니까 없고.

108005 @ 예예예예예. 백장 이렇게 잇는 거고.

108005 #5 경허믄 이젠 그거 설명허젠 허민.

108005 @ 지붕 모양이나 이제.

108005 #1 지붕.

108005 #5 영허민 이건 득리라고 헤.

108005 @ 예.

108005 #5 득리, 득리.

108005 @ 이 부분이 득리라예? 예.

108005 #5 이 중간에도 이것이 전부 들어가는 거.

108005 @ 예, 그건 뉘렌 헉니까? 이렇게.

108005 #5 이건 아랫득리는 하, 알득리, 알득리엔도 허꼭 하도리엔도 허는데.

108005 @ 예.

108005 #5 이거는 중간도리주.

108005 @ 중드리 게문 중드리겟다예? 중간드리에.  
108005 #5 요것은 상므르.  
108005 @ 예, 상므르. 지붕 우에 상므르.  
108005 #5 요것은 추년.  
108005 @ 예.  
108005 #1 추년서리.  
108005 @ 예, 추년.  
108005 #1 추년, 추년허민 거기 서리가 들어가고.  
108005 @ 예.  
108005 #1 냥.  
108005 @ 예, 예.  
108005 #5 이리개 현 다음에는 이젠 또 이것이 서리. 서리는 이렇게 좀 나오게.  
108005 @ 서리는 이렇게 나가게예? 어.  
108005 #5 이런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은 안네 들어가서. 여기 문.  
108005 #1 아래 장지방.  
108005 @ 음.  
108005 #5 요거 이 형태가 장지방 이거 다 들어가는 것이고.  
108005 @ 장지방예? 아.  
108005 #1 우에 포.  
108005 @ 으.  
108005 #5 포 아래는.  
108005 @ 요런 게 장지방이렌 허는 거우과?  
108005 #5 아니, 이건 말고 이거 밑에 들어가는 거 잇어.  
108005 @ 아, 장지방은 바로 지방 밑으로 해서 쪽 논 것을 장지방이렌 허는구  
나예?  
108005 #1 기난에.  
108005 @ 예, 예, 예. 게문 그거는 다 바닥 안으로 들어가부는 거네예.  
108005 #5 어.  
108005 @ 바닥 안으로 해서 장지방이고.  
108005 #5 그 다음 이것이 잇주. 이거 문 다는 거.  
108005 @ 예.  
108005 #5 이건 문입장이라고 해가지고.  
108005 @ 문입장 예. 그러면은?  
108005 #5 그것이 방 들어가는 데마다 이것이 두 개씩 사게 뵈 거.  
108005 @ 예, 문입장이잖아예. 그러면 문입장을 여기는 뵈렌 험니까?  
108005 #5 벽.  
108005 #1 뵈기.

108005 @ 튀기헤갓고 옛날 으.  
108005 #5 흙 발르기 전에는 이견 튀기.  
108005 @ 예.  
108005 #5 흑바르민 벽.  
108005 @ 아, 흑바르민 백이 튀는 거고. 그 전에는 튀기 흑 바르기 전에는 튀기.  
108005 #5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흑 바르는 거니까 튀기.  
108005 @ 예, 예, 예. 그 튀기는 무신 낭으로 헛수가?  
108005 #5 대로 많이 허는데, 대, 대나무.  
108005 @ 아아, 대나무로예? 아. 이렇게 해서 이제.  
108005 #1 대나무 허영 우물 정자로 딱 여까냥 흑 부찌면은.  
108005 #5 요 이 우에도 서슬이라고 헤가지고 것도 대나무로 엮어. 드리 우에.  
108005 @ 드리 우예예. 아, 서슬.  
108005 #1 지붕. 지붕.  
108005 @ 지붕에 서슬.  
108005 #1 일차는 서슬해서 대나무로 여끄고.  
108005 @ 예.  
108005 #5 그 다음은.  
108005 #1 흑 올리고 고디 올려.  
108005 #5 고디라고 흑, 흑 꺾어가지고 멘작 바르는 거.  
108005 @ 예, 그걸 고디렌 헤마씨?  
108005 #1 고디.  
108005 @ 고디렌 헤마씨?  
108005 #1 그것은 방한 방서 어음도 방지하고 추운 것도 방지하고 이 흑을 거기 두텁게 깔아놓면 게서 이제 그 여라 가지가.  
108005 @ 예.  
108005 #1 거 허민 즉 말하자만 옛날에 토굴과 마찬가지로 만든 거 닳아.  
108005 @ 아무래도.  
108005 #5 그 다음에는 새로 더프는 거.  
108005 @ 예, 예.  
108005 #5 그것이든 이제 집은 다 끝나는 거.  
108005 @ 아, 다 끝나는 거우과?  
108005 #1 켄디 저 이 저 드리덜토 다 끝사사여.  
108005 #5 아까 드리덜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잇구나.  
108005 #1 아, 연필, 으.  
108005 #4 이것이 대들포.  
108005 @ 예.



108005 #1 집에 대들포. 우리 집 대들포. 저 높은 우리 집 대들포 허영근앵에 말허는 게.

108005 @ 예, 예.

108005 #5 요것이 잇는데.

108005 @ 예, 그 옆에?

108005 #5 요거. 요거. 이견 동자.

108005 @ 동자예, 세 개가 다 동자우과?

108005 #1 예.

108005 @ 어, 이견 동자. 아까 이게 대들포?

108005 #5 어. 이견 서리.

108005 @ 요거는 아까 서리예? 이렇게 지붕 옆에 잇으면 이렇게 삼각형 잇으면 그거 아니라예? 서리.

### 초가 지붕이기

108026 @ 그 다음에 집 밖으로 헤갓고 그렇게 해서 지붕을 올릴 거 아니우과 예? 맨 지붕 올리젠 허면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마씨? 지붕 올릴 때. 뭘 새를 먼저 깔앙 허든지 어육을 깔든지 허는 거 잇지 아너우과?.

108026 #5 흑 깔앗으니까.

108026 @ 예.

108026 #1 흑 우에 기냥 새를 올려서 더프는 거.

108026 @ 고디 헤나면 바로 헤마씨?

108026 #1 축담도 답고.

108026 @ 예, 축담도. 서리헤영은에 이제 하면 보통 새 헐 때예, 새 올릴 때는 어느 정도로 올려마씨?

108026 #5 그것은 처음에는 뭐 얇은데 해가 갈수록 자꾸 우에 더프니까 높아지는 거주.

108026 @ 음.

108026 #5 어느 정도라고 이견 이야기헐 수가 없지. 비가 안 셀 정도로 더프는 거니까.

108026 @ 아아. 그 새 더프는 거를 여기선 뭘렌 굴읍니까?

108026 #1 이는 거. 일언.

108026 #5 지붕 인다고 허는데.

108026 @ 아, 지붕인다고예? 게문 지붕 일젠 헤도 이제 그 단계가 이실 거 아니우과? 강 새도 행 왕 해야돼고.

108026 #5 그렇주. 줄. 줄이엔 현 것이 또 잇주.

108026 @ 예, 예.

108026 #5 그것도 허젠 허문 지붕 놀 누는 거. 그것도 허젠허문 옛날은 줄 노는

거는 옛날은 각단이라고 해서 새가 짧은 거.

108026 @ 예.

108026 #5 그걸로 해서 줄 놓고.

108026 @ 예.

108026 #5 긴 것은 지붕 기냥 더프고.

108026 @ 예.

108026 #5 육지서는 나록찹 헤영 나라미엔 헌 거 여꺼가지고 허는데 여기는 그 걸 아녀고 여기서는 기냥 못채 올려가지고 풀면서 더프니까. 것도 아무나 헐 수가 없어.

108026 @ 그러니까예? 계영 그 지붕 일 때는 또 지붕 이는 전문가가 이실 거 아니라예? 아아, 경혜영 하고. 그 더픈 다음에는 줄로.

108026 #5 으, 건 집안 식구덜끼리 들어가지고. 줄은 땡겨 메고 우의서 내려와 주니까 줄을.

108026 #1 그 줄 매는 거 대ᄇ라 거왕.

108026 #5 거왕이주. 거왕대라고 해서,

108026 #1 이 집 가지에, 가지에.

108026 #5 집가지에.

108026 @ 길게 하는 거예?

108026 #1 쪽허게 이제 사각으로 거왕덜 매여놓민.

108026 @ 예.

108026 #1 집줄을 우에서 내리우민 그것에 무경 양쪽으로 땡경근에 단단허게.

108028 @ 건 식구덜이 그냥 허는 거고예? 그러면은 줄도 멧 개 정도 필요해마 씨?

108028 #5 건 집에 따라 틀리니까.

108028 #1 집의 크면.

108028 #5 크민 많이 들어가고.

108028 @ 게문 그것도 긴 게 잇을 거고 썩른 게 잇을 거고.

108028 #5 긴 줄이고.

108028 #1 진줄.

108028 @ 진줄.

108028 #1 썩른줄.

108028 @ 썩른줄 맞수다. 진줄허고 썩른질이 필요해마씨?

108028 @2 삼칸 집이면 멧 개씩 필요헉니까?

108028 @ 보통은?

108028 @2 삼칸집이면?

108028 #5 삼칸집이면 많이 들어갈 거. 어디 알아지커라. 보통은.

108028 #1 혼 이십센치 간격.

108028 #5 이십센티는 좀 넘주.

108028 @ 줄 때는 게 이십센치 간격 정도 이제 허는구나예?

108028 #1 촘촘허민 오래 가니까. 지붕도 아뭏 브름이 붙어도 거 잘, 걸로 땡겨 무끄니까.

108026 @ 음. 게른 집 헐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마씨? 여기 도련에서는.

108026 #5 평균은 이년에 한 번 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허는데. 비가 세면은 중간에도 이는 수가 있고.

108029 @ 음, 그 줄 놓젠 허면 이 도구들도 잊지 아녀우과예?

108029 #5 음.

108029 @ 뭇덜 잇수가?

108029 #5 호롱이라고.

108029 @ 예.

108029 #1 휘롱이주. 휘, 휘롱이, 휘롱이.

108029 @ 휘롱?

108029 #1 이제 돈다고 헤가지고.

108029 @ 예, 호롱이앤도 허고 휘롱이.

108029 #5 것이, 요로콤 똤서 이거 현 건디.

108029 @ 예. 으음.

108029 #1 저 새앤 대허영 손잡이.

108029 @ 이건 손잡이예?

108029 #5 이건 대.

108029 #1 대 손잡이 그건.

108029 @ 아, 이게 대로.

108029 #1 대 손잡이.

108029 @ 대 손잡이고, 이거는?

108029 #5 나무.

108029 #1 나무 손잡이.

108029 @ 아아. 여기 영 헐 거니까? 예, 예.

108029 @ 이 자체가 손잡이구나예?

108029 #1 으으.

108029 @ 여기는 나무로 하고.

108029 #5 다 나무. 이것도 나무 이것도 나무.

108029 @ 예, 이것도 다 나무로 똤 거?

108029 #1 그것만 대.

108029 @ 여기만 대로 이렇게 똤는 거라예? 이건 무산고마씨?

108029 #5 이거 손 감아지지 아녀게. 그냥 돌아가게.

108029 #1 이거 짝 췌여놔. 이 저 통대 헤영 그디 꼽은 거니까.

108029 @ 예.

108029 #1 이것만 꼭 잡아 돌릴 수 이시니까?

108029 @ 아, 그러면 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속에 영 끼운 거구나예. 아아.

108029 #1 으, 속에 끼운 거.

108029 @ 대 손잡이 나무로 뒤고. 이 부분을 뒤엔 험니까?

108029 #1 공쟁이.

108029 @ 이걸 공쟁이에 걸어갖고 허는 거라예. 게문 이 자체를 뒤롱. 또 호롱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예. 게문 이거는 줄 저기에서 뒤인뒤 험니까? 어땡?

108029 #1 줄 내면 줄 내면 여기서 막 꼬아강

108029 @ 예.

108029 #5 줄 낸다고 허는디 뒤.

108028 @ 줄 낸다. 영영 허는 사름 줄 빈데는 안 곱니까?

108028 #1 줄비는 사름.

108028 #5 여기서 만들어주는 사름이 잇주.

108028 @ 예.

108028 #1 뒤에서.

108028 @ 그 하나씩 혼 줄씩 워 가닥으로 험 때는 줄 낸뒤 헤마씨?

108028 #1 으.

108028 @ 줄 내는 거는 누게가 내는 거우과?

108028 #5 것도 아무나 험 수가 없어. 것도 허는 사름이 헤야지.

108028 @ 예. 아아.

108028 #5 이걸 아무나 허는데.

108028 @ 예, 돌리는 건 아무나 허고 이렇게.

108028 #1 줄 비는 건 아무나 허는데.

108028 @ 예.

108028 #1 줄놓는 사름은.

108028 @ 예.

108028 #1 줄놓는 사름은 익숙헌 사름이라야.

108028 @ 아아.

108028 #1 익숙헌 사름이 줄을 놓면 여기허고 저기깁장 가는데 그 깁 허고 맞 추와, 걸.

108028 @ 예.

108028 #1 쉤앗베 헤영근영에 그 얼마 길이 맞추와 낭 이젠 쉤앗벨 놓면,

108028 @ 예.

108028 #1 그 쉤앗벨 기력실 비어가.

108028 @ 음.

108028 #1 비어가민 거기 막당이 꼽앙 그레 꼽아똥.  
108028 #5 두 개를 만들어야 하나가 돼니까.  
108028 @ 예, 예, 예.  
108028 #1 두 개 놔놔 이젠 하나 줄 하나가 이젠 되는 거.  
108028 @ 예, 그러면 두 개 꼬운 거를 이제 어울려야걸 아니우과?  
108028 #5 어울린다 그건 그 말이 그 말이고.  
108028 #1 어울리는 거.  
108028 @ 줄 어울리는 거라예? 게문 이렇게 이제 새로 해갖고 영 주는 사람은 줄 놓는 거고?  
108028 #1 줄 놓는 사람.  
108028 @ 그 다음 돌리는 사람은 비는 사람이고.  
108028 #1 으.  
108028 #5 맞아게.  
108028 @ 양쪽 두 개를 흔 가닥으로 영.  
108028 #5 어울리는 거고. 또 그 다음에.  
108028 #1 저 뒤편이 있어. 뒤편. 이저 줄 양쪽에서 비면은 이디서.  
108028 @ 또 돌려주는?  
108028 #1 구멍에 해영 두 줄을 꼽앙 여기서 돌리곡 저기서 비여주고.  
108028 #5 이건 뒤편이 있는 거라고 허는데.  
108028 @ 예, 예.  
108028 #1 뒤편이엔도 허고.  
108028 @ 뒤편이?  
108028 #5 또 요것이 있어.  
108028 @ 예.  
108028 #5 고망에 걸영, 이거 두 개 걸영 돌리는 거.  
108028 @ 예, 이게 뒤편이 아니구나예? 뒤편이해서 뒤편이 허는 요게 돌리는 하르방.  
108028 #1 뒤편이엔도 허곡. 뒤편이엔.  
108028 @ 뒤편이엔도 허곡 게문 그 줄을 어울리젠 허면 뒤편에서 앓앙 돌려줘야.  
108028 #1 으.  
108028 @ 그 두 사람은 계속 이렇게 비고, 영 어울려 가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은 뉘렌 험니까?  
108028 #1 그건 어울리렌 험니까 그건 명칭이 없는 거 같아 건.  
108028 @ 줄 어울리는. 어, 그것도 잘 어울려야 이제.  
108028 #5 아, 그렇주.  
108028 @ 예.

108028 #5 너무 빨리 가불면은 이것이 사이가 느려가지고 안 되고.  
108028 @ 음.  
108028 #5 좀 찰찰하게서리 허젠 허민 천천히 돌아가게꾸리고.  
108028 #1 서답마께로 헤영 허는 게 젤 좋고.  
108028 @ 예.  
108028 #1 서답마께.  
108028 @ 아, 줄 어울릴 때도 뭔가 도구가 필요허구나예?  
108028 #1 그 사이에 영 범벅돼지 말앙 허게 곱게 썬 허민 거기 몽둥일 허던  
가 서답마꼰 허던가.  
108028 #5 옛날은 것이 잇어났는데.  
108028 @ 예.  
108028 #5 그 아가리 두 개 벌렁 줄 두 개를 물러가지고 나가는 것이 잇어났는  
데.  
108008 @ 예.  
108008 #5 그것이 잇어났는데. 그것이 복잡허다고 그자 막댕일 나가는 거.  
108028 @ 그 일름은 기억 안 남수가?  
108028 #5 이름은 뭐라고 허던지.  
108028 @2 고망 두개 이신 거예?  
108028 #5 다, 두 개 합치면 고망이 돼게.  
108008 @ 예. 그런 식으로 헤갓고 현 거라예? 예전에 상방에 뭐 그 불도 찹고  
허는 것도 낫지예?  
108008 #1 그건 봉덕불 그건.  
108008 #5 화덕이엔 현 거 아주 옛날이난 우리는 모르고.  
108008 #1 봉덕. 나도 막 어린 때 혼번 봐낫주 경 쉽질 아녀서.  
108008 @ 거기 식게 때 같은 경우에 허기도 허고.  
108008 #1 앓앙덜 놀곡. 경허난 찹 그, 그 집은.  
108008 @ 예.  
108008 #1 그 큰집에 허들 아녕. 저쪽에 모커리에나 뭐허영 허는 집덜이 많고.  
108008 @ 예.  
108008 #1 큰집엔 마루 놓고. 마리주. 마루가 아니고 마리. 옛말론.  
108008 @ 예.  
108008 #5 마리 놓 다음에는 화로라고, 화로.  
108008 #1 그 다음은 화로.  
108008 @ 돌화리?  
108008 #5 옛날은 돌화리.  
108008 @ 예.  
108008 #1 네모난 거.

108008 @2 예를 들면 그 돌화리를 마리에 심었수강?  
108008 #5 아니, 아니.  
108008 #1 아니 그냥 거.  
108008 #5 이동할 수 있게끔.  
108008 @2 으음.  
108008 @ 봉덕허는 거는 이제 큰 마리에 놓은 건 아니고 모커리썸에.  
108008 #1 아래 흑방에.  
108008 @ 흑방에예? 예, 거고 삼춘, 마리도 요즘이야 다 이 마리는 또 다르네.  
그 종류가 옛날 거는 이렇게 네모나갓고 한 마리?  
108008 #5 쪽마루 것도 춤, 지금도 건 쪽마루라고 허는데, 요런 식이주, 요런 식.  
108008 @ 그걸 쪽마루렌 험니까?  
108008 #1 요게 쪽마루.  
108008 @ 아, 요렇게 하면 쪽마리면 그 다음 긴 거는?  
108008 #5 이건 마리틀이고.  
108028 @ 널마리는 뭐우과?  
108008 #1 귀클, 이거. 귀클.  
108008 @ 예.  
108008 #5 이런 마루 놓젠허민 일로 구멍 쳐서 놓는 거니까 이건 춤 귀클이주.  
108008 @ 귀클예, 귀클에다 쪽마루들을 허는데 널마리는 뭐우과?  
108008 #5 널은 보통은 사오긴데.  
108008 @ 예.  
108008 #5 뭐 옛날은 그것이 쥘 많고 사오기허고 그 소리낭이라고 해서 소리낭 마리도 많았고.  
108008 #1 사오기로 허는 거는 아주 잇는 집이.  
108008 @ 예.  
108008 #1 잇는 집이 거 지금으로 허민 그 벚꽃이난. 벚꽃나무난에.  
108008 @ 예.  
108008 #1 아릅드리 그 냥을 깨영. 옛날은 거 일일이 싸질 못허니까 그거 깨영 그거 자귀로 문 까깁 그 널판을 만들어놓니깐 또 옛날 마룬 계난 두텁고.  
108008 @ 예, 예, 예.  
108008 #1 으, 이제 지금은 뭐 춤 저 뭐 손가락 두끼 허민 아주 좋은 냥이주마는 계영 그걸 그 사오기로 허민 춤도 잘 안 먹을걸.  
108008 #5 잘 안 먹주.  
108008 @ 음.  
108008 #1 춤도 잘 안 먹고.  
108008 #5 사오기 보통 속술을 쓰니까. 것술은 좀 먹는데 속술은 잘 안 먹주.

108008 @ 삼춘, 속술은 뭐우과?  
108008 #5 나무 속에 걸로.  
108008 @ 아아, 밖에걸 말앙 안에 걸로만 쓰는 구나예? 탄탄헌 나무를 쓰는 거네.  
108008 #5 색깔도 빨강고.  
108008 @ 아아.  
108008 #1 아주 춤 채고주. 그런 낭 혼 쪼가리만 이시민 골동품 잇는 디서.  
108008 @ 음, 요즘은 사오기가 엇입니까?  
108008 #1 이즈음은 헛당 큰일나게. 낭 하나  
108008 #5 아 저, 왕벚꽃나무니까.  
108008 @ 아, 왕벚나무가 예전에 사오기렌 헤낫수가? 옛날에 아아.  
108008 #1 사오기허고 저 뵈고?  
108008 #5 뵈.  
108008 #1 그 비슷한 거게.  
108008 @2 굴무기.  
108008 #5 굴무기사 나무가 딱나주.  
108008 @ 그건 느티나무.  
108008 #1 굴무기도 좋은 거.  
108009 @ 예, 그리고 삼춘, 옛날에. 이제 고팡예, 아까 ㄱ튼 디는 문은 어떻 내엇수가? 거는 일반하고는 다르잖아예?  
108009 #5 건 완전히 판자문이주. 나무 판자문.  
108009 @ 예. 고팡예.  
108009 #1 널문, 널문.  
108009 @ 널문 들앙예?  
108009 #1 지금은 판자주마는 옛날은 널문. 웃음.  
108009 @ 널문 행은예 이제 허고. 그 창곰 같은 것도 이렇게 브름 통허게 헛지예?  
108009 #5 창곰은 크게 안 내어서 작게 내어서 문은 안 들어서 옛날은.  
108009 @ 아, 문은 안 들고 그냥.  
108009 #1 마리로 들어가는 문은 들고.  
108009 #5 문은 하나뿐. 마루에서 들어가는 거.  
108009 #1 창곰은 족게 낸 게 도적, 도난방지도 허고. 도둑놈덜 글로 머리 질르지 못헛 거난예. 경허영 허고 창곰을 내여도 거기 또 낭 박아근엇예 더 촘촘허게 헤불엇어. 거 저 요셋말로 허민 흐쉴 비지근헛 정도벚긔 그자 거기 그 집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고팡예 다니는 분 아니면 어디 무신 거 놓은 거 몰르. 곡식을 못베리난.  
108009 @ 아아, 사방예 이제 다 이제 문 하나만 잇고 다, 아. 경허고 예전에 혹



시 이 도련 같은 경우도 안칠성이여 밧칠성이여 이런 말도 해신가마씨?

108009 #1 칠성?

108009 @ 예, 안에 안에 뭐 남쨌 이런 말도 해나신가마씨?

108009 #5 글쎄. 거 들어본 거. 들어본 적이 엇인 거 님은데.

108009 #1 도련선 그런 거세긴 조끔 아메도 이 저 양촌에선 그런 게 좀 덜어.

108009 @ 음.

108009 #1 그런 게 덜어.

108009 @ 예. 알아수다.

108010 @ 정짓간 만들어잖아예? 예, 정지에 낫던 것들은 뭐 잇수가? 솟도 걸어  
실 거고?

108010 #5 살래.

108010 @ 예, 살래.

108010 #5 물항.

108010 @ 예.

108010 #5 물항아리. 대부분 그것 뿐이주.

108010 @ 살래하고. 솟은 솟 건텐합니까?

108010 #5 솟은 앓진다고 허주,

108010 @ 솟 앓진다. 솟 앓지젠 허민 뭐가 필요해마씨?

108010 #5 솟덕이라고 그 돌이.

108010 @ 예.

108010#5 옛날은 요즘 요 중간에 들어서 세멘을 헛는데 옛날은 돌 세 개.

108010 @ 예.

108010 #5 세 개 해근에 그걸로 앓젼어.

108010 @ 아아.

108010 #5 여기는.

108010 #1 세모나게 네모나게 까깁근앵에.

108010 @ 딱 가고 두에 하나고.

108010 #1 삼밭.

108010 @ 삼밭이 식으로 그 불 슴어나면 불체들은 어떻?

108010 #5 불치는 두이로 나가게 만들주. 두이로.

108010 @ 두이로 나가게.

108010 #1 두에 저장허는 거주.

108010 @ 거기 공간을 뭇렌 부르기도 험니까?

108010 #1 솟뒤.

108010 @ 솟뒤에 불체들 저기를 하고예?

108010 #1 불치 소금 망데기도 거기 놔두면 좋고.

108010 @ 예.

108010 #1 다시 뵈고? 옛 어른덜 옛날 우리 어린 땐 보면 그 바닷고기도 해당 그, 그쪽에 영 행근에 놔두면 뭐 뜯 게 범접을 못해.

108010 @ 음.

108010 #1 웃음. 게엿당은에 그거 흔 점 행 먹곡.

108011 @ 예, 그 다음엔예, 아까 이, 이런 문들을 영 들 거 아니우과예? 아까 이제 뭐?

108011 @2 입쟁이.

108011 @ 입쟁이 문얼굴 뭐 돌쳐귀 문지방 허는 거예, 그거 설명해 줘서. 어디 가 그거고. 그 다음에 문을 들젠허면.

108011 #5 문을 들면 입장이라고 허는데.

108011 @ 예.

108011 #5 입쟁이라고 허는데, 입쟁이 웃지방 알지방.

108011 @ 이게 입쟁이우과? 이거 세우는 거는 입쟁이렌 허는 거예? 그 다음에 문 들젠 허면 옛날에는 이 대문도 이런 식 저런 게 대문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올 때가 대문이라났잖아예?

108011 #1 안네 대문.

108011 @ 마루혈 때.

108011 #1 저딘 먼문이고 이 앞에 건 대문이고.

108011 @ 저기는 먼문. 여기는 대문.

108011 #1 대문.

108011 @ 대문도 옛날에는 뭐 미는 게 아니라 양쪽에 해야 될 거 아니우과? 게 문 뭘 만들어야 됩니까? 그 문고리 허젠 허면.

108011 #1 그 저.

108011 #5 대문은.

108011 #1 그 잊지. 고망 뜯른 거. 문 우에 그. 그 문조쟁이 들어가젠 허민게.

108011 @ 돌찼귀.

108011 #5 아니 돌철귀? 뭐엔 허느니? 뭐.

108011 #1 아니.

108011 @2 문부출?

108011 #1 아니, 부출이 아니고.

108011 @ 이렇게 고망혜영 끼와야 뉘잖아예?

108011 #5 거 이름 이신디.

108011 @2 아래는 구멍 들어가게 구멍파고.

108011 #1 그게 이름이 잇는다.

108011 @ 문에 걸영 허는 거니까. 돌쳐귀, 돌쳐귀는 어디에 하는 거우과?

108011 #1 돌쳐귀는.

108011 #5 돌쳐귀는 방 창문에, 창문 들 때 그 돌쳐귀를 쓰는데.

108011 @ 이렇게 뭐 할 때예? 그 췌대?  
108011 #5 지계문이라고 하는데, 이 저 마루에서 방  
108011 @ 아, 이렇게  
108011 @ 아, 마루에서  
108011 #5 그것에도 돌쩌귀 쓰고.  
108012 @ 여기는 대문. 부엌문은 그냥 정짓문하고.  
108012 #5 정짓문.  
108012 @ 아, 예.  
108012 #1 정짓문 낭 지방에 그냥 고지, 고지엔도 허곡 쉽게 말허민 조쟁이엔  
곧주마는. 아이고, 것ㄴ라도 또 뭐엔 곱아난다.  
108012 #5 계메 뿔사 알아지커라.  
108012 #1 생각해뉘.  
108012 #5 흥끔 젊어시믄 헐디.  
108012 @ 예, 흥끔 생각험시믄 틀내질 거우다.  
108012 #5 오늘 저녁이 줌자멍 생각해뉘.  
108012 @ 그 다음에 그 옛날 어른들 방에 앓앙은에 영 혜영 베껏디레 베려보는  
문도 잇어예?  
108012 #1 호령창인디.  
108012 @ 예.  
108012 #1 우리 동넨 그건 엇엇어.  
108012 @ 아아, 여긴 엇수가?  
108012 #1 호령창 엇어어.  
108012 @ 계믄 여긴 창문만 들아.  
108012 #5 어, 창문만.  
108012 @ 아 창문허고 영 지계문. 바로 밖에 거를 창문이렌 그냥 헤마씨?  
108012 #5 그렇주.  
108012 @ 으.  
108012 #1 창문은 구들에서 베껏디레 나가는 디고. 이 마당디레 나가는 게 창문  
이고.  
108012 @ 예.  
108012 #1 이 구들에서 마루레 들, 이 마리레 나오는 건 지계문이고.  
108012 @ 예. 계믄 이게 다 지계문이겠다예?  
108012 #1 예, 예.  
108012 # 5 지계문.  
108012 #1 이진 지계문.  
108012 @ 아, 지계문이고. 그럼 무사 옛날은 창문, 요즘은 창문들이 이렇게 높  
이 벽 우의로 헛지만 다 여닫이문도 창문.  
108012 #5 쌀문이주, 쌀문.

108012 @ 쌀문예? 그것도 다 창문?  
108012 #1 마루레 나가는 건 창문.  
108012 @ 예, 마루로 해서.  
108012 #1 어쨌든 집 밖으로 나가는 문.  
108012 #5 창문은.  
108012 @ 예.  
108012 #5 아래 이런 판자를 안 전부 쌀 박은 거.  
108012 @ 예, 예, 예.  
108012 #5 위에서 아래까지. 지게문은 요 밑으로 판자 붙인 거.  
108012 @ 판자 붙이고 우에는 쌀. 알아지쿠다. 알아지쿠다.  
108012 #1 널 부짚 거.  
108012 @ 예, 예, 예.  
108012 #1 아래 쪼금.  
108012 @2 그럼, 저쪽에서는 호령창이 있는데 여기선 창문이 막혀지면 누가 오는지 모를 거 아니우과? 게문 창문에 유리를 이렇게.  
108012 #5 옛날은 안 부치고.  
108012 #1 최근이랏주. 게고 이 옛날은 소님이 왕 말하면은 우선 문을 열었는데.  
108012 @ 예.  
108012 #1 그 시련이 한번 지나가면 그 사람 성질덜토 변해부리는 것이 문 이 사삼사건 때에 문을 열민 나왔거든.  
108012 @ 예.  
108012 #1 게난 우선 사람이 잇어도 대답을 저 대답헤여도 문은 안 올라.  
108012 @ 음.  
108012 #1 어떻게영 옹디강? 누게우광? 영 뭐헤영 말은 헤봐도 이제 그 저 뭐인가 그, 것이 문은 안 여는 버릇이 사삼사건 후엔 생겨서.  
108012 @ 으음, 맞아예.  
108012 #1 예, 문 올라 허민 사름이 잇이민 그냥 그냥 잡혀가부니까.  
108012 @ 예, 예, 예.  
108012 #1 그게 상당히 춤 그 한번 난이던가 그런 시련이 지나가부면은 그 안 허던 버릇이 헉나씩 생기는 게.  
108012 @ 음, 맞수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도 이제 창 불르젠 허면 이제 창문은 불라야 될 거 아니우과예? 그거는 뭘로 헤영 불라마씨?  
108012 #5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창오지가 잇었으니까.  
108012 #1 창오지게.  
108012 @ 창오지로만허고예? 창오지 브를 때도 무신 거로 불릅니까? 그.  
108012 #5 건 풀은 어짜피 종이 불르젠 허민 풀이 들어가는 거고.

108012 @ 무신 풀로?  
108012 #5 계메, 우리 역은 후젠 그 밀가루 풀인데.  
108012 @ 예.  
108012 #5 뭐 옛날은 무신 풀로사 발랐는지사 몰라도. 웃음.  
108012 #1 쓸, 쓸 헤영 그 저.  
108012 @ 우리 다른 때 같으면?  
108012 #1 죽 쭈듯 썩 근영에.  
108012 @ 예.  
108012 #1 경혜근에 그게 워낙 미음거치 써놓면 그게 풀이니까.  
108012 @ 예.  
108012 @2 바당풀은 안 낫수가?  
108012 #1 예.  
108012 @ 바당에 뭐 가시리풀이여 이런 것들.  
108012 #1 가시리ㄴ라 무신 거엔 현다마는.  
108012 @2 득고달?  
108012 #5 계메 그런 걸로 창은 안 불랏주.  
108012 @ 아, 그런 거는 안 하고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이제 삼춘, 만약에 구들은 어떤 식으로 낫수가?  
108012 #5 아, 구들은 건 돌로 놓는 거. 방돌, 뭐 지금도 허주마는 옛날도 방돌.  
108012 @ 방돌?  
108012 #5 예, 옛날은 방돌이 춤 요즘ㄴ치록 알룬 게 아니고 두꺼운 걸로 헛단 말이여. 방돌로 해서 ㄴ시락엔 현 걸로 보리 태작해난 걸로 때엿으니까 옛날은.  
108012 @ 예.  
108012 #5 경 아녀면 산에 가서 말똥.  
108012 @ 예.  
108012 #5 그런 거.  
108012 @1 그거 때니까 이제 구돌 방돌을 뚜껍게 현 거구나예?  
108012 #5 알룬게 없으니까 뚜거운 걸로 현 거지 뭐.  
108012 @ 방돌을 놓은 다음에 방돌만 놓면 구돌이 똬는 건 아니잖우과예?  
108012 #5 흑 발르는 거주.  
108012 @ 그 다음에는 흑을 불량에. 흑을 불르고. 흑 불른 다음에는 어뎡 허엿수가?  
108012 #5 흑 불른 걸로 꺾난 거, 옛날은.  
108012 #1 흑 불르면 그 다음에.  
108012 @ 도비 안 헨마씨?  
108012 #1 종이.  
108012 #5 저 우의 지금 ㄴ치록 세멘을 허거나 이러질 못헛주.

108012 @ 예, 흑 혜영. 그러면 보통 밑에 방바닥은 필로 혜영은에 발랐수가?  
108012 #5 콩지름이라는 게 옛날부터 잇었던 모양이라.  
108012 #1 유지름허고.  
108012 #5 유지름하고.  
108012 @ 유지름하고. 그 방 종이 붙른 다음에 그 우에 유지름하고.  
108012 #1 게난.  
108012 #5 콩지름하고 이걸 서터서 발르는 거.  
108012 #1 유지름허고 콩지름은 강 빠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즘진 그를 혜영  
근에 썩, 썩지? 그냥.  
108012 #5 썩지 안 헛지. 썩민 안 돼지. 그냥 썩 걸로 썩앙 허는 거.  
108012 #1 그 과정은 아너보니까. 집의 사름은 잘 아는다.  
108012 @ 맞수다.  
108012 #1 그냥 막 자루에 썩. 게영 그걸 흔 번만 맥이는 게 아니고 멧 번 영혜  
영근에 맥여두민 거기가 이젠 굳영근앵에.  
108012 #5 아, 지금도 그러는 사름 잇긴 잇주.  
108012 #1 아 거 좋은 거주. 좋은 거.  
108012 @ 예, 게영 그렇게 허는 거를 방바닥 어떻허엿덴 헵니까?  
108012 #5 장관 들인다고 허주.  
108012 @ 장관들이는 거예? 아, 장관.  
108012 #1 유지름 맥엇저.  
108012 @ 어, 유지름 맥엇저.  
108012 #1 콩지름 맥엇저.  
108012 @ 예, 뭐 절룬다 이런 말은 안 헵니까?  
108012 #1 그 말도 곺아.  
108012 #5 그런 말도 잇주. 유지름 절룬덴 현 건.  
108012 @ 그런 말 곺아줍서게. 웃음.  
108012 #5 다 알양 들엄신게.  
108012 #1 아니, 알명 들은 게 아니고 거긴 자료가 잇으니까 곺는 건디. 이 사  
람이 표현을 예를 들영 허민 상수 현 거나, 또 영기 아방 현 거나 흔 가지 낱근앵  
에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헤 놓니까.  
108012 @ 맞습니다.  
108012 #1 사람 사람이 틀리게.  
108012 @ 예.  
108012 #1 경해도 서로 끗덴 하나니까 건 다 통해 그 말이.  
108014 @ 예, 맞아마씨. 웃음.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묵예,  
옛날 굴묵 짓젠 허면은 필요현 게 아까 그시락으로 헛덴 허는데. 보통 필로 하영  
헛수가? 어릴 때.

108014 #5 우리 어린 땀 ㄹ시락이주.

108014 @ 아, ㄹ시락예?

108014 #5 보리 타작했다가 나머지 것. 꾀쟁이라고 ㄹ시락엔 현 걸로 그걸로 허는데, 이 그것을 밀어넣는 구그네라고 현 게 또 잇주.

108014 @ 예, 구그네. 아아.

108014 #5 요렇게 해서 나무 박은 거.

108014 @ 예.

108014 #5 이걸로 밀리는 거.

108014 @ 예, 구그네로 이제 밀리고. 구그네 허고 이제 보리 아 저기 영 날레허는 거 허곤 트나지예?

108014 #1 건 설레. 날레 허는 건 설레.

108014 @ 설레. 여기에선 설레라고 허더라고.

108014 #1 날레 너는 건 설레고. 굴묵 짚는 디 쓰는 건 구그내.

108014 #5 계난 설레는 밑에 톱날이 둔쳐 잇어.

108014 @ 예예.

108014 #4 구그네는 그것이 없고.

108015 @ 그리고, 삼춘, 아까 우리 집을 짓엇잖아예. 마당에 나가면 지붕 앞에 이렇게 딱 세우는 게 잇어예? 비 들이지 말렌. 건 뒤희과?

108015 #5 무시거 허지 말렌?

108015 #1 풍채.

108015 @ 예.

108015 #5 아, 저 우에.

108015 @ 예.

108015 #1 집 앞의 풍채.

108015 #5 풍채 건.

108015 @ 풍채도 늘 이렇게 세와두는 건 아니잖아예?

108015 #5 언제나 세와뒤.

108015 @ 언제나 세와뒤마씨? 어어. 그 다음 풍채 해근에 옆에 풍채허면은 옆에 영 세우는 거는?

108015 #5 풍채작쉬라고 해서 세와두는 거 기둥이주.

108015 #1 작테기앤도 허고 작쉬앤도 허고.

108015 @ 예, 풍채작쉬행은에 그 풍채는 무신 걸로 멘들아수가?

108015 #5 나무로.

108015 @ 나무로만 멘들엇수가? 거기에 따른 거 이렇게 더퍼놓거나 이렇게.

108015 #5 나무로 멘들어서 새 덮는 거주.

108015 @ 새 더플 때는 그냥 더뻗수가 아니면?

108015 #5 아니주, 풍채는 이걸 넘게 안 허는 거난.

108015 @ 예.

108015 #5 이 풍체를.

108015 @ 예. 다른 종이에 헤봅서.

108015 #5 요런 식으로 만들앙.

108015 @ 예, 예.

108015 #5 여기 이거 대를 까는 거라. 대. 뜨문뜨문. 대를.

108015 @ 예.

108015 #5 대를 뜨문뜨문 깔아서.

108015 @ 으, 이 바닥은 그냥 판데기로 허는 거라마씨?

108015 #5 아니, 아니. 이것이 나무.

108015 #1 스각은 나무.

108015 #5 나무 이렇게 가로 박아놔.

108015 #1 이 요건 새.

108015 @ 예.

108015 #1 새 박아놔.

108015 @ 으, 으, 으.

108015 #1 대로 여깁. 이제 그 저 새가 떨어지지 말렌.

108015 @ 음. 또 대로 여깁예?

108015 #1 경허영 이젠 새 짝 깎아놔근영에 그 저 노끈으로 요렇게 허던가.

108015 #5 다시 이 대를 우에 놔서 무끄주.

108015 @ 예, 아, 새 헌다음에 또 새를 대로 고정시켜근에 또 무끄는 거구나예?  
아 경허영 풍체작쉬 양쪽으로 딱 세우는 거.

108015 #1 게든 저것이 큰 비바람이나 헐 때엔 내려왕근영 탁 허면 방 지금은 유릿문이주만은 그 종이문이니까.

108015 @ 예.

108015 #1 창 브른 게, 거 그대로 내려와서 딱 고정시기면은 지둥, 이 지둥에.

108015 @ 예.

108015 #1 지둥에 걸 무꺼버리면은 이레 비 안 들이빼니까 집데레.

108015 @ 으음. 평소에는 세왕 놔두고?

108015 #1 그늘이 돼고.

108015 @ 예. 그 다음에 비오거나 허면 거는 내려와마씨?

108015 #1 비바람헐 때는 내려와서 지둥, 텃지둥에 딱 무꺼버리면은 비바람 아  
무렇게 쳐도 저 까딱없으니까.

108015 @ 아아, 그러면 그 크기가 보통 이 마당 앞에 무똥예, 거기 허잖아예?

108015 #5 그렇주.

108015 @ 그러면 주로 어느, 대문까지도 다 가려집니까? 그거 허면.

108015 #1 아 계난.



108015 #5 마루문혀고 방문 사이.

108015 #1 삼칸집은 저 세 세 칸 다 막아지지.

108015 @ 아.

108015 #1 계난 그걸 두 개로 해야.

108015 @ 아, 하나가 아니고예?

108015 #1 하난 너무 기니까.

108015 #5 기니까 거 불편허주. 나무도 그렇게 긴 거 없고 허니까.

108015 @ 예.

108015 #5 두 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많고.

108015 @ 그러면 주로 풍체를 두 개 세우는 거구나예? 아아. 하나짜리 세웠던 거 같애.

108015 #1 아 맞아. 하나 앞에.

108015 #5 짧으면은.

108015 #1 그 저 어느 저 방 헉난 반창 헛을 경우에.

108015 #5 계난 옛날은 반창이엔 현 건 엇엇주게.

108015 @ 음.

108015 @2 계난 하나인 경우는예, 요쪽 안으로 담을 쌓아버리니까예. 요디가 좁 아마씨?

108015 #1 칠팔, 칠팔이 거기 잇으니까.

108016 @ 예, 그 다음 삼춘, 집 앞에 이제 풍체도 세우주마는 정지 앞에 뭐 대 세와갓고 거기 허벽도 올려놓고 허는?

108016 #5 거 물팡이라고.

108016 @ 예.

108016 #5 대 션는 게 아니고 그냥 팡돌 놓는 거.

108015 #1 팡돌, 팡돌.

108015 #5 그냥 팡돌 놓는 거.

108016 #1 돌로, 돌로.

108016 #5 물

108016 @ 물팡 아래 틈 벌어지게.

108016 #1 그자 임시.

108016 #5 저디 가면 볼 수 잇어.

108017 @ 예, 이땅 강 사진 다 찍영 가쿠다. 물팡 놓고 이제 집에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는 골목 건 뤼렌 헤마씨? 이 동네서는.

108017 #5 먼올레.

108017 @ 먼올레.

108017 #1 올레.

108017 @ 올레하고 삼춘 먼올레하고 차이점 알아줍서?

108017 #5 길이가 길고 짧은 거. 그냥 올레는 짧은 것이고, 먼올레허민 긴 거. 이 춤 여기 가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변해부러주마는.

108017 @ 멧 년 뗏수가? 그 집이.

108017 #1 아이고, 오래엇주.

108017 #5 오래엇주.

108017 #1 사삼사건 후에 그대로 지은 집이니깐 에 저것이 오십년대에 지엇지.

108017 @ 이 동네서 가장 오래된 집이우과? 게문.

108017 #5 아 대부분 그때 지은 집은.

108017 #1 더 오랜 건 우리 집인디.

108017 @ 예.

108017 #5 그딘 많이 개조해부난.

108017 #1 우린 개조해부니난이고 이, 이 선생네 집은 개조 해여도.

108017 @ 그 모양은 그대로 잇고.

108017 #1 모양은 그대로 잇으니까.

108018 @ 아, 알겠습니다. 게문 이제 문간채? 문간채가 먼문이켜예?

108018 #1 먼문 붙은 디가 문간채.

108019 @ 예, 그 다음에 이 집집마다 옛날에 놀들도 하영 놀엇잖우과예? 그 놀 누는 디는 뭐렌 험니까?

108019 #5 그냥 놀굽이라고 허주 거주. 딴 건 없고.

108019 @ 놀굽..

108019 #5 아니고.

108019 @ 놀왓 이런 말은 안 험니까? 아아.

108019 #1 왓말은 그자 저 놀굽. 놀왓디엔 굳는 사름도 잇고.

108019 @ 음.

108019 #1 안 굴진 안 허여.

108019 #5 옛날 소 길룰 때 밭에 출이라고.

108019 @ 예.

108019 #5 쉼 먹이. 그걸 그건 지정돼 잇엇어. 어느 집이든지. 출놀굽이라고 헤가지고.

108019 @ 음.

108019 #5 딴 건 안 허고 그것만.

108019 @ 딱 출놀굽. 그럼 한 집에 놀굽덜은 멧 개씩 잇어난 겨우과?

108019 #5 뭐 잘 사는 집은 여러 개 잇주. 보리도 해당 놀고 뭐든지 해당 놀엇으니까.

108019 @ 음.

108019 #5 더프는 거는 나람지라고 우리 말로. 춤 제주말로 느래미.

108019 #1 느래미.

108019 @ 노래미 예. 으.

108019 #1 우에 주쟁이.

108019 @ 예, 우에 주쟁이. 여기는 노래미 햄구나예? 계믄 그.

108019 #1 그디션 뭐렌 곶아?

108019 @ 우린 노래미.

108019 #5 노래미도 흐뎡 신식말 부튼 거.

108019 @ 웃음.

108019 #1 그전엔 노래미.

108019 @ 노래미. 동쪽에는 노래미 우리 서쪽에는 노래미. 웃음.

108019 #1 계난 여긴 그거 두 겹 다 써.

108019 @ 아 써.

108019 #1 중간이니까 그건가?

108019 @ 계믄 그 그 놀곶에서도 하영 놀앗지예? 놀 눈디서 어렸을 때.

108019 #5 놀 눈 어렸을 때 놀 장소가 못 뉘어.

108019 #1 곶은제기 허멍 그디 강 무사 안 놀 말이라게.

108019 #5 숨는 건 현디 여기서 보통 놀곶은 돌로 만들었으니까.

108019 @ 예, 계영 그 다음엔 놀 이렇게 누는 거 잦아예. 무사게 출도 영 빠면 그 속에서도 강 놀고.

108019 #5 옛날도 그런 디 간 놀긴 헛주.

108019 @ 예, 삼춘, 거기 강 곶은제기 하영 현 모양이라예?

108019 #1 건 뭐 당연현 거주. 어린 때엔.

108020 @ 예, 그 다음에 집 보면은 이제 놀곶도 잇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도새기도 질뤄야뤄고.

108020 #1 으.

108020 @ 쉼도 질뤄야뤄고. 도새기 질루는 데는 뭐렌 헛니까? 여기서?

108020 #5 통시라고. 건 뭐 통일 뉘을 곶.

108020 #1 뉘간, 통시.

108020 @ 통시하면은 보통 통시는 어느 방향에 현에 지었수가?

108020 #5 그건 그 집에 따라서 옛날은 그 방향이 네 곶데가 잇는데.

108020 @ 예, 아, 삼춘네 집 생각하면은?

108020 #5 지금 저 우리 저 집은 서북곶.

108020 @ 음.

108020 #5 진술축미니까 저 술방이주.

108020 @ 으음. 계난 진술축미헤갓고 네 보통 그.

108020 #5 변소 방위가.

108020 @ 아아. 그럼 변소 방위는 그 네 곶데를 허는 거구나예?

108020 #5 것이 제일 나쁜 방인 모양이라.

108020 #1 나쁜 방인지 좋은 방인지 집, 집에서 헤영 생기방 뭐 또 있고 허난 그제 옛날 그 천헌 방이라고 해서. 헛는데 저게 축미방은 천, 천헌 걸고 방월로 생각해.

108020 @2 변소, 부엌하고 젤 먼딜 거우다.

108020 @ 웃음. 놀굽은 보통 어느 쪽에 헤마씨? 것도 정헤져실 거라예?

108020 #5 없어.

108020 @ 그것 없어마씨?

108020 #5 장소가 나는 데마다.

108020 @ 그 다음에 이 그 통시, 옛날 그 통시에 도새기에 길루잖아예. 그러면 그 통시도 우리 집처럼 다 잇일 거 아니우과? 돼지 줌 자는 디, 뭐 것 놓는 디 이런 것도 곶아줘봅서.

108020 #5 것도 잇주.

108020 @ 통시 만들면 뭐뭐 잇는 지 곶아줍서.

108020 #5 뒤 보는 디딜팡.

108020 #1 디들팡.

108020 @ 디들팡 잇는 디 잇고.

108020 #5 돛도고리 앓지고. 세 군데.

108020 #1 베갯던 곳인물항 농곡.

108020 @ 예, 곳인물항도 농곡. 맞수다. 그러면은 아까 디딜팡? 디딜팡행은에 이제.

108020 #1 디딜팡.

108020 @ 디딜팡예, 그 다음에 우리 그 돼지 키우젠 허면 계속 뭐 줘야돼잖아예? 땅 짓고 허니까?

108020 #1 짓 줘사.

108020 @ 짓.

108020 #5 여긴 그땐 옛날 보리낭이니까 주로 그거.

108020 @ 아, 짓 주는 거는 보통 메칠에 한 번 이렇게 줘니까? 아니면?

108020 #5 아니, 형편에 따라서 여기가 질민은 담아놓고 담아놓고 허는 거니까 메칠에 흔번이라고 허진 곶진 못허주.

108020 #1 곶름을 하영 멘들젠 허민 자꾸 주고.

108020 @ 예.

108020 #1 또 재료, 그 재료가 있어야 허는디 재로 엇으면 그걸 못 주고.

108020 @ 음, 어렸을 때 돼지 질루명예, 이 놈이 돛통담 녀영은에 가불면 좇으레 덩기고 헤봤지예?

108020 #5 아, 그것사 물론이주.

108020 @ 건 어떤 식으로 헐 때 가부는 거우과?

108020 #1 서방 좇앙 잘 돌아멩겨.

108020 @ 음. 웃음.

108020 #5 그건데.

108020 @ 예, 그 경험 한 번 골아줍서. 어떤 식으로 행은에.

108020 #5 아니, 게난 옛날은 그 춤 그 뒤통간 통시 담이 작은 걸로 다우니까.

108020 @ 예.

108020 #5 성질 사나운 건 거 다 머러부러.

108020 @ 으음. 머.

108020 #5 경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요 중간엔 헐 때는 다 큰돌로 헤가지고 웬 만해서는 나오지 못해났주.

108020 @ 옛날에는 흐뎡 낮게 이렇게 헛구나예?

108020 #1 켄디 수툏 좇을 때 상당히 사나와.

108020 @ 음.

108020 #1 게문 높은 담도 뭐 필요가 없어. 성질 좀 뭐 현 건. 성질이 좋은 건 그 안에서 그대로 뭐허는데 것도 그 사름 성질 2치 좀 같갈현 건 거 담 튀영 도망 가는 모양이라.

108020 @ 음. 우리 그 새끼도 내우곡 허잖아예? 새끼 내왕은에 허면 그 세지 안 헛니까? 멧 개 하나씩 두 개씩 헐 때는 흐 머리 두 머리헤마씨?

108020 #1 흐 머리 두 머리. 흐 자리 두 자리도 허곡.

108020 @ 흐 자리 두 자리 허는 건 그건 뭐우과?

108020 #5 흐 자리는 그거 쌍이라.

108020 #1 으.

108020 @ 쌍, 두 개예?

108020 @ 뭐 풀젠 허면은 흐 자리씩 행은에 프는 거라예? 짹 채왕은에. 으, 알 야수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아까 이제 디딜팡만 허면 쫓나는 거 아니라예? 옛날 돛통. 그럼 저디 사름 오젠 허면은 고망 내왕 허기도 허고. 거기를 따로 부르기도 헛니까? 사름 가서 이제 불일 보고 허는 디를?

108020 #5 켄디 이 저 사건 후에는 가리는 게 잇엇는데 옛날은 가리는 게 없엇 어.

108020 @ 아아, 그냥 디딜팡만 낡 쫓.

108020 #1 으, 디딜팡게 비오민 비 맞곡.

108020 @ 웃음. 게문 그 돛집 같은 경우는 짓영 잇어난 거우과? 건 돛집?

108020 #1 돛집.

108022 @ 돛집 헤고예? 그 다음 허드레 현 거 놓는데. 뭐 헛간이렌 헛니까? 뭐 렌 헛니까?

108022 #1 헛간.

108022 #5 헛간은 맞고.

108022 @ 예.

108022 #5 또 춤 ㄴ시락막이라고 해서 불때는 거 놓는 딴 ㄴ시락막.  
108022 #1 ㄴ시락 데미는 딴 ㄴ시락막.  
108022 @ 예, 헛간에는 주로 뭐 놔마씨?  
108022 #5 헛간에는 진짜 허드레 물건 놓는 거주. 농기구 같은 거.  
108022 @ 예.  
108022 #5 그렇게 놓는 거.  
108022 #1 명석, 맥. 명석이나 맥이나 그 농기구덜.  
108022 @ 예.  
108022 #1 다 쟁기ㄴ튼 거. 주로 이 헛간이.  
108022 @ 음.  
108022 #1 쉼, 쉼막에 ㄴ치 부땡 잇주게.  
108022 @ 아, 아.  
108022 #1 쉼막 혼쪽 칸, 혼쪽 칸엔 쉼 메고.  
108022 @ 예.  
108022 #1 혼쪽 칸엔 헛간 행은에 거기덜 다 낱근에 이쪽 칸에 못 놓은 거 저쪽 칸에 놓땡 경행 다.  
108023 @ 게문 아까, 삼춘 모커리 행은에 디근자 집 지엇잖아예? 쉼막을 딱로 멘드는 거우과?  
108023 #5 먼문간에 부트는 예가 많주.  
108023 @ 아아, 먼문간에 한쪽에 행은에 거기 쉼 메는 디 그 다음에 헛간 이렇게 쓰는 거구나예?  
108023 #1 계난 먼문간이 대개 삼칸, 삼칸 뉘는 집이 많주.  
108023 @ 음.  
108023 #1 계난 혼 칸은 쉼 메곡 가운딘 사름 드나들곡 또 이 칸은 아이덜 즘이나 자곡, 또 이쪽에.  
108023 @ 아, 먼문간에도 방을 혼나 멘들기도 허여?  
108023 #5 이딴 방 멘들안 잇언 다 뜯어지긴 헛는데.  
108023 @ 으음. 보통 거기도 이젠 방을 멘들앙 현 거라예? 우리 쉼막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떤 식으로 멘들아마씨? 이제, 뭐 쉼막. 이 출 주는 디영 이런 거 것도 따로 이름도 잇입니까?  
108023 #5 뭐 그건 칸만 갈라가지고 이 저 출입구 냉겨뉘근에.  
108023 @ 예.  
108023 #5 거긴 다 먼, 문 집지어 진디니까 쌀만 박아서 나오지 못허게.  
108023 #1 중방이엔 허여이. 쌀 박은 거이.  
108023 #5 소 출입 허는 디가 저 중방. 소 나오지 못허게 허는디가 중방.  
108023 @ 건 중방이렌 허여예? 사름 사는 구들 멘든 디는?  
108023 #5 아, 그건 딱 칸이니까.

108023 @ 탄 칸이라도 거기 불르는 방은 엇어마씨?

108023 #5 잇주게. 모커리방 이렇게 허는 건디 모커리구들엔 허는 건디.

108023 @ 그냥 모커리구들. 근데 췌 출입허는 디는 중방. 그 중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예?

108023 #5 중방리라고 허는 나무를 걸치는 거.

108023 #1 아 계난 이쪽 지동허고 이쪽 지동 사이에 낭으로 가로 이렇게 건 빼 엇다 낫다 허게 췌 건디.

108023 @ 예.

108023 #5 소 출입허젠 허면은.

108023 #1 소 나오젠 허면 췌가 나오젠 중방 빼여뵈 췌 네밀고 또 물이나 맥영 근영게 또 들어오면 또 중방 놔버리면 그냥 가뵈지고.

108023 @1 으음. 그럼 일종에 그 정낭 구실을 허는 거구나예?

108023 #1 정낭, 그렇지.

108023 #5 정낭은 그건 사람이 출입허는 거고.

108023 #1 건 올레에 허는 거고.

108023 @ 올레에 허는 거고. 이제 중방은 이제 그 췌막에 이제.

108023 #1 췌 드나드는.

108024 @ 그 다음에 이제 집 뒤에 놓는 옆에 놓든 췌장이영 이렇게 놓는디예?

108024 #5 장독?

108024 @ 예, 여기는 뭤렌 불럿수가?

108024 #5 게메.

108024 @ 뭤 두에. 장독두에, 뭤 장팡뵈?

108024 #1 아니, 그뵈 꼭 저 서쪽에선 뭤엔 곱읍니까?

108024 @2 장팡뵈?

108024 #1 장팡뵈?

108024 @ 우린 장황두에렌.

108024 #1 장황두인 여기도 장황두인 장황이 잇언 둔디. 나 지금 곱는, 들어보는 건 여길 딱 늘굽 ㄴ치 이제 그 이름이 잇는가 허연에 뵈집 구역에서. 경허난 여기선 뭤.

108024 @ 안뵈엔도 허고, 두에엔도 허고 여기는 그냥?

108024 #1 보통 그자 두에엔도 곱곡.

108024 #5 장황뵈.

108024 #1 장황뵈에도 곱고.

108024 @ 장황뵈예. 그 장황뵈는 보통 별도로 만든 거우과?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8024 #5 별만 만든 데는 없고 기냥 이 항굽만 놔가지고.

108024 @ 아, 항굽을 만드는 거라 게문예, 항굽은 뭤로?

108024 #5 돌로. 돌로. 요 중간에는 것이 딱 모양 만들었는데, 옛날은 기냥 향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108024 @ 그거를 항굽해서예? 어, 경헌.

108024 #1 쉽게 말허민 요셋말로 허민 깔판.

108024 @ 예, 예.

108024 @ 돌로 깔판을 만들언 거기.

108025 @ 항 놓은 거라예? 그 다음에 여기도 춤향 같은 것도 헤낫수가? 물받젠 허면?

108025 #1 춤.

108025 @ 춤 헤낫수가?

108025 #1 춤은 동장네 집의나 헛주.

108025 #5 우리도.

108025 #1 집의도 잇겠다.

108025 @ 그 춤에.

108025 #1 유지냥이 시니까.

108025 #5 그건 별 다른 건 잇어. 이 새로 해서 노래미 짱.

108025 @ 예.

108025 #5 나무 둘레를 딱 무껴서 머리 다완 알레로 내려와근에 받는 거.

108025 #1 아래 그릇 받으민 그것이 춤.

108025 @ 아래 이렇게.

108025 #1 춤.

108025 @ 향으로 헉니까.

108025 #5 향아리.

108025 @ 춤이 뭘 춤이렌, 춤이렌 허는 거우과?

108025 #5 글쎄, 그게 명칭이 춤인 모양이지. 이건 새로 여껴거 노래미 여껴서 나무 둘레를 딱 무껴와서 이제 물 내리는 거 받은 거니까.

108025 @ 아.

108025 #1 건 쉽게 암호지. 김순자 허면.

108025 @ 예.

108025 #1 그런 거와 이름을 이건 춤이다 헉 허니까 이제 그 춤으로 우린.

108025 @ 예, 불른 거라예? 보통 보면 그 춤은 어떤 낭을 쓴 거라마씨?

108025 #5 유자 나무 여기서는 많이 썼는데.

108025 @ 여기는 유자나무.

108025 #1 굴나무.

108025 @ 굴나무에. 거기메 물 받으면 물 용도는?

108025 #5 그건 먹는 건데. 깨끗하다고 해서.

108025 #1 깨끗허고 그 향 그 물엔 향이 잇어.



108025 @ 아아.  
 108025 #1 밀감 향이 거기서 나와.  
 108025 #5 여기는 이 동네는 옛날부터 생수가 없어가지고.  
 108025 @ 으음.  
 108025 #5 지금 전부 춤. 물구렁이라고 그런 물을 질어다 먹은 거주.  
 108025 #1 봉천수.  
 108025 @ 물구렁이라고 험니까? 여기서.  
 108025 #1 구렁.  
 108025 @ 구렁.  
 108025 #1 먹는 물, 먹는 물통. 그던 가민 먹는 물통.  
 108025 @ 예.  
 108025 #1 어느 구렁. 구렁이엔 이제.  
 108025 @ 물 ㄹ른 데를 물구렁예?  
 108025 #1 물통 잇는 디를.  
 108025 @ 물통 잇는 데를. 그것도 통 잇는 데를. 판 겨우과? 아니면 자연적으로 잇는 겨우과?  
 108025 #1 판 거.  
 108025 @ 다 판 거예?  
 108025 #1 향아리ㄹ치 다 만들어 논 거예?  
 108025 @ 음, 걸 물구렁예? 아, 이 동네만 해도 이 도련만해도 웃드르라예?  
 108025 #5 웃드르주.  
 108025 @ 웃음. 삼양은 그렇게 물이 하영 나는데 여기는 물 나는 디가 엇어.  
 108025 #1 씨집도 안 오켄 허여. 생수 엇어부난. 겐디 지금은 도련물이민 약수. 도련물은 약수.  
 108025 @ 약수예?  
 108025 #1 하나 이 저 보건소장이 여기 살아났는데.  
 108025 @ 예.  
 108025 #1 이제 수도꼭지에서 빼여당은에 멧 번 검사를 해도 여긴 약수.  
 108025 @ 음.

###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아까 말헌 거 중에 반복허지만 간단허게 얘기해줍서예? 집 일젠 허민 면 멧 년에 혼변이라마씨? 여기서는 보통.  
 108026 #5 두 해에 한번.  
 108027 @ 두 해에 한번이라예? 집 일젠 허면 새도 비왕와야 돼고 각단도 헤영 와야 되는 거 아니우과예? 그건 어느 철에 어떻 행은에 어떻 헤영 오는 건지 글아 줍서?

108027 #5 것이.

108027 #1 동짓들.

108027 #5 동짓들 선들에 집을 일지.

108027 #1 비여당 임도 허곡 이제 허난 저 새 비는 걸 시월 말부터 이제 동짓들에 새 비곡.

108027 @ 예.

108027 #1 이제 동지 선들에 는 집을 저 일곡.

108027 @ 으음. 선들에 이는 거구나예?

108027 #1 어.

108028 @ 그 집 일젠 허민 동네 잔치 아니우과?

108028 #5 아니.

108028 #1 경 안 허여.

108028 @ 집집마다 다 혼자는 못 헐 거 아니우과?

108028 #2 골목잔치.

108028 #1 골목잔치주. 웃음.

108028 #5 수늘어가면서 허는 데도 많고.

108028 @ 예.

108028 #1 줄 매젠 허민 어떻게 내외간만 사는 집의사 그 여즈 식사도 허곡 허젠 허민 줄 땀 사름도 엇고 허니까 이웃집의서 수늘명.

108028 @ 음, 수늘명예? 게난 그때 집일 때는 막 음식도 준비헿당은에 하고 헿덴 헿디다. 다른 동네는?

108028 #5 그렇주. 놉 빌어서 하는 거니까. 잘 준비를 허는 거주.

108028 @ 집 짓고 집 일고 헐 때 가면 주로 뭐 헿줍디가?

108028 #5 웃음.

108028 #1 어쨌든 먹는 거야 고급 대우 받았주, 뭐.

108028 #5 그때 시절로선 고급 대접 받는 거주.

108028 @ 아까 집줄 만들기 허는 거예? 혹시 집줄 만들 때도 새에 물을 뿌리거나 안 헿마씨? 어떤 식으로?

108028 #5 물은 물 뿌리민 일허기가 더 굿으니까.

108028 @ 그대로 말린 거 고대로 헿서 허는 거우과?

108028 #1 겨난 그 저 가루 돼게 너무 플라가면 가루 돼부니까 문치가면 꺼꺼져부렁. 그 전의 허는 거.

108032 @ 그 전의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뭐? 맨예, 집줄 일당은에 보면 남은 토막덜 잇일 거 아니우광예? 그거 가정은 뭇로 췌수가?

108032 #5 남은 토막은 줄 지들르는 거 허고. 아주 작은 건 불 때영.

108032 #1 정짓방석.

108032 #5 정짓방석.

108032 #1 웃음.

108032 #5 정짓방석도 허긴 해. 그것이 오래 가지. 정짓방석.

108032 @2 그 줄방석예?

108032 @ 여기선 정짓방석. 집집마다 정짓방석. 저도 어렸을 때 봤엇거든요. 쓰다 남은 집줄은 늘 지들르고?

108032 #1 늘 지들르꼭 나머진 또 정짓방석 허고.

108032 @ 정짓방석허고예, 예, 그 다음엔 불도 때고.

## 연장

108033 @ 집 짓젠 허면 보통 연장덜 필요헌 게 뭐뭐 잇어낫수가? 집 짓을 때 가정 다니는 연장덜이 하나서예?

108033 #5 그거야 만허주.

108034 @ 그걸 골아줘봅서?

108034 #5 케메 그거 일름을 다 몰르켄게.

108034 @ 알아지는대로.

108033 #1 춤 우선 곤는 건.

108033 @ 집 영허영은에.

108033 #1 툽이 들어사 헐 거고 자귀가 들어사 헐 거고.

108033 #5 우선은 젤 첫째가 곱은자고.

108038 @ 곱은자예? 이렇게 곱은 거예?

108038 #5 으, 그 다음은 먹통이고.

108038 @ 먹통예? 먹통에 잇으면 또 그치 떠라가는 게 잇어알 게 아니라예?

108038 #5 먹물. 떠라가는 게 없고.

108038 @ 그 다음에 영?

108038 #5 건.

108038 #2 먹술.

108038 #5 먹술이라고 허는 거고.

108034 @ 같이 들어가는 겨우과? 예. 그 다음에.

108034 #5 그 다음에 툽이 들어가야 돼고.

108034 @ 예, 툽이 들어가야 돼고. 툽도 종류가 막 으라 아니우과?

108034 #5 툽은 그거 다 뭐. 춤 종류가 여러 개지만은 큰툽 작은툽으로만 구별 허주. 그거 뭐 이야기허지 못허고.

108034 @ 대툽이여 거툽이여 안 써보고예? 예.

108034 #5 거두엔 헌 거 집 지을 때 벨반 안 쓰는 거고. 목재 헤올 때나 쓰는 것이고.

108034 #1 큰 낭 꿑을 때.

108034 @ 양쪽에 상은에 허는 겨우과. 거두는.

108034 #1 거둔 혼자 썰어도 톱이 크니까 거두주.

108034 @ 옛날에 양쪽에 헤갓고 들이 허는 거는 엇어?

108034 #1 건 대톱.

108034 @ 건 대톱. 거두허고 대톱이 트난 거우과?

108034 #5 틀리주.

108034 #1 예, 아주.

108034 #5 거두엔 현 거 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허는 거고. 그건 주로 나무를 쪼갤 때 쓰는 거.

108034 @ 예? 거두는, 아 대톱은?

108034 #5 으.

108034 @ 대톱은예, 낭 쪼갤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못들 박젠 허면 뭐가 필요해마씨?

108034 #5 건 뭐 마께라고 해야 좋을지.

108034 #1 마께.

108034 #5 망치라고 해야 좋을지.

108034 @ 마께가 더 좋수다.

108034 #5 또 자구가 있어, 자구.

108034 @ 자구.

108034 #5 자귀라고 허는데.

108034 #1 자귀, 옛말. 자귀.

108034 #5 자귀라고 허는디.

108034 @ 자귀 용도는 뭐우과?

108034 #5 까끄는 거.

108035 @ 낭 까끄는 거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못을 박젠 아까 마께 헛잖아예? 마께도 종류가 으라 가지우과?

108035 #5 큰 거 작은 거. 못빼기도 있어야 되고.

108036 @ 아, 못빼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108036 #5 끌.

108036 @ 예, 끌. 끌 용돈 뭐우과?

108036 #5 파는 거. 구멍파는 거.

108037 @ 구멍파는 거고예?

108037 #5 대패.

108037 @ 대패도 으라질이지예?

108037 #5 여라질이주. 그것이 숫자가 많주.

108037 @ 이름도 트납니까?

108037 #5 아니, 트나진 아녀.

108037 @ 뜨너지는 안 하고. 아까 만약에 이 자도 곱은자 말고 다른 자도 잇수

가?

108037 #5 줄자도 잇주. 줄자.

108037 @ 줄자.

108037 #5 줄자. 옛날은 그런 줄자는 없었는데, 옛날은 꼬넷기 해당 맞추와근에 써근에 저 그런 줄자는 이제사 나온 거고.

108037 #5 자구 중에도 큰자귀도 작은자귀 그런 것도 있는데, 에 큰자귀엔 헌 건 춤 이 양반네 집의 지금 싯젠 해신가.

108037 @ 예.

108037 #5 그런 것이 잇고. 요 중간에 곱은자귀라고 해서 요렇게 헌 것이 또 큰 것이 나오고.

108037 @ 곱은자귀 안으로 곱아진 거예?

108037 #5 손자귀는 작은 거고 요만인 해서.

108037 @ 음, 손자귀 툃툃. 손자귀렌 허고. 벌써 뵈서. 자귀도 세 개가 나와신게 예?

108039 @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아까 이제 벽들 발랐지, 고데흑 허영 올리기도 하고. 고대힐 때는 손으로 그냥 헛지예.

108039 #5 옛날은 손으로.

108039 @ 손으로 하고, 이런 벽 발를 때는 어떻 헛수가?

108039 #5 벽바르는 것도 다 손으로.

108039 @ 손으로.

108039 #5 중간 췌손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서 발른 건디. 옛날은 바닥도 손으로만 해서.

108039 @ 손으로만.

108039 #5 손으로만 해가지고 굳으면은 솟뚜경, 솟뚜경 가져서 밀엇거든.

108039 @ 솟뚜경으로예? 요즘 췌손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우과?

108039 #5 으, 으라 개.

108039 @ 건 어떤 거 잇수가?

108039 #1 것도 큰 거 잇고 작은 거 잇고 또 저.

108039 #1 각 보는 것도 잇고 무신 거 계난.

108039 @ 옛날 낭으로 웬 거도 이십디다.

108039 #5 건 나무손이라고 헌 건데.

108039 @ 예.

108039 #5 이 귀야지 또 밀어가는 것이 잇고. 것도 여러 가진 여러 가진데. 미장이나 해야 이름 알까.

108039 @ 목수허고 미장이는 또 트난 거우과? 웃음. 게문 그 나무손은 낭손협니까? 여기서. 낭손 용도허고 췌손 용도하곤 어떻 트나마씨?

108039 #5 낭손은 거칠게 밀어가는 것은 그것이 쉬와. 췌손보다. 여기 세멘이라

도 많이 잇는 거 미는 것은 췌손보다 나무손으로 미는 것이 쉬어. 또 평평하게 밀어지고. 경해서 나무손으로 먼저 밀어넣 나중예 저 매끈하게는 췌손으로 미는 거고.

108039 @ 예 그러면 우리가 흑을 이렇게 받젠 허면 이 받는 건 뭐렌 헉니까?

108039 #5 건 춤, 여기선 말론 흑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108039 @ 예.

108039 #1 흑판. 뭐 고데판이엔 허주.

108039 #5 고데판이엔 현 건 우리 말이 아니잖여.

108039 #1 우리 말이 아니주.

108039 @ 고데판 우리 우리말이우다. 그거.

108039 #5 우리말이라.

108039 @ 예.

108039 #1 아닐 걸.

108039 #5 게믄 고대도 우리말이갓네.

108039 @ 고댓흑 허잖우과. 고디 허는 거.

108039 #1 아니, 아니, 흑고디허곤 틀려.

108039 #5 고데가 저 췌손이주게.

108039 @ 아, 기우과?

108039 #1 다니단에 그 말 들어봐실 거라. 낭, 낭손을 기고데엔 헨 들어봐실 걸.

108039 @ 아, 기고데렌 말은 안 들어봤수다.

108039 #1 안 들어반. 기렌 허는 건 낭.

108039 @ 기 낭. 고대가 이제 일본 말이구나. 그래서 고데판이구나. 아하, 고데 흑허고 고데판허고 다른 거다예? 예, 알아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삼춘 그리고 예? 아까 흑판이 맞이커라예? 삼춘, 그리고예, 예전에 이제 아까 축담은 얘기를 안 해서예. 이제 하면 담을 다아알 거 아니우과? 축담 그거 어떤 식으로 했수가?

108039 #5 옛날은 돌이 작은 걸로 해서.

108039 @ 음.

108039 #5 밑엔 큰 거 놓고 우에는 흑을 놓고 돌 싸고. 이렇게 해서 쌓아올렸는데, 요 중간예 쪼갠 돌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는 큰돌 하나씩 놓명 막 돌부터 먼저 쌓는데, 옛날은 전부 축 싸는 거는 돌.

108039 @ 예.

108039 #5 흑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린 거.

108039 #1 이 흑을 놔도 흑을 꺾여야 놓니까.

108039 @ 예.

108039 #1 필 때예 수셀 잘 놔야 돼.

108039 @ 예.

108039 #1 수셀 잘 놓면은 비가 저런 그 축담 밖으로 나강근예 허민 비가 맞아도 그 즉 말허민 저 걸로 흘러내지릴 아녀.

108039 @ 예.

108039 #1 수세가 잊어놓니까.

108039 @ 예.

108039 #1 계단 산에 잇는 거나 나무 심어져서 산사태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108039 @ 예.

108039 #1 그 역할을 수셀 잘 놓면.

108039 @ 음, 그러면 그 흑 펼 때에 흑도 펼 때 장관 아니우과예? 흑도 강은에 팡 와야 돼고, 마당에서 이렇게 해서 흑 끼얹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끼여났수가?

108039 #5 옛날은 다 그 집안에서 허고.

108039 @ 예.

108039 #5 마당에서.

108039 @ 예, 마당에서?

108039 #5 그루후제는 또 좀 살아져가니까. 판 디 흑 갖다 낵 이렇게도 헛는데.

108039 @ 마당에서 헛 때는 어떻습니까? 흑 펼 때.

108039 #5 흑 펼 때

108039 #5 소로 발려.

108039 @ 소로 불령예

108039 #1 소로 불리는 것보단도 소로 갈아낵 일차. 흑을 영 만들어낵.

108039 @ 아아, 잇는 자체를 다 쓴 거예?

108039 #5 여기 땅을 그대로 헛 때는 가는 것이고.

108039 @ 갈양 허고 예.

108039 #5 판 디 흑을 갖다 놓을 때는 그냥 골라만 놔서 허는 것이고.

108039 @ 예, 그 다음 쉼 허여가지고 이렇게 이끄멍은에.

108039 #1 으.

108039 @1 사람 드는 거보단 쉼이 해야 잘 블라지난 쉼로 허는 거구나.

108039 #5 깊이 들어가니까.

108039 #1 무게가 잇으니까.

108039 @ 음, 경헤영은에 헛잖아예? 수세는 보통 뭘로 낵수가?

108039 #5 여기선 보리짚이 쉼 만허니까 보리짚 논 거주.

108039 @ ㄴ시락도 놓고.

108039 #5 방 ㄴ튼거.

108039 #1 ㄴ시락은 튀기헛 때.

108039 @ 축담헛 때는 그냥?

108039 #1 보리낵.

108039 @ 방 블릴 때는 ㄴ시락허고.

108039 #1 으.

108039 @ 그 저 그신새 같은 경우는 안 낚았수가?  
108039 #5 그신새는 안 좋주, 안 좋아.  
108039 @ 아, 안 좋아마씨? 으.  
108039 #5 그신새는 흑이 잘 달라붙지 않거든.  
108039 @ 보릿낭이 켈 좋아.  
108039 #5 육지서는 나록짐을 놓는다고 허는데, 여기선 그런 거는 엇이니까.

## 9. 신앙

109001 @ 집 짓젠 허면 제 지내거나 이렇게도 험니까?  
109001 #1 토신제.  
109001 @ 토신제를 험니까? 토신제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9001 #5 토신제는 거 사름 빌어야 허는 거. 허는 사름을.  
109001 @ 음.  
109001 #5 허는 사름을예?  
109001 @ 집 짓젠 허면예?  
109001 #5 집 주인은 험 수가 없고. 남을 빌어야 허는 거니까.  
109001 #1 집주인도 허주마는 건 이 터에 이제 아무개가 집을 지을, 지어서 살  
라고 하니까, 토지지신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허영 거기 올령 절허는 거주.  
109001 @ 토지신안테예? 그 부분에서 가신이엔 허는 거우과?  
109001 #1 가신이엔도 허는 거주.  
109002 @ 예, 예. 혹시 여기 집 짓어나면 성주도 허잖아예?  
109002 #5 성주도 허지.  
109002 @ 예, 성주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9002 #5 케메 그것도 다.  
109002 #1 심방이나.  
109002 #5 심방 빌어당 허주.  
109002 #1 심방이 알앙 허는 거라놓난 그건 무신.  
109002 #5 어떤 디선 시님 중도 데려단 허는 디도.  
109002 #1 거기서 거기주게, 건.  
109002 @ 예, 그 다음에 성주는 성주 낸덴 험니까? 어떤 식으로 뭐렌 헤낫수  
가? 혹시.  
109002 #1 성주풀이해사.  
109002 #5 성주풀이라고 그것이 맞은 말은 맞는 말인데.  
109002 @ 예.  
109002 #5 성주 내려와. 성주 내려와 허거든.



109002 @ 성주 내려왔젠 허지예?  
109002 #1 성주 내려완. 그 집의 성주 내려완.  
109003 @ 음, 그 다음에 혹시 제사 할 때라든가 문전에도 제사를 헵니까? 건 무신 제 헵니까?  
109003 #1 문전제.  
109003 #5 문전제라고 건 뭐 문전에 허는 거.  
109003 @ 제사할 때만 허는 거지예? 문전제 허는 거고.  
109003 #1 지금은 없어졌주마는 고팡에도 그대로 강 영 허영 제사 때나 뭐 명절 땐 헤여 나고.  
109003 @ 아, 그 고팡에 허는 제는 무신 제 헵니까?  
109003 #1 아니 건 뭐 그게 제석이엔 헤여. 제석.  
109003 @ 제석, 아아. 안네.  
109003 #1 으, 안네.  
109003 @ 그 안네 헌덴 헌 게 그게 아니라예? 고팡에. 꼭 제사하젠 허면 조상에 허고.  
109003 #1 문제에 허고.  
109003 @ 그 다음에 고팡에 허곡.  
109003 # 으.  
109004 @ 조왕에도 허지 아념니까?  
109004 #5 조왕에도 허여.  
109004 #1 조왕엔 여기선 뜯 디선 어떻게 허는 줄 모르주만 별도로 조왕엔 허들 안 허고 문전제 봐난 걸 가정강근에게 거기서 떠냥.  
109005 @ 아, 문전헌 거를 또 조왕에 올리는 거라예? 떠냥예. 아, 그러면은 그 아까 고팡에 허는 그 안네 허는 게 칠성인가마씨?  
109005 #1 아니, 칠성 아니.  
109005 #5 칠성젠 따로 헛어.  
109005 #1 따로덜 허주 건.  
109005 @ 아, 칠성젠 어떻 허여?  
109005 #5 허는 집에 잇고 안 허는 집 잇으니까.  
109005 #1 매집일 허들 안 허여.  
109005 @ 아아, 삼춘네는 안 헤보고. 어, 어.  
109005 #1 도련도 무신 혼두 집에 불과헛주.  
109005 @ 아, 칠성허는 거는예. 그 칠성은 안에서 헵니까? 밖에서 헵니까?  
109005 #1 마당에서.  
109005 #5 마당에서 주로 허주.  
109005 #1 크게. 굿 심방허영 크게.  
109005 @ 느래미 허영 이렇게 주지 세우는 딴 엇어마씨? 모시는 거?

109005 #5 그 옛날에는 잊어났는다.  
109005 #1 뒤칫할망, 뒷칫할망.  
109005 @ 으.  
109005 #1 뒷칫할망 그 옛날덜은 그런 집덜 것도 많이 헤나서. 건디 지금은 별로.  
109005 @ 삼촌네는 허긴 헤나잖우과?  
109005 #1 아니, 아니.  
109005 @ 아니 헤반? 그게 뒷칫할망.  
109005 #1 뒤칫할망.  
109005 @ 칠성이 뒷칫할망가에.  
109005 #5 삼촌이네 집의 헤나서게.  
109005 @ 삼양에서 어떤 데 보면 노래미헤갓고.  
109005 #1 주쟁이 건.  
109005 @ 주쟁이에, 주쟁이 행 더평은에 그 안에 뭇사 있는지 모르주마는.  
109005 #1 그, 저. 기왓. 암키와 혼 장 수키와 혼 장 현 텐 허는디 건 무슨 말인고 허민 기와가 옛날 집에 기와 저런 기와가 아니라.  
109005 @ 예.  
109005 #1 이렇게 요렇게 흰 거거든.  
109005 @ 예.  
109005 #1 이런 거 다시 또 요영 허민 또 더평 이 우에 건 수키와.  
109005 @ 예.  
109005 #1 아래 건 암키와.  
109005 @ 예.  
109005 #1 그거 갓당 어퍼왕근에 그디 저 뭇 모셔 낫젠 허주.  
109005 @ 음.  
109005 #1 그 경혜영 우의 주쟁이 씨왕근에.  
109005 @ 주쟁이 씨왕예? 그 기와에 뭇 놓는 거는 모르고?  
109005 #1 모르고 건.  
109005 @ 예. \*\* 제 지낼 때는 가정 낡실 테주예?  
109005 #1 그건 꼭 저 고평헤 그걸 헤당은에 꼭 그디 거 떠다냥 거기 가져간.  
109005 @ 아아, 고평에 거를 가져가고. 문전헤난 거는 조왕에 이제 올리고. 예, 알아수다. 잠깐만 쉬영 다른 걸 물어보쿠다예?

## 제2장 어휘

-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데맹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승굴
201005	제비초리	생이글랭이, 생이출랭이
201006	머리털	머리털, 머리꼭, 허운데기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머리터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닿다	닿다
201014	비녀	빈네, 빈넷대
201015	고수머리	뽑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갈름
201019	이마	임뎡이, 임생이
201020	넓다[廣]	넓다
201021	이마빠기	임뎡이, 임생이
201022	숨털	숨털
201023	얼굴	얼굴
201024	낯[面]	낯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대야, 세숫대영
201028	씻다[洗]	시치다, 씻다
201029	거울	색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빤	빼얌, 낯바닥
201032	빤따귀	빼얌데기, 볼치

201033	때리다[打]	땀리다, 후리다
201034	불	삐얌, ㄴ마닥
201035	불따구니	불치
201036	불거리	불거리
201037	광대뼈	광대뼈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동즈
201042	검은자위	검은동즈
201043	눈꺼풀	눈뚜께
201044	거적눈	더깨눈이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진허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송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눈두새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눈두새 푸런
201051	폐롭다	폐랍다
201052	눈곱	눈꼽
201053	눈초리	논각
201054	사팔눈	스파리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대, 콧등
201059	세다[強]	썰다
201060	콧구멍	콧고냥,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피랭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츄말, 바른말
201069	거짓말	거짓깬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도리허다
201072	입술	입바우, 입바위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곤다
201076	입방아	입방에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吞]	슴지다
201081	가래침	개춤, 가래춤
201082	뱉다[吐]	마끄다
201083	느침	니치력
201084	턱받이	턱마대,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트다
201087	헛바늘	셋바늘, 셋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압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리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빠드렁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어금니빨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은니
201096	옥다[曲]	옥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옥물다	즈그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아구턱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자락
201105	귓볼	귀알볼, 귓볼
201106	귓구멍	귓고냥,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긋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ㄴ는귀
201111	귀밑	귀밑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엄
201113	목	목
201114	굽다[顛]	슬지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야개기
201116	먹살	모감지
201117	잡다[執]	심다
201118	뒤통수	뒷대가리, 뒷머리
201119	꼭뒤	상고박디
201120	뒷덜미	뒷야개, 뒷목

### 상체

201121	어깨	웃독지[우뚝지]
201122	어깨뼈	웃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웃독지
201124	겨드랑이	저드레기, 저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힘
201129	힘줄	심줄, 씬줄
201130	답살	득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고비
201132	팔목(=손목)	홀목, 폴목
201133	뼈	팡, 뼈
201134	뼈다귀	팡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ㄴ단착
201138	왼손잡이	웬둥이, 웬쟁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심
201145	할퀴다	긋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두번째손가락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약손가락
201151	새끼손가락	느니에기,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림, 손가락새
201153	가슴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젓가심
201156	명치	오목가심, 오모순이
201157	명자리	멍줄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젓고고리
201160	젓명울	젓명울, 명얼
201161	짜다[攢]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옆갈리, 윗뎡이
201168	갈비뼈	갈리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ㄴ렵다, 근지렵다
201174	긋다[抓]	긋다
201175	결리다	담올르다
201176	등목(=목물)	등목
201177	찬물	언물
201178	등마루	등마루

201179 등뼈 등뼈, 등뎡이짱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개미허리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방둥이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잠질폐기  
201186 엉덩이뼈 \*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새끼도꼬망짱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망, 조름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게불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살타구니  
201195 가래뚝 조게기명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서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허벅다리  
201200 무릎 독무릅  
201201 무릎뼈 생뎡짱  
201202 뼈다[櫪] 뼈다, 데와지다  
201203 정강이 ㄹ른정갱이  
201204 정강뼈 \*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생중이  
201207 오금 오금뜯게기  
201208 복사뼈 귀마리뼈, 귀마리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ㄱ무끄다
201215	발등	발등어리
201216	발바닥	발바닥
201217	발부리	발부리, 발가락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근지롭다, 즈글롭다
201220	간지럼	즈곰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두번째발가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상발가락, 세번째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네번째발가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림, 발가락새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켁이
201225	고린내	씩은내, 구렁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북부리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베설
201233	목숨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끊어지다
201235	한숨	한숨, 한쉽

## 2. 육아

###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들어사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놓다
202006	태(胎)	붓
202007	탯줄	탯줄
202008	나이	낫술
202009	어리다[幼]	얼리다
202010	터울	믄이
202011	갓난아이	근난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개, 젓어멍
202018	엿저지	엿개
202019	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황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눅다
202025	나무라다	욕허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오줌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냇저고리	베네옷
202030	기저귀	지저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레기
202032	포대기	지성귀, 걸렁이
202033	보자기	보제기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라다
202037	처네	걸랭이
202038	띠	걸랭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터진바지

###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쌈쌈 줌줌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삼찌삼찌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흔발자국두발자국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걸음베와주라
202048	곤두박질	거꿀치기, 사까닥지(일)
202049	곤두서다	곤주왓서다
202050	가동가동	으까으까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지다
202053	목말	정에고게
202054	흥내	승내
202055	흥내질하다	승내내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시알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애, 용심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술, 심뽀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구슬치기
202066	딱지치기	뺏지치기
202067	통차기	깡통차기, 공차기
202068	숨바꼭질	곱음제기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놀이, 소꿉장난, 흑밥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뜰락
202073	풍계문어	수건찾기
202074	줄넘기	베뿔락, 줄넘기
202075	줄다리기	줄드릴락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꼬녀
202081	땅뺏기	땅빼기
202082	사금파리	사금퍼리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생말탈락
202083-2	죽은말타기	말탈락
202084	대말[竹馬]	대말
202085	달음박질	들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결루다
202087	제기차기	쫓기차기
202088	혜엄치다	혜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녁똥배기, 녁똥배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웃, 슷
202090-5	모	네 짝 모두 얻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지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웨동베기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동베기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동베기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동베기

202092	막동	낙동매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갱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편백허다
202101	팽이치기	도로기치기
202102	팽이	도로기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정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강골레비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대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연대
202108-3	꿇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어질연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연대

202109	방구멍	들구멍
202110	꼭지	들장석
202111	갈개발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머릿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	----	----

202114	두모얼레	착얼레
202115	네모얼레	통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글리
202118	퇴김	퇴견
202119	그네[鞦韆]	굴레
202120	밑신개	굴레판
202121	굴렁쇠	굴렁쉐
202122	구르다[轉]	둥글어가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즈용개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꺾대사니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위염
202128	선하품	선하위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허다[정끼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줌작허다
202133	졸음	졸음, 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줌
202137	귀잠	지픈줌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줌송
202140	잠귀	줌귀
202141	잠꾸러기	줌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허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틀국지
202146	재채기	헛쟁이
202147	개치네췌	췌나
202148	방귀	똥냄새

202149	방귀뀌다	동뀌다
202150	방귀장이	방귀잘뀌여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그끈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죽은마누라
202157	학질	꽃허염찌, 날거리/들거리/사흘거리
202158	천연두	큰마누라
202159	곰보	곰보, 엽배기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도리버즘
202163	두부백선	백선
202164	웃	칠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므른버즘
202167	진버짐	버즘
202168	주근깨	프리춤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늦싸움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허다
202174	굳은살	켁이
202175	부스럼	부스럼, 허물
202176	종기	종기
202177	습종	십종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복살암찌
202180	다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물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새슬물엄찌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배집
202187	얇다[痛]	아프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 땀띠기
202190	소경	(눈)봉스
202191	청맹과니	눈튼봉스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베기, 애꾸
202194	사팔뜨기	스팔뜨기
202195	다래끼	개씹
202195-1		개씹
202195-2		들윳
202196	언챙이	청보, 열챙이
202197	외언챙이	웨얼챙이
202198	쌍언챙이	쌍얼챙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
202201	병어리	볼래기, 병어리
202202	말더듬이	*
202203	혀짤배기	세짤래기
202204	입비뚫이	입트래기
202205	구안괘사	와사풍
202206	가납사니	말재재
202207	곰배팔이	폴빙신
202208	곰사등이	등곰새
202209	절뚝발이	절름발이
202210	얏은뱅이	얏인뱅이
202211	문둥이	용달이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바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버님, 하르방



- 203006 할머니 할망, 할멈  
 203007 남편 서방, 남편, 집사름, 관권  
 203008 아내 집사름, 애기어멍  
 203009 부부 내웨, 부부  
 203010 싫다[厭] 실러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갯아덜
203012-8	넷째아들	족은말갯
203012-9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 203013 친아들 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딸즈식  
 203016 친딸 딸  
 203017 의붓딸 다심צל, 돌아온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애딸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애딸  
 203025 어이아들 모즈간  
 203026 맏이 맏즈식, 문저난거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형님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 성님, 언니
203032	아우	아시, 동생
203033	외아들	웨아덜
203034	외딸	웨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골루기(남녀)
203036	다르다[異]	틀리다
203037	같다[如]	같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자가 되는 것	양제가다
203038-2	양자를 데려오는 것	양제들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혼스, 잔치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진
203045	권당	권당, 켄당
203045-1	덥덜	사촌 안에 드는 친족
203045-2	방상	종친. 방상
203046	얹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머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버지
203050	시아머니	씨어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명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뻘,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뻘,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동네어른)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주버님
203057	아주머니	아주머님,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어른,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과작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롱팔십
203063	빙추기	빙쭈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203065	손자	손지, 성손지
203066	손녀	딸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성펜답다
203070	외탁	웨탁, 웨펜답다
203071	내척	성펜켄당
203072	외척	웨펜켄당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오라방각시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생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생모,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계부, 빌은아방,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계모, 다심어멍
203095	웁딸	*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남, 뜯사름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ㄴ음
204002	꿇다	꿇다
204003	명주	멩지
204004	명주실	멩지썰, 누에썰
204005	명주옷	멩지옷
204006	줄다[縮]	줄아들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썰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엿새무명	*
204011	생목	짓캣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메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베치마
204016	숨	소게, 숨
204017	풀숨	설멩지
204018	숨틀	소게틀
204019	숨틀집	소게탐는집, 숨탐는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드레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낭썸, 뽕낭잎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드룻뽕낭, 들뽕낭
204029	오디	뽕, 뽕낭으름
204030	다듬잇돌	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마개
204032	펴다	펼우다, 손보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개꿈
204035	물거품	물개꿈
204036	빨랫돌	빨래광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개, 물마개
204038	빨랫바구니	구덕, 질구덕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빨랫줄
204041	마르다[乾]	물르다
204042	바지랑대	서답작대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래다
204046	헹겅	헹벅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쫓까리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메깍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옷곰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섶	옷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막작단추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스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후루메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쟁이, 속곳
204069	토시	토시
204070	누더기	뚜데기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뿔쟁이
204073	잠방이	잠뱅이, 즈른중의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릿곰
204075	주머니	주맹기
204076	호주머니	계화, 보곰지
204077	넣다[入]	질르다, 넣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발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솜옷	소게옷
204086	얹다	얹다, 암암훑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잇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
204093	사이	사이, 틈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보부레기
204097	홀청	홀청, 이불잇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잇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재우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요광석
204104	앉다[座]	앉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머리맡
204108	베갯모	베갯모메기
204109	몽침	낭베개, 몽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밀짚모자	밀낭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망
204116	짚신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불각신
204118	탄총박이	각신
204119	미투리	미투리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창신, 가죽신
204123	부르르다	북물다, 붕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태왁
204126	문수	치, 몽(일본어)
204127	부채	선재, 부채
204128	미선	미선
204129	부치다[扇]	푸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상지,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물르다
204133	골무	골미
204134	실	쉴
204135	실꾸리	컬레(흔 컬레)
204136	실패	쉴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질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질르는 거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집다	줍다
204143	실밥	쉴밥
204144	집다	줍다
204145	곱치다	곱치다, 줍다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즈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워
204149	다리다[廢]	다리다
204150	인두	운디
204151	인두판	운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르뜨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칼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앞는 앞을깨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베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 5. 음식

###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황, 쌀망데기
205004	담다[入]	담다, 비우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퀘다
205007	빼다[渴水]	좃다, 물좃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팍밥	팍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선밥, 고두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이
205016	눌은밥	승농(물)
205017	더운밥	득신밥
205018	식은밥(찬밥)	실려운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괘밥	괘밥
205019-2	괘래밥	괘래밥
205020	밥보	밥푸대
205021	밥술	숟가락, 밥숟가락
205022	밥알	밥티, 밥방울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일르다
205026	공밥	*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송늑	송늑(물)
205029	화독내	밥카는대, 칸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늑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춧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때걸르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김치
205050	배추김치	배추김치, 늑물김치
205051	무김치	늑뻘김치

205052	열무김치	춌늑물집치
205053	물김치	물집치
205054	나박김치	물집치
205055	갓김치	갓늑물집치
205056	파김치	괘마농집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똥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곰
205064	소금버캐	소곰
205065	소금장수	소곰장시, 소곰바치
205066	간	곤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곤 하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늑뻘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반찬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손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바둑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승키, 풀입새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웨, 춌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만물	초물
205088	깎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절귀
205090	원두막	막, 웻막
205091	깻잎	유,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푼고추	푸린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ㄱ를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자돔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알게미젓
205106	짜다[鹽]	츄다
205107	초(식초)	취

###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설귀, 백설귀
205110	부스러기	작시레기
205111	송편	생편, 곤떡
205112	소[떡소]	수매, 술매
205113	고물	징, 수매징
205114	도래떡	돌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
205117	가루	ㄱ를
205118	국수	국쉬
205119	칼국수	칼국쉬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푼다[淡]	얹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베기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주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술춘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고래, 술푸대, 술광절다리
205140	술독	술독, 술황, 술허벅
205141	술심부름	술심부름
205142	술장사	*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으싸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누리미
205148	누름적	누리미
205149	산적	적

####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잉걸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지비차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눗다, 야프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실떡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경, 불치
205163	모으다[集]	메우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붓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죽은돛
205168	무쇠솔	무쇠숫, 가매
205169	끓다[沸]	끓이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알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검-]
205176	부삽	불살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정짚방석
205182	성냥	화곽, 불곽
205183	성냥개비	화곽살
205184	성냥갑	화곽
205185	부시	부쇄
205186	부싷돌	부들
205187	부싷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쇄줍지, 부쇄주멩기
205189	부시통	불쩍통
205190	등잔	각깃불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롱	등피
205193	남포등	등피
205194	접깃불	지름불, 쯤시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거명허다
205198	숯가마	숯가메
205199	뜨숯	불끈숯
205200	숯검정	숯검탱이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칸내, 카는내
205203	불태우다	불케우다
205204	불티	불깨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끼우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붕덕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손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집게
205215	다리쇠	시발쇄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황, 물항아리
205217-1		춤
205217-2		춤받는항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골초
205221	담뱃대	통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부리[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통설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털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눗그릇, 유기그릇
205233	사발	사발, 통사발
205234	뚜껍	개지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막돌늦쟁이접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즈뿔
205243	수저통	수저통, 젓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그릇씻다
205245	구경물	곳인물
205246	도시락	밥당석, 동그렁
205247	주전자	주젠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물박세기
205250	박	죽박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죽박세기
205253	쪽박	죽박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쓸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고망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시룻장
205262	함지박	남박
205263	바구니	바구리, 구덕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조릿대
205270	굳은대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어린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승키칼, 정지칼
205278	빼다[拔]	뽑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굴다
205281	숫돌	쌀돌
205282	날카롭다	늑실다
205283	행주	상베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술
205288	수세미	수세, 수세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떡판	떡판
205291	떡개	떡밀이
205292	소줏고리	고수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수리주둥이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간데기(일)
205295	삼발이	시발췌
205296	달이다	딸리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초가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새집
206008	흙집	*
206009	돌집	돌칩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외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먼문간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황, 장망데기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황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마귀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물마귀
206025	변소	통시, 칩간
206026	부춘돌	디들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인끄적
206028	맞서다[拮]	마주보다
206029	냄새	냄새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늘
206035	보릿가리	보릿늘
206036	짚가리	짚늘
206036-1	출늘	출늘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늘다
206039	사닥다리	드리판
206040	이영	느래미,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으끄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잇돌, 이힛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상방
206047	마루문	*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루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지기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아랫목
206058	천장	천아반
206059	닿다[觸]	걸리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족은구들
206062	방문	지계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훤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비알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챗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곱지다
206081	안뒤결	집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집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거왕대
206087	처마	집가재
206088	처맛기슭	집가재
206089	낙숫물	지실물
206090	덧돌	잇돌
206091	흙	흑, 흑
206092	진흙	진흑
206093	찰흙	촌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흑질흑
206096	흙길	개벽
206097	이기다[沓]	뀌다, 이기다
206098	산자(撒子)	*
206099	기둥	지둥, 지둥
206100	상기둥	פות지둥
206101	뒷기둥	뒷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가신새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튀기
206111	인방	하장
206112	문설주	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문곶도리[문꼐도리]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입쟁이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문흙
206118	문지방	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증그다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밀물
206127	여닫이	여닫이
206128	살문	쌀문, 쌀창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돌처귀
206133	암틀쩌귀	암돌처귀
206134	수틀쩌귀	수틀처귀
206135	문고리	문곶히, 문곶취
206136	배목	*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을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합

###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대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구, 자귀
206149-1		건자귀(큰자귀)
-2		손자귀(작은 자귀)
206150	옥자귀	굽은자귀, 굽병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못빼기, 빠루(일)
206155	끝	끝
206155-1		돌끝
206156	망치	마깨, 망치
206157	방망이	마깨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홈갈이
206159-1		젯미리(각파는대패)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우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먹줄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췌손, 흑손
206167	쇠흙손	췌손
206168	나무흙손	낭손, 나무손
206169	흙받기	흑판

206170 들물레 \*  
 206171-1 뒤치기, 휘룽이, 호룽이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어엎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들랭이, 도로쟁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쟁기, 잠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긱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몽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애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애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애
207008-5	쭈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세역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애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들벧이뿔
207008-9	‘뚝’	쭈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뚝

207008-10 벧칼  
 207008-11 벧받침

207009 옥보다 수고허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밭명에
207014	밭두둑	두둑
207015	밭고랑	밭고랑
207016	밭이랑	고지, 밭고지, 밭이렁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쟁기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밭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밭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밭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괭이	삽괭이
207022	곡괭이	못괭이
207023	과다[堀]	과다
207024	쇠스랑	쉐시렁
207025	삽	삽,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꼬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웃씨(?)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망텅이
207034	꿈계	끄슬퀴, 푸지게
207035	남태	남테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세불검질, 식불검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집의 가게, 밧디 글라, 글라 가게.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사대노래, 사대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기다
207047	품삿	품
207048	비짜다	비짜다, 썰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눔, 수눔음
207051	삼태기	굴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뽀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뺨기	미
207055	새끼	스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끈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베	
207061	짐바	짐페
207062	질빵	질빵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오랑(?)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고들개
207066-9	배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개
207067-2	봇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한줄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퀘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겏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겏발
207068-2	지겏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뺨어 나간 가지	지겏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게)세
207068-4	지겏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등퀘
207068-5	지게꼬리 (밀뻬)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무끄는끈?
207068-6	지겏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자 게 막대기, 지게 작쉬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발채 바지게

207071	물지게	물지게[물찌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가상
207076	벼훑이	*
207077	그네	홀테, 보리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마장질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선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젓먹은 기운,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틀레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꿀	출
207088	꿀밭	출왓, 출밭
207089	꿀꾼	늪
207090	꿀단	출못
207091	신다[載]	시끄다, 실르다
207092	마차	마차, 구루마
207093	복두	용돛베
207094	명석	명석, 덕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멍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림질허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풍기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작
207112	되	뒹
207113	관되	관뒹
207114	사삿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말, 귀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골르다
207118	고무래	설레
207119	불당그래	굴그네, 굴근에
207120	떡둥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멍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식	곡석, 곡식
207124	흩다[散]	긋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ㄱ실허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노뉴에기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
207132	누리다[黃]	노리롱허다, 누렁허다
207133	밟다	뽳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ㄴ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쌀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것보리, 과맥
207138	쌀보리	솔보리, 나맥
207139	맥주보리	줄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릿낭, 보리짚, 보릿대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츄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슈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부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남, 조깅, 조칩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곤쌀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맷돌	ㄴ레, 돌크레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레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우착고망, ㄴ레씹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죇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렛츄룩

207165	맷방석	ㄴ렛방석
207166	매함지	도고리
207167	풀맷돌	정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썰기	세역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돌혹
207173	방앗간	기계방
207174	븨비다	븨비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방에, 물뱅이
207178	방앗돌	맷돌
207179	연자맷간	물뱅잇간
207180	절구	도고방에
207181	절긋공이	방엿귀
207182	빻다	빻다
207183	눠	니
207184	고르다[擇]	골르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주름콩
207190	콩깍지	콩꼬질, 콩깍지

207191	콩짚	콩낭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빗물
207195	뜨겁다	지겁다, 데여불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주시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폓
207202	팔알	폓방울
207203	팔밥	폓밥, 폓순매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츨뻬, 껬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츨지름
207208	깻묵	꺄떡
207209	고소하다	쿠시다
207210	메밀	믄밀, 믄물
207211	메밀밭	믄물꺄
207212	나깨	느꺄이
207213	메밀꺄질	믄물체
207214	메밀국수	믄물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믄물츨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믄물칼국수
207217	메밀떡	믄물떡
207218	메밀묵	믄물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뺏데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뺏리

207225-3	마늘중	마농쫐, (열매: 마농명덕)
207226	마늘장아찌	콍대산이지시, 마농지시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과밀동	*
207228	무	눔삐
207229	무청	춤물썸,눔삐썸
207230	시래기	스래기
207231	장다리무	씨눔삐
207232	열무	춤물
207233	배추	눔물, 베치
207234	고갱이(배추) 쪽	
207235	나물	눔물, 승키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치지래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깎
207240	옥수수	대죽부부기
207240-1	옥수수	대죽부루기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썰대죽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냥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즘네, 즈예
207247	물길	물길
207248	물웃	속곳
207249	물안경[水鏡]	물안경, 물눈
207249-1		큰눈
207249-2		족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뜯채	족바지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돛단배, 초석배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초석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노,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쭯	*
207274	닷	닷
207275	닷가지	*
207276	닷줄	닷줄
207277	닷돌	닷돌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테우

##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믄실
207288	고을[村]	골
207289	누리[世]	식상
207290	윗마을	웃믄실
207291	옮다[移]	웨이다, 옮다
207292	아랫마을	*
207293	마을가다	믄실가다
207294	밤마을	밤믄실
207295	가게	가게, 상점, 점방
207296	구멍가게	고망가게
207297	다녀오다	뎡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주리
207305	받다[受]	받아
207306	나머지	나머지, 주리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대장간, 칠장방, 물밧간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손불미
207315	모루	모릿돌
207316	모루채	췌마께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맹긴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못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꾼, 총바치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꿩잡이	사농바치, 꿩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분지허다
207331	갖다[持]	가지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셋
208001-4	(4)	넷,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덟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은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뉘	흔 말
208005-2	(2/두)	두 뉘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뉘	식 말
208005-4	(4/너, 녀)	녀 뉘	니 말
208005-5	(5/닷)	닷 뉘	닷 말
208005-6	(6/엿)	웃 뉘	웃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개	흔두 뉘	흔두 말
208006-2	(2-3/두세)	두세 개	두세 뉘	두세 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 개	두서너 뉘	두서너 말
208006-4	(3-4/서너)	서너 개	서너 뉘	서너 말
208006-5	(4-5/네댓)	너댓 개	너댓 뉘	너댓 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 개	대으섯 뉘	대으섯 말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 개	예실곱 뉘	예실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덟 개	일고으덟 뉘	일고으덟 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덟아홉 개	으더아홉 뉘	으더아홉 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 208009 뽕 (흔) 뽕, 뽕
- 208010 집게뽕 (흔) 조리
- 208011 밭[單位] (흔) 밭
- 208012 밟다 밟다
- 208013 필(무명/명주) 필, 빌
- 208014-1 \*

208014-1	무명	*
208014-2	명주	*
208014-3	광목	*
208014-4	베	*

- 208015 마지기(평) 150평
- 208015-1 (보리씨 한 말)150평
- 208016 못 못
- 208017 묶다[束] 무끄다
-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 208019 동 단, 들레
- 208019-1 (솔가리 묶음) 보달
- 208020 조짐 들레
- 208021 바리(종류) 바리
- 208021 \*

208021-1	보리	30못
208021-2	조(이삭 있음)	12못
208021-3	콩	12못(콩꼬질)
208021-4	밭벼	14~15못
208021-5	꿀	40못/흔바리흔 착 60못
208021-6	띠	8못(날것)
208021-7	각단	10못
208021-8	어욱	8못(날것) 20못(마른거)

208022	모금	모금, 직
208023	섬	섬
208023-1		열닷 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머리
208028-1	두[頭](소)	바리
208028-2	(말)	바리
208029	축	*
208030	궤미	궤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거리, 채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컬레(신)	컬레, 베
208035	바퀴(운동장)	굽
208036	뭇	뭇
208037	죽	죽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자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 베다, 들어사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디적삼, 봇디저고리
209005	배넛머리	뱃속머리, 배안에머리
209006	돌	첫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매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계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계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槩]	뿌러지다, 꺼꺼지다
209019	이바지	이버지
209020	부조	부취, 부지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맞사돈
209022	겹사돈	부찌사돈
209023	상갓집	초상난집, 영장집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복옷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복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아버지상)	왕대
209031-2	(어머니상)	머구냥
209032	짚동	짚덩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하다, 고렘가다
209035	뒋자리	멧자리
209036	지관	지관, 풍수, 정시
209037	패철	췌, 패철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틀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상여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호충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토역
209053	마치다[終]	므치다
209054	벌초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제, 제월전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집
209059	편틀	펜데
209060	퇴물	퇴물
209061	메	멧밥
209062	갱(羹)	갱국
209063	제육	제찬
209064	제편	설귀떡, 시리떡
209065	인절미	*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지름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놓다, 반테우다
209070	몫	직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맹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구



209080	팽과리	꿩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뜰
209085	추석	팔월맹질

##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철가리, 멩감, 토신제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칩
210008	명두	멩도칼
210009	추다[躡]	추다, 들럭퀴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지전
210011	사르다[燒]	소지 올리다, 지전슬다
210012	살(煞)	살, 쌀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헛거
210017	어둑서니	기신대
210018	무섭다	므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겹재
210020	고사(告祀)	크스, 크시
210021	고수레	크스, 크시
210022	포제	이사제, 포제

## 11. 자연

###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검질, 푸습새
211003	망화(放火)	망애
211004	불다[點火]	망애부치다
211005	내[川]	내창, 내
211006	넷가	넷바위
211007	물가	구룽바위
211008	따르다[從]	둘러보다
211009	건너다[渡]	넘다
211010	낭떠러지	*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자왈
211014-1	가시덤불	가시자왈
211015	돌무더기	머들
211016	갈림길	거림질
211017	묻다[問]	듣다
211018	비탈길	동산질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구렁질
211021	오르막길	동산질
211022	길가	질에염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곰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산슭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느룻
211030	상고대	서리
211031	구렁	굴렁
211032	고랑창	고랑창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씨러지다
211036	천상수	구릉
211037	숲	고지, 곳
211038	성(城)	жат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갯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하늬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물갯, 개갯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대노
211056	곰뉘	놀
211057	물결	절
211058	잔물결	절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9일, 24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0일, 25일
211059-3	서무날	서물	11일, 26일
211059-4	너무날	너물	12일, 27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일, 28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4일, 29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5일, 30일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16일, 1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7일, 2일
211059-10	열무날	열물	18일, 3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19일, 4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0일, 5일
211059-13	(열서무날)	조금	21일, 6일
211059-14	아끈쨌기	초조금	22일, 7일
211059-15	한조금	한조금	23일, 8일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싼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넬, 내일, 닐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녁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그저께
211075	새벽[曉]	새백(이)
211076	꼭두새벽	암새백, 동새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아적(이)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거리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암팜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퍼렁허다
211090	별	빌
211091	은하수	은하수, 미리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싱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구믐들[뜰]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황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ㄹ을
211104	겨울	겨울, 저실
211105	입춘	입춘, 셋절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초하루, 흘
211110-2	이틀	초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초사흘, 사흘
211110-4	나흘	초나흘, 나흘
211110-5	닷새	초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초엿새, 엿새
211110-7	이레	초일뤼, 일뤼
211110-8	여드레	초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초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을
211112	너댓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웃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초하루보름/삭망
211116	저물다	어둡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달
211119	선달	선들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새해, 멩년
211122	내후년	우멩년
211123	작년	작년, 묵은해
211124	재작년	재작년

### 날씨

211125	별	벳
211126	별살	벳살[베쌀]
211127	따스하다	드시다
211128	땡별	즈작벳
211129	가을별	ㄹ실벳
211130	양지받이	벳바른디, 해남석, 양지바른 곳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대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우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알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브름바른디, 브름코지
211140	바람살	브름살[쌀]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이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브름
211144	서풍	하늬브름
211145	북풍	*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튼튼하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비, 마
211149-1	봄장마	봄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실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비, 벧 나명 비얹찌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실
211155	시원하다	씨원하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뭇	ㄱ뭇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으납
211162	번개	번개, 편개[편께]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대오방수천리,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힘벽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싸락눈 스락눈(잔것), 방울눈(큰것)
211170	도둑눈	아이몰튼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허영허다, 하얗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즈긱디
211185	옆	옴
211186	위	우의
211187	아래	알, 아래
211188	밝다[明]	븨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웬착
211191	오른쪽	늑단착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느리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껏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사리
211198	가[邊]	긱디, 가셈이
211199	가장자리	긱디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짜허다, 곧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부룽이  
 212005 칩소 식췌  
 212006 불까다 불까다, 중성기(불간소)  
 212007 불알 봉알, 불알  
 212008 황소 밧갈췌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망울, 췌망울  
 212011 쇠고삐 석  
 212012 끌다 등기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맴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승	금승말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말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사수
212015-5	다듭(5)	다듭	오수
212015-6	여듭(6)	으듭	육수
212015-7	이릅(7)	일고	칠수
212015-8	여듭(8)	으듭	팔수
212015-9	아듭/구릅(9)	아흡	구수
212015-10	열룻/담불(10)	열	십수

212016 작두 잘두  
 212017 쇠죽 췌죽, 으물(풀 끓인 것)  
 212018 구유 구시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떡)가라
212026	청충마/충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	
212028	얼룩말	*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고부랭이, 화등이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우마, 므쉬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씨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롱이 비리-사람
212048	비루먹다	도롱이 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쟁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터구니
212058	산떡	산뻬
212059	닭의어리	대서랭이
212060	닭장	득장/득망
212061	달갈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돛
212066	수돼지	수돛
212067	암돼지	암돛
212068	추렴하다	추렴ㅎ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
212072	생등이	서툼바치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돛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고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시랭이
212081-1	둘암소	지시랭이
212081-2	둘암말	지시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시랭이
212081-4	둘암개	지시랭이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푼리

212086	쉬	쉬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구더기, 웬장버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기
212096	장구벌레	장굴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蠹]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지렁이
212102	회충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멸
212104	바구미	남췌
212105	콩바구미	바구미
212106	곰뽕이	곰뽕이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쟁이
212108	그리마	구리에기, 구레기
212109	쥐며느리	쥐며느리
212110	노래기	구레기, 구데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 일다
212114	하루살이	하루살이, 눈에눈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뽕이, 옷입은들뽕이
212117	민달팽이	옷벗은들뽕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개염지
212120	왕개미	왕개염지
212121	불개미	불개미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산디말축
212124	여치	물말축
212125	사마귀[螳螂]	극주에기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떠러췌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췌똥버랭이/물똥버랭이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하늘췌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놀다
212138	사슴벌레	뽕낭췌
212139	잠자리	밥주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즙자리
212141	장수잠자리	한자퍼리, 한대부리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재열뿔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깍깍재열
212145-1		곶재열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물고래
212148	반딧불이	불한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칭벌
212151	꿀	칭, 꿀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왕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소나 말), 서미역(사람)
212155-1	(진드기새끼)	

212155-2 (늪은것)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송충버랭이
212157 개구리	글개비
212158 올챙이	메주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은살피, 베염홀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용띠
212163 도마뱀	장쿨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 들집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튀께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곱다	곱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중이질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드람쥐
212176 오소리	오로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달이가죽
212179 멧돼지	산툃
212180 원숭이	원생이
212181 원숭이띠	즌나비띠, 즌나비헤치, 납헤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범헤치
212184 꼬리	꼴리, 꼴랭이

###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꽁지	짓
212187	깃[羽]	짓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새가슴
212190	참새	밥주리, 밥주리새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집의생이, 지비생이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수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옥밤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세기
212206	꺼병이	꿩빙에기
212207	두루미	논뚜럼
212208	기러기	그레기
212209	갈매기	곰새

### 바다 동물

212210	고둥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둥	코트데기
212211-1		눈트데기
212212	명주고둥	*
212213	눈알고둥	돌포말
212214	밤고둥	떡보말
212215	팽이고둥	수두리
212216	각시고둥	*
212217	두드럭고둥	메옹이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동	*
212220	대룡빨고동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쟁베름
212223	거북손	대오살이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구벳
212225-1	종류	췌군벳, 하래비군벳(털돋은 디 물렁저)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종류	민둥구쟁기, 쌀구쟁기, 조구쟁기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암컷	옴수룩허다
212228-2	수컷	베짱허다
212229	전복갑	거평
212230	오분자기	오분자기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돌킹이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츄깁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눔으집살이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밥게
212241	말미잘	물문주어리
212242	성게	퀴
212243	말뚱성게	습
212244	군소	물토새기
212245	새우	새위
212246	불가사리	*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가마기뭉게
212248	해파리	*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뭉게



212251	서대	서대
212252	해삼	미, 해슴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래기, 바룻래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어둑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베따다	베블르다, 베타다
212261	생선(生鮮)	늘생성
212262	미끼	니킴
212263	갯지렁이	물주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
212267	낙싯줄	정술
212268	붕돌	뽕돌[뽕똥]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알게미, 아가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춤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멜갈치[멜갈치]
212279	베도라치	보들락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아여리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썰어렁이
212287	옥돔	오통, 생선, 옥도미, 춤돔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벙에돔	*
212292	황돔	*
212293	자리돔	자돔, 자리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
212303	쥐치	괘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따치
212308	방어	방에
212309	재방어	멍치
212310	상어	상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도랭이, 준다니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 13. 식물

#### 풀

213001	가라지	ㄹ라조, ㄹ라지
213002	갈대	*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풀	미삐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심
213006	띠[茅]	새-긴것, 각단-짧은 것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뺑이
213010	사초	상고지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물ㄹ작쿨, 우실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밋붉은제완지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소세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괴생개, 고냉이밥
213023	원추리	ㄹ시락쿨
213024	메꽃	메마, 메마꽃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름
213029	참비름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비단풀, ㄹ롬쿨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평밥
213033	여우구슬	메누리감낭 ?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쿨
213040	냉이	난시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릇, 물릇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오나리(고장)
213045	영경귀	스랭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글리역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쿨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박주가리
213053	짜리	불치귀, 들불치귀
213054	땅짜리	푸께, 불치귀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가메기바늘
213057	도꼬마리	개버물레기
213058	모시풀	모싯냥
213059	왕모시풀	진
213060	천남성	천남성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복계기
213064	차풀	차골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돌오줌냥, 개삼동
213067	하늘타리	두레기, 원대자쿨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9	부처손	부체순이
213070	방가지똥	토끼풀
213071	닭의장풀	고낭귀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취, 꼭
213074	취덩굴	꼭줄
213075	취뿌리	칙불취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기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인동
213085	멀꿀	멍줄
213086	천문동	천문동
213087	계요등	떡정당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생계, 대왕(큰것)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근자리풀
213093	땀싸리	땀싸리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늑물
213096	달래	평마농
213097	씀바귀	썌부루, 토끼풀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마삭쿨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구리대, 백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인문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웨
213110	파초	반초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글게비밥
213114	줄	*
213115	마름	물망쉬
213116	싱경이	늦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지,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고롬쿨, 썬부루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꽃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체비꽃
213127	맨드라미	독고달꽃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물싸움고장, 습쿨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
213144	가지	가지, 즈가지
213145	잎	쩍, 이파리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허다, ㅎ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소남
213150	솔잎	솔입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진을커
213154	마디다	막디다↔허피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213161	멀구슬나무	먹쿠슬
213162	버드나무	버드남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까시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음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흑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베염부기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굴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
213183	유자나무	유지(북당우지, 쓸당우지)
213184	비자나무	비저낭
213185	치자나무	치지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례기낭
213189	배롱나무	배롱낭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개칠낭
213192	팥팥나무	깨팥낭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물마깨낭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돈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깨팥낭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벌레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월루레비낭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좀머귀나무	논독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복닥낭[복땅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름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썰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굴피
213230	후박나무	후박낭
213231	풍개나무	검폭낭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치남
213235	상수리나무	치남
213236	참나무	참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췌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사철낭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모람
213243	누리장나무	개남
213244	아왜나무	애낭
213245	순비기나무	숨부기낭
213246	붉나무	복낭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실
213250	껍질	겉죽
213251	깎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베염탈, 게염지탈
213255	명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산탈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개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가마귀멀뤼
213266	산머루	곶멀리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러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께볼레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
213279	밀감	굴, 줄
213280	밀감나무	줄낭, 굴낭
213281	탱자	개탕주
213282	탱자나무	개탕주낭
213283	감	감(곶감, ᄇ레감, 쉼불감)
213284	뽕다[柿]	쫓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
213287	풋감	푸린감
213288	청미래덩굴	멥게낭
213289	멥감	멥게, 멥감
213290	찔레나무	새비낭
213291	영실	새비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배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속껍질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대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세
213311	김	짐
213312	파래	포래
213313	툇	틀
213314	패	페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
213317	다시마	*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칭각	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213325	진두밭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